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역사편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역사편

Contents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역사편

- 010 발간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 014 한 눈에 보는 한국연구재단 40년
- 018 숫자로 보는 한국연구재단
- 022 한국연구재단 40주년 기념식 화보

- PART 1. 한국연구재단, 지난 40년의 발자취**

- 1장 연구지원의 등불을 켜다(1977~1988)
- 1절 대한민국 연구지원의 첫 걸음
 - 1.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
- 033 1970년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
- 034 첨단기술 중심의 특정연구개발 시작
- 2. 학술연구지원의 필요성 급부상하다
- 035 학술진흥의 기반이 된 학술연구조성비

- 2절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시작
 - 1. 한국과학재단 출범
- 036 기초과학 전문 지원기관 필요성 대두
- 038 한국과학재단법 제정과 재단의 출범
- 040 공정한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제도 확립
- 041 연구기금의 빠른 확대
- 041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 2. 다양한 기초연구 지원사업 틀을 잡다
- 042 1978년 첫 기초연구 지원사업 시작
- 043 특정목적 중심으로 지원사업 획기적 전환
- 046 과학기술 학술활동 집중 지원

- 3절 학술연구진흥 지원사업의 시작
 - 1. 한국학술진흥재단 출범
- 048 종합적·전문적 학술진흥 지원기관 필요성 대두

- 049 한국학술진흥재단법 제정과 재단의 출범
- 053 학술정보 수집과 서비스
- 054 체계적 심사·평가체계 수립으로 학술 분위기 조성
- 2. 학술연구지원 토대를 마련하다
- 054 1983년 첫 학술연구 지원사업 시작
- 056 인문학 등 학문 전 분야로 지원사업 확대

- 4절 인력양성·국제협력
 - 1.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하다
- 058 해외 파견 프로그램 강화
- 061 세계 주요 과학재단과 협력루트 구축
- 062 한국국제학술교류협회와 통합
- 2. 해외한국학 지원으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다
- 064 해외한국학 지원으로 한국의 위상 강화
- 065 다양한 형태의 해외한국학 지원

- 2장 연구자의 우산이 되다(1989~1999)
- 1절 연구환경의 변화
- 067 1. 기초과학기술 위상 높아지다
- 070 2. 학술진흥체제 혁신의 바람이 불다

- 2절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발전
 - 1. 기초연구 지원의 틀을 확립하다
- 072 1990년대 기초연구지원의 흐름
- 2. 지원의 규모·범주를 크게 확장하다
- 074 우수연구센터(SRC·ERC), 대규모 집단연구 최초 도입하다
- 076 특성화장려사업, 대학 연구인프라 지원하다
- 078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산업 육성하다
- 079 산학협력 지원사업 확대
- 081 한국과학재단 청사 건립
- 081 대덕연구단지 생활환경 개선

- 3절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발전
 - 1.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다
- 084 신진교수와 지방대·전문대 교수로 지원대상 확대
- 085 학문후속세대로 지원 확대
- 086 대학부설연구소 중심의 공동연구체제 확립
- 088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 강화
- 089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재조정
- 090 학술진흥 정책연구 지원
- 2. 학술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다
- 091 비대학소속연구자에 문호 개방
- 092 인문사회 중점연구 지원 시작
- 093 소외분야 다양한 지원사업 신설
- 3.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다
- 094 제2국제회관 신축과 신청사 이전

- 4절 인력양성·국제협력
 - 1. 연구인력 양성사업 다양화·전문화 시대 맞이하다
- 096 과학영재 육성 본격화
- 098 우수 해외인력 유치하는 브레인풀제도
- 099 해외한국학 지원 큰 폭 조정
- 100 한국어능력시험제도 시행으로 한국어보급 확대
- 2. 한국장학회와의 통합으로 사업규모 확대하다
- 101 한국장학회와 통합
- 101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 3.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다
- 103 국제교류협력사업 다양화
- 104 교육부의 국제협력사업 인수

- 5절 학술활동·연구관리
 - 1.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하다
- 106 학술단체 급증에 발맞춰 학술지원 강화
- 107 연구성과 질적 성장 견인하는 학술지평가 시작

역사편

- 2. 연구관리 패러다임 혁신적으로 전환하다
- 109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적극 권장
- 110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 도입
- 110 연구지원사업 심사·평가, 업적중심으로 전환
- 111 연구지원관리 전산화 빠르게 진행
- 3. 연구정보서비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다
- 113 연구정보 지원사업의 활발한 전개
- 114 첨단학술정보센터 출범
- 3장 선진한국 향해 날개를 펴다(2000~2008)
- 1절 21세기 연구환경의 변화
- 117 1. 21세기 정보화·첨단화 사회 돌입하다
- 118 2. 대학 중심의 학술진흥 강화하다
- 3.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새로운 역할을 맡다
- 120 한국과학재단의 사업 재조정
- 12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 재조정
- 2절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도약
- 1. 대형·원천기술 연구지원으로 사업 확장하다
- 124 특정연구개발사업 새롭게 추진
- 127 원자력 강국을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 2. 지원사업의 세분화·전문화 추진하다
- 129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와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발족
- 130 개인연구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132 세계적인 선도연구자 지원
- 133 창의적 차세대연구자 육성
- 134 소규모 연구집단 육성 강화
- 3절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도약
- 1. 국가발전의 원천인 기초학문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 136 전 분야에 걸친 기초학문 육성

- 2. 대학경쟁력 강화에 몰입하다
- 137 두뇌한국(BK)21사업, 대학 혁신에 불을 붙이다
- 14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지방대학에 활력 불어넣다
- 145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조직 확대
- 147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 148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역량강화 지원
- 3. 인문학 지원, 속도를 내다
- 150 인문학 기초연구의 시작
- 151 인문학 선언과 인문학국(HK)사업
- 4. 연구윤리 뿌리내리다
- 152 정부의 연구윤리정책
- 154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윤리활동 지원
- 4절 인력양성·연구관리·연구정보
- 1. 연구인력 양성사업 새로운 체계 갖추다
- 156 연구인력의 국제화 강화
- 158 장학사업의 재조정
- 160 과학·인문학 융합인재 육성
- 161 우수과학자 포상 다양화
- 163 과학기술진흥단체 지원
- 2. 온라인 연구관리·정보유통 자리잡다
- 164 온라인 연구지원관리시스템 도입
- 166 기초학문 지식저장소인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구축
- 167 학술지인용색인(KCI)으로 연구성과 질적 성장
- 5절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1.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출범하다
- 170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 부각
- 171 동북아시아 R&D허브 선도 기관
- 2. 과학기술국제화 전담기관의 위상 확립하다
- 172 정부의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전담 추진

- 4장 하나된 힘으로 도약하다(2009~2017)
- 1절 한국연구재단 출범
- 175 1. 교육과학기술부 출범과 함께 통합의 바람 불다
- 177 2. 국내 최대의 선진형 연구지원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출범하다
- 3.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다
- 180 비전과 목표 선포
- 182 경영방침(5E)과 5대 전략 발표
- 184 통합 전과 이후 비교
- 2절 기초연구지원 통합·확대
- 1.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연구 집중지원에 나서다
- 186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 부각
- 187 폭넓은 풀뿌리연구 지원
- 190 연구자 개인의 역량 키우는 성장사다리
- 192 목적별·분야별 그룹 기초연구 지원
- 195 기초연구의 탄탄한 기반 구축
- 2.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다
- 198 국가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국책연구
- 201 바이오기술(BT),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다
- 202 나노기술(NT), 세계 2대 나노강국을 실현하다
- 204 에너지·환경기술(ET),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 206 정보컴퓨팅기술(IT),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다
- 206 21세기 기술혁명 주도하는 융합기술
- 209 세계 최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프론티어사업
- 210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3. 거대 공공기술 선도하다
- 211 첨단기술과 국민안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방사선기술
- 213 원자력연구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15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우주기술
- 218 글로벌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융합기술
- 219 기초연구 메카 꿈꾸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역사편

3절 인문학·사회과학 지원

- 1. 사람이 중심 되는 인문사회 부흥시대 열다
- 223 인문연구의 기틀인 개인연구 체계적 지원
- 227 공동·집단연구를 통해 인문사회 발전 견인
- 231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대학의 인문학 수준 끌어올리다
- 2. 인문학, 대중 앞으로 한발 더 다가가다
- 232 인문학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 3. 깨끗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연구윤리 강화하다
- 234 연구윤리 활동지원 강화

4절 재정지원·산학협력

- 1.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다
- 236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 세계수준 대학 양성하다
- 240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별 특장점 극대화하다
- 243 글로벌 석학과 함께하는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사업
- 244 자율성·다양성 강조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2. 학문과 산업의 연계로 연구효율성 극대화하다
- 24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에서 LINC+로
- 248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의 자발적 체질개선 유도하다
- 250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5절 인력양성·국제협력·기금관리

- 1.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하다
- 254 연구인력 국제교류의 활성화
- 256 연구활동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 258 최고 연구인력 키우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 2. 국제협력의 길 탄탄히 다지다
- 261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로 국가위상 높여
- 265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학술역량 강화
- 266 양해각서 기반 협력강화
- 269 권역별 다양한 국제협력 성과

3.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하다

- 270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 271 원자력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원자력연구

6절 기관경영·관리

- 1.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효율적인 기관경영 추진하다
- 273 시기별 기관경영의 변화
- 300 PM제도 정착과 역할 강화
- 304 시기별 예산의 흐름
- 308 정책·기획 분야 강화
- 309 선진 연구관리체계 구축
- 311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 314 청렴한 연구재단을 위한 노력
- 315 출범 40주년, 세계로 도약하는 연구재단
- 2. 연구정보 확산을 위한 고품질 루트를 만들어가다
- 317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의 SCI
- 320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인문사회 분야 학술정보의 보고
- 320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전 학문분야 인력·업적정보서비스
- 321 연구지원통계정보서비스(KRS), 국가 연구지원 통계가 한곳에
- 3. 적극적인 성과확산·활용으로 기술가치 드높이다
- 322 성과마루, 기초·원천 연구성과 한눈에 보다
- 322 기획마루,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다
- 323 지식재산권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

5장 연구재단 40년 성과를 되짚다

1절 한눈에 보는 40년 성과

- 325 1. 지원규모와 연구관리 시스템의 진화
- 326 2. 재단의 지원에 따른 국가 학술발전

2절 주요 지원사업 성과

- 327 1. 주요 R&D사업 성과 총괄
- 330 2.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 성과
- 333 3.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
- 336 4.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 성과
- 5. 교육·인력양성(대학재정지원) 분야 사업성과
- 339 BK21지원사업
- 345 LINC육성사업
- 347 CK사업
- 348 6. 국제협력

6장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로 비상하다(2017~)

- 353 1.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 355 2. 세계 최고의 연구지원 전문기관을 향해 나아가다
- 359 3.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비상하다

PART 2. 한국연구재단 40년사, 현황(부록)

- 362 현 임원 및 사무총장
- 363 이사회 구성
- 364 역대 기관장 현황
- 366 역대 임원 및 사무총장 현황
- 367 한국연구재단 CI 및 40주년 기념 엠블럼
- 370 해외협력기관
- 372 역대 수상자 현황
- 386 한국연구재단법
- 39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 396 한국연구재단 정관
- 408 연표(통합)

한국연구재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그동안 국가발전의 근간인 R&D 지원 제도의 정착과 함께 기초학문 발전과 연구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1977년 3억 5천만 원의 기금과 4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한국연구재단이 40년이 지난 지금 500여 명의 직원과 연간 4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 관리하는 글로벌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 미만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에는 학술과 R&D지원을 선도해온 우리 연구재단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 연구까지 총괄 지원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진국 추격형 R&D지원 전략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도형 R&D 지원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Global NRF, Go to Future”를 캐치프레이즈로 “국가 R&D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지원 글로벌리더”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창의적 기초연구지원 확대, 생애 첫 연구비 지원, 평생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확대, 연구자중심의 맞춤형 연구비 지원, 연구지원 관리 시스템에 인공지능 도입,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영문 연구계획서 제출 등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학술발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발굴 지원하기위한 우리 연구재단의 노력은 쉬지 않고 지속될 것 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꿈과 열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새로운 40년을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지원 전문기관이 되도록 연구재단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40년사”를 발간하여 우리나라 연구지원 사업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조 무 제

理事長 趙武濟



꿈과 열정의 40년

창의적 연구(지원)

재단 법령 및 정관상의 기관 고유 목적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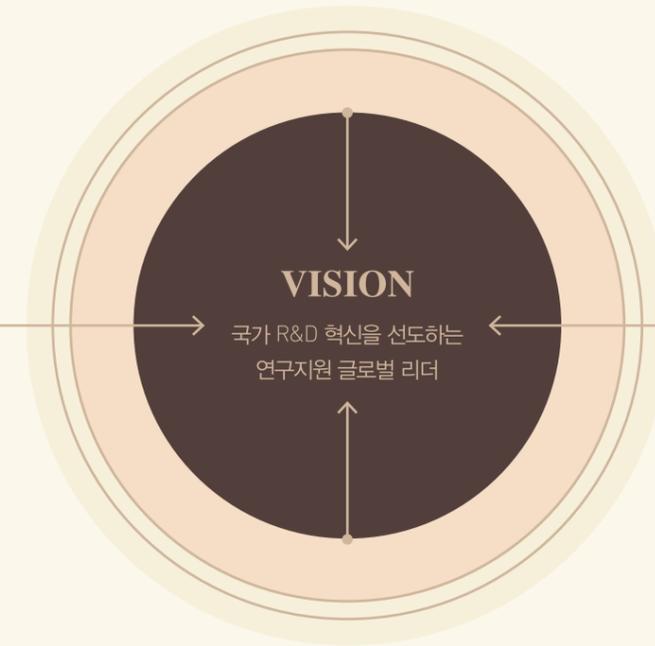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재단 법령 및 정관상의 기관 고유 목적인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미래국가 학술연구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

주요기능 및 역할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

- 01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02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03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04 |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 05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의 연구·운영지원
- 06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
- 07 |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의 대표적 연구지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재단 설립 목적 및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발전상 제시

연구지원체계·시스템 등 연구관리 전 주기에 걸친 글로벌화를 통해 NSF(미), DFG(독) 등을 능가하는 세계적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최고 전문가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각국의 연구지원 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

목표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 | 창의적 인재양성 지원 | 연구성과활용·확산극대화



주요사업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 | 인력양성사업 | 산학협력사업 | 연구기반 구축



핵심가치

새로운 가치창조 New value creation | 연구자 감동 Researcher satisfaction | 공정한 지원 Fairness & Faithfulness



경영방침(5G)

체도의 글로벌화 | 조직의 글로벌화 | 평가의 글로벌화 | 성과의 글로벌화 | 국제협력의 글로벌화

우리나라
연구자원의
모태

1977-1988

1970년대 들어 국가적 과제로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7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학술진흥책의 부재로 발생하는 학문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종합적인 학술진흥책을 마련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자원을 시작합니다.

연구의 성장,
다양한 연구지원
제도의 도입

1989-1999

1989년 기초과학 진흥의 원년이 선포되면서 기초연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초창기에 시작된 개인연구는 이공학연구소(SRC, ERC) 등 집단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술분야 지원은 신진연구자, 박사후연수과정 등으로 다양화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시조인 두뇌한국(BK)21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연구관리전문기(PM) 제도 등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
균형을 이룬
연구진흥

2000-2008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 인문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지원사업, 인문대학중화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이 시행되는 한편, 기초연구 분야 우수연구센터를 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으로 확대하고,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과학과 인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사건 이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노력이 이어졌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한국연구자정보 등은 해외 수출, 데이터 품질인 증 등을 이뤄내면서 연구 인프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4년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국가 R&D
지원의 중추 -
한국연구재단
출범

2009-2017

2009년 6월 26일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의 연구지원시스템으로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흩어져 있던 연구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선진형 연구지원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다양한 학문이 서로 융합하고 발전하는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제1회 세계 인문학 포럼을 개최했고,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플러스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1977

1980

1983

1986

1988

1989

1990

1993

1996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1

2013

2015

2017

한눈에 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재단

- 1977 - 한국과학재단 설립 제1회 최형섭 이사장 취임
-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양해각서 체결
- 1980 - 제2~3대 이정오 이사장 취임
- 1983 - 한국기계연구원 내로 청사 이동
- 1986 - 제4대 김성진 이사장 취임
- 1987 - 제5대 최순달 이사장 취임 제1회 한국과학상 시상
- 1988 - 한국과학재단 청사 착공
-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한국학술진흥재단

- 1979 - 학술진흥법 제정
- 1981 -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 제1~2대 조성욱 이사장 취임
- 1983 - 학술연구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작
- 1984 - 청사 개관,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의 통합
- 제3~4대 박일재 이사장 취임
- 1985 - 독일 훔볼트재단과 양해각서 체결
- 1986 - 독일 연구협회(DFG), 독일학술교류재단(DAAD) 교류협력 체결
- 1987 - 자유공모과제 지원사업 시작

한국과학재단

- 1989 - 제6대 정근오 이사장 취임
- 제1회 학·연·산 연구교류회 개최
- 학·연·산 교류회 시작
- 1990 - 제7대 강종렬 사무총장 취임
- 한국과학재단 청사 완공
- 우수연구센터 지원(SRC, ERC) 지원 시작
- 1991 - 제8대 권원기 사무총장 취임
- 영구문화원과 협력각서 체결
- 중국과학원(CAS), 중국자연과학기금연구회(NSFC)
- 과학기술 협력각서 체결
- 1992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마련
- 1993 - 제9~11대 박진호 사무총장 취임
- 1994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시행
- 1995 - 제1회 한국공학상 시상식 개최
- 1999 - 제12~13대 김정덕 이사장 취임
- 국가지정연구실(NRL) 지원사업 시작
- 연구관리전문기(PM)제도 시작

한국학술진흥재단

- 1989 -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신설
- 1990 -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사업 신설
- 1991 - 국제협력공동연구지원사업 시작
- 1990 - 제5대 정연춘 이사장 취임
- 1992 - 제6대 오덕렬 이사장 취임
- 1993 - 제7대 김상구 이사장 취임
-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급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시행
- 1995 - 제8대 김중운 이사장 취임
- 연구과제 평가에서 SCI 실적 평가
- 1996 -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신설
- 호주연구협의회(ARC)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부설기관 첨단학술정보센터 출범
- 학술지지원사업 시작
- 1997 - 신청사 개관(현 서울청사)
- 1998 - 제9대 박석무 이사장 취임
- 인문사회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시작, 학술지평가 시작
- 1999 - 두뇌한국(BK)21 사업 시작
- 중국사회과학원(CASS) 학술교류 협정 체결
- 한국장학회의 통합
- 1999 - 아리랑 1호 발사 성공
- 합동연구과제 시작

한국과학재단

- 2002 - 기초과학기술연구소(MRC)
- 선도기초과학연구소(ABRL)사업 시작
- 2003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사업 시작
- 2004 - 제14대 권오갑 이사장 취임
-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 2005 - 특성목적 기초연구사업(우주, 원자력 등) 인수
- 2006 -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시작
- 2007 - 제15대 최석식 이사장 취임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1 - 제10대 김성재 이사장 취임
- 일본학술진흥회(JSPS), 프랑스과학연구소(CNRS)
- 학술교류 협정 체결
- 2002 - 제11대 주지문 이사장 취임
- 기초학문연구성적지원사업 시작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작
- 2005 - 제12대 허성만 이사장 취임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구축
- 2007 - 인문학연구(KCI)지원사업 시작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과학기술부 훈령)
- 2008 - 사회과학연구(SSKI)지원사업 시작
- 한국연구자정보(KRI) 서비스 시작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2004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출범
- 제1대 유영수 사무총장 취임
- 2007 - 제2대 엄찬일 이사장 취임

한국연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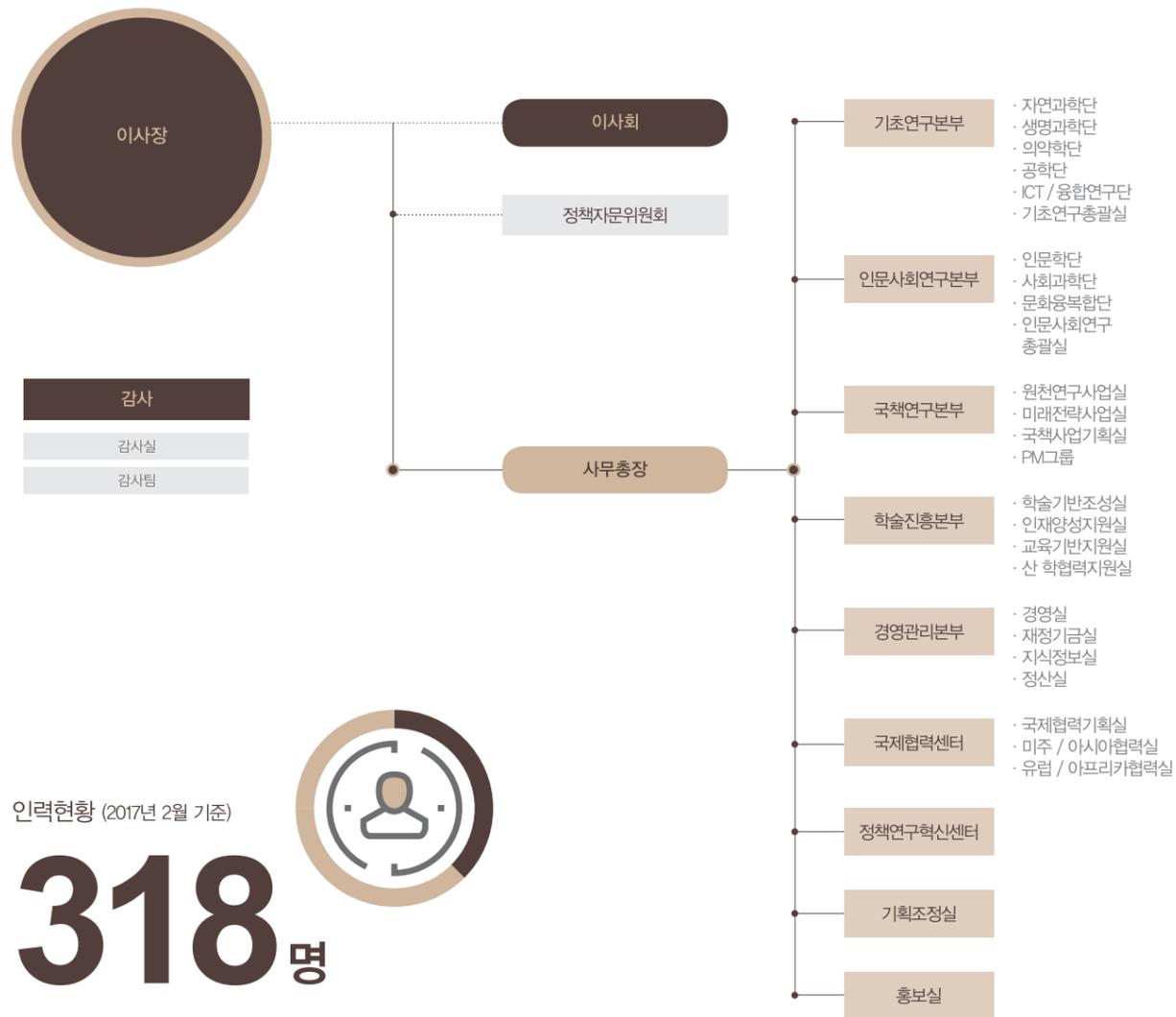
- 2009 - 한국연구재단 출범
- 제1대 박찬모 이사장 취임
- 한국형 연구로(URTR) 오르단 수출
-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시작
-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세계 7번째 기상 위성 보유국)
- 2010 - 제2대 오세정 이사장 취임
-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 개최
- 한국연구자정보(KRI) 데이터 품질 인증
- 2012 - 제3대 이승중 이사장 취임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작
- 노시문화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 2013 - 나로호 발사 성공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
- 디스커버리사업 시작
-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시작
- 2014 - 제4대 정만근 이사장 취임
- 대학특성화사업 시작

- 2015 - 중소기업 원전 SMART 건설전상설계사업(PPF)
- 프로젝트 사무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억불)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교육부, 인사혁신처 선정)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 2016 - 제5대 (현) 조무제 이사장 취임
- 달 탐사 개발 사업 착수
- 2016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
- 기초진흥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선정)
- 대학인문학역량강화(CORE)사업 시작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시작
- 2017 -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시작
-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플러스)사업 시작

숫자로 보는 한국연구재단

직원 현황

조직도 (2017년 2월 기준)
5본부 2센터 8단 19실 42팀



인력현황 (2017년 2월 기준)

3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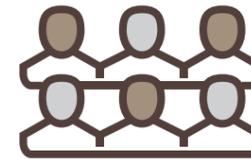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 현황



- **본부장 3**
본부 소관 사업 총괄 및 조정
- **책임전문위원 45**
전문위원 그룹 대표 및 학문단장 업무 지원
- **단장 17**
분야별 사업기획 및 관리 등
- **전문위원 540**
심사자 추천 · 온라인 평가결과 Review 등

	구분	인원	역할
상근 PM	본부장	3	본부 소관 사업 총괄 및 조정
	단장	17	분야별 사업기획 및 관리 등
	소계	20	기획활동 주도
비상근 PM	책임전문위원	45	전문위원 그룹 대표 및 학문단장 업무 지원
	전문위원	540	심사자 추천 · 온라인 평가결과 Review 등
	소계	585	평가활동 주도
	계	605	-



예산 현황

전체 예산 현황 (2017년 2월 기준)

4조 8,017억 원

- 2017년 재단 고유예산 현황 : 545억 원(1.1%)
- 기관운영비(162억 원), 기관고유사업(383억 원)
- 2017년 정부 수탁사업예산 현황 : 4조 7,472억 원(98.9%)
- 연구개발(3조 519억 원), 인력양성(1조 1,283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5,212억 원), 국제협력(457억 원)



연구지원
실적 현황

연구지원 금액 (2015년 기준)

총 **4조 698**억 원

- 연구개발 부문 : 2조 7,752억 원
- 학술진흥 부문 : 1조 2,946억 원

연구지원 과제수 (2015년 기준)

총 **22,766**건



산학연별 지원 실적

지역	건수
학계	20,651
연구계	1,542
산업계	480
기타	93

지역별 지원 실적

지역	건수
서울	8,280
인천	458
경기	2,333
강원	779
대구	919
경북	1,106
부산	1,412
울산	597
경남	607
대전	1,869
충남	860
충북	664
광주	1,052
전북	750
전남	189
제주	159
해외	6
기타	726

※기타 지역은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학회 등의 지원 실적임

성과 현황

학술지 논문 등록 현황 (2014년 기준)

총 **4만 1,608**건

- SCI 등재(30,015건)
- 비SCI 등재(11,59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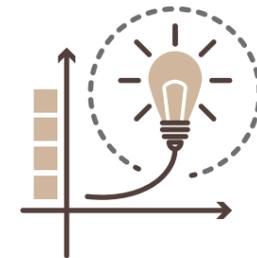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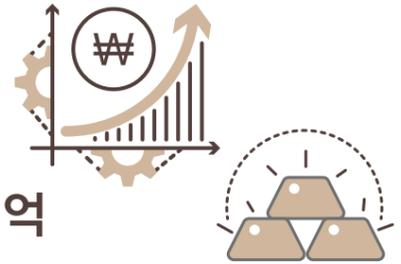
NSP 논문 등록 현황 (2014년 기준)

총 **65**건

- NSP는 세계 3대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

기술실시계약 건수와 금액 현황 (2014년 기준)

총 **180**건 **481**억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2014년 기준)

총 **4,39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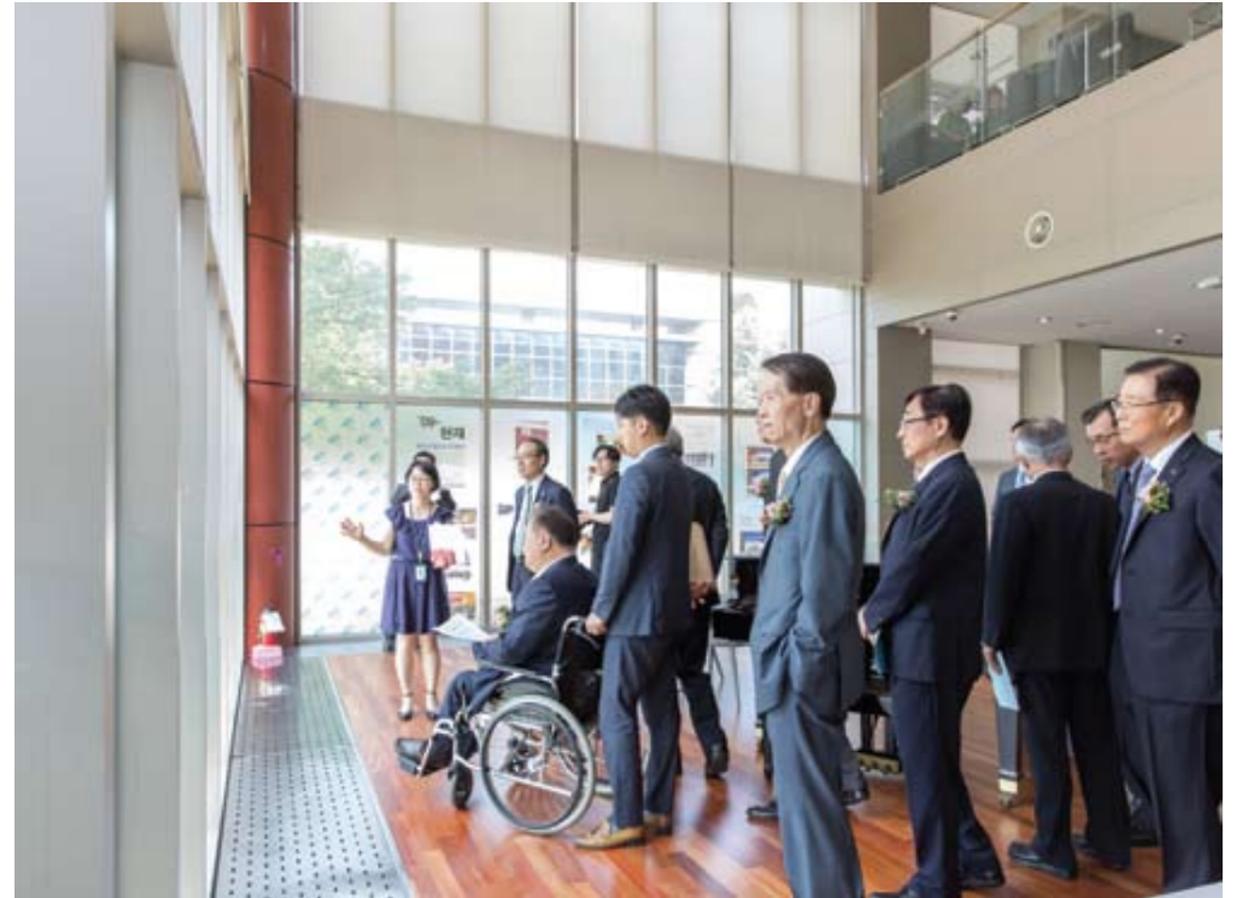
- 국제특허(340건)
- 국내특허(4,056건)

MOU 체결 국가와 기관 현황 (2016년 기준)

총 **51**개국 **80**개 기관













BEST RESEARCH,
BETTER TOMORROW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1 한국연구재단, 지난 40년의 발자취 통사

- 1장 1977 ~ 1988
연구지원의 등불을 켜다
- 2장 1989 ~ 1999
연구자의 우산이 되다
- 3장 2000 ~ 2008
선진한국 향해 날개를 펴다
- 4장 2009 ~ 2017
하나 된 힘으로 도약하다
- 5장 1977 ~ 2017
연구재단 40년 성과를 되짚다
- 6장 2017 ~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로 비상하다

1. 연구지원의 등불을 켜다

1977-1988



1절

대한민국 연구지원의 첫 걸음

1.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

1970년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

1960~1970년대 세계 최하위 빈국이던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폈다. 빠른 시간 내에 국가경제를 키우려면 한민족의 뛰어난 두뇌자원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이 설치되면서 과학기술은 국가행정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펴기 위해 1967년에 과학기술 진흥시책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당시 개발도상국 가운데 각료급을 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담부서를 가진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 1967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과학기술진흥법」을, 1972년에는 자주적인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설립에도 집중하였다. 정부는 1966년 우리나라 최초의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출범시켰다. 이후, 국가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면서 KIST만으로는 기업의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고 표준·선박·해양·기계·화학·전자기계 등 전문분야별 출연(연) 출범에 박차를 가하였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대부분 이 출연(연)들을 통해 이뤄졌다.

1970년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이하 R&D)은 국가 6대 전략산업인 철강·화학·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선진국으로부터 전략기술을 들여온 뒤, 이것을 소화하고 개량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축적하는 형태로 R&D가 수행되었다.

1977년에는 한국과학재단이 출범하였다. 과학재단은 1976년 제정된 「한국과학재단법」을 토대로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 연구능력 배양, 과학교육의 진흥,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창달과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첨단기술 중심의 특정연구개발 시작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개발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 고분자 신소재 등 첨단기술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였다.

국내에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더구나 당시 선진국들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기술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의 도입이 줄어들자, 그때까지 선진기술 모방에 주력하던 국내 과학기술계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주적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정부도 첨단기술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수출입국 대신 '기술입국'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진흥 정책은 기술 진흥 정책으로 바뀌었다. 1982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야 정치인과 재벌총수까지 참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술입국 의지를 다졌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도 드러났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1986)」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1991)」 내용을 보면, 첨단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이 누차 강조되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6대 국가전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수요를 간접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하려면 더 강력한 정부주도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처는 「기술개발촉진법(1982)」에 의거하여 국책연구과제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는 국가 R&D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가R&D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R&D사업을 뜻한다.

2. 학술지원의 필요성 급부상하다

학술진흥의 기반이 된 학술연구조성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학술연구진흥정책의 불모지에 가까웠다. 상시적인 진흥정책이 틀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국가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학술지원 대상과 분야를 정하는 수준이었다. 종합적인 학술진흥정책의 부재는 각 학문분야 사이에 불균형을 야기하였고 학술연구 지원규모 자체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1954년 학술조성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학술원'을 발족한 바 있으나, 학술단체와 학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본격적인 학술연구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1963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한 '학술연구조성비'는 기금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학술연구조성비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걸친 광범위한 지적 활동을 통한 학술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구비로, 교육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처음으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첫 해에 126과제 1,700만 원을 지원했던 학술연구조성비는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79년에는 기초과학·정책과제·특별과제 등 총 1,848건의 과제에 대해 4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 들어 국가 학술진흥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술연구조성비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회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각종 학술정책 개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지원결과를 깊이 있게 평가하거나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연구비 지원규모가 지원 수효에 비해 충분치 못하였으며, 학회와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이 미미하다는 것도 한계였다. 결론적으로, 학술연구조성비는 국내 학술연구를 진흥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조정·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체제 수립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1978년 학술진흥정책의 체계적 수립·집행을 위해 '학술진흥국'을 신설하였다. 학술진흥국은 국가 학술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진흥법(1979)」이 제정되었다. 「학술진흥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육성제도, 장학제도, 학비보조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의 당위성도 확보되었다. 법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학술활동 지원'의 수립과 집행, 장려금·장학금·보조금의 지급, 학술활동을 위한 시설·편의 제공,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학술연구결과의 평가·활용,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과 필요한 수익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1. 한국과학재단 출범

기초과학연구 전문 지원기관 필요성 대두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처는 1967년 발족한 이래로 '과학기술기금제도'를 운영해왔다.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R&D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었다. 그러나 10억 원을 목표로 하였던 기금은 1970년까지 5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기금 수혜자 역시 100명을 넘기지 못해 당초의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과학기술처는 기초연구 지원을 전담할 재단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제기하였다.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개정안은 1972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과학기술처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최형섭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은 재단의 설립 목표와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처 연구순시에 맞춰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1975년 6월에는 재단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타진하여 모두 찬성한다는 회신을 받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렇게 과학재단 설립을 위한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한국과학재단 헌판식
(1977. 5. 18.)



한국과학재단 청사 전경
(1977. 7. 1.)

과학기술처는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을 벤치마킹하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미국은 이미 20년 넘게 NSF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과학기술처는 NSF 관계자들로부터 과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재단 기금의 일부를 외자로 충당할 방법도 강구하였다. 또 197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상설위원회'를 통해 과학재단 설립을 위해 양국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과학재단의 설립목적과 조직,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공동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공동자문단은 1976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과학기술처와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공동주최로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학재단설립을 위한 지침'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한국과학재단의 설립은 국방과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활동의 기반 확대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시의에 맞는다는 최종 의견이 실렸다. 또 재단의 기능·지원분야·운영조직과 재원조달 계획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981년까지 250억 원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가운데 정부가 100억 원,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100억 원 그리고 민간에서 50억 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과학재단법 제정과 재단의 출범

과학재단 설립에 대한 국가적 합의와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 정부의 재단 설립을 향한 행보는 더욱 빨라졌다. 정부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재단법」을 제정하여 1976년 12월 22일 법률2943호로 공포하였으며, 1977년 2월 14일에는 시행령(대통령령 제8445호)을 공포하였다. 한국과학재단법은 과학재단이 '과학기술 연구능력 배양, 과학교육의 진흥,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창달과 진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공포 직후 발족한 재단설립위원회(위원장 : 이창석 과학기술처 차관)는 과학재단 정관 작성을 시작하였다.

드디어 1977년 5월 18일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KOSEF: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과학재단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을 초대 이사장(비상임)으로, '서울 동대구문구 청량리동 206의 9'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구내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설립 직후, 한국과학재단은 정관과 규정·지침 제정에 들어갔다. 정관에 정의된 한국과학재단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진작하고 과제의 선정·평가 실시를 통해 연구활동을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밀착·심화시켜 연구가 곧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쇄신을 기한다.

셋째,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자의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증진을 국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에 이바지한다.



한국과학재단 헌판식
(1977. 5. 1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한국과학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장려금(Research Grants) 지급을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석·박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연구보조비(Research Assistantship)와 연구장학금(Research Fellowship),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연구장학금(Post-doctoral Fellowship), 교수 재훈련을 위한 연구장학금(Visiting Professorship) 등을 지급함으로써 과학 두뇌를 양성한다.

셋째, 과학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과학기술 교육 개선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회를 육성하고 학술활동을 진작한다.

넷째, 국제공동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참가, 과학자 국제교류,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과학기술 교류증진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과학재단의 조직은 크게 이사장과 부이사장, 행정을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행정조직 그리고 이사회로 구성되었다. 이사회는 한국과학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구·직원과 관련된 사항, 사업계획, 예산·결산, 임원 선임, 차입금, 정관변경 등 한국과학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재단은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심의회위원회'는 이사장이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기관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1977년 발족 당시 연구개발심의회위원회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지구과학, 금속·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생산공학, 공정·장치공학 등 9개의 전문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었으나, 분과가 너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1980년 말부터는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전문가 풀(pool)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제6회 이사회
(1979. 3. 29.)



또 하나의 위원회인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정한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제도 확립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면 먼저 지원 대상(연구과제)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설립 직후부터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정확한 평가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단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과학재단은 연구자 수준에서 수행하는 '개인연구'와 국가차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대형연구'로 나눠 평가제도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형태 모두 국내 최초였다. 특히, 대형연구는 그 자체가 기존 국내에 거의 없던 연구형태였기 때문에 평가제도 역시 처음 마련하는 것이었다.

과제평가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사전평가(연구계획서 평가)와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평가 등 2단계로 이뤄졌다. 당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탁월성'이었다. 뛰어난 성과를 통해 국가 기초과학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탁월한 과제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표한 연구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 방법론은 타당한가, 기존 이론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점수로 평가하였다. 또 계획타당성 40%, 연구독창성 10%, 연구능력의 우수성 30%, 연구기기·연구기간·연구비 등의 적절성 20% 등의 배점 기준표를 만들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에도 공을 들였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환경 등을 평가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평가대상 과제의 책임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엄선하여 평가를 맡겼다.



한국과학재단 제6회 이사회
(1979. 3. 29)

79학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 장학증서 수여식
(1979. 3. 29)



연구기금의 빠른 확대

한국과학재단의 기본적인 기금인 '기초과학연구기금'은 대통령이 출연한 100만 원의 기탁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정부 출연기금이 쌓여 1980년대 중반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1990년에는 658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만 보면 무려 9.5배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지원을 위한 순수한 사업비는 1981년 21억 원, 1990년 244억 원이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신탁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채권, 주식 또는 그 밖의 건전한 수익산업에 투자해 운용하였다.

설립 이듬해인 1978년에는 새롭게 '연구장려기금'도 마련하였다. 이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활용되었다. 이 기금은 1982년 이후 '연구복지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1980년대 들어 출연(연)은 물론 대학에서도 과학기술 R&D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학들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고가의 연구장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1986년 6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987년 10월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예산 50억 원을 확보하여 대학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장비를 구입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대학의 연구자가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1988년 8월 드디어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1991년 10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이관되었다가, 1999년 5월 지금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으로 독립하였다.



73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 피셔(독일) 교수 초청 강연회 (1979. 4. 2.)

2. 다양한 기초연구 지원사업 틀을 잡다

1978년 첫 기초연구 지원사업 시작

설립 후 1년 동안 한국과학재단은 정관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와 절차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때문에 본격적인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1978년 5월 4일 '제4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기초연구사업 92과제를 선정하여 3억 3,509만 6천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한국과학재단의 첫 번째 연구지원사업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 지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업이었다.

일반기초연구사업은 '과학기술의 주요 연구과제를 창의적·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등이었으며,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여러 학문을 아우르고 있는 종합과학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대략 네 가지 기준 하에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을 이공분야에 국한한다, 연구비 지원의 중점방향을 연구사업의 탁월성으로 설정한다, 연구비의 일시적·단편적 지원을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집중지원을 지향한다,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한정된 연구비를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기준이 그것이었다.

한국과학재단의 기초연구지원은 크게 순수기초연구지원과 목적기초연구지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장기적인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지향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응용영역과 연결하려는 의도가 없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며, 후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특정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과학재단의 첫 사업인 일반기초연구사업은 이 가운데 순수기초연구지원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연구보다 연구자원을 폭넓게 배분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였기 때문에 한국과학재단은 일반기초연구를 통해 자유로운 순수연구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과학재단은 연구활동지원, 인력양성지원, 학술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크게 4개 분야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교육부가 지원하던 학술연구 조성비가 기본적인 연구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비해,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사업은 새롭고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탁월성 과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신진과학자를 지원하는 정착연구사업은 1979년 시작되었다. 이는 연구경력과 실적이 부족하여 일반연구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신진연구자에게 1~2년 정도의 정착연구비 혜택을 준 뒤, 실적을 쌓아 일반연구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목적의 사업이었다. 연구비 지원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의 직급을 가진 과학자로 한정하였다. 지원 한도액은 1인당 200만 원 안팎이었다. 이 사업은 매우 실용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1990년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특정목적 중심으로 지원사업 획기적 전환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기존의 중화학공업 중심정책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우위정책으로 빠르게 기술·경제·산업 패러다임을 바꿔나갔다. 특히 1982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기점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1982년에 시작된 것이 과학기술처의 국책연구과제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이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관련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활동을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전략적 기술을 발굴·개발하고자 하였다. 초기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성공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더라도 공익성이 상당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정부가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과 시장경쟁의 원리에만 맡기기에 적합한 핵심 산업기술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필요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정부의 강한 첨단기술 드라이브 정책에 발맞춰 한국과학재단 역시 기존의 순수 학문연구



한국과학재단
일본학술진흥회 간
과학기술 양해각서 교환
(1979. 4. 24.)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연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가 1983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 전체 예산의 10%를 기초과학 육성에 집중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을 1983년 신설하였다. 이로써 한국과학재단의 예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82년 12억 3,700만 원(418과제)이던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 지원 예산은 1989년 164억 5,800만 원(2,176과제)으로 증가하였다. 무려 1,230%의 엄청난 성장이었다.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은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시 국가 주력분야였던 반도체 · 컴퓨터, 정밀화학, 기계공업, 에너지 · 자원이용, 시스템산업, 생물공업, 소재공업, 섬유고분자공업, 건설 · 환경 · 플랜트엔지니어링 등 9개 분야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산학연의 모든 연구자원을 모아 협동연구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대학은 연구경험을 축적해 자체적인 연구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연구를 통해 획득한 기술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또 특정한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산업체, 연구소 등)의 니즈를 수렴하여 연구과제 주제를 정하는 공모방식을 지향하였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과학재단의 기초연구지원사업은 순수 학문연구를 위한 일반기초연구지원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기초연구지원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갔다.

목적기초연구사업은 독립적인 소규모 연구지원으로 출발하여 점차 여러 세부과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중형연구사업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6년 시작된 것이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다.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 연구내용을 3~6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대학차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진작하고, 과학기술계에 필요한 필수 정예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학제 간 공동연구를 강화하여 대학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은 선진국의 연구동향과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기술예측을 토대로 해마다 지원분야를 수정 · 보완해 나갔다. 또 중형연구사업인 만큼 대학의 학과, 부설연구소, 대학 · 연구소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이 사업은 한국과학재단의 대표적인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과학재단 -
일본학술진흥회 간
과학기술 양해각서 교환
(1979. 4. 24.)



과학기술 학술활동 집중 지원

한국과학재단의 임무에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활동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한국과학재단은 출범과 함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기존에 추진하던 학술지원 업무 즉, 과학기술 학회지 발간 지원, 학술활동 지원, 학회 국제분담금 지원 등을 이관받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해 나갔다.

한국과학재단은 우선,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방침부터 마련하였다. 지원 우선순위를 기초과학, 응용과학·산업기술, 인접 사회과학 순으로 정하고, 적은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의 선진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제학술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비, 해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한국 과학자가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국인 과학자를 초청하는 경비 등이 그것이었다.

한국과학재단의 1980년대 학술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학상 제정이다. 1978년 첫 수상자를 낸 이 상은 '자연과학 분야의 주요원리를 규명하여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대학·연구소·산업체에 소속된 한국인(또는 한국계) 과학기술자 가운데 세계 정상 수준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과학자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시상 분야는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등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어려운 기초과학분야로 한정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추천을 이원화함으로써 포상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학자를 선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의 위촉을 받은 과학자가 개별적으로 우수연구자를 추천하는 방식과 한국과학재단이 구성한 추천단으로부터 추천받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다수 추천을 받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과제평가, 전문분야별 평가, 종합평가를 엄격히 적용하여 포상자를 선정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연구지원사업 변화계통도

구분	'78	'83	'86	'90	'92	'95	'96	'97	'98	'00	'02	'03	'04	'05	'06	비고
개인/소규모	일반기초(특정)	일반목적	핵심전문연구		특정목적기초 선도과학자, 젊은과학자 지역대학, 여성과학자										'04 교육부 이관 (개인 연구) 선도, 지역대학, 여성, 젊은과학자	
		특정목적	목적기초연구(특정기초)													
첨단 연구	우수연구센터(SRC/ERC)														'04 교육부 이관 '04 교육부 이관 특연사 → 기초(03) '04 교육부 이관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기초의과학연구소(MRC)															
	선도기초연구실(ABRL)															
	국가핵심연구소(NCRC)															
연구기반 구축	창의적연구진흥사업(CRI)														특연사 → 기초(02) 특연사 → 기초(04)	
	지방연구중심대학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특성화장려사업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개발(KSTAR)															
연구기반 구축	핵자기공명장치(NMR)														특연사 → 기초(02) 특연사 → 기초(04)	
	고분해능질량분석기															
	ITER															
	첨단연구장비															
	연대측정장비															
	e-Science															
	Gloriad															
수리연구소																

3절 학술연구진흥 지원사업의 시작



국제회관 신축청사
준공기념 다과회
(1984. 1.)

1. 한국학술진흥재단 출범

종합적·전문적 학술진흥 지원기관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학술연구진흥정책이 시작된 것은 1978년 3월 14일 교육부 내에 '학술진흥국'이 신설되면서 부터였다. 1970년대 후반 들어 학술진흥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이 다양해지고 인문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학문 전반에 걸친 연구지원의 확대가 절실해지자 교육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학술진흥국을 신설하여 국가 학술진흥 전반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다.

학술진흥국은 학술진흥 정책개발을 위해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명망 있는 교수들을 모아 '학술진흥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이후 1년간의 연구 끝에 '학술진흥정책연구'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술진흥정책의 난제들을 몇 가지로 분석하였다. 우선, 학술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상설기구가 없어 학술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학술진흥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하고 연구결과의 평가·활용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지목하였다. 또 학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학술진흥활동을 종합 지원할 기구로서 학술진흥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1979년 '학술진흥정책론'이라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상황을 정밀 검토한 것으로, 학술연구 지원정책과 국가 산업경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학술진흥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조성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법 제정과 재단의 출범

교육부는 1979년 2월 12일 대통령 연두순시를 맞아 학술진흥국 중심으로 그동안 수립해 온 학술진흥 촉진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학술진흥재단의 설립은 이때부터 급물살을 탔다. 학술진흥국은 학술진흥연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학술진흥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게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1979년 7월 30일에 교육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79년 9월 10일 제 103회 정기국회에 상정되었다.

「학술진흥법」은 11월 23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의결된 뒤, 1979년 12월 28일에 법률 제 3205호로 공포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학문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 학술연구가 조속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성정책을 마련하고자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학술진흥법」이 제정된 1979년 겨울은 정치상황이 격변하던 시기였다. 그 때문에 법 제정 이후 시행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결국, 「학술진흥법」시행령은 1980년 8월 16일에 공포되었다. 시행령에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1963년 수립된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규정'은 이때부터 폐지되었다. 법에 제시된 학술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5주년 기념
(1986.4.6.)



첫째, 학술진흥사업이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부응하면서 학술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단은 민법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한다.

둘째, 재단은 정부가 마련한 학술진흥정책과 계획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보조금 지급과 국내외 학술교류 지원, 학술진흥회관 건립을 통한 학술단체 활동지원 및 학술정보센터 운영 등이다.

셋째, 재단의 사업비는 기금 및 기금 수익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기금은 1991년까지 정부 출연금 500억 원, 외자도입과 민간기부금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교육부는 1980년 8월 28일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열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여 심의하였다. 그리고 법정기일인 9월 30일에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단의 정관을 인가받았다.

1981년 4월 6일 드디어 한국학술진흥재단(KRF: Korea Research Foundation)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조성옥 전 교육부 차관을 초대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 청사에 첫 보금자리를 틀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조직은 크게 이사장과 부이사장, 행정을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행정조직 그리고 이사회로 구성되었다.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구·직원과 관련된 사항, 사업계획, 예산·결산, 임원 선임, 차입금, 정관변경 등 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출범 직후 '학술진흥방안연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기관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중요 사안을 결정하였고, 이후 1986년부터는 외부 학술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는 연구비 지원과 학술단체 지원 등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여러 사업을 더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인사발령
(1986. 9.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하계 정신교육
(1986. 9. 30.)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1년 출범 이후 2년간 조직 정비, 제도 확립, 방향설정 등 본격적인 학술진흥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집중한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술진흥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연구였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던 '학술진흥방안연구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80년대 학술진흥정책연구(1981년 12월)'라는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1980년대 국가발전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학술진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3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1981~1983)에는 교수·연구요원 양성과정 중점 육성, 연구재원의 확대, 연구비 배분과정의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2단계(1984~1986년)에는 교수·연구요원의 증원과 처우개선, 연구시설 확충, 연구실적의 반영과 보급, 교수의 국내 교류·공동연구 촉진, 국제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수립 등을 수행하며, 3단계(1987~1989)에는 독립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학회활동의 지원, 연구결과의 번역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80년대 학술진흥정책연구' 외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발전방향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하나의 보고서가 있었다. '학술연구비지급 실태조사'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 민간법인체를 총 망라한 66개 기관의 1981년과 1982년 연구비 지급실태를 분석한 것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보고서를 통해 심사원칙과 연구비 규모 등 연구비 지급원칙,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관련 재단 간의 협조방안, 법적 조치 등 앞으로 수행할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울 수 있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24차 이사회
(1986. 12. 10.)

학술정보 수집과 서비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여러 준비작업 중에는 학술연구의 기저인 학술정보를 확보하고 서비스 하는 방안에 관한 것도 들어 있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의 학술연구는 해외 학술성적을 들여와 모방하고 추격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해외의 학술저널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학술진흥법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정관에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항목이 따로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설립 초창기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 정보는 외국학술잡지목록과 학술연구 인적지원정보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1년 전국 종합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외국학술잡지 목록을 수집하여 '외국학술지 종합목록 인문·사회과학 편'을 발간하였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간한 최초의 자료집이었다. 또 1982년에는 단과대학교와 교육대학 도서관을 조사하여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인문·사회과학 편'을 발간하고, 1983년에는 '자연·응용과학 편'을 발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5년 이 자료집들을 전산화하여 컴퓨터로 편집·발간하기도 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해마다 1만여 종의 외국학술잡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였다. 이후에도 종합목록은 1992년과 1996년에 간행되었으나 그 뒤에는 중단되었다.

1983년부터는 국내 도서관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구입하지 못한 주요 외국학술잡지들을 직접 구입한 뒤, 그 목차를 제공하는 '외국학술잡지 목차속보'를 격월간으로 발간하였다. 외국학술잡지의 서지정보를 국내 학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목차속보는 1996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간행되었으나, 1996년에 간행 부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후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또 지원사업 결과 도출된 학술연구논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논문초록집(인문과학 편, 자연과학 편)을 발간하고 이 연구논문들을 합본한 합본집과 색인집도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학술연구 인적지원 정보구축도 추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1년부터 2년 동안 전국 237개 대학의 2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전임강사 이상 학술연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구실적 자료를 수집·전산화하여 1983년부터 '학술연구 인명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 이는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외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회총람과 대학부설연구소 총람도 발간하였다. 1980년대 들어 다양한 전문 분야 학회들의 학술연구 활동이 활발해지자, 각 학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가 필요해졌다. 또 국내의 경우,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대학부설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만큼 부설연구소에 대한 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2년부터 학회총람과 대학부설연구소 총람을 발간하여 학회·대학연구소와 학술연구자 사이의 교류 활동을 돕고 학술지원의 방향성을 잡아나갔다.

체계적 심사·평가체계 수립으로 학술분위기 조성

본격적인 학술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주력하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2년 8월 14일 학술원의 학술논문평가위원회로부터 논문평가업무를 이관 받았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은 1981년도 논문 중 대학기초학문연구과제 외 4개 과제 분야의 논문을 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심사·평가체계를 고도화해 나갔다.

연구비 지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평가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여러 연구계획서 가운데 가장 창의적이며 활용가치가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나갔다. 또 평가한 내용을 축적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더 발전적인 연구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로 '학술연구논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10개 학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결과로 도출된 논문 가운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된 것이었으며, 평가절차는 기초평가·정밀평가·최종확정평가로 구분하였다. 또 평가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등 4등급으로 나눴다.

198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최종 선정·평가결과와 심사자의 평가의견서를 종합하여 만든 '학술연구논문평가보고서'를 책자형태로 대학에 배포하였다. 이 보고서는 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각 학문분야 사이에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책임지는 학문풍토가 조성되었으며, 평가자의 정밀 평가의견을 연구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활동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 학회와 학술지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평가보고서 발간은 1988년도부터 중단되었다. 교수 각각의 평가결과가 학계에 공개되어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 학술연구 지원 토대를 마련하다

1983년 첫 학술연구 지원사업 시작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3년부터 교육부의 학술진흥사업을 하나씩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연구지원을 시작한 한국과학재단이 이공계분야 연구만을 선별하여 지원한 것과 달리, 대학에서 연구하는 모든 학문분야를 지원하여 학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첫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연구비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새로운 기초이론을 확립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과학기술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학술

진흥재단은 사업수행 첫 해인 1983년 컴퓨터시스템 산업, 소재공업 등 8개 대분야와 32개 세부분야에 걸쳐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4년간 시행되다가 1987년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에 흡수·통합되었으나, 이 사업을 시작으로 비로소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본격적인 학술연구 지원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사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1963년부터 국가 학술진흥을 위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조성비를 지급해 왔으나, 이때까지는 대학별로 연구비를 안배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원자로부터 연구계획서를 받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 현장평가 중심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수행 시에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이러한 선정방식 도입은 국가 연구지원사업 전반에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무식
(1986. 12. 31.)



인문학 등 학문 전 분야로 지원사업 확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은 1986년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학문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전 학문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수들이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학술원 회원, 한국교육개발원 소속연구원 등이었다.

이 사업 역시 첨단과학기술분야연구비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특히 연구능력 면에서 탁월성과 창의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원자가 소정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모두 4단계의 심사과정(행정요건심사, 4인의 전공교수에 의한 전공심사, 분과위원회의 분과심사,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종합평가)을 거쳐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였다.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은 1986년부터 1990년 후반 대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출범하기 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시행 첫 해에는 38억 원의 예산으로 667과제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매년 지원규모가 많이 늘어나 1997년에는 169억여 원의 예산으로 1,324과제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 사업은 1999년 연구비 지원사업의 개편으로 선도연구자(개인) 지원과 협동연구과제(공동)로 분리되면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임 이사 간담회
(1987. 1. 21)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 변화계통도

주요사업	83	86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비고
단독연구지원사업																
선도연구자														통합		자유공모 통합 및 재조정
자유공모과제																선도연구자 통합
지방대 육성과제													통합			자유공모 통합
전문대과제													통합			자유공모 통합
신진교수연구과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협동연구과제														통합		
국제협력연구																협동연구과제로 통합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																협동연구과제로 통합
해외지역연구																협동연구과제로 통합
지역개발연구																
인문사회 중점영역																편입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지원사업																
대학부설연구소 연구																
과학기술기초 중점연구																1979년부터 시작 1988년 이관
특정분야 연구지원사업																
인문학육성																2000년부터 시행
기초과학 연구																1999년부터 시행
유초중고 교육정책 및 교원양성 연구																2000년도부터 시행
예술이론 및 예술교육연구																2000년부터 시행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대학 교육 콘텐츠 개발																2000년부터 시행
정책연구																
보호학문강의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																
학술문헌번역																



한국과학재단
제29회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1988. 7. 6.)

1.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하다

해외 파견프로그램 강화

정부가 첨단기술 중심의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펴자, 가장 시급해진 것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우수 연구인력이었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시초는 1978년 시작된 석·박사학위과정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생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인력을 선정하여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학 등 관계 기관에서 지원대상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3단계(기초평가·전문평가·종합평가) 평가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뽑았다. 지원내용은 등록금 전액과 논문연구비, 매월 생활보조비 형태로 지급되는 월액 장학금 등이었다. 사업 초기, 박사과정에는 4만 원, 석사과정에는 3만 원의 월액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학재단은 박사과정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박사과정 학생은 30세 안팎의 적지 않은 나이가 될 수밖에 없어, 이들이 연구에만 전념케 하려면 국가에서 최소한 학비와 생활비 정도는 보조해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당시 다른 부처·청에는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 인재만이라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 들어 국민의 높은 학구열과 소득 증가에 힘입어 석·박사 학위취득자가 늘어나자 정부 차원에서 학위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적어졌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을 줄이고, 점차 박사후연수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갔다. 선진국의 기술·장비·연구방법 등을 배워와 국내에 접목시킬 인재가 급선무이던 시기였으므로, 한국과학재단은 특별히 해외 연구기관으로 파견 나가는 박사후연수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제29회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1988. 7. 6.)



대표적인 것이 1981년 시작된 박사후해외연수프로그램이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선진국의 대학·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들과 공동연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진 기술을 습득한 연구자가 국내에 들어와 이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40세 이하의 신진과학자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 등을 지원하였다.

1986년부터 시행한 박사후국내연수프로그램은 박사후해외연수프로그램과 같은 목적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국내 대학·연구기관 파견 박사후연수생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추가로 필요한 경비는 연구기관이 부담하였다.

이외는 별도로 1981년부터 학위과정해외연수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의 뛰어난 과학기술 영재를 선진국 대학에 파견하여 저명한 과학자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당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72만 원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내 대학원이 활성화되는 데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현지에 정착할 경우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1986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파견을 중단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요원기술연수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1981년 시작된 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기술자를 해외 선진기업과 연구소 등에 파견하여 국내의 취약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은 연수 후 국내에 들어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저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당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143만원이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86년 중단되었다.

재외과학자유치지원사업은 한국과학재단 초기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시작으로, 197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출연(연)을 설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확장에 비해 소프트웨어 즉, 연구를 주도할 핵심 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재외동포 과학기술자 국내유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1982년에는 이 사업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하였다. 재외과학자유치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과학자들은 일명 유치과학자로 불렸다. 이들은 선진국보다 적은 보수와 복지수준 때문에 귀국결정을 어려워하였으나, 대부분 애국심으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

세계 주요 과학재단과 협력루트 구축

출범 초기 한국과학재단은 특별히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모방하여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국과학재단은 1977년, 출범과 동시에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독일연구재단(DFG)과 과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1978년에는 과학기술처로부터 프랑스로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의 협력업무를 승계 받았다. 또 1979년에는 일본학술진흥회(JSPS), 이집트과학기술원과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설립 2년 만에 5곳의 해외 연구지원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펴나갔다.

한국과학재단은 1978년부터 국제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하였다. 국내 과학자가 해외의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당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미국, 독일, 프랑스였다.

1970년대 후반, 국내 과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정보 확보였다.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정보, 동향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정보 확보를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제회의 참석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를 해외로 단독 파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국제회의 파견프로그램이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 외에도 국가적 이익이 큰 국제회의라고 판단될 경우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였다.

외국인저명과학자초청사업 역시 선진 과학기술과 연구방법, 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저명과학자를 초청하여, 그 과학자의 경험·지식을 국내에 확산시키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큰 과학자를 우선 초청대상으로 하였으며, 과학기술 진흥에 직·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독일 훔볼트 장학재단
H.Pfeiffer(하인리히피퍼)
사무총장 방문
(1987. 3. 26.)

한국국제학술교류협회와 통합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내의 부족한 분야를 해외에서 받아들이고, 반대로 우리의 우수한 분야를 해외 학술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 다음해인 1982년부터 국제학술교류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학문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청소년·대학생교류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청소년·대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국제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가장 활발한 것은 ‘한·일 청소년 교류’였다. 이는 한국의 교육부와 일본의 외무성이 두 나라 간에 존재하던 과거의 응어리를 풀고 함께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총 700명이 이 사업을 통해 교류하였다(방한 467명, 방일 233명). 처음에는 청소년만 교류하였으나, 점차 교원과 국제 교류기관 인사로까지 교류가 확대되었다.

1985년부터는 해외 학술지원기관과 탄탄한 협력관계를 쌓는 데도 주력하였다. 우선, 독일의 훔볼트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1985년)하고, 훔볼트재단에서 선발한 인문사회 분야 한국인 장학생에게 왕복여비를 지급하였다. 또 1987년에는 독일연구재단(DFG)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독 공동세미나와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1988년에는 독일학술교류처(DAAD)와 학자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학술교류의 폭을 더욱 넓혔다.

1984년 4월 1일 정부의 유사기능단체 통합방침에 따라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이하, 국제교류협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합되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학술교류사업도 대폭 확대되었다. 국제교류협회는 1978년에 설립된 교육부 사회교육국 산하 재단법인으로, 글로벌 교육교류활동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제교류협회로부터 대학생 해외연수사업,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사업, 유학상담실사업, 국제회관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이관받아 새롭게 수행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3회 전국대학생 연구논문발표
(1988. 11. 18.)



우선, 대학생해외연수사업은 국내 대학생에게 해외 어학연수나 음악·미술 등 전공연수 그리고 선진학문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외국의 우수대학 또는 한국학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생을 직접 연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해외 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해외연수의 주 대상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었고, 그밖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도 연수가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1992년까지 계속되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해 효과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한국어 훈련과정(1년), 석사과정(2년), 박사과정(3년) 동안 왕복항공료, 생활비, 연구비 등이 지원되었다.

유학상담실사업은 올바른 유학지도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980년 이후 유학 지망자가 급증하자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유학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1982년부터 시작하였다. 유학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해외개발공사가 담당하던 유학생의 소양교육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러다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입학사정, 지도 및 연수, 생활편의시설 제공’ 업무는 1993년 12월 27일자로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협회로부터 국제회관운영사업을 이관 받음으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크게 외연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국제회관은 국제교류협회가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종로구 동숭동의 옛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자리에 건축한 건물(건평 8,188㎡ / 2,477평)로, 통합과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무상 양여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건물을 인수하여 관리동은 사무실로, 숙소동은 외국인 유학생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총 수용능력은 188명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3회 국제 하계 한국학 단기연수
(1987. 7. 6.)

2. 해외한국학 지원으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다

해외한국학 지원으로 한국의 위상 강화

설립 초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 가운데 하나가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이었다. 한국학이란,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언어·문학·역사·종교·정치·경제·사회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학의 확산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워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형성하고, 국내 학자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이라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외교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동안 정체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미국이 한국과의 정치적·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한국학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자 이때부터 한국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도 해외한국학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3년부터 교육부가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1980년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로 이관되었다가, 1982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넘어왔다.

해외 한국학지원사업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 1970~1980년대의 한국은 독재정권과 결부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정부차원에서 한국학을 지원한다고 하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부처인 교육부 대신 재단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을 담당한다고 하면 한국학 추진 기관에서 좋은 호응을 보였고, 이에 주관기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2년 전 유럽의 한국학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하는 '유럽한국학회 제6차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한국학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또 같은 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한국학 기관에 한국학 도서와 학술지 등을 지원하던 사업도 이관받아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다양한 형태의 해외한국학 지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은 한국학 학술회의·학술연구 지원, 한국학 강의 담당교수 파견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먼저, 한국학술회의지원을 통해서도 외국 대학이나 학회의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와 학회 활동 경비를 지원하였고, 한국학술연구지원을 통해서도 한국학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한국학 관련 연구비와 책자 발간경비를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학 강좌 개설·운영도 포함되었다.

또한, 해외 한국학 교육·연구기관의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국내 한국학 전공 교수를 파견하는 한국학강의담당교수해외파견사업도 시작(1983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해외체험이 적은 국내의 한국학 교육·연구인력을 세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자와 학생을 초청하여 국내연수를 추진하는 해외한국학전공자국내연수도 진행하였다. 88서울올림픽 이후에는 기존에 거의 교류가 없던 동유럽 국가의 학생들까지 연수를 신청하는 등 연수생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캐나다 토론토대 총장 방문
(1988. 12. 15.)



2. 연구자의 우산이 되다

1989~1999



1절 연구환경의 변화

한국과학재단
연구환경조성사업본부 헌판식
(1989. 5. 30.)



1. 기초과학기술의 위상이 높아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정부는 기존의 추격형 경제성장을 넘어 선도형 성장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70년대의 기적적인 고도성장을 재현하려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초연구 지원에 주력하였다.

당시 우리의 과학기술은 상세설계·가공·조립·제작과정 등 생산기술과 주변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으나 기본설계·소재·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핵심기술은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그때까지의 값싼 기술도입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1988년 4월 지식재산권 등 기술보호에 주력한 '중합무역법'을 제정하며 보호무역을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정부는 1989년을 '기초과학진흥 원년의 해'로 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고급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원천기술개발 저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학생과 박사후연수생의 연수·연구비 지원, 연구교수·객원교수 등 대학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확립, 대학의 연구시설·장비 지원, 우수연구집단 지원사업 신설, 기업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제정은 과학기술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정책을 범 부처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의 시행령 제5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과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고, 국방부는 석·박사 과정 이수자를 병역관계·군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법 제정을 기점으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선택하던 기존방식 대신,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큰 맥락에서 기획·관리되는 기초연구 지원방식이 강화되면서 1990년대의 기초연구 지원은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93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초연구부문을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으로 독립하여 확대·개편함으로써 응용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기초연구의 위상을 높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1982년부터 대규모 연구비를 직접 지원한 국내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이어서, 1994년에는 최초의 기초연구 장기계획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2000년까지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을 세계 10위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비 증대와 연구인력 양성, 대학연구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과학재단
제23회 학연산연구교류회
(1989. 7. 12.)



서정욱 과기부장관
한국과학재단 방문
(1999. 4. 16.)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하고 기초과학 연구지원을 정부의 30대 중점관리대상 과제로 선정하는 등 기초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간 연구지원사업 기능 재조정을 통해 국가R&D사업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한국과학재단은 특정목적지향의 기초연구를,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인력양성과 자유로운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졌다.

이 시기의 또 하나 특이할 만한 변화는 연구회체제 도입이다.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연구회 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등 일부 기관만 과학기술부 산하에 남고 나머지 연구기관은 기능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뉘어 소관업무가 이관되었다. 이후, 200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과 함께 연구회는 다시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에는 기존의 연구회들을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범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워크숍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1990. 11. 15.)

2. 학술진흥체제 혁신의 바람이 불다

1990년대 들어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정부는 빠른 압축성장에 집중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술분야의 육성에도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 대학이었다. 대학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구개발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90년대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졌고 국가 전체의 혁신체제 내에서 대학연구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점차 커졌다.

정부가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에 대한 연구비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끌어올렸으며, 대학원의 수도 빠르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1990년 303개에 불과하던 전국의 대학원은 2000년 905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자 개인차원을 넘어 공동연구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사회의 분업화·다양화 속도가 빨라지자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여러 학과의 연구진이 모여 있어 공동연구 추진이 비교적 쉽다는 대학의 이점을 살려,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 학제간공동연구사업, 해외지역연구지원사업 등의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연춘 이사장 취임식
(1990. 12. 28.)



정부의 대학 연구역량 강화정책에 맞춰 한국학술진흥재단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우선, 학문 간 균형발전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문사회 분야 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1998년에는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지원사업을 5:5로 조정하였다. 또 비대학 소속 연구지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1999년에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원사업 연구 성과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결론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고, 학술지를 평가하여 우수한 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지로 지정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학술지평가는 국내 학술지의 수준과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집행·관리의 선진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대학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고, 연구지원사업 업무전산화와 온라인 연구정보서비스를 진행하여 인터넷 기반의 지원사업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한국과학재단
서울대학교 우수연구센터 개소식
(1990. 7. 4.)

1. 기초연구지원의 틀을 확립하다

1990년대 기초연구지원의 흐름

1977년 출범 이후, 국가차원의 기초연구지원 허브 역할을 해 온 한국과학재단은 1990년 국내 최초의 대규모 집단연구사업인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라는 기초연구지원의 기본체계를 정립하였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대학 내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기초연구 지원이 실질적으로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의 예산은 1990년 26억 원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443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연구현장의 수요가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2년에는 국가R&D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합동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의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과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을 목적기초연구사업으로 통합하였다. 또 목적기초연구사업의 세부사업을 교수연구실 단위 지원사업인 핵심전문

연구와 학제간 공동연구인 특정기초연구로 이원화하고, 핵심전문연구 중 신진연구는 교육부로 이관하였다.

명칭변경의 흐름으로 보자면, 1978년 일반기초연구로 시작한 한국과학재단의 사업은 1983년에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86년에 일반목적기초연구와 특정목적기초연구로 나뉘던 뒤, 1992년에 핵심전문연구와 목적기초연구로 변경하게 되었다. 1992년 시작한 핵심전문연구의 예산은 1992년 약 53억 원에서 1996년 160억 원으로, 4년 사이에 3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1993년 출범한 김병삼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새로운 국정기조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1995년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산업수요와 대학의 연구개발을 연계하여 연구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RRC사업은 산업체를 위한 기술개발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2004년 산업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RIC(Regional Innovation Center)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다.

같은 해, 특성화장려사업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 기초연구활동의 기반인 연구기기·연구소재·연구정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과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 그리고 전문연구정보센터운영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특성화장려사업과 함께 한국과학재단의 기초연구 지원은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를 넘어 인프라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97년에 시작된 여자대학교연구기반확충사업이 그것이었다.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과학기술인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네트워크 취약,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공계 여대생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반기초연구의 명칭변경 과정





1998년에는 연구지원기관 간 대규모 역할조정이 이뤄졌다.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과학재단은 특정목적 지향적인 기초연구와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소규모 연구지원과 단기과제 인력양성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의 개인단위 사업인 핵심전문연구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1998년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되면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사업에도 더욱 힘이 실렸다. 특히, 1999년 우수연구실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개인연구, 연구실 연구, 집단연구 등 여러 형태로 세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지원의 규모 · 범주를 크게 확장하다

우수연구센터(SRC · ERC), 대규모 집단연구 최초 도입하다

1990년 한국과학재단은 국내 기초연구지원에 처음으로 집단연구 형태를 도입하여 우수연구센터(SRC · ERC)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각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연구인력 · 자원을 결집하여 체계적 ·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그룹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여러 대학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협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또 대학원을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개발이 점차 확산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컸다. 또한 1990년대 국내 대학의 열악한 연구개발환경을 혁신한 대표적인 연구지원사업이기도 하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은 미국국립과학재단(NSF)에서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학연구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를 벤치마킹하여 시작되었다. NSF를 본 따 이 사업 역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심층적 · 창조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 수준의 기초지식을 도출하는 과학연구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와 첨단산업 분야 기초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국제 수준의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공학연구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나뉘어 추진하였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소규모 단위과제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당 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최대 9년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고 1990년 약 26억 원(13개 센터)의 예산으로 출발하여 2000년에는 443억 원(52개 센터)까지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센터의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 연구장비비 · 교육훈련비 · 운영관리비 · 학술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ERC의 산업관련 연구과제에는 산업계 대응자금(Matching Fund)도 포함되었다. 센터의 운영이 독립채산식 회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의 운영방침은 ▲전국을 하나의 연구권으로 하여 연구계열별로 센터를 설치한다 ▲대학의 학문적인 전통과 지역특성 등 대학 내외의 잠재적인 발전요소를 고려하여 센터를 지역에 분산 · 설치한다 ▲관계기관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의 다양한 기초연구 수요를 종합적으로 수용한다 ▲공동연구 · 공동세미나 등 국제협력을 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등이었다.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초기부터 많은 대학이 관심을 보이며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은 공정한 평가와 센터 선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1단계 서면평가에서부터 최종 종합평가까지 총 5단계를 거치고, 선정 이후에도 3년마다 중간평가를 하여 센터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센터운영을 기반조성기 · 발전기 · 도약기 등으로 나눠 단계적 ·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우선, 센터를 설치한 뒤 3년간을 기반조성기 혹은 성장기로 보고 이 시기에는 열악한 대학 연구환경의 개선, 학제 간 융합연구형태 확립, 우수한 협동연구 인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 다음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발전기로 보고 학문 · 기술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또 7년차부터 9년차까지를 도약 · 자립기로 보고 이 기간에는 각 우수연구센터가 국제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우수연구센터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연구실 설치사업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 스위스 · 체코 · 우크라이나 · 벨기에 · 호주 · 일본 등에 있는 우수연구소나 대학과 협약을 맺어 현지연구실을 운영하였다.



우수연구센터 로고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여러 평가를 통해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았다. 1996년도에 작성된 'OECD 국별 과학기술조사단' 보고서는 이 사업을 '대학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대학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더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에서도 우수연구센터사업은 대표적인 우수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우수연구센터사업은 2000년 이후 학제간 융합분야와 기초의약학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특성화장려사업, 대학 연구인프라 지원하다

한국과학재단은 기초연구지원을 기존의 프로젝트별 지원에서 인프라 지원으로까지 확대하고자 1995년부터 특성화장려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고가의 연구기기, 특정 연구소재, 연구정보를 개인(대학)이 단독으로 확보하여 이용하는 대신 각 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연구인프라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공동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특성화장려사업의 기본방향은 ▲대학이 취약한 기초연구기반을 극복하고 연구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기존 연구자원(시설·자료·인력 등)과 연계하여 적은 투자로도 단기간에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설치되는 인프라 기지는 외부기관 연구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등이었다.

이 사업은 크게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 전문연구정보센터 운영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우선,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은 특정 대학이 미래지향적인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가의 특수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여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수리·교정비, 부품비

등 해당 장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 가운데 약 80%를 지원하였다.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은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확보·사용·관리하기가 어려운 특수연구소재를 확보하여 소재은행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련 분야의 석·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대학이다. 지원범위는 특수연구소재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수집된 특수연구소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담요원 인건비 등 정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80%였다. 전문연구정보센터운영지원은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정보를 수집·가공·유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요원 인건비, 자료수집비, DB제작비, 정보저장매체 구입비 등 센터운영비의 80%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관련 분야의 석·박사과정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학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전산화·정보유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대학의 전문연구정보센터였다. 특히, 해당분야 정보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인력·경비 등에 대한 지원의지가 확고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특성화장려사업을 통해 연구기기·소재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특수 분야 공동연구를 유도하였다. 또 신속한 연구정보제공 등을 통해 연구자가 자료수집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국가차원에서 보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수연구소재은행운영지원은 2005년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으로, 전문연구정보센터운영지원은 2006년 국가지정전문연구정보센터로 각각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가특수연구기기운영지원은 2008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한국과학재단
의약바이오연구원 개소식
(1995. 4. 27)



한국과학재단
제1회 국산연구기기 전시회
(1995. 4. 18.)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산업 육성하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역 간 고른 기술발전과 지역산업혁신이 과학기술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1995년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연구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사업을 신설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 대학이 해당지역의 산업수요와 관련된 일반기초기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산업체에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특정 지역기업이 일정 부분의 연구비를 부담할 경우, 센터 내에서 해당 기업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병행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기존의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안배를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우수연구센터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공학연구센터(ERC)가 있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교육부가 지정한 국책공과대학이 있는 대학도 제외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지역연구센터 개념 설정을 위한 정책설명회
(1990. 7. 20.)

한국과학재단
제35회 학연산 연구교류회
(1991. 3. 21.)



산학협력 지원사업 확대

한국과학재단은 1989년 조직한 '학연산 연구교류회'를 계기로 독자적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1993년 시작한 이공계교수산업현장근무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공계대학 교수가 보유한 기술(이론)이 기업의 산업현장에 곧바로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선정된 이공계 교수들은 방학 중에 산업현장에 나가 실무를 체험하고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에게 현장제재비와 부대경비 등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1993년 국산 연구기기의 개발·보급·활용 촉진과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산 연구기기시험연구사업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연구기기의 성능을 대학 연구실에서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협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기 제작업체는 제품의 질적향상과 신뢰성 제고의 효과를 거두고 대학은 연구기기 관련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

1994년에는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를 탐색하고자 중점연구회를 구성·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특정과제 중심의 자생적 연구그룹(20인 이내)이었으며, 연구회 책임자는 대학교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청사 준공식
(1990. 5. 18.)

한국과학재단 청사 건립

한국과학재단은 1977년 설립 이후 독자적인 청사 없이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 점차 지원업무가 확대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1981년 12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산학협동재단건물로 이전하였다. 1983년 10월 다시 대전시 유성구 장동의 한국기계연구원 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가 사업의 확대로 조직이 빠르게 커지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자체 건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당시는 마침 정부가 대전시 유성구에 대규모의 연구개발 전문단지(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연구관련 기관들을 내려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던 때였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대덕연구단지 내의 한국표준과학연구소 부지 총 46,537m²(14,077평)를 매입하여 신청사 건축을 시작하였다. 1988년 3월 29일 착공한 건물은 1990년 5월 18일 완공되었다. 이로써 한국과학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현재의 자리에 영원하던 독립청사를 갖게 되었다. 신청사는 본관과 학연산 교류센터, 기계동 등의 주요 건물과 기타 시설로 구성되었다.

대덕연구단지 생활환경 개선

대덕연구단지(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전한 이후, 한국과학재단은 연구단지 생활환경 개선 업무도 맡게 되었다. 당시 연구단지는 연구원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학교·시장·병원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시내버스 배차시간도 길어서, 주로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에서 온 연구원 가족들로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시설 건립에 주력하였다. 먼저, 연구원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과 수영장을 설립하였다.

체육공원은 연구단지 내 녹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의 땅 344,175m²(104,113평)에 총 16억 3,1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7홀 규모의 골프장(이후 9홀로 확장)과 클럽하우스 2,277m²(689평), 연습장 634m²(192평) 등을 건설하였다. 착공일자는 1989년 12월 28일, 완공일자는 1992년 10월 10일이었다.

수영장은 동양화학공업(주)의 건설비 기증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이 연구원 복지기금 4억 4,900만 원으로 4,780m²(1,446평)의 부지를 구입한 뒤, 동양화학공업(주)이 수영장을 건설해 정부에 기증하고, 이를 다시 한국과학재단이 이관 받는 형태였다. 착공은 1987년 9월, 완공은 1988년 6월이었다.

한국과학재단
대덕연구단지
공동 주택 기공식
(1990. 10. 30.)



한국과학재단
대덕과학문화센터 기공식
(1991. 8. 20.)



한국과학재단
대덕단지 체육공원 준공식
(1992. 10. 10.)



수영장의 규모는 총1,778m²(538평)로, 25m x 13m 규모의 직사각형 레인과 어린이용 풀 그리
고 관람실·사무실·탈의실·기계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이 수영장은 대
전에서 시설이 가장 좋아 방향 중에는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재단은 연구단지 입주 연구소와 연구인력이 서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
수 있도록 대덕과학문화센터 건설도 추진하였다. 이 센터는 원래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시
관람객을 위한 숙박 및 교류시설로 기획되었으나, 연구단지 입주기관들이 공동활용하는 공
간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인 산학연 연구교류·협력의 공간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이에, 문화센터는 연구교류 촉진, 연구단지 내 문화생활과 생활편의시설 수요 충족,
각종 국제회의와 학술행사 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호텔 수준의 숙
박시설과 대규모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 등을 두루 갖춘 형태로 지어졌다. 이 센터는 1991
년 착공하여 1993년 9월 완공되었다. 이후, 롯데호텔이 임대·운영하다 2003년 목원대학교
에 매각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이 외에도 연구원의 주택자금 융자와 원로과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과학
기술연구 지원 등을 위한 연구원복지기금도 운영하였다.

대덕연구단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과학재단은 재단 내에 독립적으로 연구환경조성사
업단을 만들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나중에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학문화주식
회사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1999년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 무
상으로 법인을 양여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창립 제10주년 기념
(1991. 4. 6.)

1.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다

신진교수와 지방대·전문대 교수로 지원대상 확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3년 첫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1986년 자유공모과제연구비 지원사업과 함께 전 학문분야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수연구자 지원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자, 그 다음 단계로 신진교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1989년 시작한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사업이 대표적이었다. 이 사업은 신입교수의 연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자 시행되었다.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중 신규 임용 후 3년 이내, 40세 이하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자가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자 1999년에는 나이제한을 45세로 높였고, 2000년에는 폐지하였다. 또 1990년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지방대학으로 제한하였다가, 1993년부터는 다시 제한을 풀었다.

이처럼 점차 지원 자격이 완화되자 신청자 수가 매년 급증하여 1991년 449건이던 과제수가 1993년에는 931건, 1995년에는 1,462건, 1997년에는 1,785건으로 늘어났다. 연구비 역시 처음에는 분야와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1998년에는 인문사회 분야 1,200만 원, 기초과학 분야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분야별 지원액 차이가 문제가 되면서 1999년에는 과제당 1,200만 원 이하로 연구비가 조정되었다. 연구자 지원은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수로까지 확대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우선, 1990년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교수의 열악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우수한 교수를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지방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이었다.

또 1996년에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 있는 전문대학 교수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대학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대과제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개의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성격이 겹쳐 이중특혜를 주게 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1998년 다시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학문후속세대로 지원 확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0년대 들어 지원대상을 대학교수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학술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문후속세대까지 폭넓게 확대하였다. 학문후속세대란 보통 석·박사과정 학생과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전까지의 박사학위자를 일컫는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의 출발점은 1993년부터 추진한 신진연구인력연구장려금지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1992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육부에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가 1993년부터 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유능한 신진연구인력 특히 이공계분야의 우수한 석·박사학위 취득자들이 학위 취득 후에도 중단 없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국내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학술연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이었다.

1996년에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이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뿐 아니라 외국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1997년 신설된 박사과정생해외지역연구지원사업은 지역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이 해외 현지를 조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자 해외에 단기체류를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대학부설연구소 중심의 공동연구체제 확립

1990년 이후,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자 개인차원을 넘어 공동연구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 학제간공동연구사업, 해외 지역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동연구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연구소 중심의 공동연구체제를 확립하여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시작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원래 교육부에서 수행하던 이 사업을 1990년 인수하여 새롭게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은 학문 전 분야 대학부설연구소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별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추천된 우수연구소를 우선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업은 대형 공동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를 일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초기단계·도약단계·성숙단계 등 3단계로 과제를 나누어 단계별로 연구결과와 차기 연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4년부터 부설연구소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 대학연구소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소는 '중점육성연구소'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가 명실상부한 대학 학술연구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였다.

중점육성연구소의 지원방향은 ▲중점육성연구소과제와 우수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지원되 점차 중점육성연구소과제로 일원화한다 ▲상호 유기적인 5개 이내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연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개별 연구소가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소별 연구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한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를 적극 활용한다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분야 과제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른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을 10% 이상 활용하여 학제 간·학문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등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6회 전국대학생 연구논문발표회 (1991. 11. 21.)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보데이터구축과 유통체계 확립방안 (1991. 11. 27.)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중·장기 지원계획의 모호성, 대학의 연구소 육성에 대한 의지 결여, 과제중심의 지원방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1999년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였다.

먼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과학기술기초중점영역 지원, 인문사회중점영역 지원으로 분산 시행되던 연구지원방식을 개혁하여 대학부설중점연구소지원으로 통합·집중하는 등 지원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업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대학이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특성화 계획을 제시하는 연구소에 지원을 집중하였다. 대학이 지원 신청액의 25% 이상의 예산을 자체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 전임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였다. 특히, 연구소 전임 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 대학이 연구소 환경과 급여 등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연구성과의 확산·재생산을 위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규강좌를 개설한 뒤 연구소 전임인력에게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점차 대학 내 공동연구를 넘어 학제 간 대형 공동연구로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199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학제간공동연구사업을 인수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학문영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특히,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분야 또는 신생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간 융합연구, 전산과학과 환경과학 등 2개 이상의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 수학과 물리학처럼 동일 계열이면서 세부분야가 다른 연구의 융합 등이 지원대상이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과학기술기초중점연구에 포함되어 더욱 다양한 공동연구로 발전되어 갔다.

이어, 1997년에는 공동연구 지원을 해외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외지역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해외지역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지역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연구 중점연구소를 육성함으로써 연구지역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고, 특정국가(지역)에 관한 학제 공동연구를 강화하였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특정지역 국가의 정치·경제 등과 관련하여 현대적 의미가 큰 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6대 오덕렬 이사장 취임식
(1992. 9. 24.)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 강화

1998년 교육부에서 수행하던 과학기술기초중점연구지원사업 전체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의 과학기술 선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와 기초과학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반도체 연구, 신소재 연구, 기계공학 연구, 유전공학 연구, 생물화학공학 연구, 기초의학 연구, 해양·수산과학 연구, 농업과학 연구, 학제간 연구 등 총 1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기초과학 연구지원이 정부의 30대 중점 관리대상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 사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새 정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연구지원사업을 기능 위주로 개편하였고, 그 결과 한국과학재단은 특정목적 지향적인 기초연구를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인력양성과 자유로운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기초중점연구지원사업의 10개 단위사업 가운데 해양·수산과학 연구만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한 해 만에 종료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과학기술기초중점연구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교육부로부터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이전 받아 1999년부터 새롭게 수행하였다. 지원영역은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등 5개였으며, 지원방식은 크게 기초과학연구소 과제와 기초과학연구자 과제로 양분되었다. 연구소과제는 36개 지정 거점기초과학연구소의 3인 이상 공동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자과제는 단독연구 또는 2인까지의 공동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지원규모는 연구소과제의 경우 6천만 원 이내, 연구자과제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로 하였으며,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년까지 인정하였다.

2000년에는 이 사업의 지원형태가 다시 자유연구과제와 우수선도과제로 나뉘었다. 자유연구과제는 단독연구 또는 4인 이내의 공동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수선도과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적이 있으며 선도적 연구결과가 기대되는 우수연구자의 단독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재조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원사업을 전면 조정하였다. 첫 번째 재조정은 외환위기와 함께 국가 재정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술연구비 예산도 삭감되자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당시는 정부기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전 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강조되던 시기여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역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유사한 분야를 지원하거나 지원목적이 비슷한 사업을 동일 범주에 넣고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전문대 교원의 연구지원비를 자유공모과제로 통합하는 등 9개 분야 39개 지원사업을 통폐합하여 7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지원체제를 단순화하였다.

두 번째 재조정은 1999년 교육부가 고등교육체제의 혁신과 대학문화의 개혁을 목적으로 두뇌한국(BK)21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 사업은 국제적인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대학원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2,0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사업이었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였다. 그 결과, BK21사업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와 고부가가치 창출 특성화 분야의 세계적 대학원 육성에 주력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다른 사업들은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그 기반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역할이 재조정되었다.

사업 재조정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표적인 학술연구 지원사업인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을 선도연구자(개인)과제와 협동연구과제(공동)로 분리·신설하였다는 점이다.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은 전 학문분야 연구자가 각자의 관심분야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6년 시작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8대 김종운 이사장 취임식
(1995. 3. 23.)



또 자유공모과제 공동연구, 국제협력 공동연구, 학제 간 공동연구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공동연구를 협동연구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협동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액도 확대하였다. 더불어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과학기술기초중점영역 지원, 인문사회중점영역 지원으로 분산 시행되던 사업들을 대학부설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연구역량의 집적을 도모하였다.

학술진흥 정책연구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다양한 학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술진흥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83년 수행한 '첨단과학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와 1989년 발표한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9년부터 특별정책과제도 추진하였다. 이 과제는 연구지원사업 패러다임을 연구자 개인의 관심주제 지원에서 국가정책 중심의 학술연구 지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별정책과제의 연구주제는 3개(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주제, 각 분야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주제, 학술지원 정책과 관련된 주제)였으며, 지원분야는 크게 사회정책 분야와 학술지원 분야로 나뉘었다. 사회정책 분야의 세부과제는 지식기반사회, 남북관계, 경제·경영, 교육제도·인적자원 개발, 국가정책·행정, 종교·전통문화 등이었으며, 학술지원 분야 세부과제는 연구비지원 효율성 제고, 제도개선, 해외한국학진흥 등이었다. 이 사업의 예산은 10억 원이며, 지원규모는 단독연구 2,000만 원 이내, 2인 연구 3,500만 원 이내, 3인 연구는 5,000만 원 이내였다. 연구기간은 1년이었다.



광복5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
(1995. 8. 13.)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을 위한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연구 공청회
(1995. 11. 24.)

2. 학술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0년대 후반 들어 학술연구의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1998년 비대학 소속 연구자에게 지원사업의 문을 열었고, 같은 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인문사회 분야 지원에 주력하기 위해 인문사회중점연구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또 1999년 이후부터는 기존에 지원이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속속 신설하였다.

비대학 소속 연구자에 문호개방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 소속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문을 1998년 비대학소속연구자에게까지 전면 개방하였다. 이러한 결단은 우수연구자 육성과 학술발전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제한을 풀고 폭넓게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인하였다. 비대학소속연구자는 시간강사 등 대학에 영구직을 갖고 있지 않은 연구자, 공공 연구기관이나 사설 연구기관의 연구원, 독학한 연구자 등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 따라, 특정 기준 이상의 연구업적을 갖춘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직 연구인력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열렸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실직 연구원이 대학에서 연수를 하거나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 연구과제 선정 시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비대학소속연구자 지원은 1998년 12과제 1억 6,250만 원에서 1999년 약 14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동아시아와 일본의 전후 50년 (1996. 10. 4.)

인문사회 중점연구 지원 시작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1983년 첨단과학기술분야연구비지원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새로운 기초이론을 확립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과학기술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1986년 자유공모과제연구비지원사업을 기점으로 지원사업이 모든 학문분야로 확대되었으나, 1996년까지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지원사업 선정비율은 70 : 30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조속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서 과학기술 역량강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인문사회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5년부터 자유공모과제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비율을 높여 양 분야의 지원비율을 5 : 5로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9년에는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분야의 선정비율이 과제수로는 55 : 45, 금액으로는 46 : 54로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인문사회 중점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과학이 철학으로 확장되고 기술이 예술로 발전하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인문사회 분야 학문발전이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원래는 4개 분야(인문사회 중점영역, 지역개발, 해외지역, 국학연구)로 나뉘어 교육부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었으나,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수행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 중점연구 지원 사업비를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연구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박사급 연구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공간을 보장하는 등의 규정을 통해 이들이 실제적인 전임연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인문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1999년에 다시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소외분야 다양한 지원사업 신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그동안 소외되어 온 다양한 학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 시작된 보호학문강의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문의 다양성 유지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부족과 경제원리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특정 학문분야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자 추진되었다.

보호학문이란 ▲기초학문의 특수한 분야로 전공교육을 위해 반드시 육성이 필요하나, 대학의 여러 여건상 전임교수를 확보하거나 전공강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학문영역 ▲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소외된 학문영역 ▲학문의 다양성 보호와 균형 발전을 위해 육성·지원해야 할 기초 특수학문 영역 등으로 정의된다.

이 사업은 수행 첫 해부터 지원자가 대단히 많아 신청과제 가운데 약 10% 정도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분야는 학문 전 분야였고, 최종 선정과제에는 1년 동안 약 1,2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과 교육·예술 등 다양한 소외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추진한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사업은 동서양의 명저와 우리나라의 고전을 체계적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사업을 초·중·고등학교의 독서운동과 긴밀히 연계하고 성인교육으로까지 확산하여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2000년 신설된 유·초·중·고 교육정책 및 교원양성연구지원사업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원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선진적인 수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교원의 임용·재교육 등에 관련된 기초연구를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특히, 학문후속세대의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교원양성 분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술이론 및 예술교육연구지원사업은 학술적인 연구여건이 취약한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에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예술분야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예술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예술분야의 이론연구와 교육연구 지원을 통한 예술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공연·창작 활동에 치우쳐 소외되기 쉬운 이론과 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또 예술 기초분야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원분야는 예술(음악·미술)의 이론과 교육으로, 예술계 대학 전문학위제도 연구(Dr. of Art, Dr. of Design), 한국음악, 미술교육의 세계화 방안연구, 예술과 테크놀로지 연구, 커리큘럼 연구, 기타 창작이론 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 시행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대학교육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대학교재 제작을 지원하여 교육정보화 추세를 선도하고자 시작되었다. 학술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

하려면 교육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대학들은 이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 강의 중인 과목 중 수요가 큰 과목의 교재를 디지털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외국이나 지방분교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본교와 동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데 디지털 교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3.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다

제2국제회관 신축과 신청사 이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4년 4월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와 통합하는 동시에 국제교류협회가 운영하던 국제회관을 인수하였다. 국제회관은 국제교류협회가 외국인 유학생 편의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종로구 동숭동의 옛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자리에 건축한 건물(8,188㎡ / 2,477평)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건물을 인수하여 관리동은 사무실로, 숙소동은 외국인 유학생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점차 국제회관의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1986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학술단체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제

한국학술진흥재단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학술발전 (1997. 11. 7.)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경

2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당시 국제회관의 숙소시설은 실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해마다 40~50명의 유학생이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문사회 분야 학회는 연구수탁사업이 많은 자연과학 분야 학회와 달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학회에 시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제2회관 건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8년 5월 10일 제32차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제2국제회관 설치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1989년부터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공간은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의 교육연구시설단지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고지원 중단과 예산 부족, 매수자 변경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제2국제회관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1997년이였다.

1997년 10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드디어 서울시 염곡동의 지하1층, 지상5층의 신청사로 이전을 했다.



한국과학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1992. 5. 15.)

1. 연구인력 양성사업 다양화 · 전문화 시대 맞이하다

과학영재 육성 본격화

한국과학재단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잠재력 있는 과학영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였다.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고등학교 등의 과학영재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과학영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세계 과학영재들의 두뇌경연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1998년 시작된 과학영재교육원지원사업은 한국과학재단의 대표적인 과학영재 육성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창조적 과학기술 능력 배양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명칭이 과학영재교육센터였고 한국과학재단이 센터를 선발하여 지정하는 체제였으나, 해를 거듭해 사업이 활성화되고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과학영재교육원으로 바뀌고 센터도 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대학의 부설기구로 설치되며, 교육원 대표자를 책임자로 하여 지도교수, 지도강사, 조교, 행정담당자 등으로 구성·운영되었다. 대부분 대학 내부 인력으로 강사진이

구성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인력도 적극 활용하였다. 교육과정은 중등과정과 초등과정으로 구분되었고, 중등과정이 핵심이었다. 중등과정은 수학·물리·화학·생물·과학·지구과학·정보과학 등 7개 교육 분야의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초등과정은 초등수학·초등과학·초등정보 등 3개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참가지원사업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를 지원하여 우수한 과학두뇌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1988년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재단 내에 설치된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가 총괄하였다. 위원회는 수학·물리·화학·정보·생물·천문 분야 올림피아드에 파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를 시작으로 1992년 물리·화학·정보올림피아드, 1998년 생물올림피아드, 2003년 천문올림피아드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000년대 들어 이공계 기피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새롭게 과학영재교육진흥연구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과학영재 교육진흥과 관련된 기획연구를 강화하여 국가 과학영재 교육정책 수립·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2003년 시작된 사업이다. 국가 과학영재교육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영재 교육관련 정책현안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과학영재 교육진흥 및 기반확충을 추진하는 과학영재 교육기관, 관련 학회, 단체, 교수 등이었다.

과학고영재교육내실화지원사업은 과학교육 내실화를 통해 과학고등학교를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의 모체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구활동 중심의 과학교육을 수행하는 과학고R&E프로그램, 과학고교사현장연구(AR: Action Research)프로그램, 과학고가 자율적인 실험탐구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고 과학교육도화지원사업, 과학적 창의성과 잠재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학생선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고 학생선발개선사업 등으로 세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과학재단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단 환영식
(1993. 7. 24.)





한국학술진흥재단
시드니대학 PACKS 회의
(1996. 6. 27.)

우수 해외인력 유치하는 브레인풀제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2년부터 브레인풀(Brain-pool)제도 즉,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제도를 실시하여 국내 연구인력 수준을 제고하여 왔다. 브레인풀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 동포과학자들을 초빙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기술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브레인풀은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임용하던 교수를 정부가 나서서 공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초빙한 우수인력은 주로 재정이 어려운 국내 대학에서 활용되었으며, 대학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연구 중심의 대학환경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예비심사, 분과위원회 심사, 운영위원회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된 뒤, 학력·연구실적 등 개인별 DB를 전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별 수요 인원을 파악하였다. 이후 본인과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여 배치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학은 브레인풀을 통해 지원받은 인력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근무평가가 좋은 경우에는 전임교수로 임용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실행 첫 해인 1992년 29명을, 1993년에는 201명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브레인풀제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 사업은 1993년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한국과학재단 브레인풀
재단방문 환영사
(1997. 10. 29.)

해외한국학 지원 큰 폭 조정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해외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1990년 발간한 '해외한국학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해외한국학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가는 모두 30여 개국의 150여 개 기관이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학 관련 새로운 학회가 다수 설립되었는데, 아시아태평양한국학회(PACKS)와 미국한국어교원연합회(AATK) 등이 대표적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들 학회에도 학술활동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본연의 업무인 대학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에 치중하기로 하면서 해외한국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때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해외한국학에 대한 예산 지원보다는 한국학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대학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기존의 강좌 지원대상 기관은 줄이고, 그 대신에 한국학 전공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국내 초청연구(연수)는 강화하는 식이었다.

또 1992년 외교통상부(당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어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업무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내 학술진흥 차원에서 한국학을 지원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협력 및 협력기반조성 차원에서 한국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마무리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대상 기관이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9년을 기준으로 미주지역 15개, 유럽 13개, 아시아·호주 지역 12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베트남,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도 새롭게 해외한국학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에서도 한국학 지원 붐이 일어났다. 당시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힘입어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던 때였다. 기업들은 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직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해외한국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한국학지원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해외한국학 지원은 그 대상이 해외에 분산되어 있어 개별 국가의 특징에 맞는 지원방법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였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유럽·호주·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한국학 지원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술회의에 참관하는 등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시행하였다. 또 재외 공관의 협조를 얻어 36개국 110여 개 기관에서 진행되는 한국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료도 수집하였으며, 1998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해외한국학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양 기관이 특정 기관을 이중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제도 시행으로 한국어보급 확대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자, 외국인의 국내 유학·연수·취업 그리고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진출 등이 활발해졌다. 각 분야에서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학습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한국어능력 측정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Korean Proficiency Test) 모형을 개발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위원회
(1997. 2. 1.)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7년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한국어능력시험을 국내외에서 1년에 2회 정도 시행하여 한국어 교육기관의 연수, 교육과정, 교육평가 방법을 표준화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 교민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였다. 1997년 10월 26일 치러진 첫 시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 14개 시험장에서 시행되었고, 총 2,274명이 응시하여 711명이 합격하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기업 등에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에게 장학혜택이나 입사 시 우대조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사업은 1999년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2. 한국장학회와의 통합으로 사업규모 확대하다

한국장학회와 통합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9년 4월 22일자로 한국장학회와 통합하였다. 정부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통합하였으며, 1999년 5월 21일 「한국장학회법」을 폐지하고 「학술진흥법」을 전문 개정함으로써 한국장학기금 역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승계하였다. 한국장학회는 1989년 3월 31일에 제정된 한국장학회법(법률 4104호)과 1989년 3월 1일에 설치된 한국장학기금을 기반으로 그 해 5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법인이었다.

새롭게 장학지원사업을 맡으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내 최대의 장학기관이 되었으며, 학술진흥과 장학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인력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다양한 장학지원사업 추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수행한 장학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상·무이자대여 학자금지원사업이었다. 이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두뇌의 육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199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번 선발된 장학생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소속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장학금은 크게 무상학자금과 무이자대여장학금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다. 무상학자금(Grants)은 통상적인 장학금으로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무이자대여학자금(Loan)은 이자는 없으나 지원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환해야 하는 것이었다.

원래 두 가지 모두 정부 출연금 운용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으로 지원되었으나, 2000년부터 출연금이 민간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줄어 무상학자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1999년에는 무상학자금의 비율이 약 44%였으나 2000년에는 약 36%, 또 2001년

부터는 30% 이내로 줄어들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9년 사업 인수 이후, 장학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능한 국내 대학원생에게도 무이자대여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학술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사도장학금지원사업은 사범계 대학생 중 교원으로서 적성과 자질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자 1990년부터 추진되었다. 이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국·공립대학의 교육학과,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및 교육대학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각 대학의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가 추천한 학생이었다.

2000년대 들어 교원자격시험 경쟁률이 높아지고 국가가 교원양성만을 이유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사도장학금지원사업의 예산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사범대학(교육학과 포함)과 한국교원대학교는 2002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05년 모든 지원이 종료되었다.

전 국민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은 1994년부터 수행되었다. 이 장학금은 농어촌출신 대학생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에게 학자금을 용자해주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각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부양의 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학생은 학기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상환방법은 무이자대여 학자금과 같았다. 이 사업들은 정부 부처의 업무 조정에 따라 2009년 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되었다.



한국과학재단
캐나다 자연과학공학연구회
(NSERC)와
협력양해각서 체결
(1993. 5. 12.)



한국과학재단 중국 길림성
과기위 과학기술 대표단 방문
(1993. 9. 2.)

3.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다

국제교류협력사업 다양화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흐름이 빨라지자 한국과학재단은 국제공동연구와 국제공동세미나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점차 강화해 나갔다.

한국과학재단의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은 기관간협력사업으로, 크게 연구지원사업과 인력교류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연구지원사업은 한국과학재단이 외국 협력기관과 교환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승인한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연구능력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인력교류사업은 국내 연구자에게 선진 외국의 주요 연구동향 파악과 최신 연구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역량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 시기 한국과학재단의 국제협력사업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Core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의 특정 연구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동연구, 과학자 교류, 공동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각 나라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운영방식에 따라 다시 Core University Program, Asian Core Program, A3 Foresight Program 등으로 나뉘었다.

Core University Program은 한국과 교류대상국(일본)에 지정된 거점대학을 통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연구협력을 수행하는 것이고, Asian Core Program은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선도과학자를 양성하고자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A3 Foresight Program은 한·중·일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세 나라의 공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한국과학재단의 글로벌인력교류사업 가운데 1990년대에 신설된 것으로는 먼저, 한·중 신진과학기술자교류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한·중 간 정례적인 신진 과학기술자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1994년 시작된 것으로, 1993년 한·중 국교수립에 따른 양국 과학기술장관 회담 시 체결된 협력각서를 근거로 한국과학재단과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사이에 추진되었다. 지원대상은 이공계 전 분야의 만 45세 이하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파견국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초청국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외국인과학기술자교류지원사업은 외국의 젊고 유능한 신진과학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국내 연구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95년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은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체재비와 보험료, 왕복항공권 등이 지급되었다. 이 사업의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이집트, 헝가리,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 수단,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었다.

교육부의 국제협력사업 인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80년대 중반부터 해외 학술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공동연구, 학자 상호방문 연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국제학술교류활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80년대까지는 이러한 활동이 독일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5년 독일의 훔볼트재단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1987년 독일연구재단(DFG), 1988년에는 독일학술교류처(DAAD)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제학술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90년 4월 한국 IBM, 미국 IBM, 한국학술진흥재단 3자간 학자 연수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의 우수한 과학도를 선발하여 IBM 왓슨 연구소(Thomas J. Watson Research Center) 또는 IBM 알마덴 연구소(Almaden Research Center)에서 연수할 기회를 주고 왕복항공권과 체재비, 현지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술연구지원기관과의 협정은 아니었지만 국내 기초 과학기술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6년에는 호주연구협의회(ARC)와 학술정보 교류 및 협력연구과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인문사회 분야 학자 상호교류를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학술교류 지원사업은 1993년 교육부의 국제협력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대폭 확대되었다. 인수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학교수국비해외파견연구지원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대학교수가 해외 파견연구를 통해 직접 선진 연구현장을 체험하고 첨단 연구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었다. 파견 기관은 주로 선진국의 저명한 대학이나 연구소였으며,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파견이 가능하였다. 파견교수에게는 항공료,

생활준비금, 체재비가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몇 차례 제도의 변화를 겪었으나, 큰 범주로 보면 연구파견과 강의파견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연구파견은 외국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와 현행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것이고, 강의파견은 외국대학·연구소에서 한국학 강의를 요청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밖에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교수를 파견하는 특수목적파견도 있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사업을 인수하는 동시에 파견 대상국을 기존 미국·일본에서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하였다. 또 기존에 없던 공동연구지원 방식도 추가하였다. 이는 각 대학에 파견교수 선발을 위임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이 방식 도입과 함께 파견교수 경쟁이 점차 치열해졌다.

1993년 이관된 사업 가운데는 국제협력공동연구지원사업도 있었다. 이는 국내 대학이 해외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첨단과학과 기초과학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인문사회 분야는 구체성 있는 연구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6년 이 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지원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1998년 국제협력연구지원사업으로 통합된 후, 이듬해에 다시 협동연구과제에 통합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미국 IBM Watson 연구소
세이모어 켈러 (Seymour Keller)
박사·부소장 방문
(1993. 5. 12.)



1.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다

학술단체 급증에 발맞춰 학술지원 강화

1981년 정부의 대학정원 확대 조치에 따라 대학마다 교수가 확충되고 학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회를 비롯한 학술단체도 급증하였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8년부터 개인연구를 넘어 학술단체 중심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학술지발행 지원과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이 그것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회의 수도 급증하여, 1981년 300여 개에 불과하던 국내 학회는 1997년 976개로 늘어났다. 또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 발행도 급증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지원은 1991년 교육부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사업을 인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는 해마다 신설학회가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술지 발간비를 신청하는 학회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은 학회수는 1991년 424개에서 1997년 405개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당시 학회당 평균 지원액은 100~140만 원 정도였다. 1996년부터는 국내의 우수 국제학술지를 지원하는 국제학술지발간지원사업도 시행하였다.

학술대회개최지원사업은 학회지 지원보다 조금 늦은 1993년에 교육부로부터 인수하여 시작되었다. 시작 시기는 늦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학술단체 지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 사업 초기에 170개에 불과하던 지원단체 수가 1997년에는 342개에 이르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우수 학술대회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대회들을 규모 · 성격에 따라 A · B · C등급으로 나누고 예산을 차등지급하였다.

1990년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한 여러 학술지원 행사 가운데 특기사항은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종합학술대회'이다. 이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여, 과거 청산,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 언론, 교육, 한국의 미래, 일제 식민지정책 및 정신대문제, 문학 · 예술, 여성, 국방 등 11개 중점 연구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 발표하는 학술행사였다. 이 행사를 통해서도 출된 113편의 논문은 1995년 4월에서 7월까지 열린 22개의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었고, 이후 분야별로 취합되어 같은 해 8월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11권)으로 발간되었다. 이 기념논문집은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학술문화 창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학술지평가 시작

1997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R&D 투자규모와 인력규모가 각각 세계 7위, 10위인데 반해, 연구성과의 질은 기술협력 43위, 과학교육 24위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합순위 역시 22위에 불과하였다. 연구비지원의 급증과 대학의 외형적인 성장이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에 비해 연구성과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이 효율적인 지원체제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8년부터 그동안 연구비지원 사후관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과논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연구지원사업이 종료된 뒤 후 결과논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 연구자를 안일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과논문 평가가 점차 확대되었다. 또 2000년부터는 결과평가에서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연구자의 연구과제 신청제한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술지평가사업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 학술지를 연 2회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된 학술지를 등재후보지로 선정한다. 이후 2년 동안 계속평가를 실시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지평가사업을 통해 드디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 등재후보지제도(이하 등재지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학술지평가사업은 기본적으로 연구성과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다. 실제로, 학술단체가 급증하면서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대해



한국학술진흥재단
광복5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
(1995. 8. 13.)

종종 오해가 발생하였으나, 학술지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되면서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또 대학들도 교수 업적평가·연구비평가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학술지 등재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여러 차례의 공청회·간담회·회의·모의평가 등을 통해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분과위원 평가, 주제전문가 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98년 첫 평가결과, 등재후보지에 선정된 학술지는 총 56종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술지평가위원회도 설치하였다. 1999년 9월에 제정된 '학술지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술지평가사업에 관련한 정책결정과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심의 그리고 유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위원회는 산하에 인문·예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되었다.

1999년부터는 학술지평가사업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여러 학술단체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학술지 발간비를 지원할 때 등재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나눠주기 식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연스럽게 지원대상의 수는 줄고 전체 지원금액은 증가하였다. 실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7년까지 해마다 400개 내외의 학술지에 대하여 5~6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1998년에는 162개 학술지에 약 7억 원을, 그리고 2000년에는 298개 학술지에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2. 연구관리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적극 권장

1990년대 초까지 국내 대학들은 연구비 관리·집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국가재정으로 지원한 연구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각 대학에 학술연구비 중앙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점차 연구비 관리·집행이 체계를 갖추어갔다. 연구비중앙관리제도란, 수혜기관(대학)이 연구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비에 관련된 모든 수입·지출을 총괄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와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연구비중앙관리에 가장 선도적이던 서울대학교의 경우 1993년 1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 한국과학재단 역시 1992년 3월 '연구비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연구비관리는 연구관리 조직에서 중앙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관리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3년 8월 교육부가 국내 13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1개 대학이 연구비 관리규정을 두고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었으나 전담기구를 두고 철저한 중앙관리를 하는 대학은 7개교에 불과하였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중앙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1994년부터 해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을 3등급으로 나누어 간접연구경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연구비중앙관리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어 1998년 말에는 전국 181개 대학 중 158개교가 연구비 관리 규정을 만들어 중앙관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많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1999년부터 거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관리할 대학의 회계관리체계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였다. 연구비 관리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단과대학 단위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학별로 간접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였다. 또 연구비중앙관리 실태평가에 따라 간접연구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2000년에는 실태평가 최상위 등급을 확보한 대학에만 연구력향상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 도입

1990년대 들어 국내에도 PM(Program Manager, 연구관리전문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PM은 학술·연구개발 전 과정(기획·연구·평가·성과관리 등)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그리고 PM제도는 PM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여 연구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독일연구재단(DFG) 등의 선진 기관은 일찍이 PM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199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소(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처음으로 PM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정책연구소는 연구사업 평가·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출연(연)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 받아 PM으로 위촉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1999년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3년부터 각각 PM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도 한국과학재단에서는 연구개발심의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외부 전문가가 재단의 각종 사업운영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PM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직접 조직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됨으로써 지원사업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두 기관은 2005년부터 PM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책임전문위원제를 통해 지원사업 평가와 사업관리 전반을 PM이 총괄하기 시작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역시 PM이 평가와 분야별사업을 총괄하였다.

연구지원사업 심사·평가, 업적중심으로 전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사업 심사·평가가 업적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기존에도 특허등록 수와 학술논문 발표 수 등을 기반으로 업적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나, 일정 기준 이상의 지원대상에 대해 균등하게 예산을 나눠 분배하는 경향이 훨씬 더 짙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들어 연구비 지원 대비 논문의 수준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연구성과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객관적으로 업적중심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때부터 지원사업 신청자의 기존 논문이 SCI(Scientific Citation Index)에 등재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가 업적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SCI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기술논문색인인 만큼, SCI에 논문이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한 연구업적을 확보한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한국과학재단은 1995년부터 연구과제 평가 시 SCI 논문실적을 일부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역시 1994년부터 대학을 학과별로 평가하는 학과평가인정제가 도입되자 SCI 논문실적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논문 업적평가가 지나치게 SCI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적평가 항목을 다양화하고 SCI 이외의 대안 DB 활용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개선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SCI는 업적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업적평가를 더욱 강화하였다. 1999년부터는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계획서와 더불어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신설된 선도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는 이전 5년간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만, 그리고 이공분야는 등록된 국내외 특허를 포함하여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특허를 게재한 연구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또 이 5편 안에 반드시 SCI급 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1998년부터 기존의 학술연구심사운영위원회를 2개의 위원회로 분리하여 과제선정심사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비 규모·연구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학술연구평가위원회는 계속과제의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세분화·전문화하였다. 두 개의 위원회는 1999년 다시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회로 합쳐졌다.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평가결과의 공개도 시도하였다. 심사평가위원회의 명단, 평가기준, 탈락사유, 관련 회의록을 희망자에게 공개한 것이다.

연구지원관리 전산화 빠르게 진행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연구지원관리 전산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1985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연구사업관리 전산화를 위탁하여 1986년부터 관련 업무를 일부 전산 처리하였다. 1991년에 전산 전담부서인 정보관리과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1992년에는 주전산기인 HP9000/827S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전산화를 추진하였다. 이때부터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연구인력DB와 재단 MIS(인사·급여·예산·자료 등)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업무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94년에는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의 성과물인 연구보고서의 서지사항과 전문을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95년에는 과학기술연구인력DB를 외부로 서비스하는 연구정보지원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996년에는 네트워크 전용 서버인 SPARCcenter 2000E를 설치하여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역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인터넷으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수정·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였다. 이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학의 각 행정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연구자 인력정보를 서비스하는 체계였기 때문에 정보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정보도 많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연구과제 지원신청서에 굳이 연구자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없어 지원양식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러한 인력정보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연구지원신청서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행정업무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역시 심사현황에 대한 집계·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심사착수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신청 시점에 요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가 애써 신청한 과제가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과제를 심사하는 데 드는 시간과 행정적인 낭비가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한국과학재단 전산실에서
연구정보팀 업무모습
(1996. 6. 25.)

3. 연구정보서비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다

연구정보 지원사업의 활발한 전개

1990년대 들어 연구지원사업 프로세스 전반이 빠르게 전산화되면서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원사업 결과로 도출된 다양한 연구정보를 온라인상에 구축·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연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종합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는 물론 관련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94년부터 연구전산망을 통해 연구인력정보와 목적기초연구 보고서의 서지정보·초록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중복·유사연구를 방지하여 연구효율성을 높이고자 1994년부터 연구정보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재단은 연구보고서 등의 연구정보를 더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과학적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지원사업 효과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 수행 시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연구기획은 물론, 연구방향 설정, 연구실행 등 연구 전 과정의 기반이 되는 학술연구정보를 구축·확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서도 여러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전국의 연구자 인력정보와 연구성과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분야별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과 ‘외국학술잡지 목차속보’ 등을 발간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선진국 선행기술·동향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0년대 들어 ‘외국박사학위 논문집’과 ‘연구과제 목록집’ 등을 펴냈다.

외국박사학위 논문집은 해방 이후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의 초록을 모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1991년 외국박사학위 신고업무를 맡으면서 자료를 모을 수 있게 되어 1992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집은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신진 연구인력의 관심분야와 최신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또 1994년부터 발간한 연구과제 목록집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유사·중복연구 방지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이 목록집은 1998년까지 발간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5년부터 ‘학술연구지원 통계연보’도 발행하였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 실적, 통계현황, 사업내용 분석 등을 자세히 수록한 자료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술지원 흐름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정보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간행물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학술정보가 웹상에 구축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면서 점차 발행이 중단되었다.

1997, 1999
학술연구지원 통계연보 표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83년 ‘학술연구 인명DB’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학술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1987년에는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 결과논문을 29항에 걸쳐 전산처리하였고, 1988년에는 국내 학회·협회·대학부설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논문의 서지사항 등 6개 항이 수록된 논문기사 색인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학술정보의 전산화가 본 궤도에 오르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7년 학술연구인명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학술연구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1988년에는 각 대학에 산재해 있는 학술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학술정보관리시스템(AIMS: Academ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였다. 또 1993년에는 주전산기 TICOM II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에는 5개의 학술정보 DB를 주전산기에 변환·탑재하였다.

1996년 3월에는 처음으로 온라인학술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당시 서비스된 DB는 외국박사학위논문초록 DB, 국내학회정보 DB, 국내학술연구정보 DB 등 이었으며, 교육망과 국내 정보통신망인 하이텔(Hitel)을 통하여 제공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온라인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

첨단학술정보센터 출범

1996년 12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정보 전산화와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첨단학술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이 센터는 학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연구하고, 국내외 최신 학술연구 정보를 제공하여 선진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범국가적 학술정보망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첨단학술정보센터는 1997년 2월부터 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술정보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센터가 수행하는 서비스에는 도서종합목록서비스, 해외학술정보서비스, 학술지논문정보서비스, 학술지원정보서비스 등이 있었다. 우선, 도서종합목록서비스는 전국 대학도서관이 소

한국학술진흥재단
첨단학술정보센터 개소식
(1996. 12. 27.)



장한 학술도서, 정기간행물, 기타 비도서 자료에 관한 목록을 통합·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가 어느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해외학술정보서비스는 해외 최신 학술논문의 초록·원문을 수집하여 RISS를 통해 국내 연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추진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시공의 구애 없이 RISS를 통해 해외학술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연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술지논문정보서비스는 국내외에 산재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논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학술지에 수록된 목록정보를 수집하고 DB화하여 논문을 소장한 정보센터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학술지원정보서비스는 학술연구 관련 현황·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학회 DB, 대학부설연구소 DB, 연구인력 DB, 해외취득박사학위논문 DB 등을 제공하였다.

첨단학술정보센터는 대학교수,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무료로 최신 학술정보를 웹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조직이었다. 이 센터는 199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이관되었다.

3. 선진한국 향해 날개를 펴다

2000~2008



1절

21세기 연구환경의 변화

1. 21세기 정보화·첨단화 사회 돌입하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전 세계는 첨단화·정보화 시대로 들어섰다. 20세기의 경제성장이 물리적인 제품의 대량생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21세기의 경제는 누가 더 뛰어난 첨단기술을 소유하는가와 누가 더 다양한 지식정보를 확보하여 거기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에 좌우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미국의 문명 평론가인 앨빈 토플러의 저서명을 따서 흔히 제3의 물결로 지칭되었다.

첨단화·정보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원천기술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하였다. 기존의 물리적 투입 의존형 국가성장 모델과 선진기술의 도입·응용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한계점을 드러내자, 선진입국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20세기 말까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해외기술의 도입·소화·개량에 집중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기술력을 보였다. 그러나 핵심기술과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기초과학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17.8%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 계획이 이전 계획들과 다른 점은, 미래유망 신기술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 과학기술을 매개로 국가의 주요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년)」으로 조정되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매우 강력한 과학기술 중심 정책을 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전격 개편하였다. 우선,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범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기획·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하였으며,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조정·평가기능을 담당하도록 행정체제를 재설계하였다. 더불어 과학기술혁신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토의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였고, 국가R&D예산 편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략적인 투자·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조정·배분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2003.8.)',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수립(2004.7.)' 등을 추진해갔다. NIS 구축방안에는 핵심 과학기술인력 1만 명 육성, 이공계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투자를 2008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7%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2003년 6조 5,154억 원(기금 포함)이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05년 7조 7,996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2. 대학 중심의 학술진흥 강화하다

새로운 세기의 출발과 함께 정부는 국가경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 전 분야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년 1월 기존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2008년 2월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정부의 대학 중심 학술진흥 강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는 1999년 두뇌한국(BK)21사업을 시작으로 고등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대규모 대학재정지원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국가 경제사회의 뿌리인 전 분야 기초학문을 육성하고자 기초학문육성사업, 2004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 그리고 2008년에는 대학이 스스로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인문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다. 2000년에는 인문학 분야 다양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인문학육성지원사업, 그리

고 2007년에는 대학 내에 인문한국(HK)연구소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인문한국(HK: Humanities Korea)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HK사업은 2006년 전국 대학의 인문학 교수들이 '인문학 선언'을 통해 무차별적 시장논리에 의해 인문학이 죽어가는 현실을 개탄하자, 기존의 인문학 소외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지원사업의 체계도 혁신해 나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9년부터 30여개의 사업을 단독연구, 공동연구, 대학부설연구소, 특정분야 지원의 네 가지 틀로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과제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또 연구계획서 중심에서 업적중심으로 바꾸는 등 지원사업의 체질개선에 몰두하였다. 또 1999년 BK21사업이 시작되자, 이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또한, 21세기 들어 학술지원관리 전반이 빠르게 정보화되자, 온라인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다. 2007년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공유하는 연구성과물 아카이브인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발족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정보를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계량화된 학술지 인용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구축·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KCI는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과학적 인용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 현황피학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학술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보화 발전방향 공유마당 (2007. 1. 23.)



3.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새로운 역할을 맡다

200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과 함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각각의 역할을 새롭게 재조정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큰 틀에서 부처 간 국가R&D 지원체제를 조정하여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재단은 탁월성 중심의 목적기초연구를,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보편성 중심의 순수기초연구를 지원하도록 역할분담을 진행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의 사업 재조정

지원사업 재조정과 함께 한국과학재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원천기술 · 복합기술 · 태동기술에 관한 R&D사업을 인수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순수기초연구사업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한국과학재단은 기존의 목적기초연구사업 중심의 기초연구지원기관 수준을 넘어 '종합적인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사업단위별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사업수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 2005년 1월 26일 KISTEP과 인수 · 인계 협약서를 작성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모두 6,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KISTEP의 직원 30여 명도 함께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의 예산은 1조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21세기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원천핵심기술과 공공복지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 및 방사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한국과학재단은 이러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책연구단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국제화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은 2005년 KISTEP에서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된 뒤, 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2007년 1월 15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으로 다시 이관되었다가, 2009년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연구재단으로 승계되었다.

이와 반대로 한국과학재단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사업도 많다. 우선, 2004년 12월 목적기초연구사업의 틀에서 운영되던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 여성과학자지원사업 등의 개인연구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이 사업들은 우수연구센터(SRC · ERC) 등 집단연구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개인연구 강화 차원에서 2000년에 새롭게 시작된 것들이다. 더불어, 2004년 신설된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도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해외현지연구개발지원사업(박사후 해외연수지원사업, 해외공동연구지원사업, 해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된 사업(2005. 1. 31.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5년 예산	
특정연구 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129,900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43,031
	차세대성장동력사업	15,500
	우주기술개발사업	120,704
	국가지정연구실사업	46,700
	연구기반구축사업	26,700
	핵심연구개발사업	1,270
	연구기획평가사업	7,664
	소계	391,469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원자력 핵심기술개발사업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12,950
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2,800
방사선기술(RT)개발사업		5,500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		9,000
원자력중장기계사업 등		151,625
소계		191,375
과학기술 국제화	국제공동연구사업	11,500
	국제화기반조성사업	9,906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650
	동북아 R&D허브기반조성사업	21,000
	국제과학기술센터 인건비	150
	연구기획평가사업	830
	소계	44,036
합계	626,880	

석박사학위취득지원사업)과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사업(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 해외석학단기유치활용사업, 해외과학기술자장기채용사업, 외국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구사업,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활용사업)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역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과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RRC사업은 지역 비교우위 산업과 지역대학의 우수한 R&D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며,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은 신규 임용 교수의 연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1998년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명	예산	
기초과학 연구사업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17,500
	선도과학자육성지원	4,050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0,000
	선도기초과학연구실지원(ABRL)	5,000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6,000
	여성과학자지원	8,500
	우수여성과학자도약연구	(4,380)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	(2,200)
	여자대학교연구기반확충	(1,000)
	WSE 프로그램지원	(920)
소계	50,050	
과학기술 인력양성 활용사업	신진연구자연수지원	13,000
	해외현지연구개발지원	33,600
	박사후해외연수지원	(11,000)
	해외공동연구지원	(2,000)
	해외석박사학위취득지원	(20,600)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동	11,606
	해외고급과학도보초빙활동	(6,300)
	해외석학단기유치활동	(500)
	해외과학기술자장기채용	(700)
	외국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구	(3,106)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활동	(1,000)
	소계	58,206
	합계	108,256

사업명	예산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RRC)	28,779
신진연구자연수지원	10,000
소계	38,779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 재조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에 따른 역할 재조정으로 2004년 12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980억 원 규모의 기초과학지원사업을 인수하면서 외연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로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기초과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전 분야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2004년 기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약 2,220억 원이었다. 이 중에는 BK21사업과 NURI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비용이 약 115억 원이 계산되어 있어, 순수한 연구비는 2,105억 원 정도였다. 여기에 한국과학재단 사업을 인수하며 약 980억 원을 더 투입하게 되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 연구활동조성비 총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르렀다(장학사업 예산 약 3,000억 원 제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가운데 약 1,200억 원을 인문사회 분야에, 또 약 1,800억 원을 이공분야에 지원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막대한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2006년 연구비형태를 크게 4가지로 체계화하였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형태는 '우수(기초)연구지원'으로 기초연구 과제지원,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등에 약 1,900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 다음으로 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학술단체지원사업, 기초학문자료센터지원사업 등 '학술기반구축'에 500억 원 정도가, 여성과학자지원사업,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등 특정취지를 갖는 사업에 370억 원 정도가, 그리고 국제교류에 240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업무 이관 협약식
(2004. 11. 26.)



2절 기초·국책연구지원사업의 도약



한국과학재단 KISTEP사업인수
(2005. 1. 25.)

1. 대형·원천기술 연구지원으로 사업 확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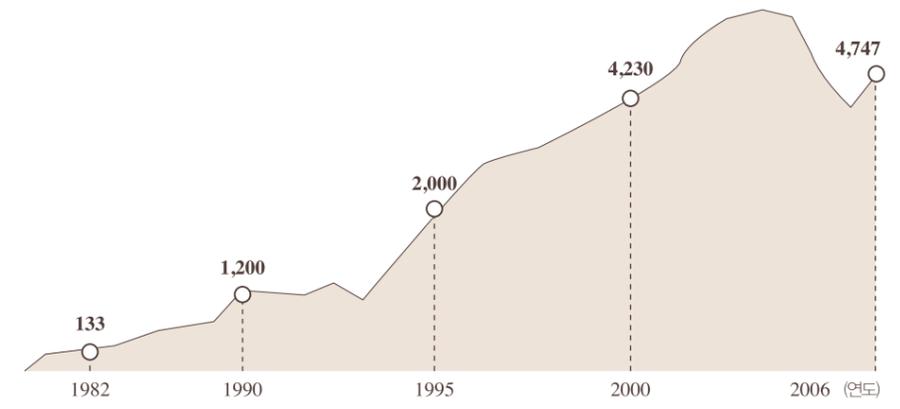
한국과학재단은 200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모두 6,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대형·원천기술 연구지원사업으로까지 사업 범주를 대폭 확장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기초연구 지원기관 수준을 넘어 '종합적인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새롭게 추진

한국과학재단이 새롭게 지원하기 시작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미래원천기술과 핵심기반기술 그리고 대형복합·공공원천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1982년 당시 과학기술처의 국책연구과제로 출발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의 종류·성격을 발전시켜 왔다. 이 사업은 핵심연구개발사업, 나노기술개발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 현황(1982~2008)

단위: 억 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가운데 핵심연구개발사업은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산업 간 파급효과가 큰 공공적 기반기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등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로 관계부처나 민간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의 기반기술 지원에 힘썼으며,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체험형 전시기술과 한국우주진공관측망(KVN)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21세기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나노기술개발사업은 21세기 신산업과 기술혁명을 주도할 나노기술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한국과학재단은 이 사업을 KISTEP으로부터 인수받아 창의적인 나노기술 기초연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미래신기술 발굴을 위해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제 간 융합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나노기술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나노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은 21세기 바이오경제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바이오 관련 연구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시 핵심원천기술개발과 분야 간 융합연구로 나뉜다. 핵심원천기술개발은 기술경쟁력에 대한 우위 확보가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분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오믹스, 바이오소재, 신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융합연구는 이들을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과학재단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현판식
(2007. 12. 12.)

이와 함께, 21세기 미래사회를 내다보고 신산업을 선도할 미래원천 핵심기술과 공공복지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사업은 1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는 강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대형연구개발 사업이다.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특징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책임운영제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또 국내외 과학기술동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보교류회를 주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예산의 10% 이상을 국제 협력사업에 할애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었다. 이 사업은 1999년 2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최대 22개까지 사업단이 운영되었으나,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16개 사업단으로 조정되었다.

우주기술개발은 타 분야에 비해 부가가치가 뛰어나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2000년대 들어 큰 주목을 받았다. 우수기술개발사업은 핵심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2015년경 세계 10위권의 우주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구관측과 통신 등에 활용할 위성체와 1.5톤의 저궤도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그리고 우주 통신·방송기술, 위성항법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다. 또 우주센터를 통해 국제수준의 발사 서비스 능력을 확보하고, 위성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는 위성활용 분야 기술도 개발하였다.

2000년대 우주개발사업의 특징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양성이었다. 2006년 12월 두 명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여 러시아에서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소연이 2008년 4월 한국 첫 우주비행에 성공하였다.

원자력 강국을 향한 원자력연구개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함께 한국과학재단이 인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키우는 데 모태가 된 사업이다. 원자력 핵심기술과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농업·환경·공업적인 이용확대,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원자력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시작되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는 1992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2001)이다. 이 계획은 차세대 경수로와 고속증식로 등을 개발하여 원자력 기술의 자립·고도화를 이뤄냄으로써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때까지 분야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원자력 연구개발을 국가차원에서 단일화·종합화하여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다.

이 사업의 또 다른 추진근거는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평화적 원자력 활용이 강조되는 등 원자력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자, 정부는 1997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6. 12. 12.)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원자력 관련 미래 핵심·원천 기반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사업이다. 한국과학재단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전략적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대형과제를 중점 지원하였으며,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등 국제 공동연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표준형원전(KSNP)개발, 개량형원전 신형경수로(APR1400) 개발 등 원전기술의 자립을 달성하고, 일체형원자로(SMART)의 계통 기본설계와 원전개량형 핵연료(PLUS7, ACE7),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HANA 피복관) 국산화 등에 성공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도 추진하였다. 이는 원자력기반연구시설 구축과 이용 활성화 그리고 미래원자력 분야 기초연구지원, 원자력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과학기술선진국(G5)으로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연구개발과 교육에 필수적인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대형 원자력연구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국내외 원자력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치료기술 개발과 방사선융합기술(RFT)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방사선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골전이 통증치료기술 개발, 방사선 돌연변이 품종 개발 등을 통해 방사선기술을 의료·공업·농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특히 해외 연구기관·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방사선 기술의 수출과 국제적인 위상확보에도 주력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제4차 원자력 릴레이 포럼
(2008. 5. 6.)

2. 지원사업의 세분화·전문화 추진하다

200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창의적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자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사업을 사업목표와 지원대상별로 세분화하는 추세가 이어졌고,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기획이 강화되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와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발족

지원사업의 세분화·전문화 패러다임에 따라 1990년대 기초과학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연구센터사업도 세분화되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2002년 시작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enter)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기초의과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을 집단연구(센터) 형태로 결집하여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생명공학과 임상의학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대 규모의 장기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초의과학 전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국내 의대·치대·한의대이며, 기초의과학자가 주축이 되고 여기에 임상 의사나 생명공학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연구내용은 주로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의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다. 센터 선정 시 지원기간은 최장 9년이며, 최초 2년은 3억 원 내외, 이후 3년은 5억 원 내외 그리고 마지막 4년은 10억 원 내외를 지원하였다.

2003년 시작된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National Core Research Center)사업 역시 우수연구센터의 후속모델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특히, 사회문제, 국민요구, 국가전략 등 학제 간 융합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연구주제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융합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학제 간 융합분야 인력양성 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공동연구센터이며, 선정된 센터에는 총 7년 간(1+3+3)간 센터 당 20억 원 내외의 연구비가 지원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2003년 2개 센터를 선정한 데 이어,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2개 센터가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NCRC는 2015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경제·예술·행정법제 등 여러 학문에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융합연구센터(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로 개편되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 이외 분야 연구자를 30% 이상 필수로 구성하는 등 다학제 융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제1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발표 및 기자회견
(2001. 12. 18.)

개인연구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한국과학재단의 개인연구자 지원은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였다. 한국과학재단은 미래 지향적인 연구분야에 대해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청과제를 지원하고자 1987년 일반기초연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연구자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개인연구자 지원은 일반목적기초연구사업과 핵심전문연구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되다가 1999년 종료되었다. 이 사업은 종료 시까지 총 17,544과제에 1,28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초과학 풀뿌리 연구사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년대 들어 개인연구자 지원은 지원대상을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연구자, 선도과학자 등으로 세분화하며 진화하였다. 이 사업들은 2004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한국과학재단은 여성과학자를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여성과학자 지원 연구사업을 빠르게 강화시켜나갔다. 이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기피현상에 의한 과학기술인력 공급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경제인구 부족 등의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크게 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여자대학교연구기반확충사업은 여자대학교 교수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1997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지원정책의 시발점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사업은 미취업 상태 여성과학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임용기회 확대를 돕는 것으로, 2000년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우수여성과학자도약연구지원사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여성과학자의 단독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WISE프로그램지원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전담 기관인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둘 다 2000년에 시작되었다. WIST는 2013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로 독립법인화하였다.

여성과학자지원연구사업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본격화·체계화되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연)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자질 향상, 활용촉진,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사회문화적 여건조성 등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정책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004년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2004~2008)」이 수립되면서 여성과학자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한국과학재단은 압축성장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교육과 산업을 혁신하고자 2000년부터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연구여건이 취약한 지방소재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를 지원하여 지방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이외 지역의 우수 대학 교수를 선정하여 연간 2,5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최장 3년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연구능력이 검증된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기초의과학 포함)·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연구자를 지원하고자 2000년에 시작한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사업과 우수한 신진연구자가 국가 핵심연구지원으로 조기 정착하여 중견연구자로도 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03년 시작한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도 2004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사업은 선정된 우수연구자에게 연간 5천만 원(이론연구)에서 1억 원(실험연구)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7~10년 이내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3년간 기본연구비(연 2,500만 원)를 지원하고, 최초 5년 이내의 정규직 연구자에게는 시설·장비비(3년간 최대 2억 원)를 별도 지원하였다.

세계적인 선도연구자 지원

2000년대 한국과학재단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을 꼽자면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냈거나 연구업적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외 연구자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 후원회를 계기로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제1호 최고과학자인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2006년 3월 선정을 취소하였다. 동시에 과제명칭과 지원 연구비(연간 30억 원)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명칭을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으로 바꾸고 연구비도 선정자별 연 15억 원씩 6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국가과학자 지원기준은 연구분야의 세계적 독창성(Originality), 연구성과의 세계적 영향도(Impact), 연구자의 세계적 평판도(Reputation)다. 한국과학재단은 선정된 국가과학자가 연구주제와 내용, 연구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는 상당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데다 자율성까지 보장되는 까닭에, 국가과학자를 선정할 때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하였다. 이에 한국과학재단은 4개 분야별로 각 10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1단계 전문분야 심사를 한 후, 이들의 연구업적과 향후 연구 잠재력을 종합심사(각 분야 전문가 15인이 심사)하는 2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6명의 후보자를 국가과학자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가 다시 이 6명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까다로운 선정방법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200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박사, 이화여대 이서구 교수, 2007년 KAIST 유룡 교수가 국가과학자에 선정되었다.



한국과학재단 2007 국가과학자 유룡교수 선정 기자회견담회 (2007. 11. 13.)

창의적 차세대연구자 육성

국가 과학기술이 선진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일부 변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절박함이 커지자, 정부는 과학기술 전반을 창조적 혁신체제로 전환하고자 창의적연구진흥(CRI: Creative Research Initiative)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CRI사업은 창의적 연구문화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신설하여 수행한 사업으로, 2005년 한국과학재단이 인수하였다.

CRI사업의 지원분야는 크게 창조분야, 발아분야, 극복분야로 나뉘었다. 창조분야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과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신규 연구영역을 개척하는 과제 그리고 획기적인 응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생체에 관련된 각종 기능이나 기본요소 등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거나, 광합성 반응 등 자연현상의 원리를 규명하는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발아분야는 선진국에서 현재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분야 가운데 국내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이 가능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인공지능과 지능형 재료 등이 대표적인 지원대상이었다. 또 극복분야는 기존 발전경로 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분야로, 광정보처리나 고효율 물질변환 등이 지원대상이었다.

이 사업은 2006년 도약연구를 신설하여 지원하였으며, 2009년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도약연구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연구)으로 재조정되었다.

창의적연구진흥(CRI)사업 지원 실적(2005~2009) 단위:억 원, 과제 수

구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과제 수	56	48	44	43	47
금액(억 원)	354	306	270	268	307

소규모 연구집단 육성 강화

1990년대 말, 기존의 출연(연) 중심 국가R&D가 대학과 민간기업으로 다변화되면서 소규모 우수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집중적 지원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가 전반에 R&D 공동화 위기상황이 초래되자, 정부는 기존의 연구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미국·일본 등에서 연구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던 소규모 그룹연구를 시급하게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시작된 것이 국가지정연구실(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우수연구실을 발굴·육성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소규모 연구실 단위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개인연구와 기초연구 등 기존의 과제형태 외에 연구실연구라는 새로운 지원형태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NRL사업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었다. 특정 기술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연구역량을 충분히 쌓아온 우수연구실을 발굴·지원한다는 점,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반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을 지원한다는 점, 최종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등 공정한 평가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다. NRL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연구실에는 매년 2~3억 원이 5년간 지원되었다. 2002년에는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Advanced Basic Research Lab)지원사업도 시작되었다. ABRL 역시 연구실 단위의 소규모 연구집단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물리와 수학 등 순수 기초과학 분야 전문연구실을 대학 내에 설립·지원함으로써 기초과학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BRL로 지정된 연구실은 연간 2억 원 내외를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2008년 기초연구실(BRL: Basic Research Lab)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한국과학재단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설명회
(1999. 3. 18.)



1. 국가발전의 원천인 기초학문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전 분야에 걸친 기초학문 육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시작은 지식산업과 지식경제의 원동력인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간의 연구지원사업들이 실용학문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독자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인식도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기초학문 진흥을 통해 지식소비국가에서 지식생산국가로 도약하고자 2002년부터 기초학문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애초에 3년간 연간 약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단기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업의 중요성이 증명되면서 계속사업으로 수행되었다.

기초학문육성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학문의 기초, 인간과 사회의 기초, 경제 산업의 기초,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기초이론과 조사·분석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지식을 축적하고, 인간·사회·자연의 기본원리에 관한 순수 기초이론 연구를 진흥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연구와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창출을 통해 지식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며, 연구팀·대학연구소 단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문 전반의 생산성·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기초연구 성과를 국가산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인문사회 연구성과 역시 새로운 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문육성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성과가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발굴·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학풍·학파의 조성 과 기초학문의 독자성·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섯째, 한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한다. 즉, 한국문화의 원형탐구와 집대성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특수성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세계 각 지역의 문화·사회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추진하여 상호협력기반을 마련한다.

기초학문육성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기초과학 분야, 우수연구자 지원, 대학교육과정개발 지원 등으로 나뉘었다.

인문사회 분야 지원은 연구과제 규모에 따라 소형·중형·대형과제로 구분하여 대학연구소 또는 연구팀 단위로 진행되었다. 기초학문 연구소의 경우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박사급 책임·선임연구원과 석·박사과정생의 연구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과제는 자유공모과제(Bottom-Up) 방식과 지정과제(Top-Down) 방식을 병행하였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초과학 동일분야 연구자들을 그룹화 하여 연구팀 단위로 순수기초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연구실적이 우수한 개인연구자와 대학 내 전문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종합적 사고능력과 소양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개발 지원도 수행하였다. 대학별 전체교육과정 개편방안과 주요 교과목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이 30% 이상 대응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2. 대학경쟁력 강화에 몰입하다

두뇌한국(BK)21사업, 대학 혁신에 불을 붙이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국내 대학교육은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당시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였다. 실제로, 1998년 우리나라의 SCI급 논문은 미국의 3.9%, 영국의 13.8%, 일본의 15.2%, 독일의 15.5%에 불과하였다. 또 1999년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제경쟁력은 평가대상 47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두뇌한국(BK: Brain Korea)21사업이 시작되었다. BK21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력을 증진하고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써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사업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하여 국제적 기술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인문사회 분야를 지원하여 21세기 선진형 사회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구축하며, 지역대학육성 분야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특화분야 지원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직접 연계된 신산업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핵심분야 지원을 통해 전 학문분야 고급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였다.

교육부는 연간 약 2천억 원씩 7년간 총 1조 3,409억 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평가위원회
(2000. 6. 27.)

당시 교육부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국가 고등교육부문 전체 사업비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였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BK21사업은 4가지의 철저한 원칙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제1원칙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대학의 지식기술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모든 학문 분야를 한꺼번에 육성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였으므로, 머지않은 시기에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이공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BK21사업은 모든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과 발전가능성을 지녔으며 스스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지가 있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제2원칙은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창의적 인재양성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의 교수중심 연구비지원형태를 벗어나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등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BK21사업은 젊은 연구인력에 안정적 연구기반을 제공하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폭넓은 국제교류 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적 학문후속세대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제3원칙은 '재정지원과 대학구조개혁의 연계'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이 스스로 제도를 개혁하고 선진 우수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혁신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BK21사업은 재정지원을 학부정원 감축, 입시제도 개혁, 엄정한 교수업적 평가, 대학원 문화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대학의 제도적·문화적 개혁과 연계하였다.

제4원칙은 '지식기반의 균형발전'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역대학이 학사과정을 내실화하여 수도권 중심주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학문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균형있는 지원을 추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분과위원회
(2006. 7. 20.)

BK21사업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두 개의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1단계(1999~2005) BK21사업에서는 약 1조 3,400억 원을 투입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제도개선, 사업목표, 사업 추진체계·운영, 사업비 운영·관리 이렇게 4개의 부문을 평가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다. 2002년 중간평가 이전까지는 제도개선 부문을, 이후에는 사업 목표 수행 부문의 평가 비중을 높게 책정하였다.

1단계 사업은 대학사회에 경쟁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학문적 연구력을 향상시켰으며,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 교육·연구 여건 조성 과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구 중심대학 체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단계 사업을 기점으로 BK21 참여 교수의 1인당 SCI급 논문 수는 비참여 교수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대의 성공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사업단의 인간형로봇 '휴보' 개발로, 과거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던 우리나라의 로봇 연구력을 BK21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2단계(2006~2012) BK21사업에는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단계 사업 평가·분석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이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R&D 성과와 SCI 논문 평가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인력양성 목표관리와 산학협력 성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지원분야와 사업단 수를 제한함에 따른 한계가 있었다는 점, 지원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과학기술 과제 68%, 인문사회 과제 95%)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연구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두뇌한국(BK)21 1단계(1999~2005)사업 지원 내용

단위: 백만 원 과제수

분야	총 사업비 (1999~2005)	선정 사업단(팀) (1999 선정기준)
과학기술	547,248	48
인문사회	56,739	20
지역대학	320,721	42
특화	59,108	11
핵심	115,424	316
신규*	51,671	-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	190,000	-
총합계	1,340,911	437

*신규 _ 2002년 11월 종료된 두뇌한국 21 핵심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계획됨 (2003년 신규 선정 당시 126개팀 선정)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 _ 과학기술분야 및 인문사회분야의 선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참여도(선정된 분야 수, 교수/대학원생 수 등), 교육개혁 실천 의지 및 국가적 파급 등의 효과가 큰 국립대학교를 지원함

두뇌한국(BK)21 2단계(2006~2012)사업 지원 내용

단위: 백만 원 과제수

분야	총 사업비 (2006~2012)	선정 사업단(팀) 수 (2006 선정기준)
과학기술기초	282,003	52
과학기술응용	804,685	106
인문사회	194,971	61
핵심과학기술기초	64,037	56
핵심과학기술응용	238,139	190
핵심인문사회	54,720	79
전문서비스(경영학)	28,882	4
전문서비스(의치의학)	89,126	21
총합계	1,756,563	569

2단계 사업은 '대학원 중심'과 '인력양성 강화'에 더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학부 중심의 지역대학육성 사업과 대학원 전용시설 사업을 폐지하고 각 분야 대형사업단 지원사업과 소수 우수연구집단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 글로벌 수준에 맞는 고급전문서비스 분야(의·치 의학 전문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 인력양성 사업 등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였다. 또 지원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된 지역 우수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였다. 더불어 대학(사업단)별 자체평가 의무화를 통해 평가체제를 내재화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탈락·재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평가·관리규정 법제화를 추진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BK21 2단계 사업의 대표성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물사업단의 '24시간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 세계 최초 발견', 포항공과대학교 분자과학사업단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백 배 작은 나노미터급 렌즈합성 세계 최초 성공', 서울대학교 정보기술사업단의 '무안경식 차세대 3차원 디스플레이 구현 성공' 등이 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지방대학에 활력 불어넣다

1999년 BK21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대학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BK21 사업의 지원대상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다 보니,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교육기회의 확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역 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악순환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의 축소와 수도권 의존 심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것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이었다. NURI사업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방안 (2003.2)」을 제안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4)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NURI사업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와 우수학생 수도권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경제·문화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추진되었다. 즉,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여 우수 인적자원을 지역 내 대학에서 배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며, 발전된 지역의 미래가치를 보고 우수 인재가 다시 지역으로 모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NURI사업의 궁극적인 비전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학 스스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신입생 충원과 교원확보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또 현장적응력을 갖춘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지자체·산업체·연구소·언론·NGO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지원 내용

유형	목적	지원사업비	참여요건	사업단 수
대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지역전략 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30-50억 원 이하	광역지자체 및 산업체 참여 (지자체대응 10% 필수)	37개
중형	지역 산업·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10-30억 원 이하	지자체 또는 산업체 참여 (지자체대응 5% 필수)	35개
소형	지역 산업·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10억 원 이하	하나 이상의 외부기관	68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크게 4가지 지원방향에서 NURI사업을 운영하였다.

첫째,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적·상향식 사업을 지향하였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데 반해, NURI사업은 사업단(대학·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소·NGO 등 참여)이 지역·대학의 발전전략에 맞춰 사업 분야와 내용, 규모 등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선택과 집중'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사업예산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동시에, 권역 내 우수 사업단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정하는 식이었다. 또한, 지역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였다.

셋째, 재정지원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연구비, 시설유지비·보수비 등) 전체를 일괄 지원하는 한편, 비교적 장기지원(5년)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넷째,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체제를 강조하였다. 사업단별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연차·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부실한 사업단은 퇴출하는 형태의 강력한 성과중심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4년 112개 사업단(대형 25개, 중형 25개, 소형 62개)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140개 사업단(대형 37개, 중형 35개, 소형 68개)을 지원하였다. 투입예산은 5년간 총 1조 2,357억 원이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연차별 예산 현황

총 예산 1조 2,357억 원

분야	'04	'05	'06	'07	'08	합계
예산(억 원)	2,200	2,400	2,600	2,594	2,563	12,357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참여현황(2008. 12.)

연도	사업단	학생	교수	산업체	지자체	특별행				
						정기관	NGO	언론사	연구소	기타
2008	98개	180천명	8,344명	1,121개	261개	65개	31개	49개	145개	82개

NURI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공·학습동아리 지원, 어학·정보화 교육, 취업 등을 통해 지방대학 학생역량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사업단 선정시점(2004년) 대비 5차 년도(2009년)에 26.6%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학생충원율 역시 5.94% 증가하였다. 또 사업(특성화)분야 팀 교원확보율은 2009년 47.02%에 달하였고, 팀 학생충원율도 2004년 96.3%에서 100%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사업(특성화)분야 팀 취업률은 28.01% 증가하였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참여대학 주요 성과지표 개선현황(2009)

성과지표	선정시	'05	'06	'07	'08	'09	증감
대학 교원확보율(%)	62.4	66.6	69.9	73.5	77.0	79.0	16.6
대학 학생충원율(%)	90.9	91.7	96.5	98.6	98.0	96.3	5.4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사업 특성화 분야 주요 성과지표 개선현황(2009)

성과지표	선정시	'05	'06	'07	'08	'09	증감
사업(특성화)분야 팀 교원확보율(%)	63.8	75.9	80.7	85.0	91.9	93.8	30.0
사업(특성화)분야 팀 학생충원율(%)	96.3	100.0	100.0	100.0	100.0	99.0	2.6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증가현황(2009)

성과지표	선정시	'05	'06	'07	'08	'09	증감
사업(특성화)분야 취업률(%)	58.9	63.1	67.3	71.3	74.7	75.4	16.5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조직 확대

BK21사업 출범과 함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해지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0년 3월 '두뇌한국21사업지원부'를 신설하였다. 이 부서는 BK21사업의 추진성과·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평가, 수혜 대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 총괄심의기구인 지원관리위원회와 사업별 평가위원회 지원, 그리고 각종 실무지원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0년 11월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 지침」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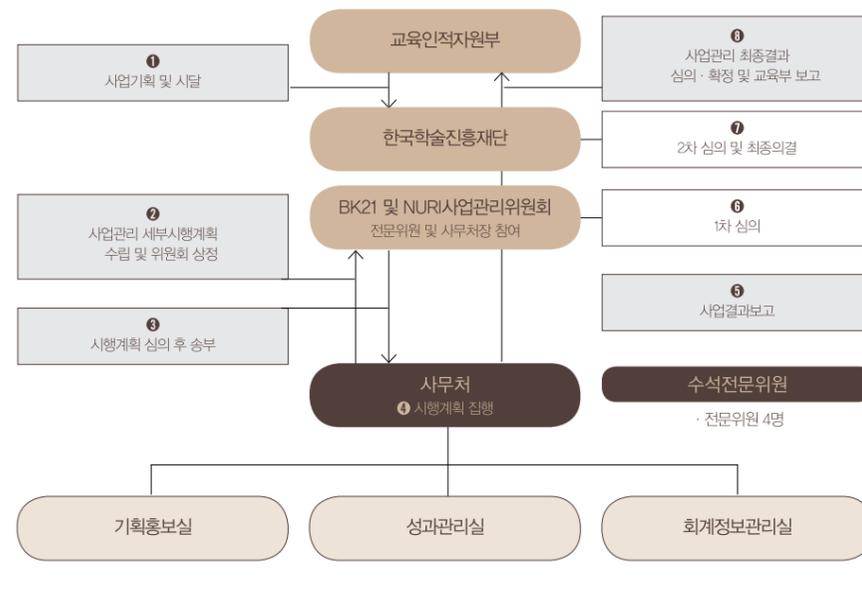
2006년부터는 대형 국책사업인 BK21사업과 NURI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평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BK21·NURI사업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관리위원회는 대형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부족으로 엄격한 사업관리가 어렵고 자료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과 계량적·정량적 산출물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설정과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BK21·NURI사업 관리위원회는 국내외 대학,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최고심의기구인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홍보·성과관리·회계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업을 특성별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에 BK21분과위원회와 NURI분과위원회를 두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 현판식 (2006. 8. 1.)



성과지표	기존 사업관리체제	위원회 체제
사업관리	· 행정직 관리감독 기능 위주의 조직구성 - 행정직 관리감독을 통한 규제 위주의 관리기능 우선 · 전담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저해 · 사업기획 및 사업관리운영의 분리로 인하여 교육부와 재단 간의 책임소재 불명확	· 사업별 목표관리를 위한 기능적 조직 구축 - 사업기획홍보, 성과관리, 회계정보관리 등 주요 사업관리 기능별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 목표별 성과관리 및 사업비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력 투입(45명 내외) · 평가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파견 추진
정보화	·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증대로 인한 관련 자료의 정보화 미흡	· 국가재정지원 대상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 지원정보에 회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건비 유용방지 등 대학 연구비제도 개선에 기여
사업평가	· 계량적, 정량적 산출물 위주의 평가진행으로 인한 단기적 목표달성 여부 위주의 평가	· 성과목표별 전문위원을 확보하여 평가관리 체제의 상설화 구현 (수석전문위원 및 성과 목표별 전문 위원확보)
홍보	· 홍보기능의 부재로 인한 사업성과의 확산 및 대외적 사업 추진기반 형성에 미흡	· 사업성과의 확산 및 대국민 홍보메시지 개발 등 사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홍보기획전담부서의 설치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2000년대에 들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국가정책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R&D 투자는 계속해서 담보상태에 머물렀다. 2002년 기준 국가 R&D투자는 수도권과 대전에 약 75%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민간의 편중 투자를 보완해야 할 정부투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2002년 기준 정부R&D예산의 약 78%가 수도권과 대전의 대학·연구기관에 투입되었다.

특히, 지역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은 더욱 부족하였다. 기초·원천·공공·산업기반 기술과 관련성이 큰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58.6%, 50.2%가 지방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2002년 기준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방(대전 제외) 지원비중은 15.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4년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지방의 우수 이공계대학을 지역특화 분야 미래원천기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원천기술개발→특화정책→기술사업화'의 선순환적 지역개발구조를 정착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권역 내 이공계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단'을 설치한 다음, 주관대학 중심으로 특화분야 대학원 등에 인력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지역특화가 가능한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04년 초 한국과학재단이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또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2009년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0년에는 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2012년 광역경제권인재양성사업이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LINC사업으로 개편되었다.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하여 지방대학 석·박사생이 산·학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2003년 시작되었다. 지방대학 석·박사생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에는 첨단 기술과 맞춤형 인재를 제공하며, 지방대학에는 연구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시에 여러 효과를 노린 사업이었다. 원래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였으나, 2010년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역량강화 지원

2000년대 중반 이후, BK21사업과 NURI사업 등 대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는 한편으로,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원이 특정 연구분야와 인력양성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있고, 대학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질 높은 인적자원 양성요구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대학교육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8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강화, 교육여건 개선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대학의 자율성·다양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 대신 객관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으로(Formula Funding) 사업체계를 전환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08년 64개 대학에 500억 원, 2009년 88개 대학에 2,600억 원, 2010년 88개 대학에 2,600억 원을 지원(4년제 대학 기준)하였다. 그리고 3년 차인 2010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비전과 목표는 같으나 차별화된 지원방식(4년 지원 정성평가도입)으로 추진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사업을 신설하였다.

특히 ACE사업은 그동안 대학의 주된 관심사이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을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여 대학이 연구보다 본연의 역할인 학생교육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ACE사업은 2012년 대학교육협의회의로 이관되었고, 2014년 대학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은 다시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으로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 2017년 현재 ACE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로 개편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실적(2008~2013)

단위: 지원대학수, 억 원

연도	지원대학 수	지원금
2008	65	500
2009	88	2,600
2010	88	2,600
2011	80	2,400
2012	97	1,800
2013	80	1,900

3. 인문학 지원, 속도를 내다

인문학 기초연구의 시작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공분야에 크게 기울어 있었다. 실제로 1996년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지원사업 선정비율은 7:3 정도로 불균형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8년 인문사회중점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99년에는 자유공모과제 선정비율이 과제 수로는 인문사회 55% 대 이공 45%, 금액으로는 인문사회 46% 대 이공 54%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균형지원을 가속하고자 2000년 인문학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이 사업은 인문학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학문적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고 인문학 분야 연구소를 내실화하여 인문학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다년간 자료를 발굴해야 하는 분야와 어문·역사·철학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문학 연구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에게 1인당 1.5평 이상의 별도 연구 공간을 보장하고, 연구업무 이외에 기타 행정업무를 맡기지 않는 등 실질적인 전임연구원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인문학육성지원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인문학토대연구사업은 말 그대로 인문학의 토대가 되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자료연구, 정판본이나 원자료집 확정 연구, 동서양 고전작품에 대한 주석연구, 그리고 학계의 관심이 적어 연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학문분야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 인문학심화연구사업은 어학·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 전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연구와 학제 간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진흥사업설명회
(2007. 5. 21.)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정책지원위원회 1차 모임
(2007. 6. 11.)

인문학 선언과 인문한국(HK)사업

2006년 전국 대학 인문학 분야 교수들의 '인문학 선언'을 기점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 선언을 통해 교수들은 인문학이 시대를 초월해 가꿔야 하는 문화자산임에도 무차별적 시장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으로 존립근거와 토대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개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운영원리와 도덕의 해체, 생명경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문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2007년부터 인문한국(HK)사업을 추진하였다. HK사업은 대학 내에 HK연구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문학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인문학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인문학 연구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인문학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HK사업을 통해 연구소 단위의 대형 인문학 프로젝트에 연간 최대 8억 원씩 최장 10년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비교우위에 있는 연구소(단)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연구의 자율성과 인사 및 연구비 운영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지식의 선순환적 재생산 구조 구축'의 원칙 하에, 연구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매년 전국의 HK연구소가 총집결하는 공동학술심포지엄을 열어,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답을 찾아보는 학술토론의 장도 마련해왔다.

4. 연구윤리 뿌리내리다

정부의 연구윤리정책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구윤리는 개별기관의 규정에 의해 다뤄졌을 뿐,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서 추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2005년 말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이 과학기술계에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 당시 조작사건은 우리나라의 연구신뢰도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꺾어버렸다는 점에서 국가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 대학, 학술단체 등 학문 커뮤니티 내의 연구윤리 대책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자, 정부는 인문사회과학, 생명공학, 예술·체육학 등 전 학문분야에 적용할 연구윤리 강화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부는 연구윤리정책이 단순히 R&D 윤리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하였다.

정부의 연구윤리정책은 2006년 2월 연구윤리를 주제로 한 ‘연구윤리 소개’ 책자 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4월 교과부 내에 ‘학술연구윤리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내에 ‘연구윤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완전한 조직적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의 연구윤리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정신문화 영역인 연구윤리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서구적 전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립된 연구윤리가 우리나라의 연구문화와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특히 우리나라만의 온정주의, 동료애, 사제지간 등의 문화에 유의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둘째, 자율적이고 자정적인 노력을 유도하였다. 연구윤리가 행정적·법적으로 추궁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학계의 자율적인 제도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였다.

셋째, 각종 정부R&D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대학·학회·출연(연)의 연구윤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정부R&D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기관들이 연구윤리 강화를 하나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제2회 2008연구윤리포럼
(2008. 6. 26.)



한국학술진흥재단
7차 연구윤리정책위원회
(2007. 1. 18.)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윤리활동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7년부터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 대학·학회의 연구윤리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출연(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전면 개방하여 대학·학회·출연(연) 등이 기관별 특성에 상관없이 모두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내용은 연구윤리 교육지원, 연구윤리 교육과정·교재 개발 지원, 연구윤리 학술행사 지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논의의 장인 연구윤리포럼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대학·학회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미 오래전에 연구윤리가 정착한 영국·미국·일본·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의 연구윤리 확립 촉진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윤리 의식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올바른 연구자를 양성하려면 전생애적인 연구윤리 교육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직무연수도 늘려나갔다.

2008년 7월에는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좋은 연구'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 사이트는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고 바람직한 연구문화에 대한 연구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설한 것으로, ▲연구윤리의 주제별 쟁점과 관련 정보 제공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제도·행사 소개 ▲효율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연구자 간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이트는 특히, 교과부·서울대·고려대 등 주요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공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처리절차·주요용어 등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 활동 공모 심사
(2007. 6. 4.)



4절 인력양성 · 연구관리 · 연구정보

1. 연구인력 양성사업 새로운 체계 갖추다

연구인력의 국제화 강화

21세기 들어서면서 경제 · 사회 · 문화 등 국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은 IT의 발달과 국가 간 인위적 · 제도적 장벽의 완화로 개방화 · 글로벌화 ·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동시에, 국가 과학기술 R&D 패러다임이 선진국 모방 · 추격형에서 창조 · 선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래유망 신기술분야 연구인력이 크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당시 과학기술부는 BT, IT, NT 등 미래전략 분야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학사 이상 고급인력이 약 20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 현지에서 연구

한국과학재단 해외 현지
연구지원사업 설명회
(2003. 4. 30.)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마련하거나 또는 해외의 우수 연구자를 국내로 유입하는 연구인력 국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과학기술 세계화와 연구인력 국제교류 강화조치 등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의 해외현지연구개발지원사업은 중요성을 더해갔다. 이 사업은 국내 신진과학기술인력이 해외의 첨단R&D현장(글로벌 우수대학 · 연구기관)에서 첨단연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으며, 2004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해외현지연구개발지원사업은 크게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먼저, 박사 후 해외연수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장 2년 동안 체류비와 항공료 등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추진된 장수사업임에도 21세기 들어 점차 중요성이 커졌다. 또 해외석박사학위취득지원사업은 청소년 이공계 진출 장려의 한 방법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 국내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의 연구자 가운데 해외의 우수 이공계열 대학 · 연구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를 선정하여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해외공동연구지원사업은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원을 선발하여 해외 교환학생 또는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연구기반이 취약한 분야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사업도 활성화되었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었다.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사업은 크게 5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1994년에 시작된 해외고급과학도보초빙활용사업은 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의 과학자를 국내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유치하여 최장 2년까지 공동연구나 기술자문 · 지도, 특강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해외석학단기유치활용사업은 해외 우수대학의 석좌교수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보유한 과학자를 국내에 3개월 이내로 초빙하여 공동연구와 자문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또 해외과학기술자장기채용사업은 국내 대학 · 연구기관이 해외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최장 4년까지 정규직원으로 채용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외국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구사업은 해외의 우수 학생연구원을 국내 대학(석박사 학위과정)이나 연구기관에 유치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활용사업은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 중국, 동구권 등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국내에 최장 1년간 유치하는 사업이다.

장학사업의 재조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9년 4월 한국장학회와의 통합을 통해 국내 최대 장학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학술진흥과 장학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인력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장학회가 기존에 수행하던 대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무이자대여학자금, 사범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도장학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을 승계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2003년부터 추진한 이공계대학(원)생학자금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수한 청소년 과학도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과학기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2003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국내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의 이공계열 학과에 합격한 우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공계대학(원)생학자금지원사업은 다시 무상장학금, 이자보전금 지원, 저소득층장학금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이 가운데 이공계대학(원)생무상국가장학금지원사업은 수능성적 및 대학입학 성적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장학생선발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자에게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과 함께 교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 이공계대학(원)생학자금무이자융자이자보전사업은 금융기관에서 학비를 융자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자액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담당자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저소득층자녀이공계장학금시범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2005년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으로 시범운영한 사업으로,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저소득층 자녀가 학비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까지 지원하였다. 또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이공계 학생에게 취업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대학(원)생학자금융자이자보전지원사업은 학비 마련이 어려운 가계곤란 대학(원)생이 금융기관에서 등록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자액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1997년부터 추진하다 2003년 6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수한 사업이다. 또한, 등대장학금지원사업은 2004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내거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 그리고 선·효행을 수행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여기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자는 국내외 학문 경시대회 참가 입상자, 세계적인 콘서트·전시회 입상자, 국제단체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자 등을 뜻하고, 사회적 선·효행자라 함은 부모나 타인에게 장기 등을 기증하여 사회의 본보기가 된 자, 봉사활동 등 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생활로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은 자, 사회적 정의·대의를 위해 선행한 자 등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2005년 장학사업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미래한국 100년인문학장학금지원사업은 2006년 전국 대학 인문학 교수들의 '인문학 선언' 이후, 인문학의 위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크게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우수 입학생과 대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학업장려비를 지원하는 전공탐색유형과 인문사회계열 학과 3~4학년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확립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2000. 9. 25.)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2005. 5. 31.)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추진한 장학사업들은 2005년 12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로 인한 정부기관 간 업무 조정에 따라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과학재단(이공계대학(원)생무상국가장학금지원사업)에 이관되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과 미래한국100년인문학장학금지원사업만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과학재단 역시 2003년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고등학생을 선발·육성·지원하여 세계적인 핵심 과학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국내외 대학의 우수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예정인 학생이었으며, 선정기준은 수학·과학 분야의 탁월성이었다.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는 국내 장학생의 경우 4년 간 천만 원의 장학금이, 해외 장학생에게는 4년 간 학비와 해외 체재비 등이 지원되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추진하던 다양한 장학사업들은 2009년 한국장학재단 출범과 함께 장학재단으로 모두 이관되었다.

과학·인문학 융합인재 육성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계에서 '융합'이라는 화두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벽을 허물고 융합하여 기존에 없던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효과적인 융합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R&D를 시작하기 이전 교육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융합환경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에게 경영·경제·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한 기본소양과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한국과학재단은 대학 내에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융합 프로그램 개발과 이공계 교육 다양화 방안연구, 국내외 이공계 융합교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였다.

융합교육연구센터는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는 연구자를 대표로 하고, 전공교수가 이공계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며, 따로 전임교원과 지도강사를 두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또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도 운영하였다.

우수과학자 포상 다양화

한국과학재단은 1987년 한국과학상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포상을 추진해왔다. 한국과학상은 자연과학 분야 세계 정상수준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과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홀수년에 수상이 이뤄진다. 또 1994년부터는 공학분야 세계적 업적을 도출한 과학자를 대상으로 짝수년에 한국공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더불어, 1997년에는 잠재력 있는 신진과학자에서 수여하는 젊은과학자상과 우수성과를 낸 연구자를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과학기술자상을 제정하였다.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올해의여성과학기술자상과 과학기술교사상 그리고 과학기술창의상을 신설하였다.

2001년 포상을 시작한 올해의여성과학기술자상(장관상)은 2000년대 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과 맥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이 상은 우수 연구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여성인재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상 분야는 이학부문, 공학부문, 진흥부문이며 매년 분야별 1명씩을 선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학부문은 최근 3년간 자연과학 분야(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에서 활발하게 R&D와 학술활동을 편 뛰어난 여성과학자를, 공학부문은 공학분야(전기·전자·기계·소재·화공·에너지·자원 등)의 우수 여성과학자를, 또 진흥부문은 과학기술교육·과학대중화·기술혁신 등 과학기술 진흥업적이 뛰어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여성과학자를 선정·포상한다. 특히 진흥부문은 과학기술 비전공자도 수상대상에 포함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제1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종합심사 (2001. 12. 7.)





한국과학재단
제1회 과학교사상 시상식
(2003. 12. 15.)

과학교사상 포상은 2003년 시작되었다. 이 상은 창의적인 과학(수학 포함) 교육을 실시하여 초·중·고등학생의 학력·창의력을 신장하고 과학탐구활동과 과학문화 확산 등에 크게 공헌한 교사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교사의 사기와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상대상은 최근 3년간 과학교육 진흥실적이 뛰어난 교사로,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먼저, 과학교육 부문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향상을 이뤘던 교사를, 그리고 과학문화 부문은 과학동아리와 과학체험활동 등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이룬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 인원은 연 40명이며,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장관 상장과 상금 그리고 소속학교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2007년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주어지는 과학기술창의상 포상이 시작되었다. 이 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 기관을 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촉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매년 4개 분야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였다. 세부 분야는 연구기관 부문,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부문, 산업체 부문(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부문(광역단체, 언론단체, 학술단체 등)이다.

대통령상 수상기관에는 상장, 트로피 및 상금 3천만 원을, 국무총리상 수상기관에는 상장, 트로피 및 상금 2천만 원을, 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기관에는 상장, 트로피 및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2016년 기준).

과학기술진흥단체 지원

한국과학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기초연구의 핵심주체 가운데 하나인 과학기술진흥단체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아·태이론물리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이 지원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내외의 각종 학회중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석학들로 구성된 단체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건의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민간외교의 증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은 1996년부터 한림원의 각종 사업을 지원해왔다. 더불어 공학분야 국가 중장기정책에 대한 자문·건의를 하는 한국공학한림원에 대한 지원은 2003년 시작하였다.

또한,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나라의 이론물리학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중심의 산학연협동연구를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업연구소의 R&D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단체다. 또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한국과학재단은 이들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노력해왔다.

한국과학재단 한인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방문
(2001. 3. 6.)



2. 온라인 연구관리·정보유통 자리잡다

온라인 연구지원관리시스템 도입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진입과 함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역시 이에 발맞추고자 연구지원관리시스템과 정보서비스 시스템들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갔다.

한국과학재단은 2000년부터 행정시스템을 디지털 형태로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2003년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 구축·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는 연구지원관리 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인터넷과 인트라넷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과학재단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온라인상으로 업무처리와 자료검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다.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평가·선정·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과 연구수행을 통해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정보를 손쉽게 구축·서비스하는 연구정보시스템 그리고 연구비 자동지급 등 행정효율화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모든 전자문서를 표준형식인 XML(확장성 표시 언어)로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기종과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정보검색과 저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재단은 전자평가를 전격 도입하였다. 웹상에서 연구과제 선정평가·중간평가·결과평가 등 평가의 전 단계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과제 신청자가 평가진행과정·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연구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과학재단 ISO 9001 인증식
(2008. 7. 25.)

디지털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해 한국과학재단은 기관 전체 관리시스템을 일체화한 것은 물론, 과제별로 적정한 평가자 선정, 평가자 이력관리, 연구자 이력관리 등 기존에 하기 힘들던 업무도 웹상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연간 30만 건에 이르는 우편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평가진행을 위한 만 번 이상의 확인 전화통화 과정을 대체하는 등 연구지원관리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다. 또 연구과제 평가·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정부 R&D과제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밝혀 사전에 중복연구를 차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도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로도 한국과학재단은 꾸준히 연구지원관리 업무를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2008년 7월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관리 업무(협약체결,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부문에 대해 ISO 9001을 획득하였으며, 2009년 통합 연구재단 출범 이후에는 기초연구사업 확대·개편에 따른 전환인증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 ISO 9001:2000에서 ISO 9001:2008로 규격이 전환되면서 업그레이드된 23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2010년 1월 ISO 9001:2008로의 규격 전환에도 성공하였다.

한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0년부터 연구지원관리 전 주기에 걸친 온라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13개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과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연구계획변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과제 수행 도중 과제명이나 연구기간, 결과보고일, 연구원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박사후 연수지원과 신진연구인력장려금 지원을 신청부터 선정까지 관리하는 학문후속세대지원관리시스템, BK21사업단을 선정·관리하는 BK21종합관리시스템, 외국박사학위를 웹에서 신청·검색할 수 있는 외국박사학위신청시스템,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와 수주실적 자료를 관리하는 대학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 학회와 대학부설연구소의 정보를 손쉽게 등록·검색하고 통계자료까지 제공하는 학회·대학부설연구소 시스템, 장학금 예산배정부터 학자금 온라인 지급신청·처리·상환 등에 이르기까지 학자금 관련 모든 업무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장학지원정보시스템, 연구비 지출결의서 작성부터 전표처리·일계표·시산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출력까지 가능한 회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갔다.

이어, 2001년에는 연구지원통계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연구지원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02년에는 과제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 연구계획서온라인신청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여러 형태의 파일로 제공되어 양질의 원문서비스가 어렵던 연구지원결과원문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연구결과를 PDF 타입으로 변환하여 서비스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더불어, 재외한국인학자정보시스템, 해외한국학연구자정보시스템, 차세대연구인력시스템 등을 하나로 모은 학술연구자정보시스템도 개발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3년 그동안 사업별로 운영되던 연구지원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학술연구지원관리통합시스템(ORM: One-stop Research Management)을 구축·운영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전체 사업에 대한 신청과 사후관리, 결과보고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자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계획서·연구결과보고서 평가 시 심사자가 평가결과를 직접 심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연구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과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2006년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통합관제실도 운영하였다.

기초학문 지식저장소인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구축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사업 과정에서 확보하는 정보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관리되어 저장·보관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지원사업 전 과정이 빠르게 정보화되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2년 1월 「기초학문 연구결과 DB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보 콘텐츠의 DB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기초학문자료센터(KRM: Korean Research Memory)를 발족하였다. KRM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공유하는 연구성과물 아카이브로, 고급자료의 소실을 막고 후속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KRM은 학문분야를 인문학, 사회과학, 어문학, 역사학, 철학종교학, 예술체육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 연구과제가 도출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



KRM이 타 온라인 정보센터와 가장 다른 부분은 축적 자료가 논문이나 보고서 등 연구결과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사진·동영상·수치·유물·민속 등 연구의 중간산출물과 원자료(Raw Data)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KRM의 자료는 학문적으로 후속연구·파생연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콘텐츠 원재료로서의 활용가치도 높아 연구자와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등 고전 연구자료는 드라마·영화·게임 등 다양한 문화산업의 원재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5년 12월 KRM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06년 2월 이를 전담할 지식정보센터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 개소식과 함께 서비스(KRM 통합검색서비스, 오픈아카이브 시스템 등)를 시작하였다.

이어, 2008년부터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과제 이외의 자료로도 수집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도 연계하였다. 또 2009년에는 행정학 분야를 자료수집 범주에 추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시스템과 연계하였다.

KRM은 인문학 DB의 공유·확산을 통해 후속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물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자료 제공과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술정보의 생성·축적·확산·유통이 막힘없이 선순환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술지인용색인(KCI)으로 연구성과 질적 성장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1년부터 학술단체의 학술활동 활성화와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학술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998년부터는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학술지지원사업 대상의 공정한 선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학술지 등재·등재후보지제도(이하 등재지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그러나 등재지제도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연구논문 인용지수 산정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연구성과 측정·평가에는 계속해서 SCI 등 해외 인용지수가 활용되었다. SCI(Science Citation Index)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기술논문색인으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성과 평가가 해외 인용지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국내 연구자들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내의 우수논문이 해외로 다량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재단은 한국형 SCI를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2008년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을 구축·운영하였다. 또 학술지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객관적 기초자료 구축이 중요해진 것도 KCI 추진의 한 이유였다.

KCI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정보를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계량화된 학술지인용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 현황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된 국내 대표적인 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7년 11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을 시범공개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17년 6월 현재 KCI에는 134만여 편의 논문과 2,870여만 건의 참고문헌이 DB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KCI 구축·운영은 크게 세 가지 세부업무로 나뉜다.

첫째, 논문정보 수집과 서비스다. 등재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신규 학술지의 논문정보를 KCI시스템에 올리면, 이를 KCI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다. 학술지 논문의 원문 파일 내에 존재하는 참고문헌 정보를 서지 단위로 분리한 후,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집계하여 이를 근거로 학술지별 또는 주제분야별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중심성지수(SCIImago Journal Rank), 즉시성지수(Immediacy Index), 자기인용비율 등을 산출하여 서비스하는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형인용지수는 학술지 평가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학회정보화시스템 보급·운영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지 논문 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회의 정보화를 지원하고자 2008년 학회정보화시스템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JAMS는 논문 투고·심사,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홈페이지 관리 등을 온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학회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학회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연도별 DB구축 실적(2017.6.기준)

선정시	학술지수	논문수	저자수	참고문헌수
2003년 이전	-	118,919	314,297	2,122
2004	1,343	62,516	168,022	1,003,284
2005	1,485	66,854	179,864	1,168,593
2006	1,600	71,931	195,597	1,177,281
2007	1,762	78,752	210,459	1,457,449
2008	1,944	85,211	228,220	2,021,373
2009	2,037	92,594	247,977	2,277,908
2010	2,150	97,237	259,462	2,435,026
2011	2,217	100,751	271,377	2,600,326
2012	2,225	102,531	270,883	2,728,238
2013	2,208	103,132	270,271	2,799,558
2014	2,233	106,070	275,687	2,933,966
2015	2,252	107,551	282,271	3,039,973
2016	2,284	106,164	278,722	3,055,066
2017(6월 현재)	-	35,314	91,208	4,329
합계		1,336,527	3,544,317	28,704,49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야별 DB구축 실적(2017.6.기준)

주제분야	학술지수	논문수	저자수	참고문헌수
인문학	560	277,666	248,017	4,842,893
사회과학	804	317,623	528,295	9,613,068
자연과학	122	125,245	428,785	2,507,874
공학	233	276,407	862,041	3,670,429
의약학	271	195,309	936,635	3,807,666
농수해양	75	71,547	315,787	1,502,947
예술체육	127	80,202	145,477	1,802,096
복합학	92	42,528	79,280	957,519
합계	2,284	1,336,527	3,544,317	28,704,492

1.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출범하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 부각

새로운 세기의 등장과 함께 과학기술국제화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갔다. 에너지·환경·기후·재난방지 등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연구개발 이슈가 늘어나고, 이를 위한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거대과학의 등장으로 연구개발 소요연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국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설립된 것이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cience & technology)은 과학기술 국제화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정부의 과학기술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 설립된 과학기술부 산하 국제협력 전문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은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장관이었다. 청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빌딩 4층에 자리 잡았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제1회 의사록
(2004. 2. 19.)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를 전담으로 하는 민법상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6년 4월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역할이 재조정되었다. 정부는 2007년 4월 기획예산처 고시에 따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8월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제화사업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설립 관련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북아시아 R&D허브 선도 기관

출범 당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동북아시아 연구개발 Hub 구축의 선도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시아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거점적 기반 확보 ▲해외 우수 연구·교육 기관 유치 ▲과학기술국제화 사업의 정책적 지원기반 확보 ▲국내 연구기관 해외진출의 거점적 역할 확보 ▲맞춤형 이공계 혁신인력공급 프로그램(해외인턴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국제화사업추진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2004년까지 인력확충·제도정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기준 사업예산은 운영비 포함 20억 원 규모였으며, 직원은 11명이었다.

2005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IR(Investor Relations) 즉,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을 설명·홍보하는 활동에 집중하였다. 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IR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미국 국가생체정보센터(NBC), UC 버클리 종합연구소 등 8개 연구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 협약을 맺은 기관들에 국내의 이공계 우수인력을 파견하여 선진연구개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인턴사업도 수행하였다.

2006년을 기점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본격적인 사업체계를 갖추어갔다. 이에 따라 예산도 142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지원체계구축사업,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해외과학기술협력센터사업(한·중, 한·러, 한·몽),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한·독과학기술협력촉진사업, 해외과학기술자네트워킹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당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해외의 우수연구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이는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였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해외로부터 실제 투자(연구인력, 연구비 등의 유입)가 가능한 공동연구센터의 국내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인적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첨단기술을 국내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과학기술국제화 전담기관의 위상 확립하다

정부의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전담 추진

2007년 1월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기존에 한국과학재단이 수행하던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수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은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양자·다자간 과학기술 외교를 주도함으로써 국가 기술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국제공동연구사업, 국제화기반조성사업,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기반조성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5년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한국과학재단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2007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쳤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연구기획 강화와 과제평가·성과관리 등 관리체계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연구기획·평가사업도 신규 추진하였다.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다시 단위사업, 특화기술 공동연구개발, 다국 참여 및 한국 주도의 국제공동연구,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양자간 협력자금 운영, 다자간 공동연구, 국가 간 합의사업, 해외생물다양성확보사업, 글로벌연구실(GRL)지원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글로벌연구실(GRL: Global Research Laboratory) 지원사업은 2006년 한국과학재단이 신설한 사업이다. 이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연구그룹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제화기반조성사업은 국가 간 협력 초기에 상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조사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의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중심센터 운영, OECD 등 다자간 글로벌 협의기구 참여 등을 추진하는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과 해외 첨단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추진하는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그리고 과학기술국제부담금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통일 과학한국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북한과학기술 정보 수집·확산, 남북당사자 포함 학술세미나 개최, 남북 전문가 인력교류 등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홍보 영상



동북아연구개발허브기반조성사업은 국내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동북아지역 과학기술협력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세계경제와 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크게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사업과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공동연구센터,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GPP))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사업은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강점인 기초의과학, 생명과학 분야의 선진 연구기술 및 노하우와 우리나라의 첨단 IT, NT, 화학분야의 기술을 결합하여 기초연구성과를 상용화(신약개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 공동연구센터사업은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실질적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GPP)은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연구 또는 해당 해외 기관의 국내유치로 발전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였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2008년부터 새롭게 '21세기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선도'라는 비전을 세우고 국제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 전문화된 국제협력활동 지원, 해외 우수기관의 시스템적 유치·관리 등의 업무를 강화해 나갔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공동협업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 ▲양자·다자·지역별·국가별로 최적화된 협력방안 제시 ▲'글로벌 과학기술 포럼'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협력사업의 전문성 강화 ▲전문성·효율성·성실성이 결합된 우수한 조직문화 수립 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수행하는 국제협력 사업들은 2009년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세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연구재단으로 모두 승계되었다.

4. 하나 된 힘으로 도약하다

2009~2017



1절

한국연구재단 출범

한국과학재단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2009. 4. 13.)



1. 교육과학기술부 출범과 함께 통합의 바람 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탄생하였다. 새 정부는 교과부를 통해 과학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강력히 드라이브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교과부는 2008년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장학 기능을 조정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장학 분야를 뺀 나머지 지원기능을 한국연구재단 하나로 합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큰 범주의 국가 연구지원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 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양 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재단 준비 TFT'를 구성하고 통합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 1일 '통합재단 준비 TFT 2차 회의' 이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도 통합 대상 기관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국제협력지원 기능이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한국연구재단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법의 목적은 '한국연구 재단을 설립하여 학술연구와 기초과학 연구개발 활동, 인력양성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 하게 지원하는 것이었다. 법은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 국제과학기술협력 재단 세 기관의 연구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으로, 학자금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 관할 것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 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 「민법」에 따른 국제 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를 한국연구재단이 승계한다. 다만, 법 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었다. 교과부는 법제처 심 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2008년 10월 15일 「한국연구재단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2009년 3월 3일 국회에서 심의 · 확정되어 3월 25일 공포되었다 (법률 제9518호).

한편, 새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민영화 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2008년 8월부터 2009년 3 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 단 그리고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하나의 기관 즉,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하여 연구관 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은 2008년 8월 26일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통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밝힌 통합기관 추진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 교과부가 출범한 만큼, 교육인적 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연구지원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 차원에서 이점 이 있다는 점, 둘째,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의 연결 · 조화 즉, 학문의 통섭(Consilience) 이 강조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학제적 통합연구지원 체제가 필요해졌다는 점, 셋째, 세계적으로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집행 · 관리하는 연구지원기관들의 역할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은 미국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의 예산 을 향후 10년간 2배 이상 확대할 것을 규정하였고, 일본은 2003년 대표적인 연구지원기관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를 독립시켜 운영을 강화하였다. 새 정부 역시 과학기술과 대학지원 사업을 크게 강화하려는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지원역량을 보유한 통합기 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2008년 12월 8일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강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구성되어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연구재단 설립은 급물살을 탔다. 설립준비위원 회는 정관 제정, 임원추천, 설립등기, 재단의 조직 · 정원 · 예산 · 규정검토 등 재단 설립을 위 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3개 기관의 중복 · 유사 업무를 통합하고 단일 조직 으로 재설계하였으며, 관리조직과 비핵심사업은 슬림화하고 고유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 단순한 공공기관 통합이 아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등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신지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2008년 12월 2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조직 구성방안, PM제도 개선방안, 청사현황 등이 검토되었다. 2009년 1월 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선진국 PM제도의 운영현황과 정관(안) 검토 가 이어졌다. 또 1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PM 윤리규정과 PM 운영규정(안)이 논의되었 고, 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3개 재단 인사규정 비교,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등 이 이뤄졌다. 그리고 2월 24일 제6차 회의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임원선출방안, PM제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2. 국내 최대의 선진형 연구지원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출범하다

2009년 3월 25일 「한국연구재단법」이 제정된 이후, 3월 30일에는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5월 31일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에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 좌관이 내정되었다. 또 초대 사무총장에는 배규한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초대 감사 에는 교과부 출신의 최건모 감사가 내정되었다.

이사장이 확정되면서 초대 비상임 이사 12명도 내정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재단 초대 이사회 는 이사장 1명, 당연직 이사 2명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최종 구성되었고, 이들은 직제 · 인사규정 등 재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박찬모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2009. 6. 24.)



2009년 6월 26일 드디어 국내 최대의 선진형 연구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학문 간 조화와 균형을 통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동반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로 연구관리·지원사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관에 명시된 연구재단의 설립 목적은 '학술·연구개발 활동과 인력의 양성·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학술·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연구개발 인력의 양성·활용의 지원 ▲학술·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학술·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 개발 지원 ▲학술·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국내외 학술·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기타 학술·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지원이다.

출범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게 된 사업예산은 2009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전체의 21.1%인 2조 6,081억 원 규모로 국내 최대였다. 예산 증가에 따라 연구재단은 연구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연구관리전문가(PM: Program Manager)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PM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민간전문가 가운데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기획→과제선정·평가→진도관리→성과관리 등 연구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재단은 PM별(본부장, 단장, 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연구관리 관점·판단의 다양성을 높여 평가과정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였다. 또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PM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해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도 설치·운영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창립이사회
(2009. 7. 28.)



한국연구재단 CI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은 유사기능 통폐합, 대부서 체제 전환 등 조직·인력의 효율화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직원을 17.4% 감축하고, 유사조직 통폐합을 통해 36개 팀을 23개 팀으로 39% 축소하였으며, 직종·직급도 2개 직종(연구직, 행정직) 3개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줄였다. 또 간접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보직 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정년퇴직 고액연봉자를 신규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도입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였다.

재단 CI도 제작하였다. 심벌은 재단의 영문 이니셜인 NRF를 가운데 두고 커다란 원형의 고리를 두른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고리는 학문의 순환과 끝없는 창조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세계화를 상징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두 개의 띠는 인문과 과학의 통합을 의미하며, 위로 솟아 치는 선은 미래를 향한 비상을 표현하였다. 또 우리나라 대표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비전은 블루컬러로, 고객중심의 연구지원과 관리의 이미지는 그린컬러로 표현하였다. 연구재단은 출범 한 달 뒤인 2009년 7월 28일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는 '한국연구재단 설립경과보고' 등 보고안건 2건과 한국연구재단 주요 규정제정(안) 등 의결안건 2건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규정은 기관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제고를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임원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PM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 관리제도 운영규정, 연구사업 관리전문가 운영규정 등이었다. 또 이날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비상임이사를 호선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체제를 구축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비전선포식
(2009. 12. 15.)

3.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다

비전과 목표 선포

창립이사회를 통해 각종 규정을 의결한 한국연구재단은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 재단은 특히, 기관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15일 '비전 및 윤리현장 선포식'을 열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새로운 미션은 '인간과 자연탐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으로, 이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포괄하는 전 학문 분야 연구활동의 균형 잡힌 지원과 국가 중요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할 미래지식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비전은 '세계 7대 지식강국을 향한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으로, 세계 각국의 연구지원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지식강국으로 전인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비전이 함유한 바를 더 구체화하면 첫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지원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독일연구재단(DFG) 등 세계적인 R&D Funding Agency를 능가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둘째, 최고 전문가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각국의 연구지원기관이 벤치마킹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며 셋째,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만들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15일 발표된 연구재단의 '비전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학술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적 삶의 질 향상,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전 분야 연구를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융·복합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창조 선도가 되겠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최고 수준의 선진화된 연구지원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세계적 연구지원기관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재단은 '비전 및 윤리현장 선포식'을 통해 '연구재단 윤리현장'도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탐구를 촉진하여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 우리는 선진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의 토대 위에서 언제나 연구자 친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연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우리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힘쓰고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며 조직역량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의 제공과 공정한 평가의 실시로 건전한 조직문화의 형성을 추구한다.
-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경영방침(5E)과 5대 전략 발표

연구재단은 미션·비전과 함께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5E 「전문성(Expertise),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탁월성(Excellence), 소통성(Exchange)」를 제시하였다.

전문성은 전 직원이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의 성장한 다음, 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또 형평성은 특정 학문에 기울지 않고 모든 학문과 연구분야를 균형 있게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효율성은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며, 탁월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자와 연구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세계 어떤 연구지원기관보다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끝으로 소통성은 열린 귀와 마음으로 정부, 연구현장, 산업계 등과 합리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확보하고, 이들 사이에서 중계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뜻한다.

재단은 5E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지원·관리(연구지원관리를 위한 전문 PM제도 정착) ▲융합·균형(전 학문분야의 종합적·연계적 연구지원) ▲환경새신(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성과확산(연구성과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 ▲선진경영(기관 운영의 선진성·효율성 제고)을 제시하였다.

5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PM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과제 선정·평가체계를 구축하고, PM의 권한·역할을 강화함으로써 PM이 자신의 전문성을 맘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PM 권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PM윤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관리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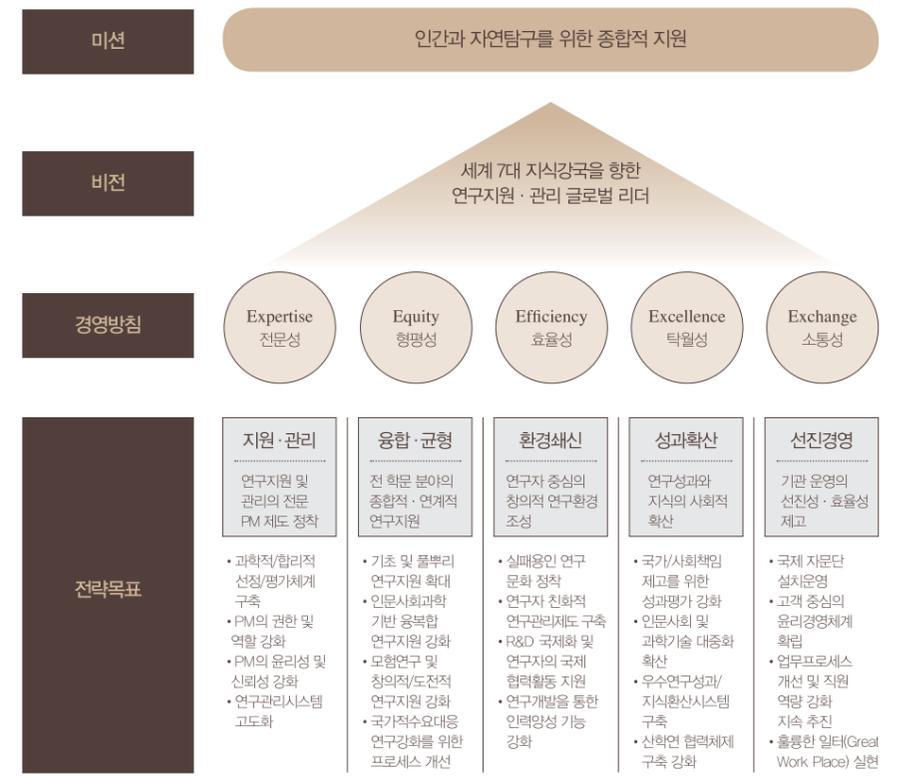
둘째, 연구자들에게 공평한 연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 학문분야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신생·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모험연구(High-Risk High-Return)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그리고 국가·사회적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국책 연구를 강화한다.

셋째, 연구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패지식에 대한 DB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관리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국가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 대중화사업을 확산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환경을 개선한다.

다섯째, 기관 운영의 선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 경영과 투명하고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근무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능력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등을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한다.

한국연구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2009년 기준)



통합 이전과 이후 비교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국가 연구지원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융합연구 촉진, 기초·원천연구 강화, 사업관리 규정 일원화, 전주기적인 연구자 지원, 연구자 행정부담 대폭 완화, 효율적인 연구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만들었다.

첫째, 과학적 합리성과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예술적 창의성을 융합하는 연구가 보다 손쉬워졌다. 기존에는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이공분야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국제협력분야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지원하였으나, 통합 이후 연구지원이 일원화되면서 전 학문의 균형적·종합적 지원체계가 수립되었고 이를 통해 인문사회와 이공분야 간 융합연구가 촉진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분야에 문화융복합단, 기초연구 분야에 전자정보융합연구단, 국책연구 분야에 나노융합단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사회적 특정 이슈에 대한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였다.

둘째,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예산 전체에서 기초·원천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5.6%였으나, 2013년에는 50.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개인연구자가 창의적·모험적 기초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장기적·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기초연구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부처별·사업별로 운영 중이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하부 규정은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학술진흥법 하부 규정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으로 일원화하였다. 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기초과학연구사업 산정·정산 지침과 보원관리지침을 폐지 또는 일원화하였다.

넷째, 대학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연구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학생에게는 대통령과학장학생지원사업을, 석·박사에게는 글로벌박사펠로우십지원사업을, 박사후연구원에게는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지원사업을, 연구자에게는 역량별로 신진·중견·리더연구자지원사업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낸 국가과학자에게는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다섯째, 이공분야 기초연구 성과관리·활용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연구재단은 기초·원천연구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의 '기초·원천연구 성과지도'를 개발하였다. 그런 다음, 이 지도를 기반으로 기초연구성과의 원천기술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되어 있는 기술의 씨앗(Seeds)을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각기 다른 연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이 크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과제 선정·평가체계도 미흡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연구관리를 한곳에서 추진하여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동시에 분야별 특성도 이전보다 훨씬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연구비 관리업무 전담조직(연구비정산팀)을 설치하여 재단 내 각 사업지원팀이 분산·운영하던 연구비 집행관리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연동으로 연구기관과 업체 간의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비카드 사용률을 높여 연구비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초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최적화를 이뤄냈다. 더불어 평가결과 불량이나 연구중단 등의 경고를 받은 문제과제에 대해서는 정밀정산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여덟째, 효율적인 연구정보서비스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종합성과관리 허브(Hub)인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 학문분야 연구자 정보를 각 대학·출연(연)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가적 통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한국형 SCI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아홉째, 기존에는 3개의 연구지원기관이 주로 연구지원과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연구개발 기획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 이후 연구재단이 국가 연구개발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됨으로써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사회문화 트렌드를 연구하여 미래 전략분야 연구개발을 기획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한국연구재단 시무식
(2010. 1. 4.)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공동 워크숍
(2010. 1. 5.)

1.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연구 집중지원에 나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 부각

한국연구재단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초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09년 통합과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교육부)과 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기초연구사업을 통합하고 개인연구·집단연구로 간소화하였으며, 이 가운데 개인연구사업은 연구역량에 따라 대상별(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등)로 재편하였다.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풀뿌리 성격의 사업은 교육부, 수월성 성격의 사업은 미래부로 이원화하였으나, 부처별 역할분담과 연계 그리고 시행계획·사업공고 통합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였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정책에 따라 재단의 기초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개인 및 집단연구 예산은 1,26조 원으로 2009년 대비 2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통합 이후 풀뿌리 연구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기초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이로 인해 중견연구에 대한 수요·경쟁이 증가하자, 재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역량단계별 균형잡힌 지원을 위한 '개인연구 중장기 투자목표'를 수립하고 중견연구의 예산을 더욱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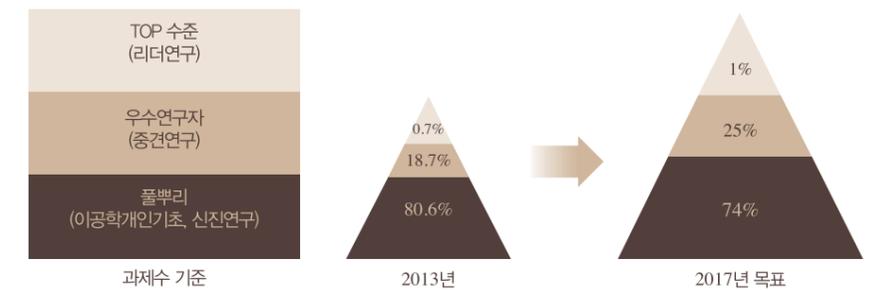
폭넓은 풀뿌리연구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통합 이후 교육부와 과기부의 풀뿌리 연구 지원사업들을 일반연구 자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강화하였다. 이 사업은 순수(기본) 과학기술 연구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기본연구사업, 보호연구사업, 여성과학자지원사업,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 등으로 나뉜다.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집단연구 예산 추이

성과 제표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연평균 증가율
개인· 집단 연구 예산 (억원)	6,464	8,200	9,274	9,897	10,162	10,200	10,729	11,041	12,643	9.0%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 중장기 투자목표



일반연구자지원은 기본적으로 과제당 3년 이내(연 최대 1억 원까지)를 지원한다. 그러나 안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재단은 기본연구사업 내에 연간 3,500만 원을 5년(3+2)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였다. 또 2016년 이후에는 풀뿌리 연구에 대한 지원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여 이른바 한 우물 파기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우수연구의 경우에는 후속과제로 선정하여 추가로 1~5년을 연속 지원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가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5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명칭을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또 2016년 리서치펠로우지원사업이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이공학개인지초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 보호연구사업,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연구지원(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 가운데 기본연구사업은 이공분야 전임·비전임 교원과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탁월성에 입각한 창의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기초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한국형소규모탐색연구사업(한국형 SGER: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소규모탐색연구프로그램(SGER)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실패 위험은 높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창의적·실험적 도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문화를 형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개인연구자를 지원하는 보호연구사업과 지역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도 일반연구지원(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단이 출범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공학개인

기초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41,949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2조 1,076억 원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학문후속세대 즉,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대학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수(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도 계속되었다. 이 사업은 1981년 시작된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과 2001년부터 추진된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2006년 하나로 묶으면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2011년 우수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사업이 신설되고, 2016년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리서치펠로우 사업이 이관되어 오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부터 박사후 국내연수자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2,900만 원(기존 2,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수지원금을 현실화하였다. 또 학술연구교수에게는 특별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5,429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2,570억 원이다.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세부사업에는 리서치펠로우사업,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리서치펠로우사업과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리서치펠로우는 대학에서 리서치펠로우로 고용된 연구원을, 박사후국내외연수는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사업은 과학인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역량이 뛰어난 신진연구자를 선발하여 5년 간(3년+2년)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 인증식 개최 (2010. 12. 23.)



한국연구재단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명사 초청 간담회 (2011. 11. 11.)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창의적연구) 연구책임자 간담회
(2011. 9. 23.)

연구자 개인의 역량 키우는 성장사다리

한국연구재단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리더연구자, 중견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으로 사업을 세분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진연구자가 리더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독자적 과학기술 심화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9년간(3+3+3) 연간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7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으로 시작하여 2004년 한국과학재단으로 시행기관을 옮겼으며, 2009년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기존의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 통합하면서 지금의 리더연구자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3년마다 단계평가(연구실적, 향후연구계획 등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는 강제 탈락시키고 평가등급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이 사업으로 흡수·개편된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이미 우수성이 입증된 과학자를 매년 1~2명씩 선정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과학자는 1인당 연간 15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최장 10(5+5)년간 지원받았다. 재단은 KIST 신희섭 박사, 이화여대 이서구 교수, KAIST 유룡 교수,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 등 국내 최정상 연구자를 선정·지원하였으나, 기초과학연구원(IBS) 본격 운영과 함께 2014년부터 신규과제 선정을 중단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580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4,119억 원이다.

우수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여 리더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1986년 시작된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 1999년 시작된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 2005년 시작된 우수학자지원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재단은 2009년 출범과 함께 이들 사업을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다. 이 사업은 원래 핵심연구·도약연구·전략연구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으나, 2016년 재단이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며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면서 핵심연구와 도약연구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으로 통합되고 전략연구는 전략공모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지원기간은 최장 5년, 지원 연구비는 연간 최대 3억 원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20,271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2조 3,681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추진한 X-프로젝트 사업을 2016년부터 이관받아 지원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발굴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였으며,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사회', '질문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결과가 예측되는 쉬운 연구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도전적인 연구, 틀을 깨는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문제에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X-프로젝트는 소속기관과 무관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연구비는 자율로 신청하되 연구기간은 1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지원하여 최장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타 기초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X-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전략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1,351개, 지원 연구비는 약 3,897억 원이다.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재단 출범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의 교원·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신진연구자 간담회 개최
(2012. 4. 3.)



	2015	2016
연구조건	• 사업별 연구조건 동일 (3년, 1억 원/년)	• 필요한 연구비/연구기간 신청 (1~5년, 연구비 자율)
연차별 연구비	• 연간 연구비 고정 (1억원+1억원+1억원)	• 총액 기반 연간 연구비 자율 (1.5억 원+0.9억 원+0.6억 원)
연구비 조정	• 없음	•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평가 ※ 평가 후 조정

재단은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년 임용(계약)된 지 3년 이내인 초기 정착기 연구자에게 1년간 1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환경 구축비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또 2017년에는 생애첫연구지원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 3,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13,352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7,257억 원이다.

여러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예산과 지원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재단은 예산집행에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사업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였다. 또 심화연구 강화를 위해 지원기간을 최장 5년(신진연구, 중견연구)/10년(이공학개인지초)까지 늘렸으며, 2012년 도입된 우수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도 확대하였다.

목적별·분야별 그룹 기초연구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을 목적별·분야별로 조직화하여 집중 지원하는 집단연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글로벌연구실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 중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특히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성격이 다른 분야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학문분야별 신규과제 배정순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연구 지원사업은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이다. 이는 각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연구인력과 자원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연구그룹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1990년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현재 이 사업은 목적과 연구분야에 따라 이학분야(SRC), 공학분야(ERC), 기초의과학분야(MRC), 융합분야(CRC)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최장 7년 동안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790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8,35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학연구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사업은 이공분야 우수대학을 거점으로 한 연구그룹을 지원하며, 공학연구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사업은 공학분야 우수 연구그룹을 지원한다. SRC는 주로 과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지식창출에 집중하고 ERC는 씨앗기술 창출 등 분야별로 목적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enter)사업은 2000년대 들어 기초과학 지원사업들이 세분화·전문화 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 사업은 의대·치의대·한의대 의학전공 인력의 기초의과학 진출을 촉진하여 기초의과학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주도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되었다.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의 기전을 규명하는 기초의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조직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면서 융합연구센터(CRC: Convergence Research Center)사업도 시작되었다. CRC는 사회문제, 국민요구, 국가전략 등 학제 간 융합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연구주제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융합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CRC의 뿌리는 2003년 시작된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National Core Research Center)였으나, 2015년 과학기술과 함께 인문사회·경제·예술·행정법제 등 다학제 간 융합연구(STEAM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CRC로 개편되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 이외 분야 연구자를 30% 이상 필수로 구성하는 등 다학제 융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2011년 중견연구자·선도연구센터 연구관리 설명회 (2011. 11. 29.)

2009년에는 소규모 그룹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이공분야 대학 내 학과·학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구실(BRL: Basic Research Lab)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개인연구와 중·대형 집단연구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진연구자들에게 우수연구자의 창의적 주제 발굴·연구방법 등의 연구노하우를 전수하는 인력양성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BRL사업의 지원대상은 이공계 대학의 교수 3~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며, 지원 연구비는 연간 2~5억 원이다. 기존에는 5년(3+2년)간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종료 시 우수과제에 대해 후속연구 3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BRL은 특히, 지역대학(KAIST, 포항공대 제외)을 30% 이상 할당하여 국내 대학의 균형적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293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1,307억 원이다.

국내 연구그룹이 해외 우수 연구주체와의 심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추진하는 글로벌연구실(GRL: Global Research Laboratory)지원사업은 2006년 시작되었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그룹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글로벌연구실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성과 교류를 돕고 있다. GRL 선정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그룹이다. 최장 6년(3+3)간 연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7년부터 연구책임자 이외의 국내기관 공동연구원(교수급) 참여를 의무화하여 소규모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모기술 분야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자유공모로 전환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 협력국가 다변화를 위해 유럽·아시아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우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글로벌연구실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총 352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1,557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
제4회 글로벌연구실
지원단 심포지엄
(2013. 2. 5.)

이와 함께, 이공계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우수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를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신진연구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1990년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 지금의 3단계(3+3+3) 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발전하였다. 9년간 연 5억 원 이내로 연구비가 지원되며, 단계별 1차 년도에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1단계 2억 원 이내, 2~3단계 1억 원 이내)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중점연구소가 대학의 연구거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인력·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 이공분야 중점연구소들이 자체 협의회를 조직하여 매년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연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중점연구소 간 담화를 열고, 2011년부터는 매년 중점연구소 우수연구성과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공계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347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1,993억 원이다.

기초연구의 탄탄한 기반 구축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 수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정보, 연구시설·장비, 연구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특히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연구정보를 수집·가공·재생산하여 연구자에게 서비스하고 연구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에 힘을 쏟아왔다. 이 사업은 1995년 분야별 12개 연구정보센터를 선정·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2017년 현재 7개 분야별 전문센터와 하나의 중앙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96개이며, 지원 연구비는 약 212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성과 전시회
(2011. 4. 19.)

재단은 2009년 기존 전문연구정보센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자 전문연구정보중앙센터를 개소하였다. 중앙센터는 개별센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은 물론, 통합 표준화지침과 성과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 전문기관인 KISIT와의 연계체계 구축, 성과마루 연계서비스 구축, 통합 커뮤니티 구축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분야별 전문센터는 2017년 현재 전자정보연구센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의학연구정보센터,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생물학연구정보센터,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등이다. 중앙센터에는 연간 2억 원 내외, 분야별 전문센터에는 5년간(2+3) 연간 3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기초연구에 있어서 시설·장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자, 2010년에는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선진국의 첨단 연구시설(CERN(유럽), KEK(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실험데이터를 그리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사업은 2009년 12월 교과부의 '글로벌 첨단실험데이터 확보·공유'를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발전방향 기획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4월 미국 FNAL(Fermilab)과 일본 KEK(고에너지물리연구소)의 가속기 실험데이터를 공유·분석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같은 해 7월에는 GSDC(글로벌대용량실험데이터허브센터)를 출범하였다. 또 2011년 9월부터는 글로벌 실험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팅허브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CERN WLCG의 11번째 Tier1 센터로 정식 가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이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사업을 통해 지원한 연구비는 약 165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 중앙센터 개소식
(2009. 8. 19.)



한국연구재단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의
롤프 디터 호이어(Rolf-Dieter Heuer)
사무총장 재단 내방
(2010. 1. 22.)

2010년에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에 특화된 인프라 사업으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협력사업도 시작되었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CERN의 검출기실험과 이론물리연구에 참여하고 대형검출기(CMS, ALICE) 내의 주요장치를 CERN과 함께 개발하는 등 CERN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기초과학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CMS검출기 실험, ALICE검출기 실험, CMS중위데이터처리센터(Tier-2) 운영, 이론물리 공동연구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서울대·인하대·경북대 등 13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이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한 연구비는 약 232억 원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 있는(국내에 없는) 대형연구시설이나 국내 대비 성능이 우월한 해외 연구시설(입자가속기, 바이오 분석장비 등)을 국내 연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요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본양성자가속기(J-PARC)협력사업을 다양한 해외대형연구시설로 확대하고자 2016년 신설한 사업으로, 재단은 장비별·분야별 사업단을 선정하여 3년간 연간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6 재단이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연구비는 약 8억 원이다.

2. 미래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다

한국연구재단은 원천기술(original technology) 즉,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많은 파생기술을 낳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원천기술은 한 번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 산업·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재단은 바이오(BT), 나노(NT), 에너지·환경(ET), 정보컴퓨팅(IT) 등 미래유망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성장잠재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국책연구

한국연구재단은 2005년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의 국책연구사업을 인수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책연구사업이란 법이 규정한 기술별 연구개발계획과 중장기 로드맵(Road-Map)을 토대로 연구주제를 도출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꼭 확보해야 하는 한국형발사체와 위성개발 등 우주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바이오기술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핵심기술로 떠오르자,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생명공학육성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2004년부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04년 기존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되어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7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분리되었던 바이오와 나노가 다시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추진되었으며, 2011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내의 바이오 분야와 바이오신약장기사업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에는 연구소재지원사업이 본 사업으로 흡수되었고, 2013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이 그리고 2014년에는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이 이 사업의 예산과목에서 분리·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에는 신시장창조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첨단바이오의약품글로벌진출사업 등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이관되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 국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 설명회
(2017. 2. 2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신약(신약타킷 발굴·검증, 신약 기초물질 개발, 신약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등) ▲차세대의료기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차세대의료기술 개발), 줄기세포·조직재생(세포재생, 장기조직재생 등 줄기세포 요소기술 개발) ▲차세대바이오(생명현상 발현과 관련된 질환 제어, 시스템생물학적 생체정보 해석 등 미래유망 차세대 바이오기술 개발) ▲바이오인프라(동물·식물·미생물 등의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등록·활용)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최적화(중양·관절염 등 한국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비임상 단계 진입이 가능한 후보물질 도출) ▲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국내 바이오연구와 신약개발 분야의 실험에 필수적인 유전자변형마우스(GEM) 자원의 생산·활용) ▲전통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전통천연물을 기반으로 천연물 신약, 기능성 소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융복합원천기술개발) ▲연구소재지원(연구소재은행을 관리하여 양질의 연구소재를 산학연 연구자에게 제공) 등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동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 3,785억 원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반도의 아열대화 등 매년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가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자, 정부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환경 분야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과 산업화지원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경제관계장관회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6대 핵심 분야

한국연구재단
제2회 기후변화대응기술 포럼
(2014. 6. 27.)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CCS 등)를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3,769억 원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은 ▲태양전지(도심형·이동기기용 태양전지 등 사업화에 적합한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지원) ▲연료전지(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수소기반플랫폼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적합한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발굴하고 차세대 연료전지 원천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에너지(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활용·신규 바이오매스 확보 및 바이오매스를 연료화하는 복합 전환·이용기술의 개발 지원) ▲이차전지(기존 리튬이차전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에너지 밀도 향상기술 개발 및 전기차용 저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개발 지원) ▲전력IT(신재생에너지 간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생산 효율화 및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신재생 열원설비를 연계·통합 운영하는 기술개발 지원) ▲Korea CCS 2020(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원(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으로부터 포집하여 육상지중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지구온난화 대응 에너지·환경 기초원천 기술개발(태양전지, 연료전지 분야 기초원천 기술개발 과제 지원) ▲차세대 탄소자원화(부생가스·탄소폐자원에서 얻은 탄소원으로 메탄올과 경유 등을 생산하는 차세대 혁신형 기술개발 지원) ▲기후기술현지화(국내 기후기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개도국 현지 기술협력 수요발굴 및 유망 프로젝트 관리·육성 지원) ▲기반기술연구(통합기후예측, 해수 자원화를 위한 분리막 핵심 원천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 전략 플랫폼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 연구) ▲다부처공동연구(연료전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지원(30kW급 양방향 고온수전해-연료전지 스택 및 운전기술 개발) ▲CI가스리파이너리(CI가스를 활용하여 화학제품(플라스틱, 섬유, 염료 등) 원료 및 수송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촉매(바이오·화학) 및 공정기술 개발) 등이다.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경제의 압축성장에서 건강한 삶, 쾌적한 삶 등 국민행복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2014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을 국정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근거는 2013년 12월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이다. 국민제안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점,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부처와 정책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한다는 점, 기술개발과 법·제도·서비스에 이르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 등이 다른 사업과의 다른 차별점이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그것을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생활환경기술개발, 취약계층의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차해소기술개발, 재난을 비롯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재난안전기술개발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재난안전기술은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에 따라 2016

년부터 재난안전플랫폼개발사업으로 분리되어 재난 감지·예측·대응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초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녹조현상을 극복하고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연구 등이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425억 원이다.

2016년 8월 정부가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한 지원도 시작하였다.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투자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국정연구사업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의 9대 분야는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5개 분야(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개 분야(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정밀의료)가 그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가운데 탄소자원화와 미세먼지 분야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원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 운영·구성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분야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바이오기술(BT), 국민의 생명·건강을 지키다

바이오기술은 인류가 아직까지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미완의 영역이자 인류 미래의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올 핵심 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9년 바이오기술이 나노기술, IT 등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2030년경 바이오경제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대 들어 바이오기술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펴고 있다.

이 가운데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이 유전체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으로 수요 증가, 유전체 정보의 빠른 산업화, 유전체 분석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2014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큰 특징은 미래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계는 국내 유전체 사업이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 부처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반기술과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당초 보건복지부 단독사업으로 기획한 이 사업을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변경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맞춤형으로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질환유전체 연구자원·정보 확보, 한국형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농생명·해양생명자원 유전체 정보의 체계적인 생산·가공·분석을 통한 고유생물자원의 산업적 가치 증대 등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이 사업에 총 5,7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2014년부터 뇌질환 예방·치료기술, 신체장애 극복기술, 뇌기능 강화

기술 등 뇌과학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4대 뇌연구 분야(뇌인지과학,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의 요소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재단은 또 이 요소기술들을 치매 조기진단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7T MRI 사업, 뇌발달장애 진단사업,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극복사업 등의 실용화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707억 원이다.

나노기술(NT), 세계 2대 나노강국을 실현하다

나노기술은 다른 여러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연구의 토대로 그리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21세기 들어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분야다.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나노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기(2016~2025)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나노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의 92%, 나노기술 핵심 연구인력은 12,000명, 나노융합 제품 매출 비중은 전체 산업의 12%, 그리고 나노융합 기업은 1,000개 이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노기술 분야 핵심 지원사업은 2004년 시작된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나노·소재 분야 창조적 신기술 개발이다. 2004년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2007년 나노와 바이오가 분리되고 2009년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 나노랩시설구축사업(종합랩센터, 특화랩센터)을 포함한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12년 나노융합2020사업이 분리·신설되면서 지금의 사업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자 2014년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나노안전성 연구를 본격화하였고, 범부처공동연구사업 강화 추세에 따라 2017년부터 다부처 협업과제인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나노·소재 분야 선도적 기술발굴을 통해 미래사회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나노안전과 관련된 측정·특성·독성 평가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표준 나노물질을 개발·보급하는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 효율적인 나노기술투자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나노랩시설 활용지원(최대 90%까지), 전문인력 양성, 선행공정·플랫폼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나노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3,366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 2015 나노코리아
(2015. 7. 1.)

2010년대 들어 국내 나노기술 수준이 세계 4위 이내로 올라선 데 반해 상용화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나노사업화 강화를 위해 2012년 나노융합 2020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서 분리·신설된 것으로, 정부부처 간, 연구개발 사업 간, 연구부문과 산업계 간 단절된 연구 고리를 이어줌으로써 연구자들이 구축한 우수한 성과와 지식이 산업계로 끊어짐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노융합2020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팀플레이 형태로 제품지향적 R&BD를 공동 지원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Post CMOS형 차세대반도체와 휴먼인터페이스용 나노유연소자 개발을 지원하는 NT-IT분야와 나노융합 고효율 에너지변환기술과 나노융합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NT-ET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원천연구성과에서부터 기술사업화까지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우수연구성과사업화와 나노기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20년까지 5,13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최소 1조 원 이상의 나노기술분야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성의 창의소재를 확보하여 소재 산업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을 지원하였다. 미래소재는 기존 소재의 분류와 한계를 뛰어 넘는 신소재로, 지금까지 구현이 불가능했던 부품·시스템을 실현하고 새로운 고급 일자리창출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대 중점추진분야(극한물성 구조·환경 소재, 양자 알케미 조성 제어 소재, 스케일링 한계극복 ICT 소재, 인간오감 증강소재)를 중심으로 우수연구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또 2017년에는 특허청 IP-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적재산권 조기창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연구단장협의회를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까지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3,066억 원이다.

에너지·환경기술(ET),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한국연구재단은 환경 지속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첨단 에너지·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는 '에너지 4.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을 해결하는 에너지·환경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발전소 위주의 전력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지역주민의 반발로 발전소 건설이 난항을 겪자 에너지 생산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2014년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지 등 주민기피시설을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활용하여 환경·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과 인근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비와 계간축열시스템(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축열조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활용하는 시스템) 등을 설치·실증하고, 단지 내에 필요한 전기와 열에너지를 100% 친환경에너지로 생산·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는 6개 후보지역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해 충북 진천을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2015년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2015~2016)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설비구축을 하고, 2단계(2017~2018)사업에서는 실증운전과 분석·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년 해양극지초원천기술개발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는 해양과 극지 분야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해양 신산업을 창출하고, 미래 환경예측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양생태계가 해양천연물 신약,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해양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연구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2009년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해양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시작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극지 관측거점을 활용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환경진단·자원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대열에 합류하고자 현재의 해양극지초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하였다. 현재 이 사업은 해양생물환경 유전체 빅데이터 해독과 유전체 대사체 융합 등을 통해 해양 생명현상원리를 규명하고, 해양바이오 신소재를 연구하며, 수년 내에 막대한 지하자원 개발이 예정된 북극권 5개 연안국 동토층 관측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376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에너지·환경융합분야 연구협력체계구축 (2012. 6. 29.)



정보컴퓨팅기술(IT),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다

한국연구재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IT분야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T를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산업혁명(증기기관, 대량생산, 컴퓨터와 IT)에 비해 속도·범위·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정부가 SW를 기반으로 전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내용의 「SW 혁신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연구재단은 특히 SW 중심의 IT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IT분야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이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 중심의 기초·원천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2,4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SW산업 견인을 위한 범부처 SW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시스템 SW 분야에서는 운영체제,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SOA SW, 분산 컴퓨팅 SW, 유비쿼터스 컴퓨팅 SW, 통신·방송 SW 등 IT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글로벌 SW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신종 악성코드·해킹 방어기술, 범용 인증기술, 능동형 개인정보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SW공학 분야에서는 SW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W의 개발·지원·프로세스 관리기술 등을 개발하고, 정보·지능시스템 분야에서는 국내의 DB·정보 검색·지식관리·인지추론 등의 정보시스템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체신호를 이용한 감성정보 추출기술, 음성인식·햅틱기술 등도 개발하고 있다.

21세기 기술혁명 주도하는 융합기술

사회적 중요 현안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대형 기술제품은 하나의 기술분야에서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융합연구가 강조되자, 정부는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008년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융합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사업들을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2013년에는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등을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신산업창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이후,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은 과학·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물론 사회·문화·교육·의료 등 여러 인문사회 분야 그리고 의료복지 분야와의 융합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자 STEAM연구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STEAM연구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STEAM연구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전통문화와 현대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전통문화에 내재된 가치를 산업화·고부가가치화하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며, 과학기술과 자연기술을 융합하여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를 위한 유망산업·신기술을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여러 STEAM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반형융합연구사업은 녹색기술 분야에서 기반성이 큰 6개 연구과제(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변환 녹색소재, 녹색대응 융합센싱기술, 그린바이오 합성기술, 자기공명기반 에너지 무선전송기술, 다차원 클린 환경 구조체)를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수행하는 사업이며,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은 신성장동력 분야 융합연구단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5~10년 뒤 세계시장을 선점할 핵심 융합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은 NT·BT·ET·IT 등 이종기술 간 융합을 통해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형 융합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4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40개 이상의 융합연구단을 선정·운영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국제 원천특허 40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연구재단은 특정 융합연구 분야를 육성하는 과제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EDISON)사업이다. 이는 최신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 이공계분야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활용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신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공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란, 유체이동, 화학 등의 기본 알고리즘을 전산적으로 해석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가시화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49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전문분야별(전산열유체, 나노물리, 계산화학, 구조동역학, 전산설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방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프레임워크·미들웨어 개발, 인프라 구축·제공, 커뮤니티 형성, 사용자 서비스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2014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연구단 교류회
(2014. 4. 4.)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미래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특수기술 분야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스포츠과학융합연구사업은 스포츠현장에서 요구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스포츠 장비와 경기환경 등에 적용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27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 그리고 맞춤형치료기술및케어플랫폼개발사업은 면역질환 제어에 활용되는 miRNomics 통합시스템 약동학적 제어전략 수립을 위한 계량적 모델링기술을 개발하고, 상호작용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치료후보 타겟 발굴 융합기술을 개발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닉암메카트로닉스융합연구개발사업은 인간의 피부, 근육, 골격·관절, 생체신호, 소뇌 작동 메커니즘 등의 모사를 통해 생각대로 움직이고 느낄 수 있는 웨어러블 Bionic Arm 구현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36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Bionic Arm 구현을 위해 모두 4개의 연구단(생체신호 기반 bionic arm, 생체모사센서·구동기, bionic 메커니즘, 생체 인터페이스)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을 넘어,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전격 융합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은 새로운 전시기법 분석과 개발을 통해 독창적인 과학문화융합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공·사립 과학관과 대학·출연(연)·산업체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문화융합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또 전통문화연구개발사업은 전통문화와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 산업을 고도화하고 전통기법에 기반 한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45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며,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사업은 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을 융합하여 인간중심형 사회문제 종합솔루션을 개발하고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재단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통해 고령친화,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등 국가적 어젠더를 융합기술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안전 분야의 기술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해당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 주도 연구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공공복지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총괄기획위원회’와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회기반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총 70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근력이 약화된 고령·장애인의 관절운동을 위한 신개념 맞춤형 기능지원기술, 고령인의 암이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조절인자 규명과 면역증강기술, 망막손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장애인의 시각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눈 인터페이스기술, 신경계 기능장애를 겪는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을 돕는 기술, 식품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는 비파괴 지문인식기술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성과가 고령인·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고 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경감, 복지·안전 분야 신규시장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의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프론티어사업

한국연구재단은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융합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개 대형·장기·융합 연구단을 선정하여 연구단별 9년간 매년 50억~15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 현황

선정년도	연구단	소속기관	주요 연구내용
2010	의약바이오컨버전스	서울대	신약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플랫폼 개발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KIST	인간·로봇·가상사회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감각까지 교류하는 인체감응 솔루션 개발
	차세대 바이오매스	KAIST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소재 및 바이오연료 경제성 확보 가능 원천 기술 개발
2011	멀티스케일 에너지시스템	서울대	청정 고효율 저가 미래에너지(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시스템 구현
	나노기반 소프트일렉트로닉스	포항공대	신축성과 형태 변형성이 우수한 인간 친화형 유연 전자소자 구현
	스마트IT 융합시스템	KAIST	3차원 IC 상의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설계 플랫폼 연구
	지능형바이오 시스템 설계 및 합성	KAIST	창의적 세포 설계 및 유전체 합성을 통하여 세포공장기술 구현
2013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부산대	이종물질·소재 간 연결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능과 복합기능의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바이오나노 헬스가드	생명연	감염성 바이오 유해물질의 신속 검출·모니터링 기술개발
2014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기계연	창의적으로 설계된 인공구조물을 통한 파동에너지 제어 소재·소자 개발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기본철학은 '4G'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톱 브랜드 구축(Global R&D), 기존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적 기술연구(Ground-breaking R&D), 전략적 집단 융합연구와 네트워크 구축(Group approach),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Growth & Sustainability)가 그것이다. 재단은 4G를 바탕으로 융합기술을 통한 국가과학기술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들이 기초·원천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재단은 특히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정책·기획 부분을 담당하는 원천연구기획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1982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근간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4년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조정에 따라 미래원천기술, 거대 과학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미래기반기술, 2IC프론티어, 미래유망파이오니아, 바이오신약장기, 뇌과학원천기술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변모하였고, 2010년부터는 기존 BT, NT에 편중되었던 사업구조를 글로벌프론티어, 공공복지안전 연구 등 녹색·첨단융합, 공공복지 등의 신규 영역으로 확대해왔다.

재단은 원천연구기획사업을 통해 수요자(연구자)의 다양한 의견·제안을 청취하여 원천연구를 기획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공개 단계평가
(2016. 8. 8-12.)



3. 거대 공공기술 선도하다

한국연구재단은 우주·원자력·핵융합 등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공공 성격의 대형·장기 연구사업 즉, 거대 공공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원천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국민안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방사선기술

한국연구재단은 2005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인수하면서 원자력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997년부터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1992년부터 추진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2001)에서 기인하였으며, 1996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신설과 함께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기술 역량 확보, 핵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핵심기술 개발, 환경친화적 핵연료기술개발, 원자력 원천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2017년 현재까지 제4세대 원자로 모델(소듐냉각고속로 및 초고온가스로)과 관련된 핵심원천기술(소듐 열유체 종합효과 시험기술, 원자력수소 핵심 설계해석 코드 등) 개발, 기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시설(ATLAS) 구축, 신진 핵연료주기 핵심원천기술(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파이로 단위공정의 핵심기술 등) 개발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연구로 분야와 중소형 원자로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수출 시장개척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7년 1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7~2021)이 확정되면서부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에 사업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최상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극한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 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강화를 통해 재난·사고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자체개발한 원전해체기술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06년 재원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체계를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기금은 차세대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 및 핵연료주기기술개발 등 원자력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일반회계는 방사선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 기반확충사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 SMART고도화공동개발사업,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뤄져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2조 534억 원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이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기술 고도화를 통해 세계 원자력기술을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극한상황에서도 원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이용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술적 해결(안전성·경제성 확보)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기술과 이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 등 미래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원자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한·미 공동연구(I-NERII: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약 2조 6,94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방사선기술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방사선동위원소(RI)생산 및 방사선 이용' 분야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02년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는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수립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방사선 연구기반 확보와 방사선 수출국으로의 성장에 더욱 집중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원자력 비발전 분야(방사선)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였다.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첨단비파괴 검사기술, 방사능 피해예측 및 저감기술 등 5개 분야로 수행되며, '기초-응용-실용화-사업화' 전 단계별 차별화된 연구목표 하에 전략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사선융합기술 분야에서는 생명공학·소재·환경·육종 등 이종분야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한 방사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방사선의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치료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부가가치 방사성의약품, 환자 맞춤형 진단시스템, 저피폭·고정밀 방사선 치료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방사선기기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차세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융합형 방사선기기 핵심기술과 비파괴검사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기술을 수질오염·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대규모 방사능 사고를 사전에 예방·예측하고 방사능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위기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SMART(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자로의 해외수출을 위해 수요국(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도화 기술개발과 설계 등을 추진하는 SMART고도화공동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SMART 원자로는 전기 출력

요르단 원자로 및 UAE 원전 수출
(2010. 1. 7.)



100메가와트(MW) 정도의 중소형 원전(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형 원전 건설비용이나 송전망 구축에 따른 과도한 비용 때문에 대형 원전을 도입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SMART 원자로 개발에 착수해 2012년 7월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 가(SDA)를 획득하였으며, 2012년부터 4년간 추진한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사우디 SMART 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MOU' 및 'SMART 건설 전 설계(PPE)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가 1억불을 투자하고 한국이 0.3억불(국고 50% + 민간 50%)을 공동 투자하는 SMART 건설 전 설계(PP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MART고도화공동개발사업은 이 가운데 국고 171억 원(국고분담금 0.15억 불)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및 SMART고도화공동개발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총 361.4억 원이다.

원자력연구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연구재단은 원자력·방사선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원자력연구기반확충, 방사선연구기반확충,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원자력연구기획·평가 등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자력·방사선 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연구개발능력을 조기 함양하여 원자력 연구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2002년부터 원자력대학(원)생논문연구회(NtUss)를 지원하고 있다. NtUss는 원자력·방사선 분야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2002년부터 매년 약 60명 내외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원·운영하는 연구회다.

원자력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세부사업인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 1999년 신설된 것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시설구축, 전략적 기초기술육성, 원자력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연구개발과 교육에 필수적인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하나로·냉중성자·전자빔·사이클로트론·양성자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정 원자력 기술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또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국내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자력·방사선 분야 인력양성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1,740억 원이다.

방사선 분야에서는 방사선 시험·성능평가시설 구축, 방사선기술 관련정보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국가 방사선이용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2012~2016)이 제시한 추진전략별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원천기술개발부터 실용화까지 통합·연계할 수 있는 방사선기기 실험동 건설과 연구장비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방사선의료 정도관리 인프라구축, 방사선 기술정보 통합 네트워크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비파괴 검사기술 기반 구축,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사업을, 2016년에는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 시설 구축·운영사업 및 국가방사선 반응지도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재단은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원자력기술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고자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을, 그리고 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획·평가와 더불어 원자력정책의 발전·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제10기 원자력 대학생
논문 연구 발표회
(2012. 6. 21.)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우주기술 개발

우주기술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성공하면 타 분야에 비해 부가가치가 뛰어나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분야다. 한국연구재단은 인류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각 분야의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자 우주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지원, 달탐사 사업 등을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항공부터 위성, 발사체, 심우주탐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재단이 지원하는 우주기술개발사업은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1996~2015)의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2005.5.)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6)이 수립되면서 나로호 발사를 위한 선행연구와 우주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정부는 2012년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우주기술의 자립화·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독자적 우주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2014년 기존의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달탐사개발 조기 착수와 위성개발 포트폴리오 다변화(기존 다목적 위성과 소형위성에서 중형위성 등으로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제 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주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확대와 자립화를 통해 위성 및 발사체 개발과의 연계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국제우주대회
(2009. 10. 14.)

우주기술개발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술로 위성과 달탐사궤도선 등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인공위성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초·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그리고 달탐사개발사업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발사체개발, 인공위성개발, 달탐사개발은 대부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수행하고, 2008년 착수한 우주핵심기술개발은 대학·국공립연구원·산업체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우주기술 관련 저변 확대를 위해 수행하고 있다.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은 우주기초연구와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융복합으로 세부내역사업이 다변화되면서 확대발전하였다. 특히 우주핵심기술은 개발된 기술이 위성에 실제 탑재되는 등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주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19,238억 원(다부처 예산 포함)이다.

우주기술개발사업 가운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발사체로 우주에 보낸다'를 모토로 시작되었다. 이는 10여년(2010~2021)에 걸쳐 1조 9,5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우주개발 사업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km의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현재 나로호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추력 액체엔진기술, 추진기관 시험설비·장비, 발사체 종합운용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2015년 발사체 시스템과 예비설계 검토,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7톤급 액체엔진 지상시험 등을 목표로 한 1단계(2010.03.~2015.07.)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단계(2015.08.~2018.12.)에는 발사체와 엔진을 상세 설계하고 75톤급 지상용 엔진과 시험발사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종 3단계



한국연구재단
2015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설명회
(2015. 4. 3.)

(2018.04.~2021.03.)에는 3단형 발사체 시스템 기술개발을 마치고 2회의 발사로 성공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위성개발사업은 소형위성, 중형위성, 실용위성급 위성 등 다양한 규모와 목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2년 8월 11일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우리별 1호가 발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보유국가'로 등록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는 1993년에 2호, 1999년에 3호 위성을 자체개발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6년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다목적실용위성 1호에 전격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위성개발 시대를 열었다. 2017년 현재 정부 지원으로 개발·운용된 인공위성은 총 12개(임무종료 8기, 운용 중 4기)이며, 총 7기가 개발 중에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성을 개발하여 위성개발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은 지리정보, 해양·지상관측, 환경관측 등에 활용되는 지구 저궤도용 다목적실용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994년 1호기 개발이 시작된 이후 2017년 현재 7호기가 개발 중이다. 특히 7호기는 광학카메라와 적외선카메라를 탑재한 세계적 수준의 고사양 실용위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소형위성개발사업은 핵심기술 우주검증과 우주과학 임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할 100kg급 차세대 소형위성(1호, 2호)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세대소형위성 1호기가 개발완료시점에 이르러 2018년 상반기 중 발사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우주핵심기술을 검증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소형 영상레이더를 검증·활용하는 데 활용될 차세대소형위성 2호기가 신규개발에 착수하여 개발 중이다. 재단은 공공·민간분야 위성수요에 기반한 500kg급 중형위성 표준플랫폼을 확보하고 정밀 지상관측용(해상도 흑백 0.5m급) 2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는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호기는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2호기는 민간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체 주도의 위성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일명 천리안위성으로 불리는 정지궤도위성을 개발·운용하는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되어 2020년까지 2개의 위성(1호/2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부터 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550kg급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달 탐사 자력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달탐사개발사업과 육상·해양·항공 무인이동체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시작하였다. 무인이동체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정으로 동작이 가능한 이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무인기·자율주행자동차·해양무인이동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과 원천기술, 소형무인기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등에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융합기술

한국연구재단은 에너지 고갈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분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참여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ITER는 핵융합에너지를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7개(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프랑스 남부 카다리슈에 ITER가 완공되면, 2020년부터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2027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축적한 핵융합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추적·확보하기 위해 2003년 6월 ITER 사업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TER 건설에 필요한 총 86개의 부품 중 10개(초전도 도체, 진공용기 본체,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블록, 조립장비류, 열차폐체, 전원공급 장치, 삼중수소 저장·공급시스템, IVC 버스바, 진단장치 등)의 조달품목을 품질요건에 맞춰 적기에 납품하고 전문 인력을 ITER 기구에 파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ITER 상용화가 가능해지는 2040년 핵융합 발전의 원천 기술 보유국 위치를 확보하게 되며, 핵융합 발전소 건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ITER 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EU, 러시아 등 핵융합 선진국들이 축적해 온 공학적 설계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ER 한국사업단은 2014년 12월 참여국 중 최초로 ITER 핵심장치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를 제작하여 조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재단은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핵융합 분야 기초연구역량을 높이고 연구기반을 확대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는 핵융합기초연구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STAR 장치 등을 활용한 핵융합 핵심 기초기술 연구, 산학연 공동



KSTAR 모습

연구, 개인기초연구 등을 지원한다. KSTAR(한국형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는 1995년 「국가핵융합연구개발기본계획」(국가과학기술위원회)을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 완공되어 2008년 최초의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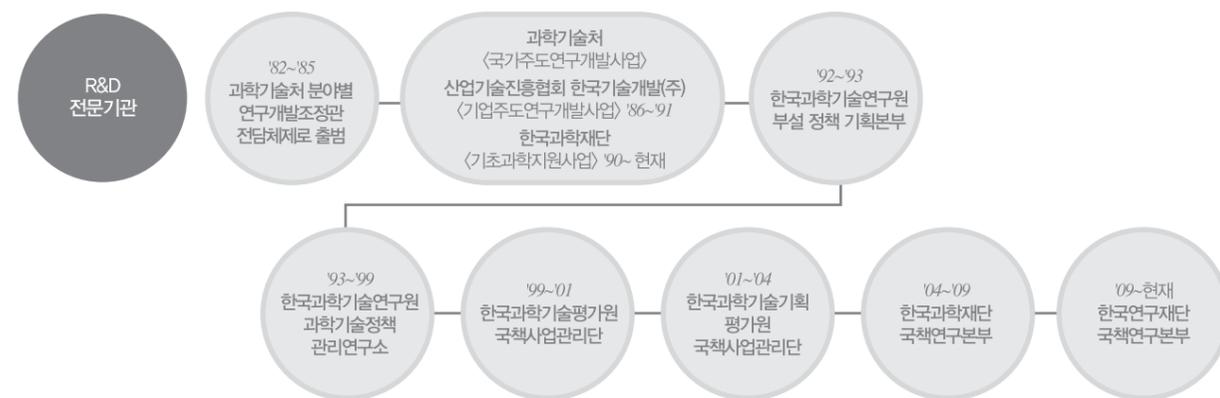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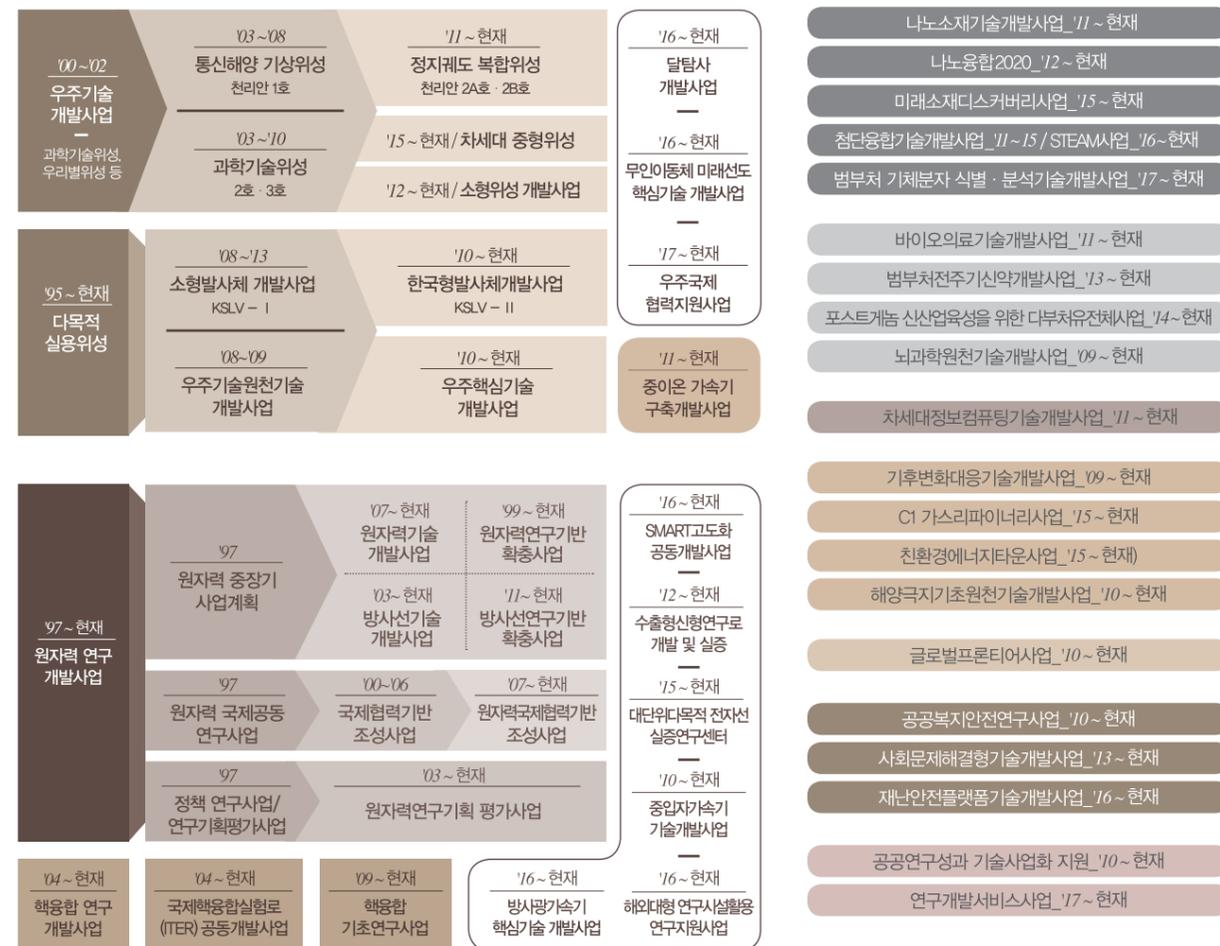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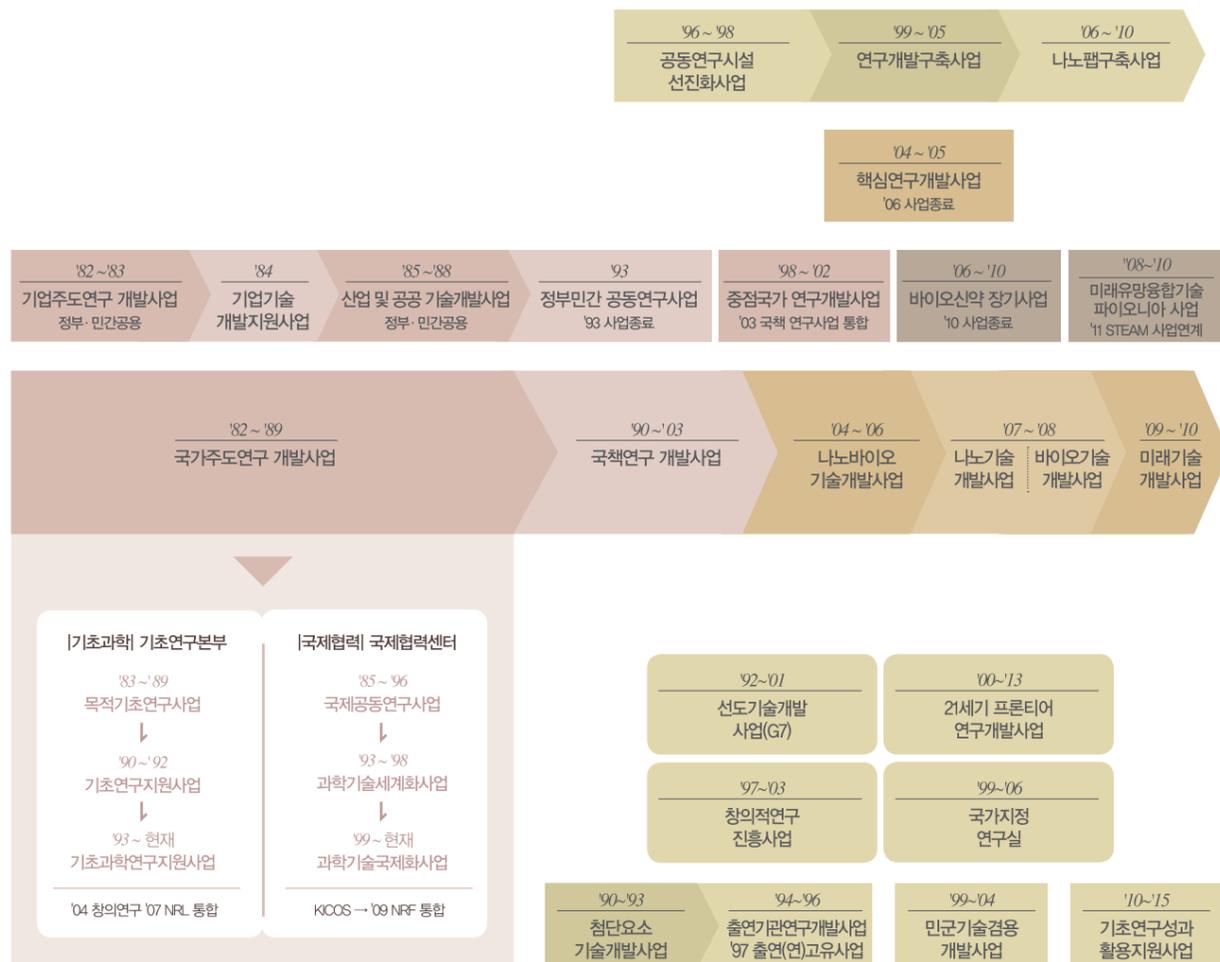
2014년부터는 핵융합기초연구사업을 크게 3가지 형태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핵심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거점센터 분야(최장 5년, 연간 연구비 10억 원 내외), 다양한 학문분야의 통합이 필요한 핵융합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학연 공동·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공동연구 분야(최장 3년, 연간 연구비 5억 원 이내), 핵융합 이론부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까지 핵융합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혁신적 개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개인기초사업(최장 3년, 연구비 1억 원 이내)이 그것이다.

기초연구 메카 꿈꾸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2008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연구재단은 이 사업의 핵심과제인 중이온가속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구축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다.

중이온가속기는 수소보다 무거운 입자(탄소, 우라늄 등)를 이온화하여 가속함으로써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는 첨단장비로, 기존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기초연구를 국내에서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의 기원과 별의 진화 과정을 밝히고, 고온초전도체·반도체·나노자성체·위상절연체 등의 신소재 물질 특성을 연구하며, 희귀동위원소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장비구축에 4,602억 원, 가속기 시설건설에 6,096억 원, 부지매입 3,600억 원 등 총 1조 4천억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중이온가속기(RAON)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로 건설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적용할 최첨단 나노·펄토초 현상 관측·실험기법을 개발하고자 2016년부터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시작하였다. 방사광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을 이용해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거대 실험장치로, 전 세계에 30여 기가 가동 중이다. 생명과학, 의학, 핵공학, 재료공학, 나노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17년 현재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은 최첨단 4세대 가속기에 적용할 '펄토초 X-선 동역학 실험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4세대 방사광원은 기존 3세대 보다 100억 배 이상 밝은 빛과 1,000분의 1의 짧은 펄스로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나노·펄토초 단위까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사람이 중심 되는 인문사회 부흥시대 열다

2013년 정부는 '문화융성'을 핵심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고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하여 문화발전에 힘을 쏟았다. 특히 '타 분야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와 공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2016.2.3.),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인문학진흥종합방안'을 수립하는 등 학문의 토대인 인문학을 진흥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인문학과 대중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연구재단의 인문사회(예술·체육학 포함)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10년동안 총 1조 7,989억 원(연평균 1,799억 원)이 지원되었다(연평균 증가율 7.11%).



2013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문화융복합단
사업설명회(한국예술종합학교)
(2013. 2. 19.)

인문사회 분야 지원 연구비 및 과제 수(2007~2016)

단위: 억 원 개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구비	1,139	1,315	1,543	1,722	1,931	1,986	1,994	2,123	2,123	2,113
과제수	2,620	2,812	3,200	3,350	5,121	5,192	4,856	5,346	5,179	4,714

인문연구의 기틀인 개인연구 체계적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진흥을 위해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개인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우수학자지원 등이 포함된다.

재단은 특히 향후 학술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는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집중하였다. 이 사업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박사후국내연수지원, 학술연구교수지원, 시간강사연구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12,123명이며, 투입 예산은 총 2,164억 원이다.

먼저, 박사후국내연수지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에게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연 3,400만 원이다. 2011년까지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국외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국외연수도 이뤄졌었다. 또 학술연구교수지원은 대학연구소에 남아 연구에 전념하고자 하는 박사학위자가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연구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간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연구지원은 박사학위를 소유한 전국 국·공·사립 대학(2년제 대학 포함) 전임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간 약 1,400만 원을 제공하여, 전임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학문후속세대지원은 2009년 대비 2016년 약 2.4배 증액된 342억 원이 투입되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세부 사업 중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을 보였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지원규모(2009~2016)

사업명	지원규모
박사후국내연수	(09년) 2,700만 원 / 연 → (10년) 2,900만 원 / 연 → (11년) 3,400만 원 / 연
학술연구교수	(09년) 3,600만 원 / 연 → (10년) 3,800만 원 / 연 → (11년) 4,000만 원 / 연
시간강사연구	(12년) 1,000만 원 / 연 → (13년) 1,200만 원 / 연 → (15년) 1,300만 원 / 연 → (16년) 1,400만 원 ※ 과제관리 능력제고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서도 2015년부터 과제당 1백만원의 기관지원금을 지급

이와 함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인력(조교수 임용 5년 이내인 대학교원이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연구자)에 최장 3년간 연 2,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우수연구자로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원래 신진교수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에 신진연구지원사업으로 그리고 2013년에 다시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재단은 연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1,500만 원에서 2012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연구비 정산을 간소화한 정액연구과제(12년 700만 원→13년 900만 원→14년 1,000만 원)를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신설하여 2016년까지 지원하였다. 또 연구비 사용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정액연구과제에도 연구비 사용보고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간접비를 고시비율의 1/2로, 2016년에는 고시비율 정률로 지원하였으며, 정액과제와 일반과제의 차이가 점차 사라지자 2017년부터 정액과제는 폐지하고 일반과제 유형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2015년부터 신청자격을 대학교원에서 일반연구자까지로 확대하여 지원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일반연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는 대학 내 전임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연구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문사회 분야의 '생애주기별 개인연구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5,754명, 투입 예산은 총 980억 원이다.

이 외에도 재단은 중견급 연구자(조교수 임용 이후 5년을 초과한 대학교원이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인 연구자)에게 최장 7년간 연 2,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에게 최장 5년 간 연 3,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집대성함으로써 우수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는 우수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동일하게 2016년까지 최장 3년간 연 2,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 한 우물 연구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장기 지원트랙(장기소액연구(최장 7년, 연 1,000만 원)과 후속연구지원(3~6년, 연 2,000만 원 이내))을 신설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7,378명이며, 투입 예산은 총 1,540억 원이다.

이와 함께, 우수학자지원사업은 최고 수준의 우수학자를 선정하고자 2012년부터 지원대상 업적요건을 최근 10년간 700%에서 1,20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우수학자의 연구업적 집대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선정횟수를 연구자당 1회로 제한하였다. 또 2014년 예술·체육학 분야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하고, 2015년에는 국제적 수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종결과물 제출시기를 연구종료일에서 연구종료 후

2년 이내로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계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2011년까지는 2+2+1년,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2+3년, 2015년부터는 3+2년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수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297명이며, 투입 예산은 총 117억 원이다.

연구재단은 우수논문지원, 명저번역지원, 저술출판지원 등 성과확산을 위한 개인연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수논문지원사업은 적시에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후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 논문의 우수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연간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우수논문에 대한 사후지원 성격이던 사업을 기 발표된 우수논문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지원규모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사업성격 변경에 따라 재단은 후속연구계획서 부분을 평가지표로 추가하고, 일반 연구과제와 동일하게 정산 및 결과물 제출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수논문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1,502명이며, 투입예산은 총 91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
201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설명회
(2012. 1. 16.)



이와 함께, 명저번역지원사업은 동서양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래 1~2년간 지원하던 것을 2015년부터 지원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하였고, 지원비도 번역대상 도서의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명저번역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388명이며, 투입예산은 총 127억 원이다. 또 저술출판지원 사업은 학술성과·연구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우수한 인문·사회과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문저술지원 유형으로만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 저술성과확산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2011년과 2014년에는 우수저서사후지원 유형을 도입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은 우수저서를 사후에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 당초 학술서 위주의 저술과제를 지원하다가 2014년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 출간된 우수한 교양서를 사후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사업의 집중화를 위해 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본격적으로 학술서와 교양서로 유형을 나누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저술지원은 원래 3년간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 2~3년으로 연구기간을 변경하여 연구자가 스스로 저술출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유형별로 저술출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4,002명이며, 투입 예산은 총 444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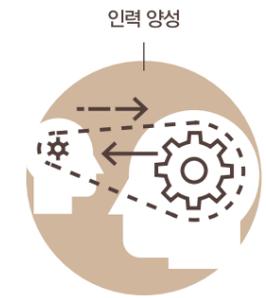
저술출판지원사업 유형 변화

구분	'09	'10	'11	'12 - '13	'14	'15 -
인문저술지원	인문저술지원 (인문저술) 3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인문저술) 3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저술지원) 3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저술지원) 2~3년 10백만원/연		
학술서	-	인문저술지원 (저술성과확산) 2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저술성과확산) 2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저술성과확산) 2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저술지원) 2~3년 10백만원/연	저술출판지원 (학술서) 2~3년 10백만원/연
	-	-	저술출판지원 (우수저서사후지원) 1년 10백만원	-		
교양서	-	-	-	-	우수저서 사후지원 (교양서) 1년 10~20백만원	저술출판지원 (교양서) 2~3년 10백만원/연

인문한국(HK)사업의 성과



- 500여 권(총 190,000여 면)의 총서류 간행
- 20,000여 건의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임연구인력 논문 4,200여 편 발표, 저역서 1,400여 권 간행
- 전임연구인력 1인당 연평균 논문 2.67편 발표, 저역서 0.9권 발간



- 장기적 기획 연구를 위한 안정적 연구진 구성
- 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인력 426명 확보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적 수강인원 12,097명)



-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 인문학 강좌 강의시간: 7,100여 시간, 강사 1,500여 명, 누적 수강인원 72,000여 명
- 지역, 계층 세대,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제 영문 학술지 17종 발행
- 국제학술대회 372회 개최
- 국제 교류 및 공동 연구 83회 진행

공동·집단연구를 통해 인문사회 발전 견인

연구재단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국가·사회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인문사회 집단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인문한국(HK)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토대연구지원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인문전략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도	연구소	전체사업비
2007	16개	20,000
2008	10개	32,600
2009	7개	39,400
2010	6개	39,400
2011	2개	40,400
2012	2개	41,360
2013		43,200
2014	신규 선정 없음	44,104
2015		44,104
2016		43,069

특히, 인문한국(HK)사업은 인문학의 부흥을 이끈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2006년 전국 인문대 교수들의 ‘인문학 선언’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교수들이 인문학이 죽어가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한 이후, 한국연구재단은 2007년부터 인문한국(HK)사업을 추진하여 연구소 단위의 대형 인문학 프로젝트에 연간 최대 15억 원씩 최장 10년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학문연구의 방향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크게 바꿔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전국의 HK연구소가 총집결하는 공동학술심포지엄을 열어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답을 찾아보는 학술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는 사업 내에 국가전략·융복합 분야 아젠다 트랙을 신설하고, HK연구소 중 일부를 지역인문학센터로 지정·운영하여 연령별 맞춤형 인문교육과 소외 계층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HK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연구소는 43개, 투입예산은 총 3,876억 원이다.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1990년 시작된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을 모태로 한 인문사회 분야 대표적인 집단연구 지원사업이다. 이후 2009년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함께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융복합 분야 지원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연구소 중심의 젊은 연구자 양성,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대학의 교육기능 보완·심화 등이다. 재단은 2013년부터 지역대학 소속 대학부설연구소 할당제를 적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예술·체육 분야 연구지원사업(ASK: Arts & Sports Korea)도 함께 운영하여 예술·체육 분야 거점연구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성과발표회를 열어 연구소들의 주요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연구소는 65개, 투입예산은 1,150억 원이다.

21세기 들어 사회과학 즉,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연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자 2010년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혁신을 위해 사회과학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수 사회과학 연구집단을 육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사회과학의 학문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계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집단(Think Tank)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차별 평가를 통해 소형연구팀(Research Clan)에서 중형연구단(Research Cluster) 그리고 대형연구센터(Research Cent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기적으로 전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SSK 활성화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9개 연구팀, 101개의 연구단, 17개 연구센터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총 투입예산은 1,746억 원이다.

2009년 재단은 통합기관의 강점을 살려 과학적 합리성, 인문학·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 등을 융합한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창조적 연구성과 창출, 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가 어젠더 해결 등이 사업의 주요 목표다.

학제간 융합은 4단계(만남·네트워킹 → 논쟁·공조모색 → 해결책 제시·새로운 분야 창출 → 관련분야·사회 전체로 피드백)로 순차적 진행되며, 인문사회와 이공계 중 어느 한 분야 전공자 비율이 3분의 2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사업은 어젠더 발굴 위주의 기획사업(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상)인 씨앗형 사업과 중장기 학제 간 융합연구 지원사업(연구책임자 포함 6인 이상)인 새싹형 사업, 그리고 융합연구총괄센터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재단은 2012년에는 씨앗형, 2013년~2014년에는 씨앗형과 산학협력형을 수행한 과제만 새싹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사업참여 활성화와 연구자 수 해범위 확대를 위해 기존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새싹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는 총 270개, 투입 예산은 308억 원이다.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세부 트랙 변화

'07 - '10	'11 - '13	'14 -
씨앗형	씨앗형	씨앗형
새싹형	새싹형	새싹형
문진포럼	산학협력형	-
-	융합연구총괄센터	융합연구총괄센터

인문사회 연구의 토대인 자료와 DB 등을 구축하는 토대연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사업은 2000년에 시작된 인문학육성지원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전학(백과사전, 목록·색인, 용어사전 등), 자료학(자료수집·해제, 탈초, 정본화, 자학, 전자문화지도 등), 총서학(연구사, 참고서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토대연구추천위원회가 중장기적 어젠더를 발굴하여 Top-Down 방식으로 지원하며, 연구성과물은 연구재단의 기초학문자료센터(KRM)와 연계하여 서비스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5년간 2억 원 이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는 총 467개, 투입예산은 1,196억 원이다.

인문사회 분야 자유로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은 크게 2인 연구지원과 3인 이상 연구지원으로 나뉘며, 최대 3년간 연구진 규모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1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는 총 1,551개, 투입예산은 1,620억 원이다.

또한,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은 신흥지역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신흥시장 진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신설된 사업이다. 연구가 필요한 신흥지역을 6개 지역(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내 29개국(인도, 브라질, 이란, 이집트 등)으로 설정하여 최대 5년간 2억 3,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현안대응에 필요한 심층정보를 생산·공유하는 등 실용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연구소는 7개, 투입예산은 총 100억 원이다.

아울러,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인문학 성과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인문전략연구지원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인문학국책, 디지털인문학, 인문브릿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대 3년간 1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과 2015년 인문학대중화사업의 기획사업으로 시범 추진되다가, 2016년부터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본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년 11개 과제를 최초 선정하여 19.6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인문학(HK) 연구소장 의견수렴회 (2010. 8. 13)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의 발전모델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대학의 인문학 수준 끌어올린다

대학 밖 인문학이 융성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학 내 인문학의 위상은 아직도 낮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부터 인문학적 사고력·통찰력·문제해결능력 등을 고루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발전의 토대인 인문학을 진흥하고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세운 특화된 인문학 발전계획(규모, 설립유형, 중점 육성분야 등)을 통합적·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문교육 트랙을 마련하여 학생의 진로선택권을 확대하고, 순수 인문학의 보호·증진을 추구하며, 전 계열의 학생이 인문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사업 첫 해인 2016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총 19개, 투입예산은 총 522억 원이다.

2. 인문학, 대중 앞으로 한발 더 다가간다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인문학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학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국내에서 인문학 위상에 관한 담론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교육개혁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어, 2006년 전국 인문학 교수들의 '인문학 위기 선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통해 인문학의 위기가 단지 대학 내의 학문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007년부터 국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문학의 경제·사회적 파급력 강화 차원에서 인문학대중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가 국민 사이에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인문학대중화사업은 석학인문강좌, 인문도시,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및 한·중 인문학포럼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석학인문강좌는 가장 대표적인 인문학대중화사업이다. 이는 20~30년 외길로 인문학에 정진하여 학문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이룬 인문학 석학들의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고자 기획한 명품 강좌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는 일반인 대상의 상설공개 강연인 석학정규강좌, 인문공감콘서트(석학정규강좌 지방시리즈), 청춘인문강좌 등이 포함된다. 석학인문강좌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총 437회 개최되었으며, 현장강연 참여 인원도 약 135,000명에 달한다.

재단은 국민이 석학인문강좌의 내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 동영상 제작하여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인문공감 홈페이지(<http://immunlove.nrf.re.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개대학강의 KOCW(Korea Open Course Ware)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8년 동안의 석학강연 자료를 집대성한 석학총서(총 50권)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석학인문강좌 개최 성과(2007~2016)

구분	1기 '07-'08	2기 '08-'09	3기 '09-'10	4기 '11	5기 '12	6기 '13	7기 '14	8기 '15	9기 '16	계
청중 수(명)	11,392	11,815	13,600	16,316	14,803	14,714	21,188	14,096	17,089	135,013
강사(명)	13	13	13	12	16	18	19	21	21	146
강연(회)	53	53	53	52	52	48	45	42	39	437

연도별 인문주간 주제(2006~2017)

제 1회 2006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	제 2회 2007 열림과 소통의 인문학	제 3회 2008 일상으로서의 인문학	제 4회 2009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제 5회 2010 기억과 인문학적 상상력	제 6회 2011 삶의 지혜와 행복찾기	제 7회 2012 치유의 인문학	제 8회 2013 인문학,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
제 9회 2014 세상의 벽을 허물다	제 10회 2015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	제 11회 2016 인문학, 미래의 희망을 담다	제 12회 2017 인문학, 관용과 성찰의 지평을 열다

2012년부터는 인문학대중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인문체험의 장을 넓히고자 인문도시 프로젝트도 시작하였다.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활용하여 인문학 기반이 탄탄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접목하여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학술성과 대중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인문도시의 목표다. 재단은 지역 인문자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인문브랜드 환경을 조성하고, 인문도시의 전국화(2013년 5개 → 2014년 17개 → 2015년 25개 → 2016년 31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문도시 추진 이후 전국에서 시민이 동참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인문도시 프로그램(강연, 공연 등 연평균 280개 이상)이 열리고 있으며, 해마다 참여자 수(2014년 13,300명 → 2015년 47,118명 → 2016년 57,000명)도 늘고 있다. 재단은 2017년 기존의 인문도시를 지역의 인문학적 역사·문화 자산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는 '인문역사문화도시'로 확대하였다.

재단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인문주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강연, 문화공연, 토론회, 전시회 등 인문학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인문주간은 인문학 활동을 위한 '강조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학계와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 시기에 맞춰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재단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2번의 인문주간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95,000명이 인문주간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1년부터 세계인문학포럼(World Humanities Forum)도 지원하고 있다. 이 포럼은 세계 석학들이 모여 인문학의 여러 성과를 논하고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글로벌 인문학 담론의 장이다. 유네스코와 교육부, 개최지역 지자체가 주최하고 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2011년에 부산시에서 열린 제1회 포럼은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를, 2012년 역시 부산시에서 열린 제2회 포럼은 '치유의 인문학'을, 2014년 대전시에서 열린 제3회 포럼은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을, 2016년 수원시에서 열린 제4회 포럼은 '희망의 인문학'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세계적 석학 초청강연을 통해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인문자산의 의미와 21세기적 가치를 세계적 석학들과 공유함으로써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도별 세계인문학포럼 참여 현황

구분	2011(1회)	2012(2회)	2014(3회)	2016(4회)
개최지	부산	부산	대전	수원
참여인원(명)	1,000명	2,538명	2,601명	3,603명

한·중 인문학포럼은 한국과 중국이 인문학적 유대감을 높이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자 격년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2014년 중국학자 초청 포럼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에서 '한·중 인문교류와 문화정체성'을 주제로, 2016년에는 북경에서 '한·중 인문전통과 현대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중인문학포럼은 양국 인문학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중국의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 깨끗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연구윤리 강화하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진흥법」 제15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근거하여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윤리활동 지원 강화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은 연구윤리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구윤리 교육지원, 교재 제작·보급, 연구윤리포럼 개최, 연구윤리 활동사례 조사와 홍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단은 먼저, 주요 연구윤리 사안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새롭게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 지침서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하였다. 해설서는 논문표절 등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중복게재와 저자표시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례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또한, 연구윤리정보포털(www.cre.or.kr)을 통해 연구윤리 관련 다양한 주제와 학술DB,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동향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포털은 2007년 연구윤리정보센터로 시작하여, 2008년 좋은연구(GRF) 정보포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현재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정보포털은 연구윤리 정보 콘텐츠(연구윤리 주제별 가이드라인, 학술자료, 국내외 연구윤리 규정 지침·정보, 행사정보 등) 제공, 연구윤리 교육자료(연구윤리 교육책자, e-book, 인포그래픽, 웹툰, 동영상 등) 제공, 연구윤리 상담센터(연구윤리 일반사례 상담, 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자문 및 전문가풀 제공, 연구윤리 교육전문가풀 제공 등)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배포하였다. 앱은 연구윤리, 연구부정 행위, 표절, 중복게재 등 다양한 연구윤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구윤리 주요개념과 연구윤리정보센터 활용안내 등을 웹툰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현장에서 마주치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곧바로 의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자문' 메뉴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에는 한국연구재단에 실제 접수된 연구윤리 질의를 중심으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여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부서에 배포하였다.

한편, 재단은 2007년부터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통해 올바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자 '연구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포럼은 대학·학회, 출연(연) 등의 연구윤리 관련 보직자와 대학교수,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



1.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의 공공부담 비율은 2008년 0.6%(2011,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1년 0.7%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1%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국가차원의 계획에 근거하여, 우수한 대학원과 지역대학을 양성하는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 국내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대학특성화사업(CK) 등 유형별 · 단계별로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 세계수준 대학 양성하다

두뇌한국(BK: Brain Korea)21사업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입한 거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기존의 나눠주기식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대학과 학문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자 시작되었다. 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을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초 ·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1단계(1999~2005) BK21사업에는 약 1조 3409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BK21 참여 교수의 1인당 SCI급 논문 수는 비참여 교수에 비해 10배 이상 많아졌다. 또 연구중심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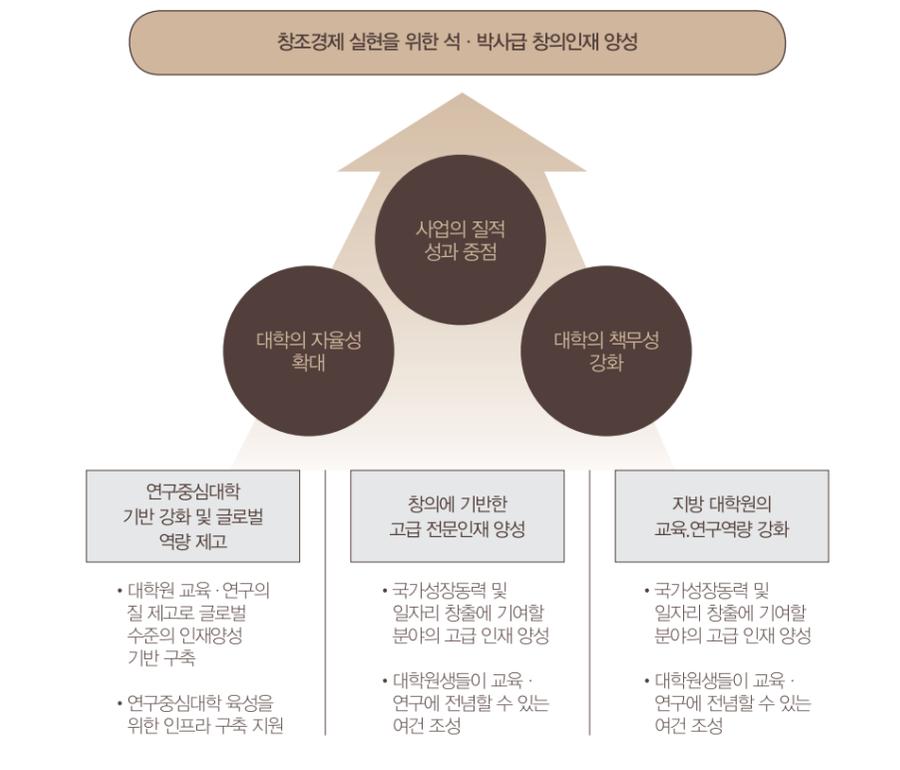
2단계(2006~2012) BK21사업은 2012년까지 세계 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고, 국가 SCI급 논문 순위를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시키며, 대학보유 기술의 민간이전 비율을 10.1%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약 2조 3,0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이 지원을 받았다.

2단계 사업에서는 특히, 대학(사업단)별 자체평가 의무화를 통해 평가체제를 내재화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탈락 · 재진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평가 · 관리규정 법제

화를 추진하는 등 균형 잡힌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물사업단(최준호 교수)의 '24시간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 세계최초 발견', 포항공과대학교 분자과학사업단(박준원 교수)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백 배 작은 나노미터급 렌즈합성 세계 최초 성공', 서울대학교 정보기술사업단(이병호 교수)의 '무안경식 차세대 3차원 디스플레이 구현 성공' 등이 있다.

BK21플러스사업은 2단계 BK21사업과 WCU사업의 후속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7년간 550여 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3조 3,143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대학지원프로그램으로,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 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QS 대학평가 200위권 내의 대학 수를 2012년 6개에서 2020년 11개까지 늘리고,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약 15,000 명을 지원하며, 국내 대학 교육 · 연구의 수준 향상을 통해 SCI급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를 2011년 30위에서 2019년 2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BK21 플러스 사업 비전 및 전략목표(2009년 기준)





한국연구재단 BK21플러스 사업
우수사업단 표창 시상 및 사례 발표회
(2016. 6. 18.)

재단은 BK21플러스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11년부터 글로벌 수준의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박사양성사업(Global Ph.D. Fellowship Program)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1,423명을 선정하고 누적인원 3,544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국내 우수 대학원생이 학문·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BK21플러스사업의 중점 추진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를 위해, 첨단 융복합분야 학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양성형', 고부가가치 특화분야와 국가 전략분야의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화전문인재양성형', 학문분야별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으로 세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방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그리고 지방 대학과 지역산업계 간 연계 강화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학육성'을 BK21플러스사업에도 반영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밀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이다.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을 보다 실질화하여 산업현장에서 곧바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으로 키워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대학원생 지원비 현실화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학원생과 정부·산업계 R&D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성과관리체계 강화다. 사업 성과관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에 대한 전면 재평가 방식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단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BK21플러스사업단(팀)은 전국에 모두 545개다.

2017년 BK21플러스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유형	세부분야	전국단위		지역단위		비율 (%)			
		사업단 (팀)수	교부액	사업단 (팀)수	교부액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	사업단	기초 과학	물리	6	6,951	3	1,475	8,425	3.1
			생물	7	7,617	3	2,750	10,367	3.8
			화학	6	6,697	3	1,737	8,434	3.1
			수학	4	2,173	2	816	2,989	1.1
			지구과학	3	2,518	2	1,148	3,666	1.3
		소계	26	25,955	13	7,926	33,881	12.4	
		과학 기술	정보기술	9	22,539	7	10,813	33,352	12.2
			기계	6	9,948	4	5,160	15,108	5.5
			항공	6	8,824	4	3,110	11,934	4.4
			재료	6	9,082	3	1,551	10,633	3.9
	건설		4	3,667	2	1,835	5,502	2.0	
	응용 과학	응용생명	8	10,270	6	5,518	15,789	5.8	
		의·치·한 의학	8	8,922	7	4,944	13,867	5.1	
	소계	47	73,252	33	32,932	106,184	38.9		
	기타중점분야	5	2,949	2	1,452	4,401	1.6		
	과학기술분야소계	78	102,156	48	42,311	144,467	53.0		
	인문사회분야소계	30	15,528	15	7,259	22,788	8.4		
융복합분야소계	13	10,735	8	3,227	13,962	5.1			
사업단소계	121	128,419	71	52,797	181,216	66.4			
사업팀 (소형)	과학기술분야	98	22,458	95	20,653	43,111	15.8		
	인문사회분야	36	6,214	31	6,080	12,294	4.5		
	융복합분야	11	1,800	8	1,715	3,516	1.3		
	사업팀소계	145	30,473	134	28,449	58,922	21.6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266	158,892	205	81,246	240,138	88.0		
글로벌인재양성사업		16	12,512	5	3,716	16,228	5.9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24	7,330	29	6,505	13,835	5.1		
사업단(팀)지원합계		306	178,734	239	91,467	270,201	99.1		
평가관리운영비					2,559		0.9		
합계		총 545개 사업단(팀) (266개 사업단, 279개 사업팀)			272,760		100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별 특장점 극대화하다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을 지역산업과 사회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고, 인문·사회·자연·예체능 등 학문 간 균형 있는 특성화를 유도하며, 학문간 융복합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을 혁신하고자 2014년부터 대학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이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하는 하나의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학의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CK사업은 5년(2+3) 단위 계속사업이다. 2014년 107개교 341개 사업단(지방 264개 사업단, 수도권 77개 사업단)을 선정·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017년 현재는 110개교 337개의 사업단(지방 258개 사업단, 수도권 79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569억 원이다.

CK사업은 크게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은 지방대학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학부교육 내실화와 학문분야의 고른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지방대학이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이 몰려 지방대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경제·문화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지방대학을 체질개선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CK사업은 각 지방대학의 특성화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분야별 특성화사업단을 선정하여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우수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CK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재단이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30%)은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학교 전체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지방대학특성화(CK-I)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77개(사업단 258개), 투입예산은 총 1,569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은 CK-I 사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수도권대학을 지원하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CK-I 사업과 같다. 2017년 현재까지 CK-II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33개(사업단 79개), 투입예산은 469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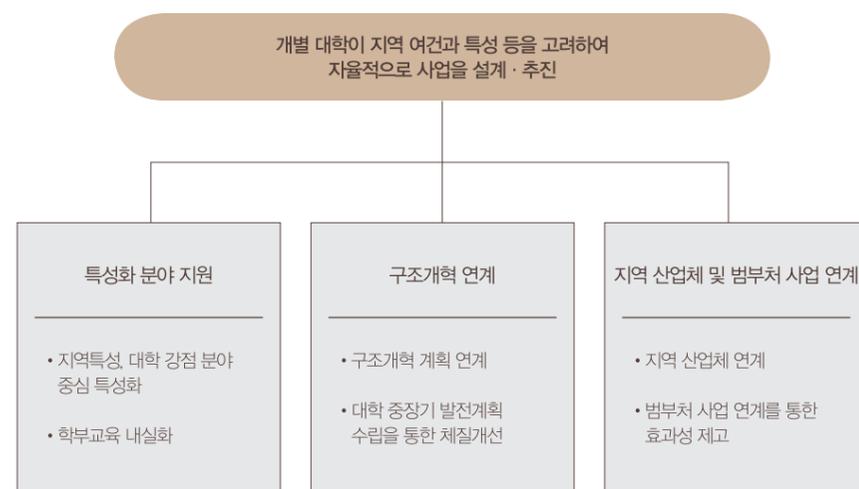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2015년 대학특성화사업
시행계획 및 연차 평가 설명회
(2015. 4. 15.)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사회·현장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전문대학의 기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한 현장·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선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계를 갖추으로써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성이 높은 핵심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CK사업은 단일산업분야 특성화(I 유형), 복합산업분야 특성화(II 유형), 프로그램 특성화(III 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IV 유형)로 나뉘어 지원된다.

사업 1단계인 2014년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재직자·성인 학습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체계 개편에 집중하였으며, 2단계(2015~2018)에는 전문대학별 강점분야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NCS에 기반 한 현장·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3단계(2017~)에는 각 전문대학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미래형 고등직업교육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83개, 투입 예산은 총 8,600억 원이다.

대학특성화사업(CK)의 추진전략



글로벌 석학과 함께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

한국연구재단은 해외 우수학자(Star faculty)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교육·연구 풍토를 혁신하고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노벨상 수상자 등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8,250억 원을 투입하여 해외 우수학자 중심의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 해외학자와 국내교수 간 국제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사업종료 시점(2013.2.)까지 WCU사업을 통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박사, 노벨 생리학·의학상 수상자인 앤드루 파이어 박사 등 모두 628명의 해외석학이 국내에 들어와 116개 사업단에서 강의와 연구 등의 과제에 참여하였다.

WCU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었다. 우선, '전공·학과 개설 지원과제'는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유치·채용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방식이고, '개별학자 초빙 지원과제'는 전일제 교수로 채용한 해외학자를 기존 학과(연구소)의 연구전담교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또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과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석학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하여 연간 2개월 이상 학술활동(공동연구계획, 강의·특강활동계획, 기타 연구·실험자문계획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WCU국제컨퍼런스 (2011. 8. 4.)



자율성·다양성 강조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교육여건 우수대학과 학부교육 선도모델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08년 약 5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9년 2,649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지원사업으로 성장하였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10년 두 개의 사업으로 나뉘었다.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학부교육을 총체적·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육성·확산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이 그것이다.

특히, ACE사업은 그동안 대학의 주된 관심사이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을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여 대학이 연구보다 본연의 역할인 학생교육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 학부대학을 통한 기초·소양교육 강화, 학부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무인력 양성과 졸업인증제도 등을 통한 진로·취업 특성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014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은 다시 대학특성화사업으로, ACE사업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2 학문과 산업의 연계로 연구효율성 극대화하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취업난도 심화되었다. 특히,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67%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다. 이에 연구재단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과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지원사업 등의 대형 산학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2016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16. 7. 27.)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에서 LINC+로

대학(원) 졸업생은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취업이 어렵고 기업은 기업대로 졸업생을 자사에 맞게 재교육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정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육성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 졸업생이 산업체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공대만의 산학협력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전 학문분야에서 활발한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다양한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단계별 사업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기술혁신형(일반대학) 15개교, 현장밀착형(일반대학) 42개교, 산학협력선도형(전문대학) 10개교, 현장실습집중형(전문대학) 20개교, 총 지원 사업비는 약 1조 1,700억 원이다.

LINC사업은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사업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다. 사업비를 기본지원금과 조정지원금으로 구분하고, 평가결과·사업단규모·사업비 조정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식이었다. 또 2013년부터는 매년 '산학협력선도대학포럼'을 개최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였다.

LINC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학을 산학협력에 적합하도록 체질개선했다는 것이다. LINC사업 참여 대학이 교수업적 평가(재임용·승진·승급)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률을 높임으로써(2011년 70.2% → 2016년 92.5%) 교수 스스로 산학협력형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채용하여 학생들이 취업강화·기업연계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참여 대학이 지역기업과 업무협약 등을 맺고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와 취업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대학과 기업이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 기여도를 높였다.

더불어 권역별로 산학협력중개센터를 구축하여 대학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나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과제 등을 추진하였다. 중개센터는 현장실습 중개, 창업교육 거점, 산학협력 기업 지원 종합창구,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교육 등 4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LINC사업은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교과를 운영하여 제품을 학생 스스로 설계·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창의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캡스톤디자인이란,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팀 단위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졸업논문

대신 기획부터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을 여는 등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학 3·4학년생의 캡스톤디자인 이수비율은 LINC사업 전 26.2%에서 사업 후 43%로, 현장실습 이수비율은 7.3%에서 18%로 늘어났다.

창조경제가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6년부터는 LINC사업 내에 대학창업교육지원사업과 창업문화활성화지원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창조경제란,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에 첨단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LINC사업은 대학 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 관련 교수와 성공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창업교육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창업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학 내 창업동아리 중 유망 동아리 300개 내외를 선정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대학생들이 벤처창업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창업실습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였다. 더불어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와 청년 창업문화 로드쇼인 ‘창업지락(創業知樂)’ 등을 통해 창업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았다.

5년 간 추진된 LINC사업은 참여기관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참여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LINC사업 이후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학생의 비율은 80%에 달했다. 또 참여대학으로부터 기술지원, 기술사업화지원 등을 받은 지역 중소기업 역시 80.9%가 LINC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2017년부터는 Post-LINC사업으로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2022년까지 최장 5년 간 지원). 이 사업은 LINC 후속사업과 신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재단은 대학과 산업계간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개요



LINC+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LINC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사업단 내 3개 단과대학 이상 참여 필수, 기술혁신형 대학 외의 대학원 참여 제한, 대학 간 연합모형 제한 등의 사항을 폐지하였다. 또 핵심성과지표를 축소하고 자율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핵심성과지표 배점 중 40%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성과미달대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비취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성과미달로 판정된 대학은 다음해 사업비가 삭감되고, 2회 연속 성과미달 대학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사업단 계약이 해지된다.

LINC+사업은 크게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다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는데, 일반대학은 ‘산업선도형 대학을 육성하여 청년 취·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총 55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윈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예술·콘텐츠 등 산학협력 분야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총 15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분류	대학명
산학협력 고도화형 (70개교)	(일반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군산대,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한림대, 경남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전문대) 동아방송예술대, 용인송담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양여자대, 아주자동차대, 충남도립대, 한국영상대, 대경대, 대구보건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정보대, 창원문성대, 춘해보건대, 원광보건대, 제주한라대
사회 맞춤형학과 중점형 (64개교)	(일반대) 명지대, 상명대, 인하대, 평택대, 배재대, 백석대, 세명대, 광주대, 남부대, 목포해양대, 대구가톨릭대, 한동대, 위덕대, 한라대, 경남과기대, 경상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전문대) 경북대, 대림대, 동서울대, 동양미래대, 두원공대, 부천대, 연성대, 오산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강동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우송정보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조선이공대, 가톨릭상지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동주대, 부산경상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울산과학대, 한국승강기대

또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가운데 일반대학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사회수요와 연계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총 2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4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특히,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대학 내에 산업 현장과 유사한 시설·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LINC+사업 산학협력고도화형 지원을 받은 대학은 모두 70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지원을 받은 대학은 모두 64개교로 2017년 현재 총 134개교가 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의 자발적 체질개선 유도하다

2010년대에 들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인원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대학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 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

운 인재양성이라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양성하는 인재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서로 맞지 않아 청년들이 대학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업 역시 선발한 인재를 직무에 맞게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6년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PRIME사업에 참여하려면 대학마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주요 항목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체질개선 방향(학과개편, 정원조정 등), 혁신적·창의적인 교육모델, 취·창업 등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진로 지원계획 등이다. 이러한 체질개선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PRIME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부여,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대학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3년간 최대 420억여 원이다. PRIME사업은 2017년 현재 사회수요선도대학(대형) 9개교에 평균 150억 원을, 창조기반선도대학(소형) 12개교에 평균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명	주요 중점분야	정원인동 규모(명)
건국대	바이오(농수산 6차 산업, 의생명), ICT융합, 미래에너지	521
경운대	항공(서비스, 기계, 무인기)	262
동의대	기계·자동차·IT융합, 신소재	485
숙명여대	ICT 융합공학, S/W, 기계시스템	250
순천향대	의료 융복합 웰니스, 빅데이터, 문화 콘텐츠	369
영남대	지능형 로봇, 미래 자동차, 융복합 소재, 화학	317
원광대	농생명, 스마트 기계, 디지털콘텐츠공학	535
인제대	의생명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디자인 엔지니어링	420
한양대(ERICA)	S/W융합, 나노광전자학, 화학분자공학	247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한국연구재단은 여러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산학협력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산학협력인프라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산학협력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는 한편, 산학협력 EXPO, 글로벌 산학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협력주체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펴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55.9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산학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산학협력 정책·제도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강화교육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산학협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대학 행정담당자들이 산학협력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연구재단 내에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UICC)'를 운영하여 산학협력 통계, 산학협력단 업무지원 및 교육,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정보 등 여러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학협력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2017년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중 창조기반선도대학 지원 현황

대학명	주요 중점분야	정원이동 규모(명)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 서비스디자인공학, 바이오에너지	265
이화여대	바이오헬스, SW, 미래사회공학	193
경북대	글로벌SW융합	100
대구한의대	화장품, 제약공학	170
한동대	ICT융복합(창업)	70
동명대	조선해양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계공학	110
신라대	지능형 자동차, 융합기계	202
건양대	기업SW, 의학바이오, 재난안전	170
상명대(천안)	시스템반도체, 지능형 로봇, 태양광	273
군산대	해양, 운송, 융합기술창업, 공간디자인	142
동신대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145
호남대	미래형 자동차, 전기공학	105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 학계·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산학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창조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산학연협력 EXPO'를 개최하고 있다. EXPO는 전국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주체들이 함께하는 'LINC페스티벌',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수상자 시상, 또 'LINC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과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 등으로 이뤄진다. 또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 지원(BRIDGE : 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브릿지(BRIDGE)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되며 '산학협력 우수성과 전시', '학생창업 페스티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휴먼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44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동안 국내 대학들은 상당한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관분야와의 협력 미흡과 사업화자금 부족 등으로 이를 실용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2012년 기준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5조 5,510억 원) 대비 기술료 수입(580억 원)은 1.05%에 불과(미국 3.2%)하며, 국내 대학의 기술개발 건수 역시 12,482건에 달하는 데 반해 기술이전은 2,431건으로 연간 기술이전율은 미국(38%)의 절반 수준인 1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대학이 보유한 지식·기술이 국가발전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대학 지식자산의 실용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학협력 EXPO 개최 현황

No	연도	개최 일자	개최 장소	정원이동 규모(명)
1	2008	11.6(목)~11.8(토)	KINTEX 제1전시홀	15,000명
2	2009	11.5(목)~11.7(토)	KINTEX 제3전시홀	13,100명
3	2010	11.4(목)~11.6(토)	KINTEX 제2전시홀	25,023명
4	2011	11.22(화)~11.24(목)	COEX D홀	30,207명
5	2012	10.31(수)~11.2(금)	COEX D홀	30,780명
6	2013	10.23(수)~10.25(금)	COEX B홀	31,640명
7	2014	10.15(수)~10.17(금)	COEX C홀	31,783명
8	2015	10.28(수)~10.30(금)	COEX C홀	32,648명
9	2016	10.20(목)~10.22(토)	KINTEX 제2전시관 8홀	56,140명

구분	주관기관	유형	참여사업단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형	강원대학교	컨소시엄	강릉원주대, 인하대, 한림대	
	건국대학교	컨소시엄	가톨릭대	
	경북대학교	컨소시엄	영남대	
	경상대학교	컨소시엄	순천대, 인제대, 창원대	
	경희대학교	단독	-	
	고려대학교	단독	-	
	부산대학교	컨소시엄	동의대, 부경대, 울산대, 한국해양대	
	서강대학교	단독	-	
	서울대학교	단독	-	
	성균관대학교	단독	-	
	이주대학교	컨소시엄	국민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학교	단독	-	
	전남대학교	컨소시엄	전북대, 제주대, 원광대	
	중앙대학교	컨소시엄	동국대, 이화여대	
	충남대학교	컨소시엄	건양대, 순천향대, 한경대, 한남대	
	충북대학교	컨소시엄	선문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포항공과대학교	단독	-	
	한양대학교	컨소시엄	세종대, 한양대에리카	
	대학 연구소 혁신형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단독	
		전북대학교 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단	컨소시엄	전남대바이오하우징연구소
합계(20개 사업단)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BRIDGE사업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을 선정하여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단은 실용화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으며,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지식재산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기술을 토대로 한 시작품(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 제작도 손쉽게 해볼 수 있다.

BRIDGE사업은 크게 산학협력단 혁신형과 연구소 혁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대학 중 80%가 넘는 대학이 사업단 간 강점분야를 서로 연계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희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BRIDGE사업 연차평가를 외부 공개평가로 실시하여 기술사업화 우수사례의 확산을 촉진하고 대학 간 개방적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2017년 현재 BRIDGE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대학은 총 51개(연구소 포함), 사업단은 20개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출연(연)의 연구실에서 나온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곧바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Lab-to-Market'형 기술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공공기술 기반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사업(이하 한국형 I-Corps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탐색활동과 관련된 제반활동(국내교육, 해외교육, 시작품 제작, 비즈니스모델 설계, 멘토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한국형 I-Corps 사업에 선정된 기술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2단계(집체교육·현장교육)에 걸친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통하여 사업아이템의 시장성을 검증하였다. 또 공동·개별·실전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 점검과 아이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데모데이를 열어 창업탐색팀의 활동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투자자·지원기관과 연계하였다. 앞으로 재단은 기술창업교육가 전문양성과정을 통해 미국 NSF의 I-Corps 교육방법론을 전수받아 국내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2015년 시범사업과 2016년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창업탐색팀은 총 51개(공통형 25개, 대학형 26개)이며, 이 가운데 2017년 기준 창업을 완료한 팀은 25개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사업
(BRIDGE) 공개 연차평가
(2017. 3. 15.)





한국연구재단 WCI사업 설명회
(2009. 8. 25.)

1.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하다

연구인력 국제교류의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인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연구수준을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 World Class Institute)사업이다. 이는 출연(연)이 세계수준의 국내외 우수연구자를 초빙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수행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다. 기존의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사업이 규모 면에서 부족하고, 유치한다 해도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단기간 유치이거나 개별적 유치·활용에 그쳐 우수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국내에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WCI사업은 국내외 대학·출연(연) 등의 우수한 연구자가 소속과 관계없이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Coporatism)로 운영되었으며, 지원기간은 최장 5년이었다. 센터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인력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단, 센터장의 경우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자 확보차원에서 연 4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WCI사업은 종료 시점인 2016년까지 4개의 WCI센터에 총 6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잠재력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우수신진연구자(KRF : Korea Research Fellowship)유치사업도 시작하였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자, 해외 우수신진연구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부족한 고급인력을 보완하고 해외연구자와 지속적 활용·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유치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의 잠재력 있는 해외 신진연구자(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 국내 체재비, 유치기관 지원비 등을 포함 연간 최대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최고 5년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모두 112명, 투입예산은 약 69억 원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선정된 해외 신진연구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유치기관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브레인풀(Brain Pool)사업은 국내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 중견 외국인 과학자와 해외교포 과학자를 초청·활용하는 사업이다. 연구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구활동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연구재단은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룩한 과학기술자와 기관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자연과학분야와 공학분야에서 세계 정상수준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한국과학상(대통령상, 1987년 시작)은 홀수년에, 한국공학상(대통령상, 1994년 시작)은 짝수년에 수상하고 있다. 포상금은 2017년 기준 5천만 원이다.

또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 1997년 시작)은 만 40세 미만 연구자 가운데 연구개발 업적이 뛰어나고 향후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젊은 과학자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자연과학분야와 공학분야에서 매년 4명씩 격년제로 선정하고 있다. 포상금은 2017년 기준 5천만 원이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장관상, 1997년 시작)은 산학연 과학기술자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발굴하여 매달 포상하는 것으로, 포상금은 2017년 기준 천만 원이다.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장관상, 2001년 시작)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여성인재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고자 추진되었다. 포상분야는 이학부문, 공학부문, 진흥부문이며 매년 분야별 1명씩 선정하여 2017년 기준 천만 원을 포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창의상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 기관(연구기관, 대학교, 관련단체, 산업체, 광역자치단체 등)을 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촉진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총 4개 기관(대통령상 3천만 원, 국무총리상 2천만 원, 장관상 천만 원)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
제1회 한국공학상 수상자 발표
(1994. 12. 23.)

한국과학상 역대 수상자

분야	수상자
수학	박용문(연세대), 기우행(경북대), 김종식(서울대), 최재경(포항공대), 황준목(고등과학원), 채동호(서울대), 강석진(서울대), 금중해(고등과학원), 강현배(인하대), 박종일(서울대), 이영조(서울대)
물리	김진익(서울대), 옥항남(연세대), 조용민(서울대), 박영우(서울대), 임지순(서울대), 오세정(서울대), 장기주(과기원), 노태원(서울대), 이상익(포항공대), 이수종(서울대), 이용희(KAIST), 최기운(KAIST), 김대식(서울대), 염한웅(POSTECH), 박제근(서울대)
화학	서정현(서울대), 심상철(과기원), 진정일(고려대), 김성각(과기원), 김명수(서울대), 이은(서울대), 최진호(서울대), 김기문(포항공대), 김광수(포항공대), 김동호(연세대), 백명현(서울대), 윤경병(서강대), 장석복(KAIST), 장석복(KAIST)
생명과학	박상대(서울대), 이호왕(고려대), 정진하(서울대), 임정빈(서울대), 김유삼(연세대), 조우재(경상대), 최의주(고려대), 김성훈(서울대), 남홍길(포항공대), 오병하(포항공대), 오우택(서울대), 노정혜(서울대), 서명준(서울대), 임대식(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공학상 역대 수상자

분야	수상자
기계·전기·재료·산업공학(제2군)	민계식(현대중), 한송엽(서울대), 이재영(과기원), 남수우(과기원), 곽병만(과기원), 이종원(과기원), 최병규(과기원), 강석중(과기원), 양동열(KAIST), 이정용(KAIST)
건설·토목·건축·환경공학(제3군)	최창근(과기원), 홍성원(건기연), 신성우(한양대), 안규홍(과기원)
전자·전기·통신·컴퓨터정보(제1군)	조장희(과기원), 현동석(한양대), 한민구(서울대), 나정용(과기원), 이광복(서울대), 황규영(KAIST), 방승찬(ETRI), 문건우(KAIST)
화학·섬유·식품공학(제3군)	권영수(과기원), 장호남(과기원), 이화영(서울대), 김성철(과기원), 김상돈(과기원), 우성일(과기원), 이화섭(과기원), 박관화(서울대), 남인식(포항공과대학교)

최고 연구인력 키우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연구재단은 지원대상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에 의한 과학기술인력 공급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경제인구 부족 등의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과 학기술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2004~2008)」이 수립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현재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재단은 2004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T)'를 설치·운영(전국센터 1개, 지역센터 16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R&D경력복귀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국제협력사업, 여성과학기술단체융합협력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IST는 2013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로 독립법인화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여초현상)에 따라 우수 여성공학인력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재단은 2016년부터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Women in Engineering-Undergraduate leading Program)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WE-UP은 공과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여성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사회수요 맞춤형 여성공학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창의성·정밀성·세밀함을 요구하는 여성친화적 신산업(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발전과 함께 여성공학인력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재단은 2016년 권역별 10개 선도대학(경성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을 선정하여 우수 여성공학인력 육성을 위한 여성중심 융합·신수요 맞춤형 전공 트랙을 개발하고, 여성공학인의 처우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최장 3년간 연평균 5억 원 내외다. 또 현재 산업계의 인력수요와 향후 여성 유망분야를 분석하고 여성공학인의 커리어패스를 개발·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WE-UP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10개 선도대학이 더 효과적·체계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7년부터는 대국민 대상 성과박람회(WE-UP Day)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여성공학인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재단은 지방대학의 우수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그 가운데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은 2009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광역경제권신성장선도산업육성계획」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인력공급의 허브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광역경제권 창조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2103년까지 추진되었다. 사업 결과, 모두 19개 대학 20개의 인재양성센터가 총 985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 참여기관은 총 1,738개였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의 지역별 특성



또한,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의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여 지역·현장 맞춤형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수요기술·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수요지향형인력양성사업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창의인력양성사업 그리고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글로벌창의인력양성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R&D경험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산업체·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경영자 등이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은 1993년 9월 경제기획원·교육부·과기처·총무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전문경력인사가 지역대학에 재직하며 종합적 경영관리 능력을 갖춘 지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다문화 현상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우수한 교대·사대를 글로벌 교원양성과 연수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이다. 예비교원의 국제화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교원의 진출분야를 다변화하고 교육현장의 다문화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재단은 2012년 1개 대학(경인교육대학교)을 시작으로 2013년 3개 대학(경북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4개 대학을 최장 12년 간 연평균 1.8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교·사대 소속 예비교원의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교육과정 개발, 해외봉사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거점대학 지역 내 타 교육기관 소속 예비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영어모의수업시연 경연대회와 다문화교육 프로젝트 발표대회 등의 공동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업 추진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재단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KAIST, DGIST, GIST, POSTECH, UNIST 등)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고급인재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한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사업, 이공계 석사 이상의 과학기술인재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R&D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유지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연구기관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의과학·생명과학 분야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등의 인력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 국제협력의 길 탄탄히 다지다

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연구그룹·대학이 탄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구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과학기술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국제학술역량강화사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로 국가위상 높여

연구재단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가R&D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환경·기후·재난방지 등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R&D 이슈가 늘어나고 거대과학의 등장으로 R&D 소요연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국제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협력사업은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한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해외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국가별 연구환경에 맞게 사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명칭(STAR: Science Technology Amicable Relations)으로 인력교류 사업을 운영하며 2년 간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와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양국 연구자의 해당 분야별 주요 접점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Focal Point사업(연 6,000만 원, 2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은 국가 간 협력 초기에 협력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연구 가능성을 탐색하여 향후 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연구비(평균 2,000만 원 이하)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항공료, 체제비, 행사개최비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공동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방법론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동연구로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른 기초연구사업에 비해 작은 연구비 규모에도 불구하고 SCI 발간 수나 SCI 상위 10%의 점유율은 상위권으로 나타나 성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단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추진하는 과학기술 및 교육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이하 ODA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ODA란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전문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증여, 양허성 차관 등)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ODA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재단이 본격적으로 ODA사업을 펼친 것은 2006년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을 맡으면서 부터다. 이어, 2013년 교육ODA사업이 추가됨으로써 학문 전 분야에 걸친 ODA사업 수행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재단의 ODA사업은 주로 국내 연구자가 개도국의 파트너들과 공동연구·교육협력·기술자문·지역사회기여 등과 관련된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7년 현재 재단의 ODA사업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33.6억 원, 15개 과제 지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40.17억 원, 11개 과제 지원), 글로벌교육지원사업(8.05억 원, 13개 과제 지원), WFK-TPC(과학기술지원단파견)사업(24.45억 원, 49명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예산은 106억여 원이다.

매년 사업규모와 예산이 증가하면서 ODA사업에 대한 재단의 전문성과 역량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재단은 2015년 국제사회가 제시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목표인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제도(Exit Strategy)를 도입한 것도 그 일환이다.

2016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2016. 12. 1.)



인력·기술 교류 수준을 넘어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직접 설치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연구인력·기술·연구비 등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있다.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동북아연구개발 허브기반구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파스티르연구소,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등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이 한국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후속과제 확보 등을 통한 기술자립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전략적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매해 실시하는 연차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또 공동연구센터 현황과 연구정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자 간 소통 루트도 확대하고 있다.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 심포지엄
(2011. 11. 15.)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추진 과정

연도	내용	비고
'05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시범사업 착수	'SOI-KOREA센터' 등 4개 과제 선정
'06-'09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및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GPP) 추진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9개 과제 및 GPP 12개 과제지원 ※ '서울대-에테브리대' 등 5개 GPP 과제는 유치사업 과제로 전환(09년 3개, 10년 2개)
'10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 일원화 ·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6개 과제 신규선정 · GPP 사업 폐지 · 과제 지원조건 명시 (해외 인력유치, 대응투자 등) · '2+4'지원체제 도입 (기존 '3+3') 등
'11-'12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과제 선정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10개 과제 신규선정 ※ '11년 6개 과제, '12년 4개 과제 · 정량평가 항목 및 자율성과지표 도입
'13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과제 선정 · 연구자 중심의 사업관리 고도화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2개 과제 신규선정 · 단계별 핵심기치 부여 및 선순환 구조 확립 · 현장방문 컨설팅, 인력유치 조건 합리화 등
'14	· 공동연구센터별 특성화 · 활성화 · 경제적/사회적 성과창출 기반 강화 ·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대표성과 및 맞춤형 성과평가 체계 마련 · 경제적/사회적 자율성과지표 설정 · 컨설팅 확대, 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15	· 2015년도 신규과제 선정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4개 과제 신규선정
'16	· 2016년도 신규과제 선정 ·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3개 과제 신규선정
'17	· 2017년도 신규과제 선정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3개 과제 신규선정 · '2+2+2'지원체제 도입 (기존 '2+4') 등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석학을 한자리에 모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국제공동심포지엄'을 열고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연구성과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후속 실용화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학술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증가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외형적으로 세계 7위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기초연구 지원과 학술역량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국내 학술역량 제고와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에 집중하였다.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 Global Research Network program)사업은 이러한 정부방침 아래 2008년 시작된 것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과제신청부터 심사·선정,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영문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심사 역시 글로벌 심사자 풀을 구축하여 국제동료평가(해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재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외 우수연구자의 참여 확대와 국제학술교류의 다변화,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GRN사업은 지난 10년간 1,058건의 SCI급 논문, 1,836건의 논문발표 실적을 도출하였다. 사업성과의 질 역시 세계적 수준이어서, 올해 초에는 국제적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DNA를 이용한 '3차원 다이아몬드구조 광결정 제조 성공'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며 26년 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를 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교육 분야에 특화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전 세계 대학(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EU교육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과 EU 간 상호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복수학위 · 공동학위 프로젝트와 인력교류 프로젝트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컨소시엄은 모두 16개이며, 한국과 EU에서 각각 27개와 50개의 대학이 참여하였다.

한국연구재단
한-EU간 녹색기술 컨퍼런스 개최
(2009. 10. 14.)



양해각서 기반 협력강화

한국연구재단은 197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51개국 80개 해외 연구지원기관과 학술·연구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학술 교류와 협력활동(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연구인력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은 크게 지정기관과의 공동평가·공동지원을 통한 사업(양자 연구교류)과 지정기관 이외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일반 연구교류), 교류협력이 활발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특별협력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양자연구교류지원사업은 재단의 가장 오래된 국제협력사업 중 하나로, 국제협력사업 대표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연구자 간 공동연구, 연구실 간 공동세미나, 연구인력 교류 중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율구성형 사업이다. 또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과 협력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신규 협력국가 확대를 위한 수요 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우리나라와 가장 교류가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스웨덴과 특별협력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여 학생교류부터 연구그룹 공동연구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특별협력을 인문사회 분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단은 이웃한 일본·중국과 함께 기초과학교류위원회, 3국 연구지원기관장 정례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이웃 국가 간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례로 손꼽힌다.



한국연구재단
2010년도 국제협력 사업설명회
(2010. 3. 22.)

국제협력센터 해외협력기관 현황(2017.5. 기준)

연번	국가	기관명	체결일자	갱신일자
1	미국	미국립과학재단(NSF)	1977-05-24	2014-07-29
2	독일	독일연구협회(DFG)	1977-07-06	2013-05-27
3	일본	일본학술진흥회(JSPS)	1979-04-24	2014-08-29
4	이집트	이집트과학기술협회(ASRT)	1979-05-13	2013-07-11
5	독일	독일일렉산더훈포트재단(AvH)	1982-09-01	2013-06-11
6	영국	영국왕립과학한림원(RS)	1983-04-22	1995-03-08
7	스웨덴	스웨덴왕립과학원(VA)	1984-11-23	
8	독일	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	1988-03-03	2012-03-23
9	이태리	이태리국가과학위원회(CNR)	1989-01-25	2012-09-24
10	인도	인도국립과학원(INSA)	1989-11-15	2005-04-14
11	헝가리	헝가리과학원(HAS)	1989-12-14	1990-06-12
12	호주	호주과학원(AAS)	1990-04-06	1992-03-03
13	캐나다	캐나다자연과학및공학연구위원회(NSERC)	1990-11-09	1995-07-31
14	중국	중국과학원(CAS)	1991-05-28	2003-09-11
15	영국	영국문화원(BC)	1991-09-27	2002-12-11
16	프랑스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	1991-09-30	2011-10-12
17	중국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1992-01-23	
18	호주	호주연구협의회(ARC)	1992-03-03	1996-06-12
19	호주	호주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ATSE)	1992-03-03	2013-08-23
20	태국	태국국립연구학술원(NRCT)	1992-03-18	2007-05-30
21	러시아	러시아과학원(RAS)	1992-09-23	2006-03-21
22	멕시코	멕시코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	1993-09-23	2013-05-14
23	폴란드	폴란드과학원(PAN)	1993-09-28	2005-07-26
24	헝가리	헝가리공학원(HAE)	1994-03-04	1995-03-27
25	그리스	그리스과학기술재단(FORTH)	1994-05-16	
26	영국	생물공학및생물연구협회(BBSRC)	1994-09-22	
27	체코	체코과학원(CAS)	1995-03-04	2015-08-11
28	독일	독일막스플랑크학회(MPG)	1995-09-21	
29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과학재단(SSF)	1995-10-18	1999-07-02
30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과학원(NASU)	1995-12-01	2005-06-10
31	베트남	베트남과학원(VAST)	1996-05-04	2016-05-02
32	스위스	스위스국립과학재단(SNSF)	1996-09-17	2014-03-31
33	칠레	칠레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ICYT)	1996-11-14	2013-08-28
34	핀란드	핀란드학술원(AF)	1997-05-09	2012-05-07
35	뉴질랜드	뉴질랜드왕립학회(RSNZ)	1997-09-26	2005-06-15
36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과학재단(FWF)	1998-11-27	2011-10-06
37	중국	중국사회과학원(CASS)	1999-05-26	2006-06-16
38	벨기에	벨기에과학재단(FWO-Vlaanderen)	2001-04-20	2013-06-27
39	몽골	몽골과학기술아카데미(MAS)	2001-08-27	2006-11-21

연번	국가	기관명	체결일자	갱신일자
40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학기술위원회(SCSTI)	2001-09-03	
41	스페인	스페인과학연구위원회(CSIC)	2002-09-10	2010-02-28
42	스웨덴	스웨덴연구협회(VR)	2003-04-07	2009-09-11
43	네덜란드	네덜란드연구협회(NWO)	2003-10-14	
44	베트남	베트남인문사회과학원(NCSSH)	2003-11-28	
45	모로코	모로코국가과학기술연구센터(CNRS)	2004-04-07	
46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CONICET)	2004-11-12	2017-01-13
47	브라질	브라질국가과학기술위원회(CNPq)	2004-11-17	2014-04-25
48	터키	터키과학기술연구원(TUBITAK)	2004-12-23	2012-04-06
49	루마니아	루마니아과학원(RA)	2005-05-02	
50	인도	인도사회과학연구위원회(ICSSR)	2005-05-25	
51	체코	체코국가과학기금(GACRF)	2005-06-08	2010-04-02
52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연구재단(NRF)	2005-06-20	
53	헝가리	헝가리과학연구재단(OTKA)	2005-08-02	2014-11-13
54	벨기에	벨기에국립과학연구재단(FNRS)	2005-10-26	
55	스웨덴	스웨덴국제연구및교육협력재단(STINT)	2005-12-09	2016-02-18
56	영국	영국예술인문학연구회(AHRC)	2006-09-06	
57	영국	영국경제사회연구회(ESRC)	2006-09-07	
58	필리핀	필리핀국립과학기술원(NAST)	2007-01-03	
59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과학원(SAS)	2007-06-22	
60	중국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2007-07-03	
6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IPI)	2007-07-16	2012-01-01
62	노르웨이	신테프그룹(SINTEF)	2007-09-05	
63	필리핀	필리핀국립연구회(NRCP)	2007-12-07	
64	대만	대만과학기술부(MOST)	2010-07-09	
65	러시아	러시아기초연구재단(RFBR)	2010-11-10	2016-12-27
66	프랑스	프랑스국립연구청(ANR)	2011-01-31	
67	벨라루스	벨라루스기초연구재단(BRFFR)	2012-02-13	2015-07-15
68	이집트	이집트과학기술발전기금(STDF)	2013-04-25	
69	터키	터키과학기술연구원(TUBITAK)	2004-12-23	2012-04-06
70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과학재단(ScienceFund)	2013-05-16	
71	스웨덴	스웨덴전략연구재단(SSF)	2013-06-11	
72	우간다	우간다국립과학기술위원회(UNCST)	2013-07-17	
73	탄자니아	탄자니아과학기술위원회(COSTECH)	2013-09-26	
74	러시아	러시아스콜코보연구재단(SKOLKOVO)	2013-12-23	
75	덴마크	덴마크혁신기금(FD)	2015-02-26	
76	브루나이	브루나이연구회(BRC)	2015-03-02	
77	카타르	카타르연구기금(QNRF)	2015-03-06	
78	싱가포르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	2015-10-29	
79	캐나다	캐나다국제연구인력교류기관(Milacs)	2016-12-22	
80	노르웨이	노르웨이연구협회(RCN)	2017-04-26	

권역별 다양한 국제협력 성과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의 권역별 사업 중 미주지역 사업은 크게 전통적 기술협력 강국인 미국과 기타지역(캐나다, 중남미 등) 사업으로 구분된다. 미국과의 사업은 주로 미국립과학재단(NSF)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대학원생 하계연수사업(East Asian Pacific Summer Institute)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미국 대학원생의 단기연수를 2개월 간 지원하여 양국 신진 연구자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으로, 1996년에 착수하여 약 20년 이상 추진되고 있다. 순수한 학생 시절에 구축한 연구 네트워크는 향후 시니어 연구자로 성장한 후에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사업에 참여한 미국 대학원생의 국내 연구환경 및 연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양국 연구자 간 친한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미주지역 사업은 미국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부터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캐나다, 코스타리카, 브라질, 페루와의 공동연구를 신설하고 개별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한국과의 공동연구 수요가 커 연구자 수요 기반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외교적 성과를 동시에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동연구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들은 공동연구사업 운영뿐 아니라 연구관리체계 즉, 평가방법과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다학제사업 기획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노후공유 등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재단의 아시아지역 국제협력사업은 그동안 이 지역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중국과는 1993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구사업과 핵심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한중핵심연구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과는 한일협력연구, 공동세미나사업 등을 꾸준히 함께해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ASEAN(동남아 국가연합)을 중심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와도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도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개별국가와 주로 진행하던 국제협력사업을 확대·심화하여 EU(유럽연합), V4(비셰그라드 4개국-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다자간 협력으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특히, 풍부한 R&D 자원과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했음에도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국제협력이 저조했던 EU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유럽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 2013년 제4차 한-EU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대통령의 EU순방을 계기로 한-EU연구협력센터를 개소하고, 2014년에는 한-EU(ERC) 연구자교류협력사업과 감염병국제협력사업(Flagship Programme)을 신규 추진하였다. 한편, EU와의 협력을 주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U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5개국 8개 기관으로 정책연구팀을 구성, 재단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KONNECT(한-EU 과학기술 연구혁신 협력사업) 프로젝트는 EU와의 성공적인 전략적 협력모델로 꼽힌다.

아울러, V4공동연구사업은 동유럽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과의 공동연구사업으로 2016년에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사업을 신규 기획하고 평가유형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하다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과학기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기금이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나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세입·세출 예산외(off-budget)비용을 뜻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진흥과 과학문화 창달을 지원하고자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1992년에 설치되었다. 이 기금은 그동안 과학기술단체 지원과 과학기술자 인력활용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에 약 3,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과학문화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용자금, 정부 외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배분된 복권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R&D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처음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이 운용·관리하다가 1999년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0년 1월에 「과학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한국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기금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출연계정은 한국과학재단이, 용자계정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는 한국과학재단으로 일원화되었으며, 2009년 통합기관 출범과 함께 다시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받았다. 2017년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과학문화창달사업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2012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성과 전시회 개최
(2012. 4. 17.)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성과를 제고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우수등급, 다소 우수등급, 보통등급)를 발표하고 있다. 또 기금사업의 우수성과를 홍보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과학기술진흥기금 성과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원자력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원자력연구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996년 「원자력진흥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한국전력공사)가 원자로 운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법정부담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차입금 등이다.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수입에 맞게 지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다른 기금과의 차이점이다.

원자력기금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연구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그리고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 등에 지출된다. 연구재단은 2008년부터 위탁업무를 맡아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재단은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독립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기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던 명칭을 '원자력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 내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미래부)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자력안전위원회)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비전선포식
(2009. 12. 15.)

1.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효율적인 기관경영 추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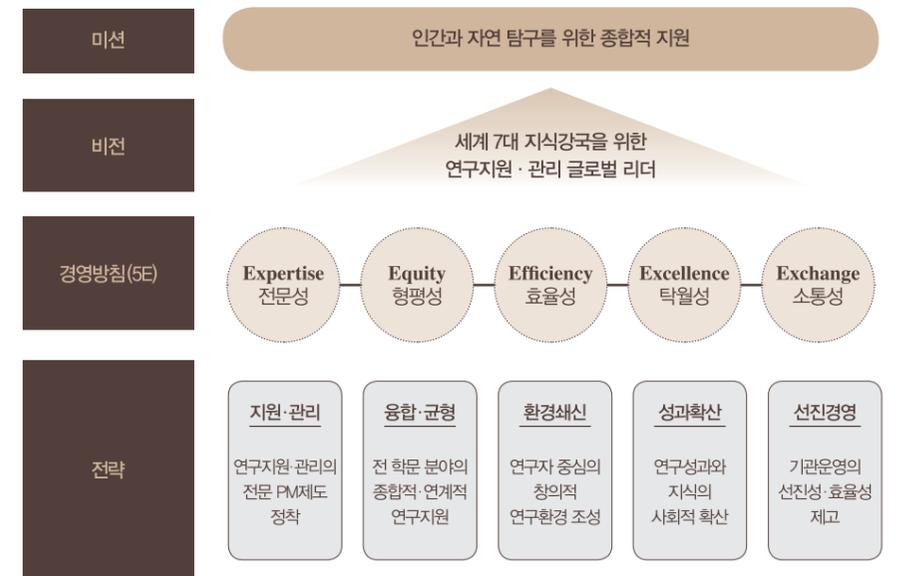
2009년 6월 26일 국내 최대의 선진형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은 '세계 7대 지식강국을 향한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다. 또 출범과 함께 5E「전문성(Expertise),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탁월성(Excellence), 소통성(Exchange)」경영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전략 즉, 전문 PM제도 정착, 전 학문분야에 대한 종합적·연계적 지원,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기관 운영의 선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갔다.

시기별 기관경영의 변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연구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등 '5본부 2센터 32단 18단 1실'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략기획홍보센터 내에 미래전략단을 신설하여 재단의 학술과 연구개발 전략기획에 대한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2009년 기준)



한국연구재단 비전선포식
(2009. 12. 15.)



• 소통경영 강화

한국연구재단 초대 박찬모 이사장은 직원과의 소통, 고객(연구자)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발전방향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출범 직후인 9월 29일부터 이사장과 일반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대화의 장인 '이사장과 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3회 추진된 이후 2010년에도 계속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각종 정책에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 PM제도 정비 및 역할 강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PM제도를 정비하였다. 선진국 PM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PM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 관리제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PM별(본부장-단장-책임전문위원-전문위원)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연구관리 관점·판단의 다양성을 높여 평가과정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재단은 PM에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사업 전 과정(연구기획→과제선정·평가→진도관리→성과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 조직·인력 효율화

한국연구재단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통합 전 333명이던 3개 기관의 직원을 275명으로 조정(17.4% 감축)하고, 유사조직 통폐합을 통해 36개 팀을 23개 팀(39% 감축)으로 줄여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하던 직종·직급을 2개 직종(연구직, 행정직) 3개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줄였다. 또 정원대비 간부비율도 기존 한국과학재단 31%, 한국학술진흥재단 24%이던 것을 15.4%로 줄이고, 최하 단위조직의 인력규모는 8.4명으로 확대(한국과학재단 5.5명, 한국학술진흥재단 6.2명)하였다. 또 간접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보직 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정년퇴직 고액연봉자를 신규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도입, 직급별 초임 삭감, 책임급 직원의 연봉 자진반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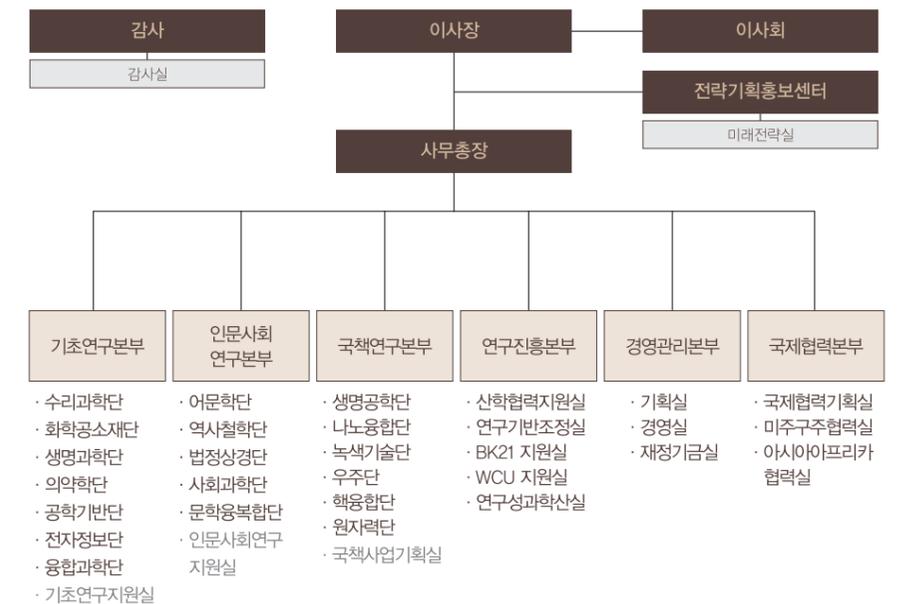
• 기관 비전과 목표 선포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12월 15일 '비전 및 윤리헌장 선포식'을 열고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재단은 '인간과 자연탐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새로운 미션으로, 그리고 '세계 7대 지식강국을 향한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 비전은 세계 각국의 연구지원기관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지식강국으로 견인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은 2010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연구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본부 등 '6본부 1센터 18단 16실'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략기획홍보센터를 이사장 직속으로 두어 기획·홍보를 강화하였다. 이 가운데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는 PM조직으로 운영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조직도(2010.12.)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0.12.)

구분	연구원								계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계약직	
현원	1	1	22	78	80	93	7	18	300

• 고객 중심으로 사업 재편

재단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고객(연구자)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지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고객만족도(CS: Customer Satisfaction) 제고 연구자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이 새롭게 수립한 '투명성 ·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고객 가운데 재단의 경영과 연구개발 ·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20인을 위촉하여 재단의 고객만족 경영전략 수립 ·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 11월에는 전국의 대학을 수도권 · 강원권, 충청 · 경상권, 충청 · 전라권으로 나눠 순회 방문하며 인문사회 분야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2010 연구기관 방문 - Happy Visits'도 개최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과 동시에 2010년 6월에는 해외 석학 · 연구지원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였다.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재단의 각종 사업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재단이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 대외 신뢰도 상승

2010년 8월에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사업관리 부문에 대해 국제 표준인 ISO 9001을 획득하였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9001은 ISO에서 정한 품질경영과 보증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이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ISO 9001:2000에서 ISO 9001:2008로 규격이 전환되면서 업그레이드된 23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2010년 1월 ISO 9001:2008로의 규격전환에도 성공하였다.



한국연구재단
CS 제고 연구자 위원회
(2010. 3. 19.)

• 연구하기 좋은 환경 구축

2010년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 · 여건 조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우선, 연구결과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실성이 인정되고 해당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성실실패로 인정하는 '성실실패용인 제도(honorable failure)'를 도입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성실실패로 인정된 과제는 제재 조치를 면제 또는 감면하되, 반복적으로 연구실패를 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실실패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라 하더라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모험연구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 재단이 2010년 선정한 모험연구사업은 총 50개였다.

이와 함께, 과제참여제한 완화를 추진하였다. 인문사회 분야의 대표적인 집단연구 지원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1개 대학 1개 과제로 제한하던 규정을 1개 대학이 3개 과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 내 소규모 그룹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경우 1개 학과 1개 과제로 제한하던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 융복합 연구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은 3개 기관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10년부터 과학적 합리성과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예술적 창의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연구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학 분야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학제 간 융합사업' 예산을 10억 원 가량 증액하여 총 24개 과제(신규 22개, 계속 2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또 정부차원의 융합기술개발사업인 STEAM연구사업 지원에도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STEAM연구사업 안에 기술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등의 융합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투명 · 책임경영 강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은 유사 · 중복 기능의 조정, 이의제기 · 민원 · 불만사항 등에 대한 처리 방식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규정의 개정 · 폐지 등을 통해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 · 책임경영을 강화하였다.

2011년

한국연구재단은 2011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기획조정실, 정책연구실 등 '5본부 1센터 13단 16실'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연구사업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1년 1월 한국연구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임명하였다. 신임 원장은 조직의 안정화와 활력 도모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기관 경영목표와 전략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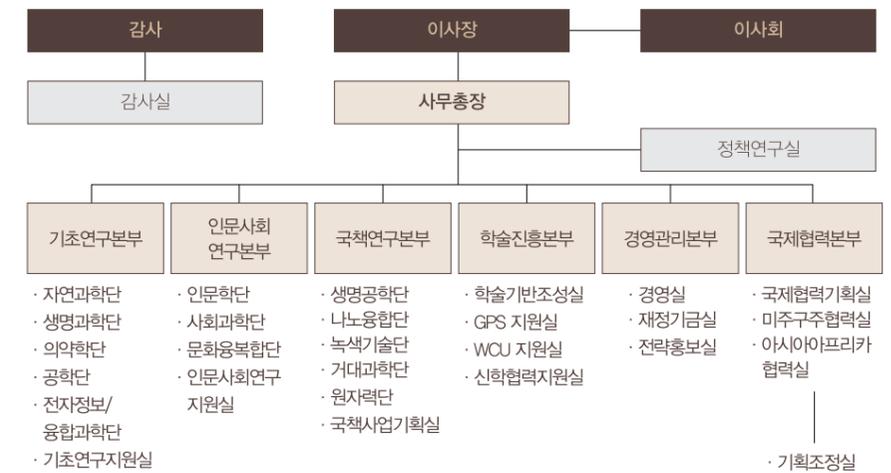
기관 경영목표를 연구의 질적 도약, 차세대 인력양성, 세계 으뜸 지원체제로 정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지원관리 체계의 선진화, 연구성과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 기관 운영의 선진성·효율성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3대 핵심가치로 새로운 도전, 사회적 책임, 연구자 감동을 강조하였다.

• 고객 중심 마인드 강화

오세정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2월 2일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2011년 고객님께 드리는 한국연구재단 직원들의 약속'을 발표하였다. 선정된 7가지 약속은 ▲평가 전문성 제고 ▲애로사항 해결 프로젝트 추진 ▲연구수행 관련 정보·자료 수시 제공 ▲연구자 행정부담 최소화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연구비 적기 지원 ▲심사평가비 조기 지급 ▲직원 복무자세(정령도 제고) 강화다. 재단은 이 7가지 약속을 통해 직원들의 자세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또 약속 수행결과를 부서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고객(연구자)의 목소리(VOC) 수렴을 위한 '2011년도 하반기 사업별 연구현장 간담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재단 경영진이 전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자 등으로부터 직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조직도 (2011.11.)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1.11.)

구분	연구원							계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정원	2			273				275
현원	2	1	1	81	79	97	7	268

• 융복합 연구 활성화

재단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연계한 신지식을 창출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데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융복합 핵심기술(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뇌연구, 핵융합 등) 개발에 주력하고, 정부차원의 융합기술개발사업인 STEAM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STEAM사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의 경우, 2008년 60억 원이던 예산을 2011년 210억 원(3.5배 증액)까지 끌어올렸다. 더불어, 학제 간 공동연구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공분야의 경우, 일반연구사업(기본연구)과 중견연구사업(핵심연구) 간 협동연구를 중견연구사업 공동연구로 일원화하고 실질적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과제당 연구비를 증액하였다. 또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을 전체 예산의 5% 내에서 별도로 추진하였다.

• 지원체계의 전문화, 조직의 안정화

다양한 학문분야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지원체제가 연구지원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구재단은 2011년부터 각 학문 분야 PM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관리체계 개발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문분야별 사업추진 설계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모형 수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봉등급표를 폐지하고 평가를 통한 차등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최고와 최저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배 이상 차이 나도록 함으로써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성과연봉제 설명회
(2011. 5. 19.)

한국연구재단 2011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
(2011. 11. 22)



• 대외 신뢰도 상승

한국연구재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심사에 통과하여 '2011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재단은 효율적 근무와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실시하고 수유실과 여성전용 휴게실을 운영하는 한편, 체력 단련실과 황토길 등 직원과 직원 가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추구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게 되었다(2014년 재인증).

• '행복 기·원 마음 잇기' 캠페인

한국연구재단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연구자와 국민이 함께 기원·공유하고자 2011년 9월 5일부터 '행복 기·원 마음 잇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은 물론, 산업과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초·원천연구(기·원)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되기를 연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하고, 이미 도출된 탁월한 성과는 서로 나눔으로써(마음 잇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의미로 교과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행복 기·원 마음 잇기' 캠페인은 공식 블로그(happyscientists.tistory.com)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블로그는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기·원의 전당'을 비롯하여, 귀감이 되는 우수 연구자를 릴레이 형식으로 칭찬하는 '행복 사랑방' 동영상, 현직 과학담당 기자들의 발전적 제언이 실린 '미디어 전망대' 등 다양한 코너로 꾸며졌다. 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사진 공모전 ▲UCC 공모전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러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었다.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편입

2011년 3월 28일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Korea Institute of 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이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편입되었다. KIRD는 대한민국 연구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07년 설립된 미래부 산하 기관으로, 2014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KIRD가 편입됨에 따라 재단은 연구 성과와 교육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데 주력하였다. KIRD는 2015년 8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독립청사를 지어 이전하였다.

2012년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기획조정실, 정책연구실, (부설)연구개발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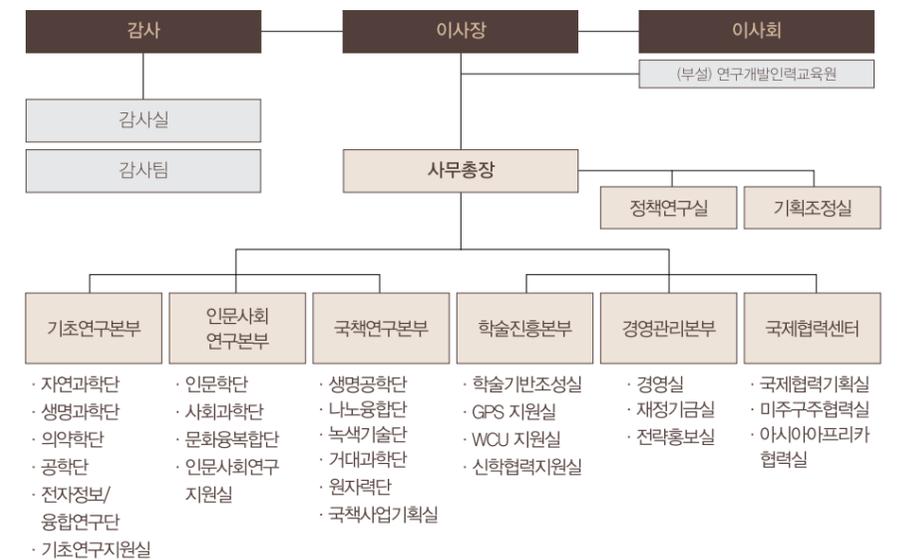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전경사진



교육원 등 '5본부 1센터 13단 16실 1부설'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2년 1월 한국연구재단 제3대 이사장으로 이승중 전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을 임명하였다. 신임 원장은 새롭게 6대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6대 과제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학문분야·사업본부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체제 강화 ▲글로벌·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촉진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제도의 선진화 ▲연구성과·지식의 경제적·사회적 확산 ▲기관 운영의 제도적·문화적 정착이다.

한국연구재단 조직도(2012.7.)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2.7.)

구분	연구원							계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정원	2			298				300
현원	2	1	1	84	81	111	7	287

•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형 그랜트(Grant, 연구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모험·창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 연구의욕이 왕성한 젊은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랜트 제도란, 연구비 지원대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소액연구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수행이 끝난 뒤 결과보고서와 비용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많아 불편이 컸다. 재단은 그랜트 제도 도입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결과평가와 정산보고서 제출은 폐지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였다. 단, 연구비의 부적절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5%의 연구과제 정도만 무작위 선정하여 평가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5배 반납 조치하는 등 벌칙조항은 남겨두었다. 그랜트 제도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인문학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 등에 우선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보호·모험·창의 과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공분야 사업의 경우, 보호·모험·창의 과제를 일정비율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인문사회 분야 역시 5% 이내에서 해당 분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신진연구인력 지원 예산을 2010년 약 945억 원에서 2012년 약 1,49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진연구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신진교수지원, 대통령Post-Doc, 글로벌박사펠로우십, 학문후속세대지원, 시간강사연구지원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또 박사급 인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연구원지원사업(Research Fellow)을 추진하여 기존에 단기계약직이던 대학 내 연구전담인력을 3년 이상 중장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였다.



한국연구재단
2012년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워크숍
(2012. 1. 3.)

• 학문분야·사업본부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체제 수립

한국연구재단은 5개 본부별 특성과 개별 학문분야 특성·수요에 맞춘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책연구본부는 부처 간 연계강화를 통해 나노융합 신사업 조기창출과 우주개발 자립화에 주력하고, 학술진흥본부는 2013년 2단계 BK21사업과 WCU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후속사업을 기획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공동연구사업(GRL, GRN)평가를 위한 Matrix조직(센터+연구본부)을 운영하고 글로벌개방형혁신연구센터(GIRC)를 기획하는 데 역량을 모았다.

• 융복합 연구지원 강화

재단은 이공학과 인문사회 분야 간 융합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합연구단을 신설하고, 융합연구 컨퍼런스(HubCon) 등을 통해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자 간 지식과 정보·경험을 공유·확산하였다. 또 과학적 합리성, 인문학·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과 과학기술 이외 분야 연구자를 30% 이상 필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다학제 간 융합연구사업인 국가핵심연구센터(NCRC)를 더욱 강화하였다.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선진화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자 풀과 사업별·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우수 평가자 풀을 구축·운영해왔다. 특히, 2012년부터는 각 학문분야를 대표하는 책임전문위원을 비상근 PM으로 신규 선임하여 사업단장의 평가업무를 줄임으로써 단장이 기획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확산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대한민국 기초연구 수준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참신한 연구성과 확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기초연구 우수성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문작가와 과학교사를 활용하여 청소년용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사이버전시관(이공학)과 기초학문자료센터(인문사회)를 통해 최신성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또한, 인문학대중화사업을 광역화하고 '인문사회 기초학문육성 10년 성과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인문사회 분야 대중화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대중화사업의 수혜지역을 지방 소도시와 산간벽지로까지 확대하였다.



한국연구재단 2012년도 NRF
아카데미교육관련 사무회의
(2012. 3. 15.)

• 기관경영 안정화 · 내실화

재단은 경영효율화위원회(위원장 이사장)를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2012년 경영효율화 과제(20개 내외)를 채택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관경영의 안정화 · 내실화를 꾀하였다. 대표적인 경영효율화 과제는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안정적인 조직 · 인사 관리, 에너지사용합리화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 연구(성과)와 교육을 연계하는 사업기획, 연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었다.

이와 함께, 경영진과 직원 간 그리고 직원과 직원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NRF Academy 등을 통해 직원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GWP(Great Work Place, 자랑스러운 일터)'를 구현하였다.

• 대외 신뢰도 상승

재단은 한국형 그랜트(Grant)제도 도입 · 정착과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12년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2013년까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제3대 이승중 이사장은 경영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경영과 사업운영을 안정화 · 내실화 하고, 선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한편, 원만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3개 기관 노사 통합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교과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으로 선정되어 관련 인증을 획득하였다. 재단은 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기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Best-HRD 인증을 받았다(2015년 재인증).

• 노사 간 발전적 관계 구축

재단은 2012년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선진 노사문화를 일구고 있는 기업(기관)을 노사문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증서 ·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는 통합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1년 12월 드디어 3개 기관별 노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이 촉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노조 추석맞이 체육대회
(2012. 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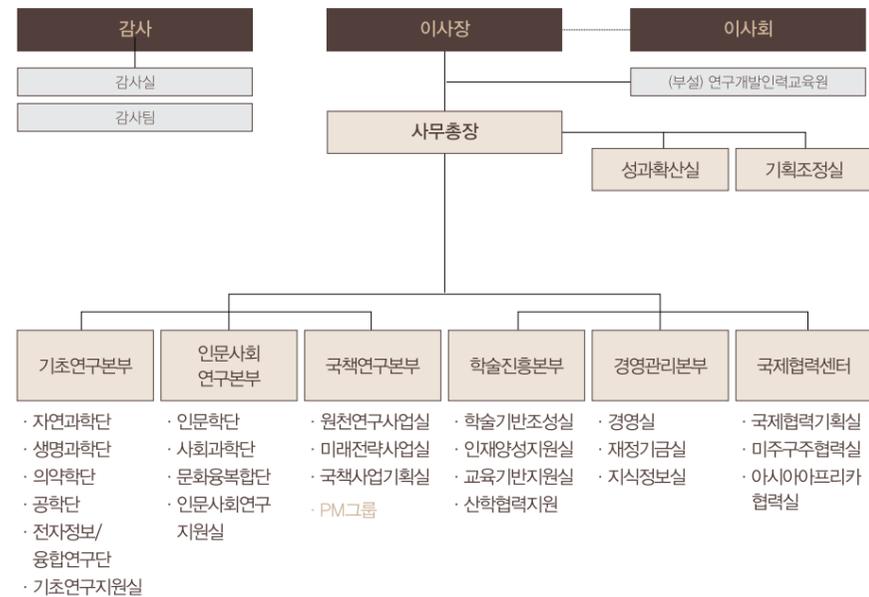


2013년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성과확산실 (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등 5본부 1센터 8단 18실 1부설*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 중점과제(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추구,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지원관리 체계의 선진화, 연구성과

한국연구재단 조직도(2013.9.)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3.9.)

구분	연구원							계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정원	2			303				305
현원	1	1	-	87	83	121	9	302

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재단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퀀텀점프란 양자가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계단을 뛰어오르듯 많이 증가하는 것에 빗대어 경제가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추구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기조로 창조경제가 강조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도 창조경제 실현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창조경제 실현에 부응하는 연구지원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자가 도전적·창조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타 분야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융성에 힘을 쏟자, 국민들이 인문학을 더 쉽게 접함으로써 인문학적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인문화대중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정부3.0 정책과도 호흡을 맞췄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재단은 '개방·공유·소통·협력'라는 정부3.0 철학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집중하였다. 정부3.0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단 내부 포털과 외부 홈페이지에 정부3.0 코너를 마련하여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그랜트(Grant) 제도를 확대하고, 모험연구와 잠재적 연구자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창의적·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실제로, 박사급 인재 처우개선을 위해 시작한 대학연구원지원사업(Research Fellow)의 경우, 2012년 50억 원이던 예산을 2013년에는 225억 원으로 350% 증액하였다. 또 2010년 시작한 모험연구사업의 체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 연구지원관리 체계의 선진화

재단은 전문위원 규모를 확대하여 분야별 PM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학문분야별 특성에 부합한 평가자 풀을 구축하는 한편, 평가자 이력관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연구지원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였다.

• 연구성과와 지식의 사회적 확산

2013년 한국연구재단은 성과확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와 지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시회·교류회·설명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설명회 등 기술수요와 공급을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으며, '금요일에 과학터치' 등의 대국민사업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가 전반에 확산하였다. 특히, 4월 1일에는 국가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홍보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대로 사거리 만남의 광장에 '홍보 전광판'을 세웠다. 재단은 또 찾아가는 인문강좌 '인문학 콘서트 전국 투어'와 '인문강좌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인문학대중화 실현에도 앞장섰다.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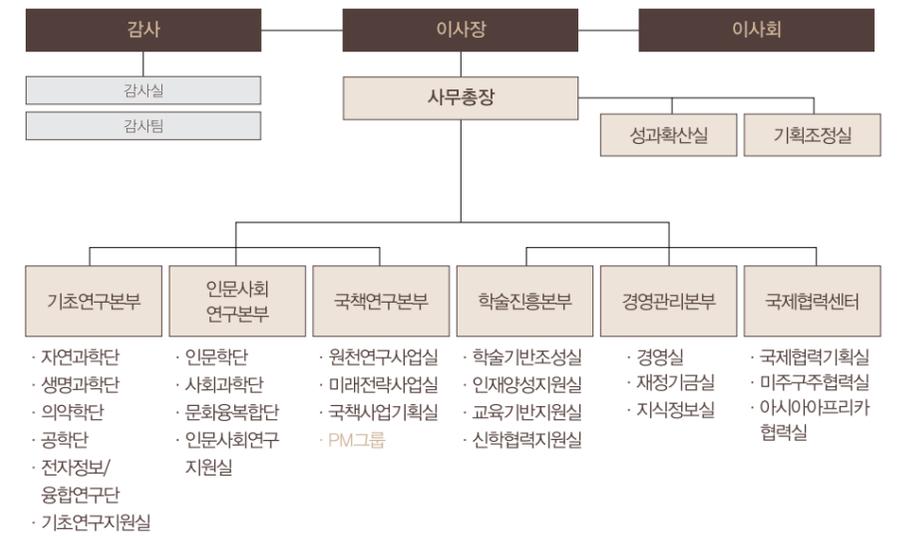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성과확산실, 기획조정실 등 '5본부 1센터 8단 18실'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4년 1월 한국연구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정민근 전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임명하였다. 신임 원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기관 중점과제(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연구지원관리시스템의 고도화, PM제도 선진화, 개방형 협력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지식재산의 확산 및 기술사업화 추진)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2014년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한국형소규모탐색연구사업(한국형 SGER)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이는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소규모탐색연구프로그램(SGER)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실패 위험은 높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의 창의적·실험적 도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연구 아이디어를 에세이 형식으로 수시 접수받은 다음, 각 분야 PM이 이를 평가하고 최적의

한국연구재단 조직도(2014.9.)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4.9.)

구분	임원	사무총장	연구원					계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정원	2			306				308
현원	2	1	1	88	86	112	9	299

연구자를 추천하여 별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또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창의성·도전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아이디어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신진연구 지원유형 비율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을 강화하였다.

• 연구지원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적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 연구비 정산항목 자동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구지원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또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그랜트(Grant) 과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 개방형 협력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전 세계적으로 기술간 분야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이슈로 자리 잡자, 연구재단은 과학기술 융합연구 아이템을 발굴하여 우대하는 기획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개방형 협력을 강화하였다. 해외 우수연구자를 평가자로 활용하는 글로벌 평가를 도입하여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리더연구자(창의적연구), 글로벌연구실(GRL)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였다. 재단은 EU 유럽연구이사회(ERC) 등 해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평가자 풀을 2013년 1,500명에서 2014년 2,000명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사업 내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하였다. 스웨덴, 미국(NSF, NIH), EU(ERC) 등의 해외기관과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글로벌연구실(GRL) 사업의 연구파트너를 다변화하였다.

• 지식재산의 확산 및 기술사업화 추진

한국연구재단은 피인용지수 분석 등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정보시스템(성과마루)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인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및 연구정보 수집·가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연구정보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식재산 확산에 힘을 쏟았다. 또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전 주기(기획-관리-활용)에 걸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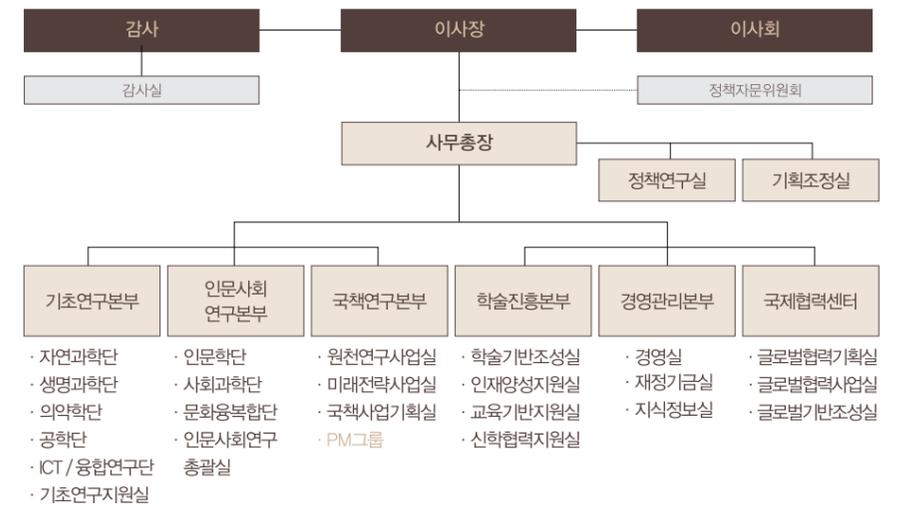
2015년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기획조정실 등 '5본부 1센터 8단 18실 41팀'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연구자 중심의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창의성·도전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성실 실패 용인제도를 통해 연구실패에 대한 연구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실패 위험이 다소 높더라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소규모탐색연구사업(한국형 SGER)과 아이디어 공모를 먼저 한 뒤 연구를 진행하는 '신진연구 유형 II'을 강화함으로써 창조적 연구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한국연구재단 조직도(2015.1.)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5.9.)

구분	연구원							계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정원	2			306				308
현원	2	1	1	90	93	108	8	303

이와 함께, 사회문제, 재난안전, 취약계층 격차해소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민체감형 연구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즉, 사회솔루션 제공형 연구를 확산하였다.

• 연구지원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재단은 분야별(순수기초·응용기초)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모험적·도전적 과제평가를 위한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외평가자와 산업체·연구소 평가자를 확대하여 평가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구지원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또 연구비 사용 사전 도움기능 강화, 연구비 집행정산 교육, 찾아가는 연구비집행관리 컨설팅, 연구비 알리미 추진 등을 통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 연구성과·지식의 사회적 확산

연구재단은 인문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인문학적 효용성과 가치가 국민 사이에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화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강좌지원, 인문도시지원, 인문주간 등의 인문학대중화 사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군 생활 동안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인문학적 소양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군장병 중심의 청춘인문강좌를 신설하였다.

또한, 우수 유망기술을 선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진행 과정을 기록하는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하여 기술사업화 현황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마루에 축적된 우수 연구성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였다.

이와 함께, 제2의 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창업교육센터와 기술창업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여 산학연 기술사업화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 NBS 오픈 스튜디오 개국

연구재단은 2015년 10월 즐거운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최초의 사내 방송실인 'NBS 오픈 스튜디오'를 개국하였다. 이는 재단 구성원들이 직접 아나운서·작가·PD·엔지니어 등을 맡아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내보내는 방송으로, 흥미로운 사내 소식, 부서별·동호회별 동향,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NBS 오픈 스튜디오는 개국 이후,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5월부터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스튜디오를 직접 볼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맞은 지역 청소년에게 맞춤형 체험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015 한국연구재단 청춘인문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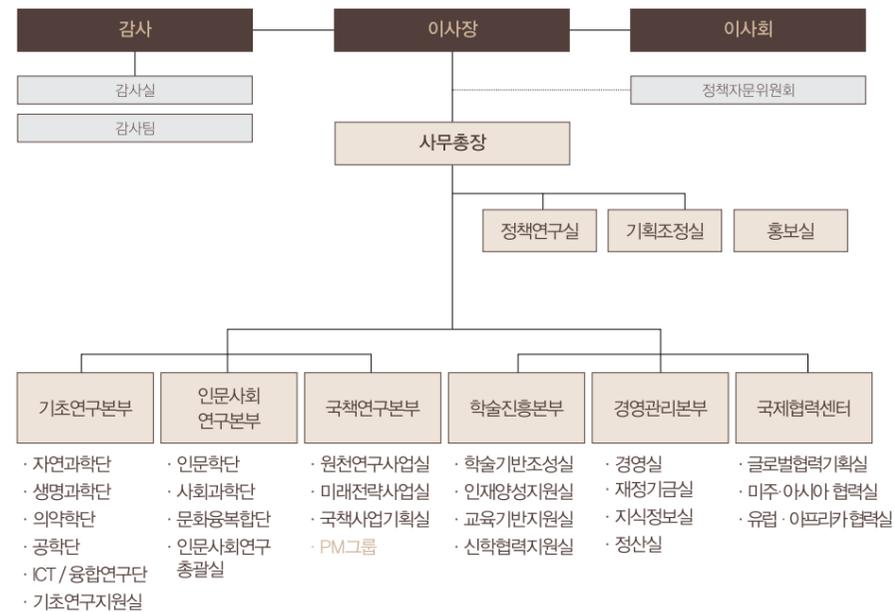


2016

연구재단은 2016년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 학술진흥본부, 경영관리본부, 국제협력센터, 정책연구혁신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실 등 '5본부 2센터 8단 19실 41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조무제 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임명하였다. 신임 원장은 취임과 함께 연구재단이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독일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조직도 (2016.10.)



한국연구재단 인력현황(2016.11.)

구분	연구원							계
	임원	사무총장	별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행정원	
정원	2			318				320
현원	2	1	1	83	93	130	8	318

(DFG), 일본학술진흥재단(JSPS) 등 글로벌 연구지원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조직·평가·성과·국제협력 등 5개 분야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5G전략'을 제시하였다.

• 5G전략

5G전략은 '세계 1등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재단의 글로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우선, '제도의 글로벌화'는 풀뿌리 연구와 한 우물 파기 연구를 독려하고 성실실패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재단이 전 세계 연구자에게 매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며, '조직의 글로벌화'는 PM을 비롯한 재단 구성원을 NSF, DFG의 구성원에 버금가는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평가의 글로벌화'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며, '성과의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국제협력의 글로벌화'는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카운터 파트너들과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으로까지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

재단은 연구자들이 연구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에 '성과목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연구계획서 내에 연구성과를 발표할 학술지 이름과 논문 게재 목표 횟수 등을 적는 성과목표 항목이 존재했으나,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이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금 연 5억 원 이하의 과제는 5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된 과제는 추가 서류작성 없이 간단한 보완만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초연구 분야부터 에세이(자율양식) 연구계획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자유공모과제 중 연구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 정부3.0 정책에 적극 부응

연구재단은 정부3.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2016년 1월 27일 기초연구사업 블로그인 기초공감(http://blog.naver.com/basic_science)을 오픈하였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기초공감에는 기초연구사업 관련 정책 공개, 최신 사업 공고, 국내외 기초연구 성과사례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정부·과학자·국민 간 소통



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2016년 1월 20일 재단 연구관 내에 우리나라 연구지원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연구재단 기록관·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기록관·전시관은 45㎡ 규모의 영구기록물 보존서고를 포함해 총 291㎡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총 41,314건의 기록물이 보관·전시되었다.

• 연구자 맞춤형 개인 기초연구 지원

「정부 R&D 혁신방안」(2015.1.16.)에 따라 연구지원 방향이 기존의 과제중심형에서 연구자 맞춤형으로 전환되자,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부터 '학문분야별 연구자맞춤형 장기지원체계'로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지원체계 하에서는 사업별로 연구기간과 연구비가 일정하게 지원되어 분야별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연구비·연구기간이 결정되는 연구자맞춤형 체계가 도입되면서 분야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연구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기초연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진·중견연구과제의 지원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고, 우수과제의 경우에는 추가로 1~5년 더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중복성 검토를 완화하여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된 점이 증명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기록관 모습
(2016. 1. 20.)

• 고위험·고가치 미개척 연구영역 강화

재단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핵심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국가경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인 新넛크래커 상황에 놓이게 되자, 빅데이터 기반 이슈 도출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 미래유망분야 선도를 위해 도전적 연구영역(X-project)을 발굴하고, 기존의 기술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기술을 기획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2016년 한국연구재단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이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이 기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출연(연) 소속 젊은 연구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코스(I-Corps) 사업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 자산을 사업화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 2016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내에 대학창업교육지원사업과 창업문화활성화지원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켜,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 학술진흥 인프라 강화

재단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우수 연구성과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토플로이터, 엘스비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 교육대상을 연구책임자에서 공동연구원까지 확대한 사이버연구윤리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기르고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차관 PM 간담회
(2017.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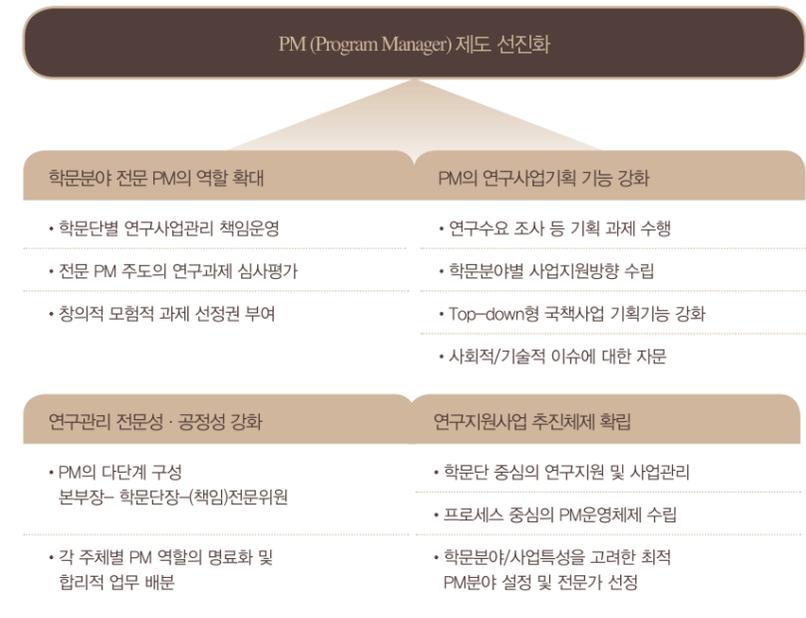
PM제도 정착과 역할 강화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PM제도 강화를 기관운영의 핵심전략으로 정하였다. PM(Program Manager, 연구관리전문가)제도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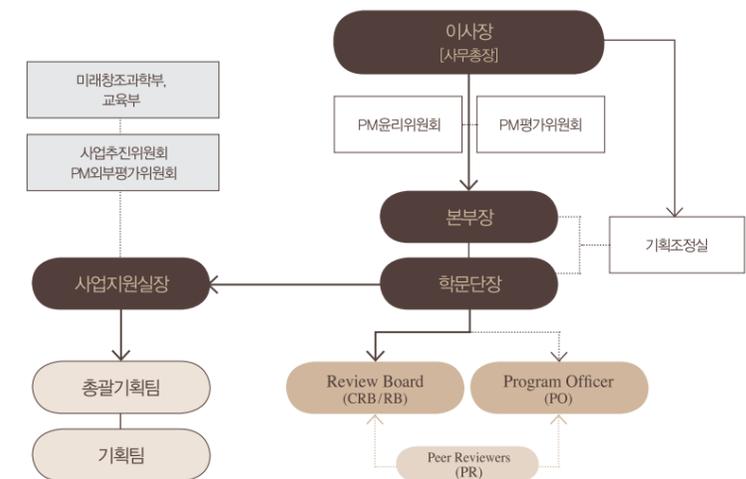
기존에도 PM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한국연구재단의 PM은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단순 집행·관리를 하던 기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PM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구기획→과제선정·평가→진도관리→성과관리 등 연구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아이디어나 신생분야를 직접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단은 PM제도에 대한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단 내에 내부평가위원회를, 외부에(교육과학기술부) 평가위원회를 두어 PM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PM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며, 상근 PM과 비상근 PM으로 나뉜다. 상근 PM은 본부장(본부 소관사업 총괄)과 학문단장(학문분야별 사업기획·관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며, 비상근 PM은 책임전문위원(전문위원그룹 대표, 학문단장 업무지원 등)과 전문위원(심사자 추천, 온라인 평가결과 Review 등)으로 활동한다. 각 학문분야를 대표하는 책임전문위원은 2012년부터 선임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강화된 PM의 역할



한국연구재단 PM의 운영체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근 PM	본부장	3	3	3	3	3	3	3	3
	학문단장	18	16	14	13	13	17	17	17
	소계	21	19	17	16	16	20	20	20
비상근 PM	책임전문위원	-	-	-	39	39	42	42	44
	전문위원	-	237	284	512	525	530	533	540
	소계	-	237	284	551	564	572	575	585
계	21	256	301	567	580	592	595	597	605

한국연구재단은 통합 이후 PM의 운영실태와 내·외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PM제도의 표준모델'을 만들어갔다. 우선, PM이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수요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PM의 기획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PM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관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융합연구과제와 분야 간 균형발전 과제를 수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더불어 지원 유형별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경우,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2010년 5월에는 연구지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PM 청렴서약제'를 도입하고 'PM 윤리헌장'을 제정하였다. 청렴서약서에는 PM의 공익적 사명, 책임성,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한 권한행사의 지양, 취득정보 비밀 준수 등의 서약사항이 담겨있다. 또 이를 구체화한 윤리헌장에는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 고객지향성 및 투명성, 연구자 인격 존중, 품위유지 등 6가지 윤리적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재단은 이 외에 PM의 윤리적 위반사항을 조사·처리하는 'PM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은 적절한 평가자 선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자 풀을 운영하였다. 평가자 풀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www.kri.go.kr) DB에 등재된 연구인력 가운데 최근 5년간 업적이 우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2012년부터는 '평가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평가위원이 어떤 과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 이력을 관리하였다. 재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횟수, 평가 사업, 평가 과제 수 등 과거 평가활동 이력을 일괄 조회하고, 그 결과 우수평가자라고 증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우수평가자 인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는 국책연구사업의 미래유망분야를 도출하고 신규사업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R&D기획전문가(RP: R&D Planner) 제도를 신설하고 9명의 기획전문가를 선임하였다. 2016년에는 이를 크게 확대하여 9개 PM분야(신약차세대바이오, 나노소재, 뇌첨단의 공학, 융합기술, 사회 및 복지기술, 에너지환경, 우주기술, 원자력, 기술사업화)에서 81명의 기획전문가를 선임하였고, 2017년 신약차세대바이오 분야가 신약과 차세대로 분리됨에 따라 총 10개 PM분야에서 87명의 기획전문가를 선임·활용하였다. 재단은 2017년 6월 기획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규정 내로 제도화하였다.

2016년도 하반기 국책연구본부 기획전문가(RP) 워크숍 (2016. 8. 24.)



시기별 예산의 흐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국가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집행에도 큰 변동을 가져왔다. 기관 별로 기초연구와 인문사회 등으로 나뉘어 집행되던 예산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재단은 출범 첫 해인 2009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21.1%인 2조 4,62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게 되었다.

연도별 예산 및 주요사업 운영현황(2009~2017)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예산	24,622	29,206	31,208	29,916	32,604	39,821	42,841	44,926	47,471
연구개발	13,023	16,420	18,645	20,872	22,371	25,044	27,019	28,517	30,519
인력양성	9,352	9,589	9,495	5,897	6,781	8,924	9,526	11,262	11,283
연구진흥 및 기반 구축	975	1,713	1,624	1,755	1,161	3,796	4,273	4,302	4,930
국제협력	828	982	938	931	951	915	1,479	545	457
기관운영비 등 기타	444	502	506	461	1,340	1,142	544	843	827

2010년에는 이보다 약 5천억 원 늘어난 2조 9,206억 원(총 17,777 과제 지원)의 예산이 운영되었다. 예산 비중으로 보면, 연구개발사업이 1조 6,42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9,589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1,713억 원), 국제협력(982억 원), 기관고유사업(325억 원), 기관운영비 등(177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고유사업에는 국제기관 간 MOU지원, 연구정보화, 외국박사학위신고, 연구지원정책선진화, 금요일에 과학터치, 학술지평가 및 학술활동지원, 전문경력인사활용 등이 포함된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88.4%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이를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1조 9,926억 원(73%),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4,198억 원(15.4%)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원자력 분야 지원이 3,240억 원(11.9%)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생명과학 분야 1,873억 원(6.9%), 보건의료 분야 1,599억 원(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4,751억 원(17.4%),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3,112억 원(11.4%), NT(나노기술) 분야 1,804억 원(6.6%)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기초연구진흥사업 예산이 1,088억 원 늘어나면서 재단의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대를 넘어섰다. 2011년 총 예산은 3조 1,208억 원, 지원과제는 20,538개였다. 비중으로 보면, 연구개발사업이 1조 8,645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9,495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1,624억 원), 국제협력(938억 원), 기관고유사업(356억 원), 기관운영비 등(15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90.7%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2조 1,568억 원(72.3%),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5,474억 원(18.4%)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원자력 분야 지원이 2,565억 원(8.6%)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생명과학 분야 2,424억 원(8.1%), 보건의료 분야 2,235억 원(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5,543억 원(18.6%),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3,753억 원(12.6%), NT(나노기술) 분야 2,157억 원(7.2%)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227억 원 늘어난 반면,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총 운영 예산은 2조 9,916억 원이었다(총 20,571개 과제 지원). 비중으로 보면 기초연구사업이 2조 872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5,897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1,755억 원), 국제협력(931억 원), 기관고유사업(306억 원), 기관운영비 등(155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90.3%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1조 9,311억 원(67.9%),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6,371억 원(22.4%)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원자력 분야 지원이 3,073억 원(10.8%)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 분야 2,542억 원(8.9%), 생명과학 분야 2,523억 원(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6,075억 원(21.4%),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2,596억 원(9.1%), NT(나노기술) 분야 2,194억 원(7.7%)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에 축소되었던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884억 원 늘어나고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 예산은 2012년 1,755억 원에서 1,161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2013년 연구재단이 운영한 총 예산은 3조 2,604억 원(총 20,983개 과제 지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기초연구사업이 2조 2,37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6,781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1,161억 원), 국제협력(951억 원), 기타(839억 원), 기관고유사업(341억 원), 기관운영비(16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신기술투자조합출자금, 기타수탁사업, 국고반납예정액 등이 포함된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91%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1조 9,632억 원(66.3%),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7,335억 원(24.8%)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원자력

분야 지원이 3,045억 원(10.3%)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기계 분야 3,023억 원(10.2%), 보건의로 분야 3,009억 원(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6,881억 원(23.2%),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3,544억 원(12%), NT(나노기술) 분야 2,328억 원(7.9%)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2,673억 원 늘어나고, 인력양성사업 예산 역시 3,027억 원 증가하여 재단의 총 예산이 3조 9,82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총 22,250개 과제 지원). 비중으로 보면 기초연구사업이 2조 5,044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8,924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3,796억 원), 국제협력(915억 원), 기타(644억 원), 기관고유사업(342억 원), 기관운영비 등(156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92.2%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2조 5,323억 원(67.6%),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9,205억 원(24.6%)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기계 분야 지원이 4,515억 원(12.1%)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원자력 분야 3,307억 원(8.8%), 보건의로 분야 3,123억 원(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7,077억 원(18.9%),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5,540억 원(14.8%), NT(나노기술) 분야 2,480억 원(6.6%)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재단의 예산이 4조 원대로 진입하였다. 2015년 연구재단이 운영한 총 예산은 4조 2,841억 원, 지원과제는 22,732개에 달하였다. 비중으로 보면, 기초연구사업이 2조 7,019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9,526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4,273억 원), 국제협력(479억 원), 기타(473억 원), 기관고유사업(544억 원), 기관운영비 등(194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91.8%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2조 7,468억 원(67.5%),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9,886억 원(24.3%)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기계 분야 지원이 5,414억 원(13.3%)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인 보건의로 분야 4,130억 원(10.1%), 원자력 분야 4,049억 원(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9,026억 원(22.2%), ST(우주항공기술) 분야 4,454억 원(10.9%),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4,357억 원(10.7%)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선 반면, 국제협력 예산은 절반가량 줄어들어 총 4조 4,926억 원(총 22,860개 과제 지원)의 예산이 운영되었다. 비중으로 보면 기초연구사업이 2조 8,517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1조 1,262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4,302억 원), 국제협력(545억 원), 기타(300억 원), 기관고유사업(371

억 원), 기관운영비 등(172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학연산별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연구비의 92.5%를 학계와 연구계에 지원하였다. 세분하면 대학교를 비롯한 학계에 2조 9,783억 원(68.8%),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에 1조 244억 원(23.7%)을 지원하였다. 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보면 기계 분야 지원이 5,984억 원(13.8%)으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보건의로 분야 3,984억 원(9.2%), 생명과학 분야 2,923억 원(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을 다시 6T 분류별로 분석하면 BT(생명공학기술) 분야에 8,712억 원(20.1%), ST(우주항공기술) 분야 5,285억 원(12.2%), ET(환경에너지기술) 분야에 4,229억 원(9.8%)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2017년 예산 및 주요사업 운영 현황

단위: 억 원



2017년에는 총 4조 7,471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 비중으로 보면, 기초연구사업이 3조 519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인력양성사업(1조 1,283억 원),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4,930억 원), 국제협력(457억 원), 기타(282억 원), 기관고유사업(383억 원), 기관운영비 등(162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정책·기획 분야 강화

2009년 통합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기획을 선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존에는 3개의 연구지원기관이 주로 연구지원과 관리에 치중하여 연구개발 정책·기획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합 이후 한국연구재단이 국가 연구개발 정책·기획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됨으로써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사회·문화 트렌드를 연구하여 미래 전략분야 연구개발정책·기획을 선진화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재단은 2010년부터 미래사회 변동의 추세와 연구환경 변화를 분석·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각 연구지원사업이 미래사회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 연구지원 정책·동향을 분석한 'NRF Issue Paper'와 주요 핵심기술 분야별 연구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연구영역을 조사·발굴하는 'NRF Front'를 발간하는 등 정책조사보고서 제작·유통을 통해 연구지원 정책·기획 분석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미래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등의 조사분석보고서도 주기적으로 발간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정책세미나
(2017. 3. 27.)

2013년부터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미래사회의 변화를 조망해보는 'NRF 정책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재단 구성원들이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 2013년 4월 25일에는 'NRF 정책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재단은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와 국내외 정책도서 2,000여 권을 비치한 정책도서관을 연구관 북카페에 개관함으로써 카페를 오가는 직원 누구나 정책연구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이후, 개방성 확대와 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인 창의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다. 구체적으로, 기획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사업기획의 전 과정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이슈도출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개념의 사회·기술적 솔루션을 구현하고자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정책·기획을 전담하는 정책연구혁신센터를 신설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연구지원사업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연구 및 전략수립,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유통을 통한 정책서비스 기능 확대, 국내외 연구지원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 생성, 미래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연구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 업무 총괄, 연구성과정보시스템(성과마루) 총괄,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운영, 우수과학자포상사업 등이다.

선진 연구관리체계 구축

한국연구재단은 출범과 함께 고객과의 접점인 연구관리시스템 개선에 주력하였다. 우선,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지원 관련 업무 혼란을 줄이는 방안부터 마련하였다.

재단은 2010년 5월부터 연구자와 연구관리자가 국가 연구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매뉴얼과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자매뉴얼'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통합 전에는 고객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개 기관의 매뉴얼과 규정 등을 각각 찾아 확인해야 해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으나, 새롭게 구축한 전자매뉴얼은 '2010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연도별 지원과제목록', '알기 쉬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관리 매뉴얼' 등 연구재단이 발간한 각종 보고서를 e-book 형태로 손쉽게 조회·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호응이 컸다.

이어, 2011년부터는 '연구관리 온라인학습(e-Learnin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관리자가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집중적인 연구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각종 세미나, 발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관리와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해왔으나, 시간·공간·비용 등의 제약 때문에 교육기회에 한계가 있어왔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콘텐츠를 개발하여 2011년 7월부터 서비스하였다.

11월에는 연구관리 온라인학습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구관리 학습자 선발 콘테스트'도 개최하였다. 또 11월부터 'e-통계창'을 개설하여 연구사업 관련 각종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에서 연구관리 규정을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내 손안의 연구관리 규정집' 앱도 제작·배포하였다.

2012년에는 통합 전 3개 기관에서 사용하던 연구지원시스템(연구마루, 오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PMS 등)을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으로 일원화하였다. 이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는 정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업공고, 과제신청, 승인여부 확인, 평가내용, 단계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 학술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등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연구분야 등에 대한 코드검색과 기관·개인이 발급한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였다.

재단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e-상시 정산도우미'도 구축·운영하였다.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항목을 정산도우미 시스템 내에 대상항목으로 정해놓으면, 연구비카드 사용 중 대상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단문메시지나 메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5년부터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체계평가'를 도입하였다.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관리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체계평가는 개별 연구기관이 자체평가를 한 뒤, 재단에서 본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서류평가 A등급 기관 중 S등급 신청기관과 현장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의신청과 재점검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등급(S~D)별로 간접비가 가·감(+2%~-2%)되고,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면제와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교육과 맞춤형 연구비관리 컨설팅이 추진된다. 재단은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이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연구비관리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에 원격 영상평가가 시범 도입되었다. 재단은 2015년 6월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사업(EDISON)에 대한 평가를 원격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 연구원들이 각각의 연구실에서 성과를 발표하면, 한 곳에 모여 있던 평가위원들이 발표영상을 보며 평가를 실시하는 식이었다. 이는 연구자가 평가를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막고 시간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재단은 앞으로 원격 영상 평가를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국내 13개 연구관리전문기관 가운데 최초로 모든 평가 진행과정과 결과발표

일정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실시간 과제진행 알리미서비스(e-Navi)'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연구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본인이 신청한 과제의 평가가 '접수 → 요건검토 → 평가준비 → 평가 → 결과발표'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Navi 이전에는 사업공고와 선정·탈락 여부만 공개되었을 뿐 평가 진행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비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지바로(Ezbaro)'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지바로는 실시간 연구비 집행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으로, 연구비 집행·관리의 전 영역을 통합 온라인망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책임자(연구수행기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정부부처 및 사정기관(미래부, 교육부, 감사원 등) 모두가 원하는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이후 기관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교육기부다. 기초연구와 인문사회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학지식 나눔의 장이다. 2007년부터 최신 과학기술 성과, 미래를 바꿀 기술 등을 주제로 매주 금요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2,273번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약 236,000명에 달한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 및 감사패 수여식 (2017. 2. 22.)



재단은 시·공간적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강연자료와 VOD 강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온라인 서비스하고, 방학에는 과학터치 강연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종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금요일에 과학터치 과학캠프'도 개최하고 있다.

또 2017년 2월에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10주년 기념 히스토리북'을 발간하였다. 히스토리북에는 그간의 강연목록은 물론, 1회 강연자였던 최순자 인하대 총장의 기고문, 과학터치 강연에 감명을 받아 이공계 우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의 인터뷰 등이 실렸다.

우수연구자와 함께하는 토요일과학강연회는 중·고등학생에게 이공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행사로, 격주 토요일에 서울시 과학전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연은 주로 금요일에 과학터치의 인기 강연자들이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152번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참석자는 약 357백 명이다.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동과학교실은 우수과학자와 재단 직원들이 평소 과학강연·실습을 접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재미있는 과학강연·실습을 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43개의 학교(대전·세종 6곳, 경기 3곳, 강원 3곳, 충청 14곳, 전라 8곳, 경상 9곳 등)를 찾아갔으며, 약 2,700명의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여름캠프(순천)
(2015. 8. 5.)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기부(DE: Donation for Education)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교육기부인증제는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학생 체험·관찰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재단은 금요일에 과학터치, 우수연구자와 함께하는 토요일과학강연회, 국민과 함께 나누는 연구성과 등의 과학기술 강연을 꾸준히 개최하고,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와 인문주간 등 인문학대중화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이동과학교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 나눔을 통한 국가 창의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인정받아 본 수상을 하게 되었다.



교육기부
(DE: Donation for Education)
인증마크

이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공공기관 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13년에는 이종안 홍보팀장이 개인부문에서도 수상을 하여 교육기부대상 2개 부문 동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기부 이외에도 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펴나갔다. 특히, 2011년 6월에는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하여 사회공헌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1사 1문화재(대전시 대덕구 동춘당, 계족산성 등) 지킴이 활동, 1사 1촌 일손돕기 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활동, 아동양육시설(성심원) 후원 활동, 충남혈액원 단체헌혈 등을 추진하였다.

또 2012년부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테이블포투(Table For Two)의 날'로 정해 아프리카 결식아동을 돕는 기부활동을 펴고 있다. 테이블포투는 한 사람의 밥값으로 아프리카 어린이와 돌이 먹는 식탁을 만들어 급식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부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는 2011년 도입되었다.

청렴한 연구재단을 위한 노력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직후부터 기관 청렴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규모 예산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집행하는 동시에, 청렴한 기관이라는 대외적 위신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청렴강화를 위한 노력은 2009년 12월 '비전 및 윤리현장 선포식'에서 발표한 윤리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윤리현장은 ▲선진화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토대 위에 언제나 연구자 친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힘쓰고 ▲효율적이며 창조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반부패 환경을 정착시키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만' 4인을 위촉하였다. 옴부즈만들은 2년 동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재단의 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 개선·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한국연구재단 청렴 제고 TFT'를 출범하고 '한국연구재단 청렴도 제고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청렴 제고 TFT는 외부 청렴도 제고팀과 내부 청렴도 제고팀으로 나뉘어 활동하였으며, 외부팀은 연구관리와 연구자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척결 활동을, 내부팀은 사내 청렴문화 정립활동을 각각 추진하였다. 선포식에서는 청렴도 제고 선편식도 진행되었다. 선편식의 주요 내용은 알선·청탁·금품·향응 거절, 부당지시·간섭 거부, 투명경영 실천, 연구자 우선 업무태도 견지 등이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이사장과의 간담회, 청렴도 제고 실천과제 리플릿 배포, 재단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한국연구재단의 약속' 홍보 등을 통해 대내외적 청렴도 제고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100% 이행하여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또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본부별 청렴 신호등과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시행, 청렴 퀴즈 1일 1문, 전 간부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한 재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범 40주년, 세계로 도약하는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6월 21일 대전청사에서 전현직 임직원 5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7년은 재단의 모태 기관(한국과학재단(1977년 출범), 한국학술진흥재단(1981년 출범),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2004년 출범))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한국과학재단의 설립연도로부터 40년이 되는 해다. 기념행사에 앞서, 재단은 2016년 11월 전 국민 대상 공모전을 통해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을 40주년 기념 캐치플레이즈로 선정하였다.

창립기념식에는 현(제5대) 조무제 이사장을 비롯하여 권원기(한국과학재단 8대 사무총장), 김정덕(한국과학재단 12~13대 이사장), 권오갑(한국과학재단 14대 이사장), 최석식(한국과학재단 15대 이사장), 박석무(한국학술진흥재단 9대 이사장), 엄천일(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2대 이사장), 오세정(한국연구재단 2대 이사장), 이승중(한국연구재단 3대 이사장), 정민근(한국연구재단 4대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 미국,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연구관리 전문기관장(미국국립과학재단(NSF) 프랜스 코르도바(France A. Cordova) 이사장,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양웨이(Yang Wei) 이사장, 일본학술진흥회(JSPS) 안자이 유이치로(Anzai Yuichiro) 이사장, 독일연구협회(DFG) 페터 슈트로슈나이더(Peter Strohschneider) 회장)들도 영상 서신과 축전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하였다.

기념식은 조무제 이사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4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40년사 헌정식, 비전선편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를 향한 글로벌 NRF'라는 새로운 기관 비전을 선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도형 R&D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감히 재단 사업들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식
(2017. 6. 21.)



이날 헌정된 '한국연구재단 40년사'는 재단의 40년 역사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대학·연구소 등 학술연구기관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역사, 국가정책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통사 형태로 기술한 것으로, 특히 재단이 수행한 사업들이 국가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 또 재단의 역사를 사진과 통계수치로 한 눈에 보는 코너를 마련하여 대중성을 높인 것도 40년사의 특징이다.

기념행사의 2부는 '한국연구재단-도전 40년, 미래 40년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학술포럼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에서 기초강연을 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미래사회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및 인문 분야의 초융합으로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 사회(Holocracy)가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그리고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을 융복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도 마련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식
(2017. 6. 21.)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포럼
(2017. 6. 21.)

2. 연구정보 확산을 위한 고품질 루트를 만들어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의 SCI

한국연구재단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구축·운영을 통해 국내 학술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KCI는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과학적 인용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 R&D 현황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재단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다.

재단은 1998년부터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학술지지원사업 대상의 공정한 선정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학술지 등재·등재후보지제도(이하 등재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연구논문 인용지수 산정시스템이 부재하여 연구성과 측정·평가에 SCI 등 해외 인용지수가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연구자들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내의 우수논문이 해외로 다량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KCI는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추진되었다.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선도적 운영

한국연구재단은 2007년 11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스템을 시범공개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KCI는 국내 학술지 및 게재논문에 대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원 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인용빈도에 따른 학술지의 영향력을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었다. 2017년 6월 현재 KCI는 2,284종, 134만여 건의 논문에 대한 피인용 횟수 등 질적 지표를 분석하여 공공·민간기관에 공개하고 있다.

KCI는 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내고 있다. 2015년 김상준전략연구소의 'KCI 사업의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도서관 등이 KCI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절감하는 예산은 연간 18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약 4억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약 4억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약 10억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약 2억 5천만 원 등) 또 2011년부터 학술지 평가에 KCI 인용지수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지원사업에 있어서 KCI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정부가 '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등재지제도는 폐지 위기를 겪게 된다. 등재지제도가 학술지 평가를 지나치게 형식 중심으로 이끌어 학술지의 질을 실제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모든 분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학문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등재지제도를 2014년 기준으로 폐지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관계자 간담회(2013.2.), 설문조사(2013.5.),

공청회(2013.7.10.)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등재지제도가 연구자의 학술활동 평가와 교수평가 등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대신 학술지의 질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학문분야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형태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의 자율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의 신규선정은 중단하고 신생·소외(융복합 포함) 학문분야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술지 지원사업도 개선하였다. 또 지원대상 중 역량이 뛰어난 학술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SCI나 SCOPUS 등재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KCI 등재학술지의 SCI·SCOPUS 등재율 제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재단은 KCI 등재학술지가 SCI급 학술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글로벌 연구정보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갔다. 우선, 2010년 12월 SCI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사(現 Clarivate Analytic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톰슨 로이터의 웹사이트(Web of Science)에서 국내 등재학술지 논문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글로 작성된 학술지가 SCI(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될 가능성도 함께 커졌다. 기존에는 국내 학술지가 SCI DB에 등재되려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톰슨 로이터사와 접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고 등재과정도 어려웠다.

또한, 2012년부터는 국제적인 인용색인인 SCOPUS의 등재학술지를 선정·평가하는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ECSAC: the Expert Content Selection and Advisory Committee)를 국내에서 운영하였다. SCOPUS는 SCI와 함께 세계 2대 인용색인으로 불리는 인용색인 DB로, 엘스비어(Elsevier)사가 운영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SCOPUS 저널선정위원회를 한국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국내 학술지의 SCOPUS 등재 절차가 쉬워지고, 신청에서 선정까지의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그 결과, 국내학술지의 SCOPUS 등재율과 인용률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한글로 작성된 국내 학술지가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할 가능성도 크게 제고되었다.

•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 KCI 정보공개

한국연구재단은 DB구축 논문 수가 약 100만 건이 되는 시점이던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KCI 정보공개를 강화하였다. KCI 데이터(논문정보, 인용정보, 원문정보 등)를 민간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방하고, 국내 학술논문 원문판매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민간기업에 KCI 무료 원문을 연계하였다. 또 KCI의 2차 가공데이터(인용분석 등)를 국내 정보분석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톰슨 로이터나 엘스비어 같은 세계 최고의 학술저널을 벤치마킹하여 고부가가치 인용분석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KCI 논문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가적 비용은 낮추고, 학술적 위상은 높이고!'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KCI 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였다.

2014년부터는 정부3.0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즉, 학술논문 무상공개 패러다임에 발맞춰 KCI에 수록된 연구데이터를 톰슨 로이터의 DB인 웹오브사이언스(WoS)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비영리권 국가의 학술지 데이터베이스가 WoS에서 검색되는 것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였다. 또 2014년 2월부터 세계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구글의 학술검색 시스템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에서도 KCI가 곧바로 검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KCI 등재논문이 WoS와 구글 스칼라 등에서 손쉽게 검색되는 등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한국 학술논문에 대한 인지도와 명성도 높아졌다. 실제로 해외 유명DB와의 연계 이후 국내 논문의 해외이용자수는 2~3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하였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KCI는 부단한 노력과 여러 차례의 혁신을 통해 2016년 2월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최고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등급을 획득하였다.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DQC-V: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Value)이란,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자체와 데이터 관리체계의 품질 그리고 보안체계 등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DQC-V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은 KCI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 KCI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술지원 사업 추진

한국연구재단은 KCI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술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KCI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대학부설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학술대회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술단체의 주요활동인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학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학술단체 소속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는 개별학술지가 자생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특히 신생·소외분야 지원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이다.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인문사회 분야 학술정보의 보고

재단은 연구지원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최종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구축·서비스하는 정보(자료)센터를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문자료센터는 이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의 정보(자료)센터다.

기초학문자료센터(KRM: Korean Research Memory)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산출물과 원자료(Raw Data)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공유하는 연구성과물 이카이브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제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구자와 국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자료의 소실을 막고 후속연구를 활성화하고자 2007년 구축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통합 이후 KRM의 운영방식을 DB구축 중심에서 구축된 자료의 활용 중심으로 바뀌었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전 세계 6,000여 개 학술연구기관이 이용하는 세계적 학술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엠스코(EBSCO)사와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세계 2,300여 개의 학술연구기관이 이용하는 엑스 리브리스(Ex-Libris)사와 연동함으로써 KRM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였다.

한편, 재단이 운영하는 이공분야 정보(자료)센터에는 199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문연구정보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연구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가치 있는 연구정보를 생성하고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연구자정보(KRI), 전 학문분야 인력·업적정보 서비스

한국연구자정보(KRI: Korean Researcher Information)시스템은 대학·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업적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1월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하였다.



KRI는 한국연구재단의 모체인 3개 기관에서 구축·관리하던 연구자 인력·업적정보를 통합하고자 추진되었다. 통합 이전, 한국과학재단은 2000년부터 117,350명,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6년부터 215,280명,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2006년부터 7,531명의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관리해왔다. 그러던 것을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통합·일원화한 것이 KRI다. KRI 서비스 시작되면서 연구자들은 동일한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등록·수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등은 연구자의 최신 인력·업적정보를 KRI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단은 KRI와 대학 간, 대학과 대학 간 실시간 정보연계는 물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와 SCI·SCOPUS 등의 인용색인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저역서 정보검증시스템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KRI는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DQC-V) 골드클래스를 인정받았으며, 2015년에는 데이터보안 부문에서도 1레벨(접근제어)을 획득하였다. DQC-V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구축·활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을 검증하고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도다.

연구지원통계정보서비스(KRS), 국가 연구지원 통계가 한곳에

연구지원통계정보(KRS: Korea R&D Statistics)시스템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지원 실적통계와 지원과제 목록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1월 3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 지원부처·기관·지역별 과제 수와 사업비, 지원과제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검색 결과를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재가공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RS 서비스 이전까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지원 통계정보를 책자로만 제작하여 대학 등

약 200개 기관에 배포해왔다. 책자는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통계정보를 추가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KRS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연구지원 통계정보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적극적인 성과 확산 · 활용으로 기술가치 드높이다

성과마루,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한 눈에 보다

한국연구재단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기초 · 원천연구 성과자료를 서비스하는 성과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 · 원천연구 성과소개서, 연구보고서, 온라인 성과전시, 연구지원 현황, 연구성과 소개 동영상, 학술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과마루라는 이름은 과학기술의 근간인 기초 · 원천 연구성과를 갈아 놓은 장소를 의미한다.

재단은 성과마루 서비스를 통해 기초 · 원천 분야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음 단계 추가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문적 용어로 작성된 연구보고서 형태의 성과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이용하여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 활용가능 분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요약(성과소개서) ·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나 정책담당자 외에 일반국민도 기초 · 원천 연구성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성과지도(map)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를 모르더라도 성과지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과맵 가운데 성과소개서맵은 특정 연구성과 내용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다른 성과를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고, 주제분류맵은 연구성과의 특성을 과학기술 표준분류, 산업기술 표준분류, 활용분야별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맵이다. 또 전문가맵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연구자)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맵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는 연구성과별 잠재적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성과정보' 서비스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기초 · 원천 연구성과를 심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획마루,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공간으로 기획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마루의 여러 코너 가운데 '개방형 상시 기술수요조사'는 국책 연구사업의 신규 투자분야를 발굴하고 미래지향적 R&D를 기획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며, '특정주제 아이디어 공모'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책연구사업

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코너다. 또 'RFP 연구자 의견수렴'은 국책연구사업 후보과제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사전에 공시한 뒤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이고, '국제협력 수요조사 시스템'은 각 연구분야 연구자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코너다.

지식재산권 활용 확산을 위한 노력

한국연구재단은 통합 직후부터 재단이 지원하는 많은 연구과제가 지식재산권(IP)을 더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술사업화 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09년 특허청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R&D IP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 · 운영하였다. 전국의 대학 · 출연(연) 지식재산 관리책임자로 구성된 IP협의회는 11월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연구재단 내에 사무국을 마련하였다. 협의회는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권리화를 지원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기업 · 투자자본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특허청은 구체적으로 ▲산업적 가치가 큰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기획 ▲연구성과 발굴 · 매핑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의 확산 ▲권리범위가 강한 특허 설계 ▲유사기술 패키징 · 권리화 컨설팅 ▲창의자본 연계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총회를 열어 지식재산사업화 성과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기여자를 포상하고, 지식재산투자설명회와 기업기술니즈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보유기술공동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국내 대학 · 출연(연)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특허청과 재단이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위기술을 분야별로 패키징한다는 점이다. 기술개발 주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 · 출연(연)이 보유한 방대한 기술을 단위기술(개별 요소기술)로 산업계에 이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자, 다수의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특정 테마별로 패키징하여 산업계에 통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기업과 개별 연구기관 간 협상 보다 포트폴리오별 협상이 더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정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형기술 설계를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5. 연구재단 40년 성과를 되짚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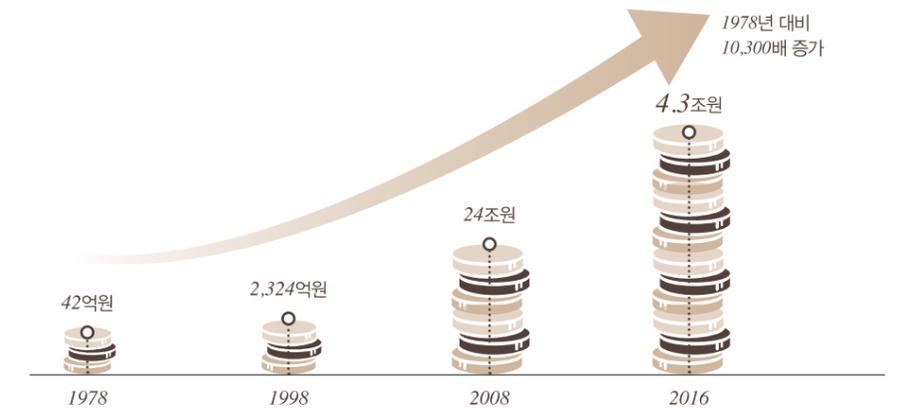
1977~2017



1절 한눈에 보는 40년 성과

1. 지원규모와 연구관리 시스템의 진화

NRF R&D 펀딩 규모



연구관리 시스템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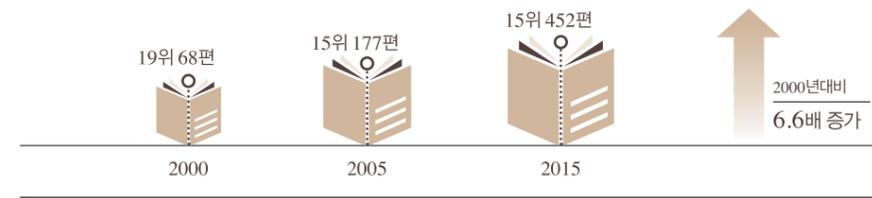


2. 재단의 지원에 따른 국가 학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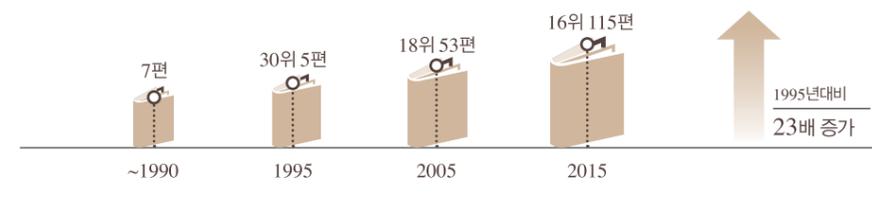
국제학술(SCI DB 기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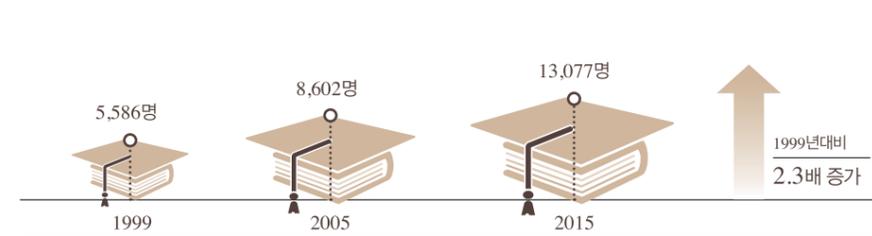
피인용 상위 1% 논문



3대 과학저널(Nature / Science / PNAS) 논문



박사학위 배출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이 국가 주요 학술실적에 기여한 정도(2015년 기준)

SCI 논문	피인용 상위1% 논문	3대 과학저널 논문	박사학위 배출
31.4%	51.5%	61.7%	29.4%

*학술진흥사업(과거 등) 산출 성과는 통계에서 제외

2절 주요 지원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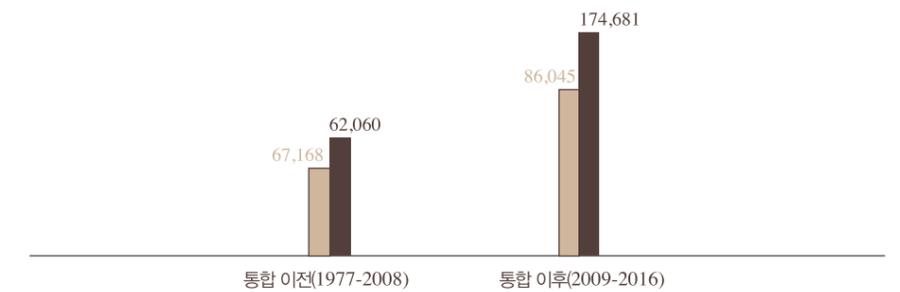
1. 주요 R&D사업 성과 총괄

한국연구재단은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조 9,955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 통합 이전까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3개 기관을 통해 지원된 누적 금액은 총 12조 9,229억 원으로 연구개발 부문(이하, 주요 연구개발 사업)이 6조 2,060억 원(48%), 학술진흥 부문이 6조 7,168억 원(52%)이었다. 또 통합된 이후 2016년까지 지원된 누적 금액은 총 26조 726억 원으로 연구개발 부문이 17조 4,681억 원(67%), 학술진흥 부문이 8조 6,045억 원(33%)을 기록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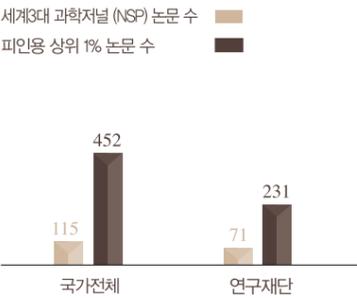
1977-2016년

연구개발 부문
학술진흥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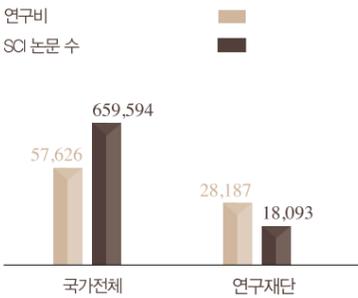


연구재단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위탁한 것으로, 4개 연구본부(기초, 국책, 인문, 국제)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약 66조 원이며, 이중 약 2.8조 원은 한국연구재단의 4개 연구본부가 관장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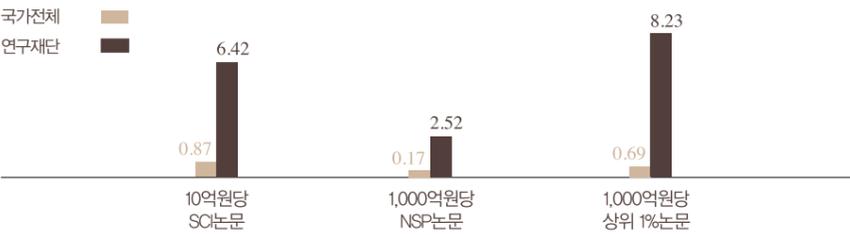
국가 전체 대비 NSP, 피인용 1%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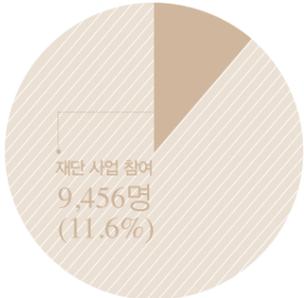
국가 전체 대비 연구비, SCI 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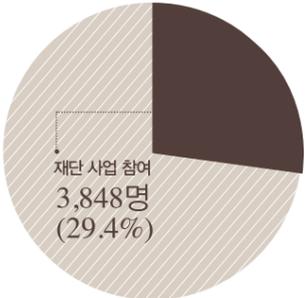
국가전체 대비 연구논문 생산성



국가전체 대비 석사학위 배출



국가전체 대비 박사학위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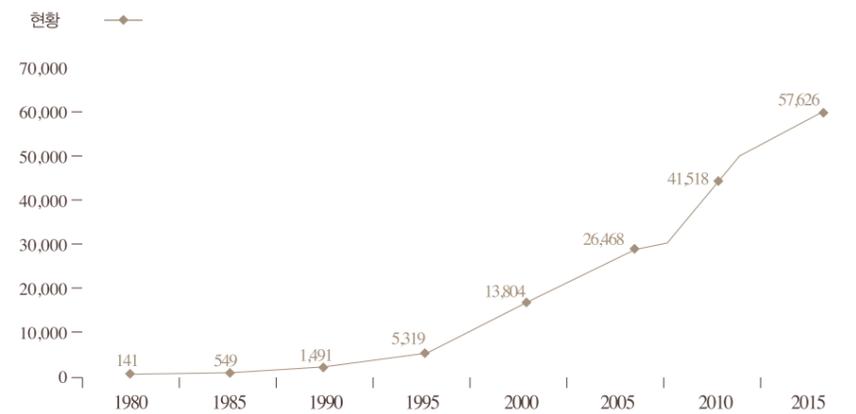
재단이 수행한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타 지원사업에 비해 국제학술논문(SCI 논문) 도출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한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SCI 논문 성과는 기여율을 고려했을 때 18,093편으로, 이는 국가 전체 SCI 논문(57,626편)의 31.4%에 달한다. 또 재단의 주요 연구개발사업 결과논문들은 세계 3대 과학저널(NSP-Nature, Science, PNAS) 게재비율과 피인용 상위 1% 비율도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NSP 게재논문 115편 중 71편(61.7%)이, 그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452편 중 231편(51.1%)이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논문 생산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 수는 국가전체 대비 7.4배, 연구비 1,000억 원당 NSP 논문 수는 14.5배, 연구비 1,000억 원당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는 12배에 달한다. 이처럼 재단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국제학술논문 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주요 연구개발사업은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석사학위자 81,664명 중 9,456명(11.6%), 박사학위자 13,077명 중 3,848명(29.4%)이 연구재단의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연구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 성과

1977년 한국과학재단 설립 이후 지난 40년 동안 재단이 수행한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기반 마련과 우수연구자 육성의 큰 축을 담당하였다.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과 교육부 이공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틀어 이야기한다.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는 논문, 특허, 학위배출 등이며, 대표적인 성과지표는 SCI 논문 발표다. 1980년 우리나라의 SCI 논문은 141편에 불과하였으나, 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이 시작된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15년에는 57,626편으로 409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SCI논문 현황(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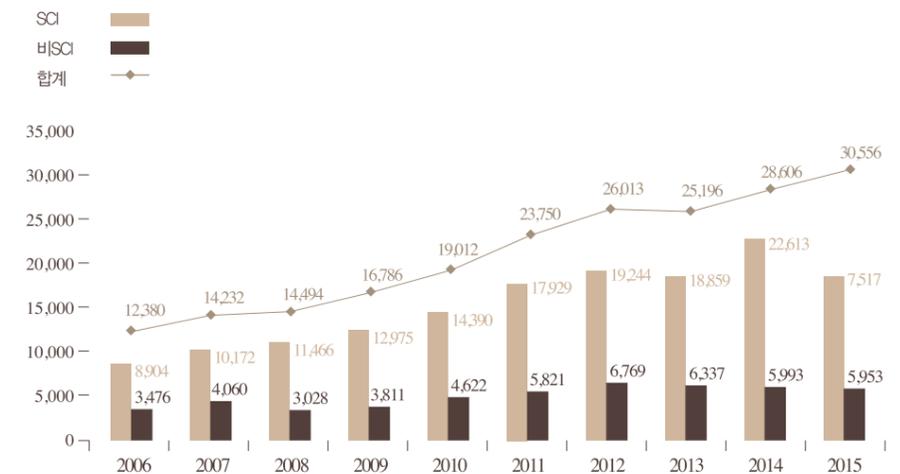
기초연구 지원사업 특허성과 현황

단위:건



기초연구 지원사업 논문성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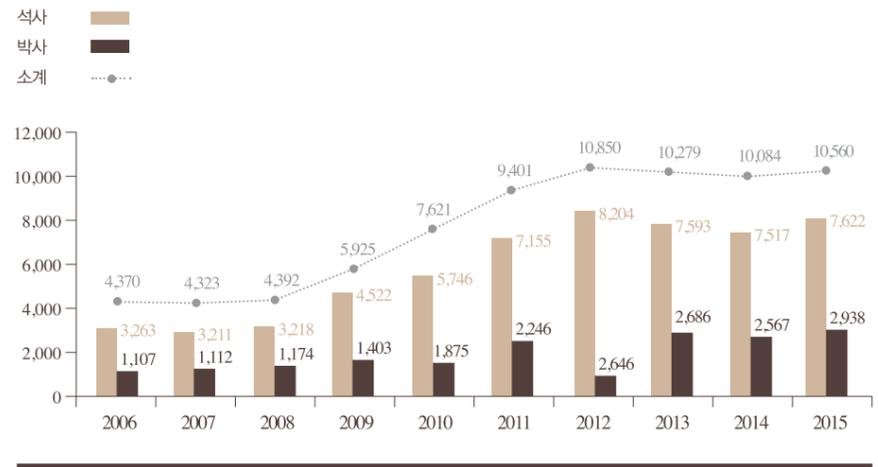
단위:건



특히, 2006년 8,904건에서 2015년 24,603편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산출된 특허등록 성과는 2006년 1,122건에서 2015년 2,303건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재단의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석박사학위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석사의 9.3%, 박사의 2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학위자는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06년 4,370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10,5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분해서 보면, 석사학위자는 1.3배, 박사학위자는 1.7배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기초연구사업 예산확대가 고급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구 지원사업 학위배출 현황 단위:명



아울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기초연구사업에 지원한 과제 17만 건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환경·바이오 등의 연구수요 증가가 타 분야에 비해 높았다. 또 녹색성장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친환경, 이산화탄소 등의 키워드도 반짝 상승하였다. 반면, 최근 빅데이터, 융합 등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나 선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로는 아직 진입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키워드는 경제·사회·문화적 트렌드를, 하락하는 키워드는 연구분야별 기술성숙도 등 연구개발환경을, 반짝 상승하는 키워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빈도 키워드는 과제신청 많은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영되었다.

기초연구 지원사업 키워드 트렌드(2006-2016)

구분	상승 키워드	하락 키워드	반짝 상승 키워드	다빈도 키워드
전체과제	에너지, 환경, 치료, 면역, 빅데이터, 스마트, 융합 등	고분자, 나노, 무선 등	친환경('09~'13) 이산화탄소('12~'13)	세포, 유전자, 단백질 등
선정과제	에너지, 치료, 스마트 등	고분자, 나노, 무선 등	친환경('10, '15~'16) 이산화탄소('10~'13, '16)	세포, 유전자, 단백질 등
탈락과제	에너지, 환경, 치료, 진단, 면역,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 등	나노, 무선 등	저감('08~'13)	세포, 유전자, 단백질 등

3.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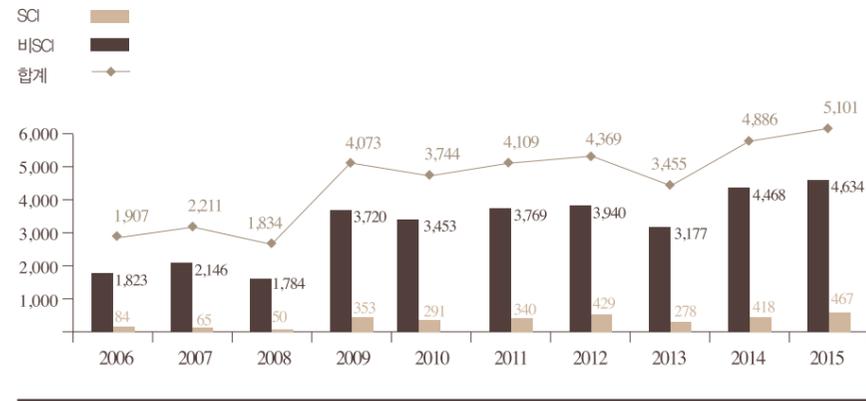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지원관리 전문기관이다. 이에 이공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한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인문사회연구사업은 주로 교육부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표적 성과는 논문과 저역서다.

인문사회연구사업을 통해 발생한 논문성과는 2006년 1,907건에서 2015년 5,10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의 특성상 SCI 논문 보다는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논문이 생산되고 있으며, 재단 차원에서 KCI 등재지, 등재후보지 등 우수학술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인문사회연구사업을 통해 발생한 논문 5,101건 중 KCI 등재지에 실린 논문은 4,315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한다. 재단의 지원을 기반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증명된 학술지들에 많은 논문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단이 국내 인문사회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 논문성과

단위: 건



논문과 함께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저역서 실적이다. 재단은 저술출판지원, 명저번역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성과를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저역서 출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약 6백 권 이상의 저서와 역서가 발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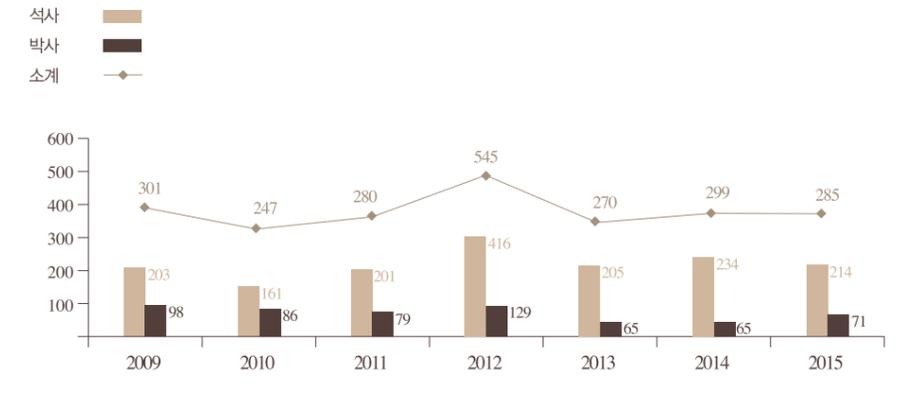
다음으로 중요한 성과는 인문사회분야에서 차세대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위배출 실적이다. 인문사회분야는 이공분야와는 다르게 실험실 체계 속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한 과제에 많은 연구조원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연구에 참여

연도별 저역서 발간 실적

구분	역서	저서	총합계
2010	607	90	697
2011	541	184	725
2012	214	703	917
2013	100	553	653
2014	125	646	771
2015	103	541	644
2016	107	619	726
총합계	1,797	3,336	5,133

학술·인문사회사업 학위배출 성과

단위: 명



하게 된 연구조원은 많은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을 통해 훈련된 인력은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배출된 학위자 수는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연구 경험을 쌓은 연구자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 13만 건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문화·사회·교육 등이었다. 최근 들어 선정과제에서 빅데이터, 융합 등 시대흐름을 반영한 연구과제가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였고, 여성 관련 연구 선정도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늘어났다. 반면, 교육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교육과정 키워드는 감소하는 추세다.

키워드 빈도가 높은 20개를 분석한 결과, 이공분야와 비교할 때 키워드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다양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공분야 보다 트렌드의 변동 폭도 작았다.

구분	상승 키워드	하락 키워드	반짝 상승 키워드	다빈도 키워드
전체과제	미디어, 인문학, 심리, 역사, 중국, 기업, 융합, 빅데이터, 전략, 운동 등	교육과정	다문화(08~13) 여성(12~15)	문화, 사회, 교육 등
선정과제	미디어, 인문학, 심리, 역사, 중국, 기업, 융합, 빅데이터, 전략, 운동 등	교육과정	다문화(08~13) 여성(12~15)	문화, 사회, 교육 등
탈락과제	미디어, 인문학, 심리, 역사, 중국, 기업, 전략, 번역 등	교육과정	다문화(08~13)	문화, 사회, 교육 등

4.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 성과

한국연구재단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등 특정목적에 띄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기초연구사업과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이 학문의 균형 잡힌 발전과 연구 저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국책연구사업은 원천기술이나 미래 지향적 대형·복합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1982년 시작된 특정연구개발 사업을 모체로 각자 특성에 맞게 분리·지원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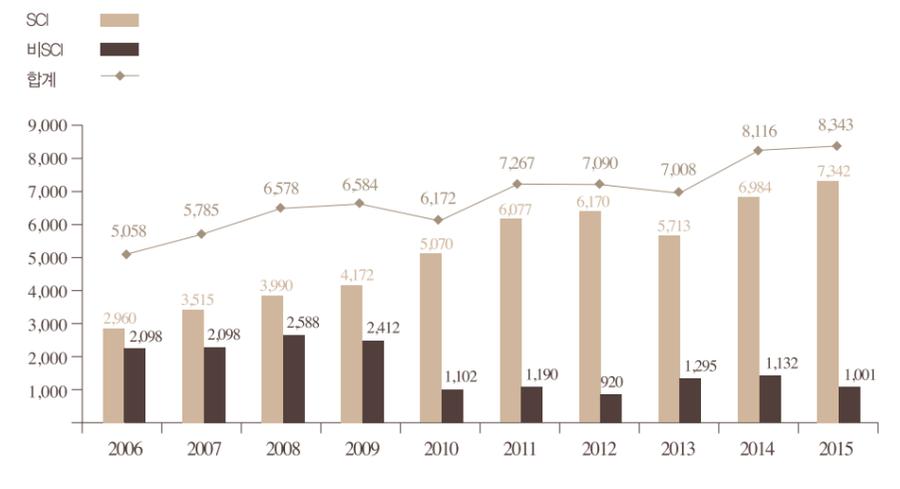
국책연구사업 가운데 원천연구개발사업은 바이오·나노·융합·기후변화 등 기술 분야에 따라 특화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 차세대 바이오연구, 나노와 융합연구, 기후변화대응 등 사업목적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분야에 특화된 사업이다.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이용에 목적을 두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은 우주·핵융합·가속기구축 등 민간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지만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개발, 청정에너지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사업마다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성과분석으로는 각 사업의 고유한 성과를 강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논문과 특허 그리고 기술이전 실적이기에 이를 통해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논문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비해 논문을 대표성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문수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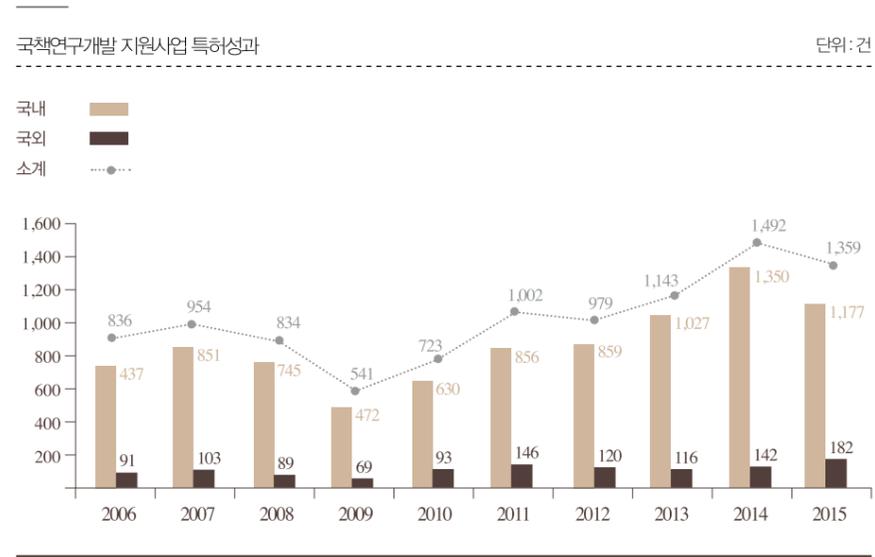
국책연구사업은 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논문보다는 특허 등록 실적을 대표성과로 본다. 국책연구 특허는 지난 10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국책연구개발 지원사업 논문성과

단위: 건



다만, 국내특허의 경우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억제하기 위한 심사강화 등 정책적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 등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해외특허는 2006년 91건에서 2015년 1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원천기술개발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성과는 기술실시계약 성과이다. 재단은 국책 연구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총 2,188건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관기관과 기술 실시기관 간 계약금액은 총 6,157억 원이며, 주관 연구기관이 징수한 실적도 총 2,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계약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여 연도별 증가추세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매년 꾸준히 10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가 논문 등 학문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도별 기술실시계약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연구비	1,374	72	127	108	93	110	143	161	2,188
과제수	381,622	15,582	45,107	21,556	77,669	11,586	45,610	17,008	615,739
주관기관 징수액	159,392	7,122	19,745	14,836	14,604	16,751	14,462	8,535	255,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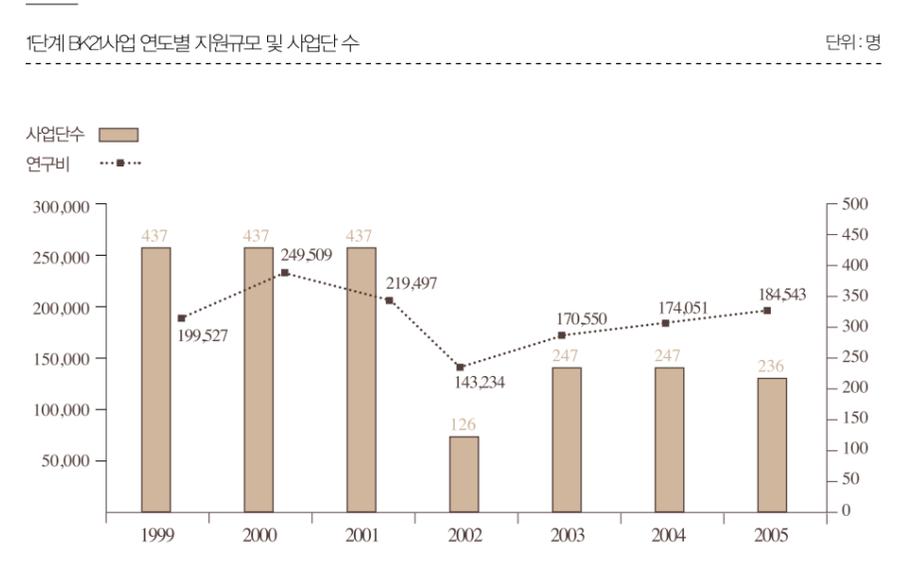
5. 교육 · 인력양성(대학재정지원) 분야 사업성과

BK21지원사업

두뇌한국(Brain Korea)21사업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학문후속세대인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인적자원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학원생에 지원함으로써 교수의 교육과 연구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비 지원과 차이가 있다.

1단계 BK사업은 1999년에 시작되어 200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제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10년 후 한국을 이끌어갈 핵심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단계 BK21사업이 시작되었다. 또 2단계 사업 종료 이후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BK21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BK21사업에는 7년간 1조 3,409억 원이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주로 과학기술분야와 지역대학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으며, 7년간 과학기술분야에 5,472억 원, 지역대학분야에 3,207억 원이 투입되었다. 교육부는 1998년부터 대학의견 수렴, 외국사례 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추진하여, 1999년 6월 과학기술분야, 지역대학, 특화분야, 핵심분야의 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리고 1999년 10월 인문사회분야 및 추가 핵심사업을 추가로 공고하고 12월에 추가 핵심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연차평가에 따라



국고지원액 조정이 있었으며, 특히 2002년과 2004년에는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성과부진 4개 사업단을 탈락 조치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였다. 또한 핵심분야 사업을 2002년 8월 종료하고 후속사업으로 중소규모 신규사업팀 126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1단계 BK21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학사회의 경쟁적 연구풍토가 조성되었고, 1998년 9,444편에 불과했던 SCI급 논문 수가 2005년 23,515편으로 증가하는 등 연구력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연구소의 연구보고, 미국고등교육전문지인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등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1단계 사업의 논문 성과를 살펴보면, SCI급 논문 수가 1999년 10,404건에서 2005년 15,389건으로 증가하여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우리나라 연구주체별 논문 수 총 172,710건 가운데 BK21사업 참여교수의 논문 성과는 53,016건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였다.

또한, BK21사업은 국제·국내특허 성과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특허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의 국내특허 등록 역시 1999년 1.8건/10억 원에서 2005년 4.2건/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 해외석학초빙횟수는 1999년 351건에서 2005년

1단계 BK21사업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적

단위: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SCI급 논문	I/F 총합	1인당 I/F	논문당 I/F	국제특허	국내특허	SCI급 논문	I/F 총합	논문당 I/F	국제특허	국내특허	SCI급 논문
40,389	257.35	8.53	1.98	1,172	2,597	6,903	53.19	2.01	86	85	21,002

1단계 BK21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실적

단위: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국제 학술지	국내전문 학술지	학술저서	국제 학술지	국내전문 학술지	학술저서	국제 학술지	국내전문 학술지	학술저서
694	1,997.70	1,400.80	225.3	1,059	310.4	160.4	1,041.70	

1,049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석학들은 대학과 학문 분야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은 1999년 266건에서 2005년 428건으로, 기술지도는 1999년 488건

1단계 BK21사업 특화분야 연구실적

단위: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국제전문 학술지	국제적수준/전국규모 학술지	국제특허	국제특허	국제전문 학술지	국제적수준/전국규모 학술지	국제특허	국제특허	국제 학술지 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1,584	3,150	73	322	445	703	11	60	807	2,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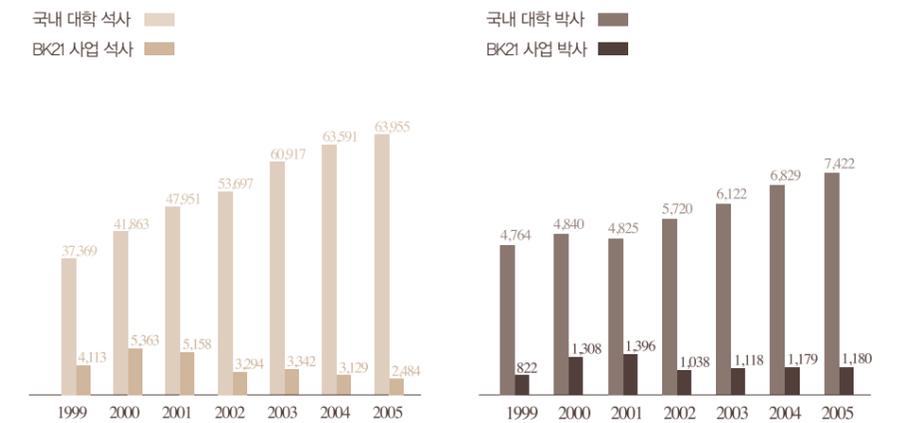
1단계 BK21사업 핵심분야 연구실적

단위:건

대상	국제학술지			국제적수준 및 전국규모 학술지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
	SCI급	SCI급외	국제특허			
교수	8,162	580	193	2,050	4,662	828
신진인력	1,383	125	11	488	802	92
대학원생	2,901	171	9	715	1,795	20

BK21사업 석박사 현황(1999~2005)

단위:명



국내 전체 석박사 중 BK21사업 석박사 비율

단위: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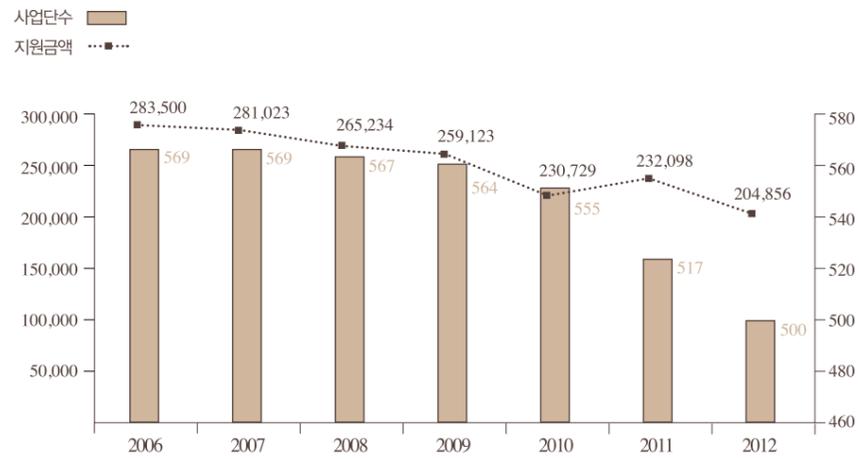
연도	국내 대학 전체		BK21사업		비율(%)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999	41,482	5,586	4,113	822	9.9	14.7
2000	47,226	6,148	5,363	1,308	11.4	21.3
2001	53,109	6,221	5,158	1,396	9.7	22.4
2002	56,991	6,758	3,294	1,038	5.8	15.4
2003	64,259	7,240	3,342	1,118	5.2	15.4
2004	66,720	8,008	3,129	1,179	4.7	14.7
2005	68,439	8,602	2,484	1,180	3.6	13.7
합계	398,226	48,563	26,883	8,041	8.13	14.41

에서 2005년 1,23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BK21사업이 산학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 BK사업이 이루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안정시키고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분야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Post-doc.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목적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2만 명 이상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세계 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고, 국가 SCI급 논문 순위를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시키고, 대

2단계 BK21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및 사업단 수

단위:백만 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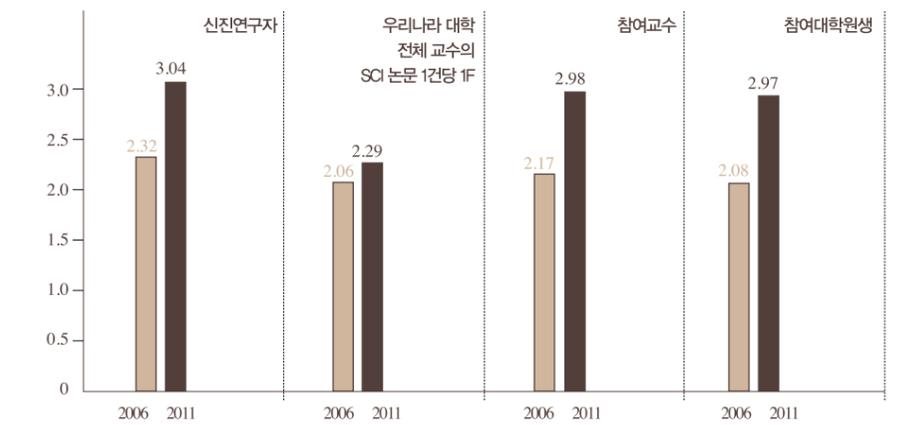
학보유 기술의 민간이전 비율을 10.1%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7,565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조 3,888억 원(79%)이 과학기술분야에 투입되었다.

재단은 2006년 4월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전국 총 92개 대학에서 신청한 386개 사업단과 583개 사업팀 중 74개 대학 총 244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하위권 사업단은 탈락 또는 사업비 삭감을 단행하고 우수사업단은 추가지원 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567개 사업단 중 70개 사업단을 교체하였다.

2단계 BK21 사업은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및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QS 세계대

2단계 BK사업 성과

단위: IF(인용지수)



2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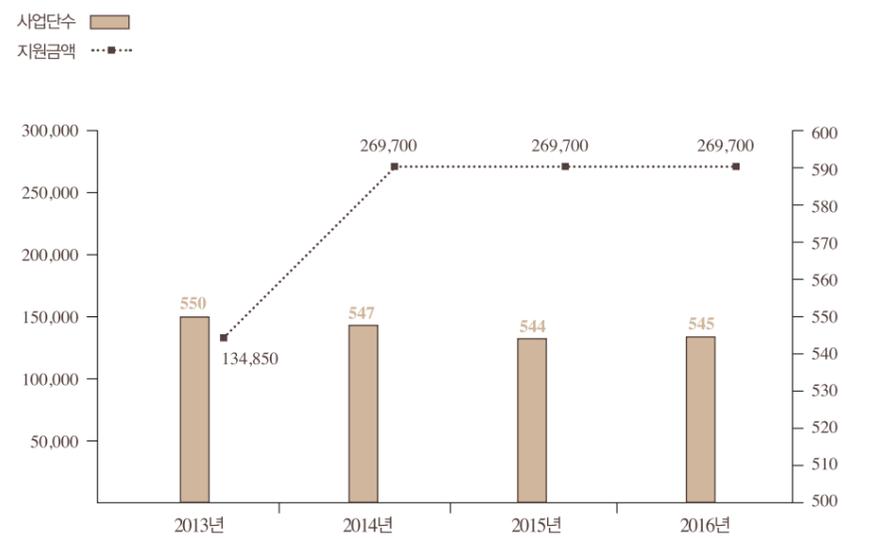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K21 사업	취업대상자	6,762	5,150	6,181	6,860	6,541	7,319
	취업자	6,366	4,822	5,684	6,256	6,024	6,966
	취업률(%)	94.1	93.6	92.0	91.2	92.1	94.5
일반대학원 취업률(%) (취업통계연보 KD)	81.9	81.7	81.6	79.9	70.7	72.1	69.7

학평가 200위권 내 대학 수가 2007년 2개에서 12년에는 6개로 늘어났으며, 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은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및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연평균 취업률은 평균 92% 이상인 반면, 전체 대학원생의 평균 취업률은 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과학·공학 등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와 소규모 사업단의 연구성과가 높았다. 또 과학기술분야의 참여교수,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의 발표논문 1건당 IF(Impact Factor, 인용지수)는 지난 6년간 각각 37.3%, 42.8%,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BK21사업 종료 후 2013년부터 BK21플러스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7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BK21플러스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석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 양성과 대학 교육·연구의 창의적 분위기 제고 및 독창성 있는 성과창출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글로벌인재양성형은 융합분야 중심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은 고급 실용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은 학문 전 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BK21플러스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및 사업단 수 단위: 백만 원 개



LINC육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mismatch 해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 적합성 높은 대학교육으로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 기술개발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 동안 약 1조 700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단계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1단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단계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창출·확산을 추진하였다.

LINC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학체제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전환된 것, 그리고 대학이 지역기업·가족회사와 협약을 맺고 현장중심 교육과 기업지원을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원업적평가 시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평균은 2012년 56점에서 2016년 137점으로 145%가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만으로도 승진과 승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의 취업·창업 역량향상 위해 채용된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도 2012년 2,052명에서 2016년 4,932명으로 140% 증가하여 대학체제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산학협력 가족회사의 수도 2012년 23,620개에서 2016년 64,141개로 172% 증가하여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한 결과,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은 209% 증가한 2,068건이 생겨났고, 현장실습은 240% 증가한 39,571명, 캡스톤디자인은 147% 증가한 104,147명이 이수하는 성과가 발생하였다. 또 대학이 보유한 특허를 기업으로 이전한 기술이전실적은 2016년 기준 기술이전 건수 2,551건, 기술이전 수입 30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23%, 197% 증가한 성과를 나타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시작 전(2012년) 대비 단계별 주요성과

구분 (성과지표)	사업 개시 전 (2012)	1단계 사업 종료 (2014)	2단계 사업 종료 (2016)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42,170명	70,145명	104,147명
증가율	-	66%	147%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11,630명	27,618명	39,571명
증가율	-	137%	240%
산업체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670건	1,484건	2,068건
증가율	-	121%	209%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	23,620개	40,663개	64,141개
증가율	-	72%	172%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603건/ 10,384백만원	1,583건/ 17,496백만원	2,551건/ 30,826백만원
증가율	-	163%/68%	323%/197%
교육업적평가 시 SCI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평균	56점	105점	137점
증가율	-	88%	145%
산학협력 중점교수 현황	2,052명	3,561명	4,932명
증가율	-	74%	140%

CK사업의 교육 프로그램 성과

PBL 창의성 프로그램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과 산업체 현장 적응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 → 119개 사업단
OCW 동영상 강의 공개	동영상 콘텐츠를 웹상에 공개함으로써 강의의 질·접근성 제고에 기여 → 77개 사업단 1,199건 공개
인증역량 프로그램	인증제를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 평가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 → 94개 사업단

CK사업

대학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부지원 사업이다. 2014년 7월 선정된 106개 대학 338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대학의 체질
개선과 사업단의 특성화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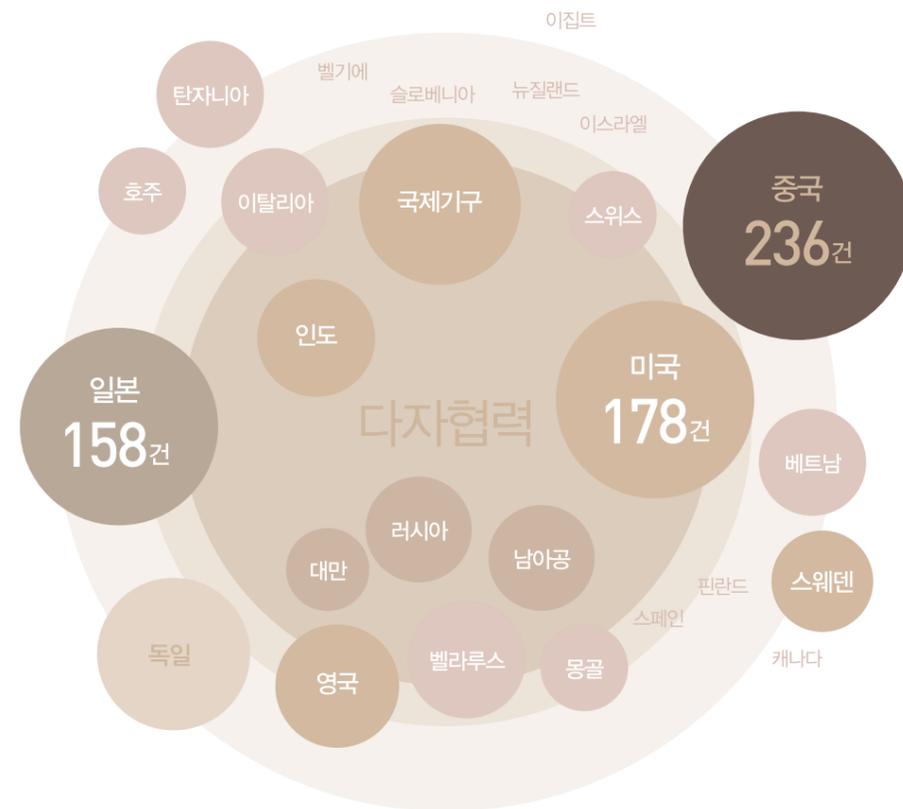
CK사업은 융·복합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문 영역 간 교과과정을 복합
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융·복합 사업단은 전체 사업단
의 61%(207개 사업단)를 차지한다. 융·복합 사업단은 단과대학 신설, 모집단위 통합, 전
공개설·통합 등을 통해 지역 산업수요와 미래사회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융합 교육과
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결과 42개교 80개 사업단이 학사구조를 개편·이행하였다.

CK사업은 대학을 특성화분야에 집중시키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성화분야 정원비중은
2014년 18%에서 2017년 19%로 상승하였으며, 대학의 특성화 비전·계획에 따라 교육과
정이 개편되는 등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또 정규교육과정 전공과목 7,196건
을 개편하고 창의성 프로그램(PBL: Project Based Learning), 동영상강의 공개(OCW :
Open Course Ware), 인증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주입식 강의를 벗어나 학습몰입도를 강
화하였으며,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
재를 양성하였다. 대학 특성화사업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는 2015년 5,295명에서 2016년
8,111명으로 53%가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역시 249건을 개선하여 15,991명이 이수하였다.

6.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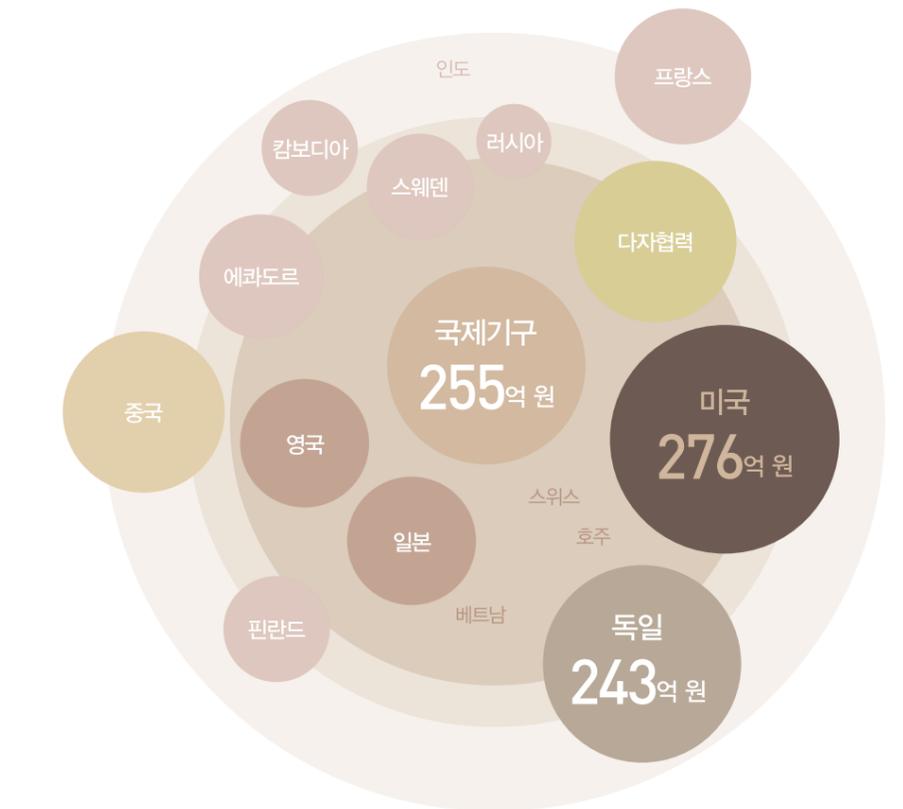
국제협력사업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지원 과제수는 중국 236건, 미국 178건, 일본 158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는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구사업과 한중핵심연구사업의 지원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3년 43건에서 15년 75건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폭(73%)으로 증가하였다. 일본과도 한일 협력연구, 공동세미나 사업 등으로 꾸준히 많은 수의 과제를 함께 해오고 있다. 인도의 경우 13년 35건에서 14년 8건으로 77% 급감하였는데, 최근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과학기술 협력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2015년도 연구 상대국별 과제수 지원 현황



국제협력사업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지원 연구비는 미국 276억원, 국제기구 255억원, 독일 2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3년 74억에서 15년 112억원으로 50% 증가하여 가장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국제기구 또한 13년 69억에서 15년 100억으로 46%증가하였고 지원되는 과제 수 63건 대비 연구비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기구와 다자협력 지원이 전체 연구지원에 27.2%를 차지하여 공동연구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13년 97억원에서 15년 70억으로 28% 감소하였지만, EU(유럽연합)의 연구지원이 1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14년부터 연구 지원을 시작해 유럽 개별국가보다는 다자간 협력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연구 상대국별 연구비 지원 현황



연구 상대국별 지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총합계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EU	-	-	1	200	4	350	5	550
국제기구	17	6,908	23	8,512	23	10,091	63	25,511
가나	2	65	2	137	3	220	7	422
그리스	-	-	1	9	-	-	1	9
나이지리아	1	28	2	65	-	-	3	93
남아공	7	330	8	300	5	180	20	810
네덜란드	-	-	-	-	4	88	4	88
네팔	-	-	1	100	4	660	5	760
노르웨이	1	30	1	30	-	-	2	60
뉴질랜드	6	240	3	210	3	95	12	545
대만	7	210	7	210	6	180	20	600
덴마크	-	-	-	-	2	60	2	60
독일	58	9,738	25	7,641	51	7,105	134	24,394
라오스	-	-	1	500	1	500	2	1,000
러시아	8	839	10	786	9	830	27	2,455
루마니아	1	27	-	-	-	-	1	27
마다가스카르	-	-	1	50	-	-	1	50
말레이시아	2	60	1	30	1	35	4	125
멕시코	2	30	2	30	-	-	4	60
모잠비크	-	-	-	-	1	100	1	100
몽골	5	253	8	351	8	266	21	870
미국	43	7,493	60	8,886	75	11,254	178	27,633
미얀마	1	100	-	-	2	150	3	250
베트남	8	275	6	710	6	444	20	1,429
벨기에	5	280	4	170	7	100	16	550
벨라루스	5	132	7	180	4	80	16	392
부탄	-	-	1	40	1	40	2	80
북한	-	-	-	-	1	50	1	50
브라질	1	70	-	-	-	-	1	70
수단	-	-	1	50	-	-	1	50
스리랑카	2	126	1	100	1	100	4	326
스웨덴	15	840	18	1,048	19	1,236	52	3,124
스위스	6	360	2	50	13	1,082	21	1,492
스페인	4	120	6	170	2	34	12	324
슬로베니아	5	50	5	50	2	45	12	145
싱가포르	-	-	3	60	4	90	7	150
아일랜드	1	30	2	44	-	-	3	74
알제리	2	60	-	-	-	-	2	60

구분	2013		2014		2015		총합계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과제수	지원금
에콰도르	1	60	2	2,590	-	-	3	2,650
에티오피아	2	148	2	75	-	-	4	223
엘살바도르	1	82	-	-	-	-	1	82
영국	14	3,846	17	3,044	12	2,001	43	8,891
오스트리아	4	230	3	195	-	-	7	425
우간다	3	103	1	50	-	-	4	153
우크라이나	6	223	-	-	-	-	6	223
이란	1	30	1	30	-	-	2	60
이스라엘	8	205	4	58	2	44	14	307
이집트	6	172	5	139	3	49	14	360
이탈리아	9	210	10	202	10	180	29	592
인도	35	1,317	8	430	14	530	57	2,277
인도네시아	3	218	3	45	3	149	9	412
일본	54	2,988	54	2,865	50	2,862	158	8,715
중국	76	2,345	78	4,474	82	4,427	236	11,246
잠비아	1	30	-	-	-	-	1	30
체코	3	90	1	20	2	45	6	155
칠레	1	70	-	-	-	-	1	70
카메룬	1	30	1	50	-	-	2	80
카타르	-	-	-	-	1	35	1	35
캄보디아	3	408	3	668	3	700	9	1,776
캐나다	5	170	3	80	6	155	14	405
케냐	1	30	1	50	-	-	2	80
콩고	1	35	-	-	-	-	1	35
탄자니아	6	360	9	525	4	250	19	1,135
태국	3	77	1	25	5	154	9	256
터키	3	108	2	40	2	40	7	188
튀니지	6	234	4	175	-	-	10	409
파키스탄	1	27	-	-	-	-	1	27
페루	1	70	-	-	-	-	1	70
폴란드	1	30	2	50	4	91	7	171
프랑스	41	1,609	38	1,237	37	1,538	116	4,384
핀란드	6	815	3	564	3	570	12	1,949
헝가리	1	32	1	27	1	35	3	94
호주	7	720	12	598	-	-	19	1,318
홍콩	3	90	3	90	-	-	6	180
다자협력	60	7,858	37	4,391	45	6,670	142	18,919
총합계	593	53,764	522	53,506	552	55,900	1667	163,170

6.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로 비상하다

2017~



1.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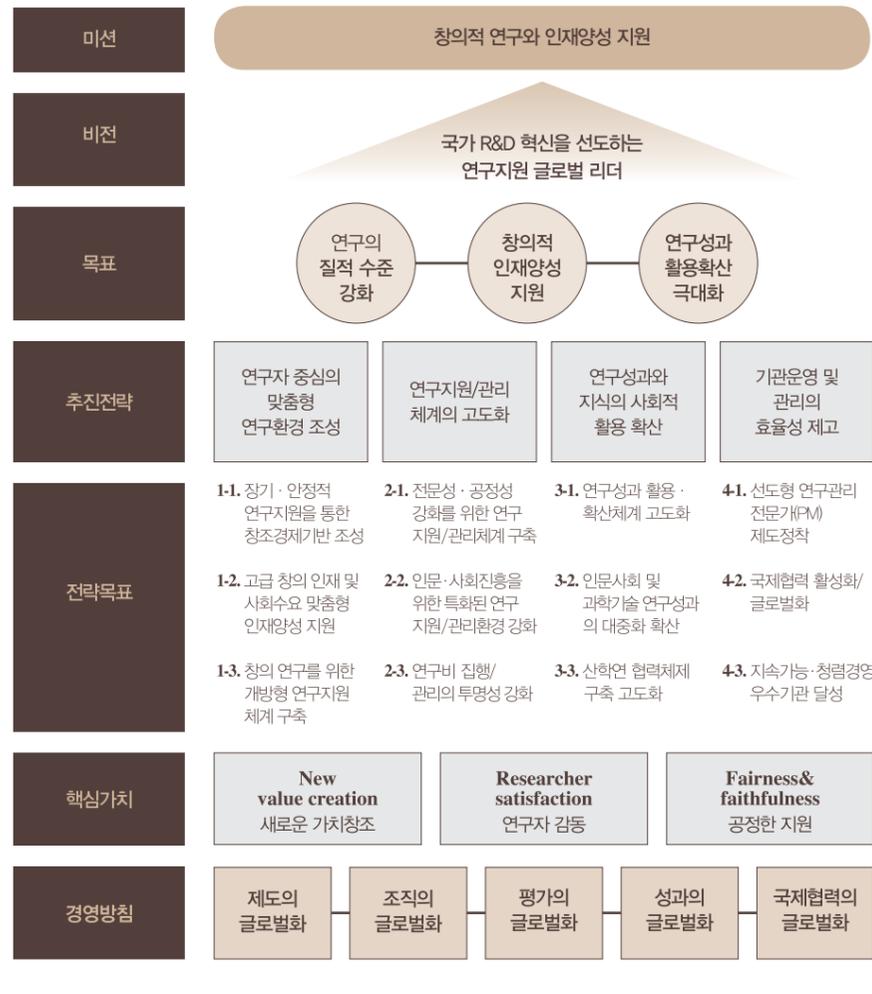
2009년 국내 최대의 선진형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실현하기 어려웠던 학문 간 조화와 균형발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융합과 동반발전, 연구관리·지원사업의 선진화 등이 촉진되었으며 학문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출범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미션은 '인간과 자연탐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 비전은 '세계 7대 지식강국을 향한 연구지원관리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이었다. 이 비전은 세계 각국의 연구지원기관이 벤치마킹하려 하는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지식강국으로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후, 2015년 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고 '국민행복과 미래창조를 선도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세웠다.

그리고 2017년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40주년과 통합 8주년을 맞아 새로운 중장기 경영목표를 확립하였다. 새 경영목표의 지향점은 '국가경제 혁신'이다. 이는 2010년대 중반 들어 세계 주요국들이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혁신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제가 3%대 저성장에 머무는 등 뉴노멀(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 흐름) 시대에 돌입하자,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전략 마련에 몰입하였다. 新미국혁신전략(2015년), Europe 2020(2014년), 일본과학기술종합전략(2015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와 수출, 일자리 등의 경제지표가 수년째 하락세를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디지털·로봇·바이오 등 영역 없는 기술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것도 재단의 주요한 미션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시대적·경제적 흐름에 맞춰 '중장기(2017~2021) 경영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 기술력을 높이고 인문사회 연구를 기반으로 창의성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화 성과를 도출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며, 성과부진 사업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일몰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가 공존하는 통합기관의 강점을 살려 융합연구 집중지원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장기(2017~2021) 경영목표 체계도



2. 세계 최고의 연구지원 전문기관을 향해 나아가다

한국연구재단은 비전·전략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지원'이라는 미션과 3개의 목표(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 창의적 인재양성 지원, 연구성과 활용·확산 극대화)는 그대로 두고,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라는 새 비전과 추진전략·전략과제 중심으로 전략체계를 개선하였다.

•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환경 구축에 주력하다

재단은 기존의 기관 목표와 추진전략을 세분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4개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환경 조성'이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안정적 연구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과제를 자유롭게 연구하는 풀뿌리 연구에 대한 지원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여 이른바 한 우물 파기 연구가 가능토록 하고, 우수연구의 경우에는 후속과제로 선정하여 추가로 1~5년을 연속 지원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가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연구비 수혜 경험이 없는 신진연구자 지원도 강화하여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장기 우수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식 연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재단의 지원으로 도출된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가 국책 연구나 타 부처의 응용연구로 이어지도록 R&D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재단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학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특성화사업을 강화하여 대학이 지역 연구산업과 연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위해 새롭게 '컨설팅 형식의 연차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은 최소화하고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는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대학특성화사업에 참여하는 110개 대학(337개 사업단)에 지원을 집중하여 강점분야를 육성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입학→교육→취업→지역사회 기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단의 각종 사업에 연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제 전반을 개방하였다.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필요한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신청하고 연차별 연구비를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계획서·보고서 양식의 간소화와 보고서 분량제한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다. 또 국책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체(연구자, 일반인 등)가 언제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상시기획체제'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상시 발굴·활용 온라인 플랫폼인 기획마루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책사업기획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이들이 활발하게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연구지원관리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다

한국연구재단의 두 번째 추진전략은 '연구지원관리 체계의 고도화'다. 재단은 이를 통해 과제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특화된 연구지원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재단은 우선 모든 지원사업의 시작점인 과제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역량이 검증된 우수·핵심 평가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질적 성과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또 과제선정 평가 시 창의성·도덕성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자 스스로가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표를 제시한 뒤 지속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재단은 평가정보 공개와 평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평가의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연구지원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인문사회 연구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가 정책수요 해결을 위한 전략적 인문사회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문학진흥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재단은 연구비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Ezbaro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기관별 연구비 집행정산 교육, 연구비 집행 컨설팅과 사전정산검증 등 연구비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도 극대화하다

중장기(2017~2021) 경영목표의 세 번째 추진전략은 '연구성과와 지식의 사회적 활용·확산' 강화다. 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나온 성과가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십분 활용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활용·확산체계'를 고도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연구성과 소개서를 연구관리전문가(PM)가 검토하도록 하여 소개서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하나의 성과를 성과마루와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다수의 루트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기술과 기업의 접촉점을 늘리고 있다. 또 기초·원천 연구성과 가운데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연구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대중적 접근이 쉬운 IT 기반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디지털 가상 라이브러리)을 개발하고, 인문학대중화가 국민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인문학대중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는 금요일에 과학터치와 온라인 우수 연구성과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하며 산학연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산학연 협력체제'를 고도화하고 있다. 우수기술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장수요 관점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우수기업 마일리지 제공과 산학협력 수준 분석틀 개발 등을 통해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기업가형 대학'을 키워냄으로써 청년 취업과 창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효과적 기관 운영으로 국가경쟁력 높이다

한국연구재단의 마지막 추진전략은 '기관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다. 이를 위해 재단은 연구지원전문가 즉, PM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PM의 역할을 사업평가·관리를 넘어 분야별 발전방안 제시, 사업기획, 성과 발굴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PM의 전문성을 광범위하게 활용할겠다는 것이다. 또 최고 수준 PM의 발굴·영입을 통해 연구지원 수준을 높이고 평가위원 이력관리를 통해 평가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혁신센터(KIC) 사무국과 해외센터의 구축·운영 지원과 국제협력사업-연구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국제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지속가능·청렴경영 우수기관 달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더한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한국연구재단이 Funding Agency에서 Knowledge Agency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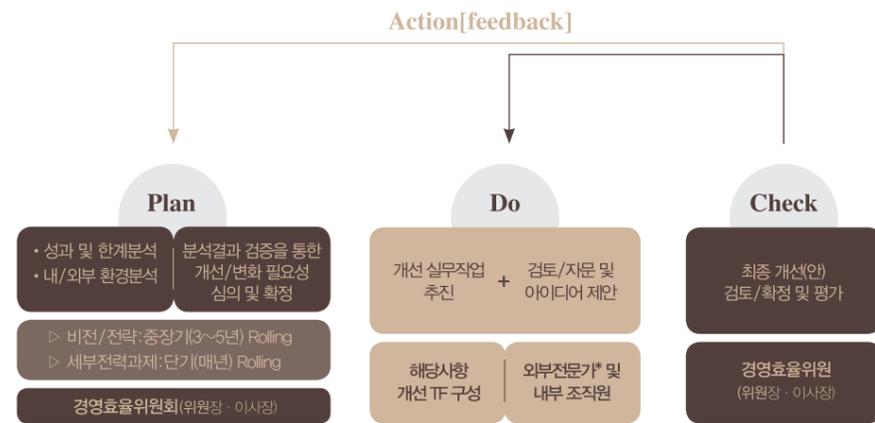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재단 전체의 운영이 정부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손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공기관 인사관리 분야 주요 정책(국가직무능력에 기반 한 채용 등)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 인사관리제도를 새롭게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타 기관이 벤치마킹하는 노사문화 선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경영목표 피드백 시스템 구축하다

한국연구재단은 새로운 중장기 경영목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경영전략 Rolling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사장 주도의 경영효율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전과 전략목표를 3~5년 단위로 검토·개선하고 매년 세부 전략과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단이 시대 흐름과 국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략과제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중장기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높이는 프로세스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월 세부 전략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6개월마다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보고를 추진하며, 연말에는 그해 전체의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전략과제 개선에 활용하는 형태의 체계적인 전략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환류 시스템을 확고히 하였다. 또 추진실적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여 우수사례(개인·부서)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재단 구성원에게 전략과제 실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중장기 경영목표 Rolling 체계



*외부전문가 검토/자문은 '경영효율화자문위원회'를 활용

3.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비상하다

한국연구재단은 2017년 6월 21일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지난 40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 40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한 도약을 시작하였다. '미래를 향한 Global NRF'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비상하기 위한 도전적·혁신적 전략과 사업들을 하나 둘 추진하고 있다.

재단이 집중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IT를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산업혁명(증기기관, 대량생산, 컴퓨터와 IT)에 비해 속도·범위·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단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미래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적인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을 통해 국가 전반에 창의적·혁신적 사고를 확산하며,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가 공존하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재단의 여러 혁신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첨단 연구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기초연구지원 확대,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실시, 한 평생 한 우물 파기 연구지원 비율 확대,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비 지원제도 혁신 등을 통해 연구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2018년부터는 재단의 연구지원관리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능도 도입한다. 재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해외의 선진 연구지원정책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3만 개가 넘는 특허를 취득하고 무려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는 미국 Bell-Lab의 R&D지원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특히 주요 사업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아닌 Discovery와 Invention 연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Bell-Lab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거의 Fast-Follow형 연구지원 플랫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First-Mover형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40년 사이 대한민국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듯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미래 40년 동안에도 재단이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학술발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지원을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노력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 한국연구재단 40년사, 현황 - 부록

- 현 임원 및 사무총장
- 이사회 구성
- 역대 기관장 현황
- 역대 임원 및 사무총장 현황
- 한국연구재단 이 및 40주년 기념 엠블럼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기관 현황
- 역대 수상자 현황
- 한국연구재단법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 한국연구재단 정관
- 연표(통합)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 무 제



한국연구재단 감사
심 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김 준 동

이사장 _____ 조무제(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감사 _____ 심순(한국연구재단 감사)

비상임 이사 (선임직) _____ 서진호(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미나(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옥(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희봉(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혜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장)

지원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수(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배병수(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영숙(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정철희(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원장)

허동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비상임 이사 (당연직) _____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박춘란(교육부 차관)

김용진(기획재정부 제2차관)

역대 기관장 현황

한국과학재단 역대 기관장



한국과학재단 | 최형섭
1977.05 ~ 1980.08



한국과학재단 | 이정오
1980.08 ~ 1986.05



한국과학재단 | 김성진
1986.05 ~ 1987.02



한국과학재단 | 최순달
1987.02 ~ 1989.02



한국과학재단 | 정근모
1989.02 ~ 1990.06



한국과학재단 | 강흥렬
1990.06 ~ 1991.03



한국과학재단 | 권원기
1991.03 ~ 1993.03



한국과학재단 | 박진호
1993.03 ~ 1999.08



한국과학재단 | 김정덕
1999.08 ~ 2004.04



한국과학재단 | 권오갑
2004.04 ~ 2007.05



한국과학재단 | 최석식
2007.05 ~ 2008.04

한국학술진흥재단 역대 기관장



한국학술진흥재단 | 조성욱
1981.04 ~ 1984.12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일재
1984.12 ~ 1990.12



한국학술진흥재단 | 정연춘
1990.12 ~ 1992.09



한국학술진흥재단 | 오덕렬
1992.09 ~ 1993.04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상구
1993.07 ~ 1995.02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종운
1995.03 ~ 1998.03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석무
1998.04 ~ 2001.04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성재
2001.04 ~ 2002.07



한국학술진흥재단 | 주자문
2002.08 ~ 2005.08



한국학술진흥재단 | 허상만
2005.12 ~ 2008.09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역대 기관장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유영수 2004.02 ~ 2006.12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임천일 2007.01 ~ 2009.06

한국연구재단 역대 기관장



한국연구재단 | 박찬모 2009.06 ~ 2010.09
한국연구재단 | 오세정 2011.01 ~ 2011.11
한국연구재단 | 이승종 2012.01 ~ 2013.09
한국연구재단 | 정민근 2014.01 ~ 2016.07

한국연구재단 역대 감사



한국연구재단 | 최건모 2009.06 ~ 2011.07
한국연구재단 | 박정택 2011.08 ~ 2013.06
한국연구재단 | 문병룡 2014.04 ~ 2016.05

한국연구재단 역대 사무총장



한국연구재단 | 배규한 2009.03 ~ 2012.02
한국연구재단 | 이걸우 2012.03 ~ 2015.03

심벌마크

커다란 원형의 고리는 학문의 순환과 끝없는 창조 및 한국연구재단의 세계화를 상징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두 개의 띠는 인문과 과학의 통합을 의미하며, 위로 솟구치는 선은 미래를 향한 비상을 표현한다. 우리나라 대표 연구지원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비전을 블루컬러로, 고객중심의 연구지원과 관리의 이미지를 그린컬러로 표현했다



로고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와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본요소로 심벌마크가 주는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각의 글자꼴 형태에 따라 비례를 조정 한것이므로 글자의 쉼,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로고타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용 CD-Rom 데이터를 이용하며 비례대로 축소 또는 확대해 사용해야 한다.

국문
한국연구재단

영문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문
韓國研究財團

한국연구재단 CI 및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

로고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

우리나라 대표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비전을 '파란 불꽃'으로 형상화하고, 창립 40주년 캐치프레이즈와 결합했다. 고객 중심의 연구지원과 관리를 상징하는 녹색을 '40'과 심미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난 40년간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온 재단의 40년을 표현했다.



해외협력기관

2017. 5. 31 현재

연번	지역	국가	협력기관	협력분야	협력형태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교류
1	남미	멕시코	멕시코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	전학문	○	○	○
2	남미	브라질	브라질국가과학기술위원회(CNPq)	과학기술	○	○	○
3	남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CONICET)	과학기술	○		○
4	남미	칠레	칠레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ICYT)	전학문	○	○	
5	대양주	뉴질랜드	뉴질랜드왕립학회(RSNZ)	과학기술	○	○	○
6	대양주	호주	호주과학원(AAS)	과학기술	○	○	○
7	대양주	호주	호주연구협의회(ARC)	전학문	○		○
8	대양주	호주	호주과학기술공학아카데미(ATSE)	과학기술		○	
9	동구	러시아	러시아기초연구재단(RFBR)	과학기술	○	○	○
10	동구	러시아	러시아과학원(RAS)	과학기술	○	○	○
11	동구	러시아	러시아스콜코보연구재단(SKOLKOVO)	과학기술	○	○	○
12	동구	루마니아	루마니아과학원(RA)	과학기술	○	○	○
13	동구	벨라루스	벨라루스기초연구재단(BRFFR)	과학기술	○	○	○
14	동구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과학원(SAS)	과학기술		○	○
15	동구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과학재단(SSF)	과학기술		○	○
16	동구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과학원(NASU)	과학기술	○	○	○
17	동구	체코	체코국가과학기술기금(GACR)	과학기술	○	○	○
18	동구	체코	체코과학원(CAS)	과학기술	○	○	○
19	동구	터키	터키과학기술연구원(TUBITAK)	과학기술	○	○	○
20	동구	폴란드	폴란드과학원(PAN)	전학문	○	○	○
21	동구	헝가리	헝가리과학연구재단(OTKA)	전학문	○	○	○
22	동구	헝가리	헝가리과학원(HAS)	과학기술	○	○	○
23	동구	헝가리	헝가리공학원(HAE)	과학기술	○	○	○
24	북미	미국	미국립과학재단(NSF)	과학기술	○	○	○
25	북미	캐나다	캐나다자연과학및공학연구위원회(NSERC)	과학기술	○	○	○
26	북미	캐나다	캐나다국제연구인력교류기관(Mitacs)	과학기술			○
27	서구	그리스	그리스과학기술재단(FORTH)	과학기술	○	○	○
28	서구	네덜란드	네덜란드연구협회(NWO)	과학기술		○	○
29	서구	노르웨이	신테프그룹(SINTEF)	과학기술	○	○	○
30	서구	노르웨이	노르웨이연구협의회(NRC)	전학문		○	○
31	서구	덴마크	덴마크혁신기금(IFD)	과학기술	○	○	○
32	서구	독일	독일연구협회(DFG)	전학문	○	○	○
33	서구	독일	독일알렉산더훈볼트재단(AvH)	전학문			○
34	서구	독일	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	전학문		○	○
35	서구	독일	독일막스플랑크학회(MPG)	과학기술	○	○	○
36	서구	벨기에	벨기에국립과학연구재단(FNRS)	과학기술	○	○	○
37	서구	벨기에	벨기에과학재단(FWO-Vlaanderen)	과학기술		○	○
38	서구	스웨덴	스웨덴왕립과학원(IVA)	과학기술			○
39	서구	스웨덴	스웨덴전략연구재단(SSF)	과학기술	○	○	○
40	서구	스웨덴	스웨덴국제연구및교육협력재단(STINT)	전학문	○	○	○

연번	지역	국가	협력기관	협력분야	협력형태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교류
41	서구	스웨덴	스웨덴연구협의회(VR)	전학문	○	○	○
42	서구	스위스	스위스국립과학재단(SNSF)	과학기술	○	○	○
43	서구	스페인	스페인과학연구위원회(CSIC)	과학기술	○	○	○
44	서구	영국	영국예술인문학연구회(AHRC)	인문예술	○	○	○
45	서구	영국	영국경제사회연구회(ESRC)	경제사회		○	○
46	서구	영국	영국왕립과학원(RS)	과학기술	○	○	○
47	서구	영국	영국문화원(BC)	과학기술	○	○	○
48	서구	영국	생물공학및생물연구협회(BBSRC)	과학기술	○	○	○
49	서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과학재단(FWF)	전학문	○	○	○
50	서구	이태리	이태리국가과학위원회(CNR)	과학기술	○	○	○
51	서구	프랑스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과학기술		○	○
52	서구	프랑스	프랑스국립연구청(ANR)	과학기술	○	○	○
53	서구	핀란드	핀란드학술원(AF)	전학문	○	○	○
54	아시아	대만	대만과학기술부(MOST)	과학기술	○	○	○
55	아시아	몽골	몽골과학아카데미(MAS)	전학문	○	○	○
56	아시아	베트남	베트남인문사회과학원(NCSSH)	인문사회	○	○	○
57	아시아	베트남	베트남과학원(VAST)	과학기술	○	○	○
58	아시아	브루나이	브루나이연구회(BRC)	과학기술	○	○	○
59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학기술위원회(SCST)	과학기술	○	○	○
60	아시아	인도	인도사회과학연구위원회(ICSSR)	인문사회	○	○	○
61	아시아	인도	인도국립과학원(INSA)	과학기술	○	○	○
62	아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LIPI)	과학기술	○	○	○
63	아시아	일본	일본학술진흥회(JSPS)	전학문	○	○	○
64	아시아	일본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과학기술	○	○	○
65	아시아	중국	중국과학원(CAS)	과학기술	○	○	○
66	아시아	중국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과학기술	○	○	○
67	아시아	중국	중국사회과학원(CASS)	인문사회	○	○	○
68	아시아	중국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과학기술	○	○	○
69	아시아	태국	태국국립연구학술원(NRCT)	과학기술, 사회과학	○	○	○
70	아시아	필리핀	필리핀국립과학기술원(NAST)	과학기술	○	○	○
71	아시아	필리핀	필리핀국립연구회(NRCP)	전학문	○	○	○
72	아시아	싱가폴	싱가폴 과학기술청 (A*STAR)	과학기술	○	○	○
73	중동/아프리카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연구재단(NRF)	과학기술			○
74	중동/아프리카	모로코	모로코국가과학기술연구센터(CNRST)	과학기술			○
75	중동/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다국립과학기술위원회(UNCST)	과학기술			○
76	중동/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과학기술협회(ASRT)	과학기술			○
77	중동/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과학기술발전기금(STDF)	과학기술			○
78	중동/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과학재단(ScienceFund)	과학기술			○
79	중동/아프리카	카타르	카타르연구기금(QNRF)	과학기술	○	○	○
80	중동/아프리카	탄자니아	탄자니아과학기술위원회(COSTECH)	과학기술	○	○	○
계		51개국	80개 기관				○

역대 수상자 현황_ 한국 과학상 역대 수상자

구분	분야	성명	수상업적명(주요업적)	비고
제1회 (1987)	물리	김진의 (서울대)	아주 가벼운 액시온 이론 및 현상연구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립자의 상호작용 규명)	대상
	수학	박용문 (연세대)	고전 및 양자통계역학의 상관부등식 연구 (자연계의 물리적 성질을 수학적 논리로 존재성을 증명)	장려상
	수학	기우항 (경북대)	유클리드 공간의 일반형 부분다양체 연구	장려상
	물리	옥항남 (연세대)	비정질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 및 결정 (에너지 절약물질인 비정질 강자성체의 결정체 전환과정을 규명)	장려상
	화학	서정현 (서울대)	금속효소 및 그 모형계에 대한 메카니즘 (생명현상의 근원인 효소의 촉매작용에 관한 근본원리를 확립)	장려상
	생명	박상대 (서울대)	DNA 상해물질에 대한 포유동물세포의 복제 및 DNA 회복 과정에 관한 연구 (돌연변이 및 암유발 기작의 새로운 현상 정의 및 가설 제시)	장려상
제2회 (1989)	수학	김종식 (서울대)	격자군동형의 판별법	장려상
	물리	조용민 (서울대)	고차원적 통일장 이론의 연구 (우주구조 현상에 대한 4대 기본이론을 하나의 큰 이론으로 통합함을 최초로 증명)	장려상
	화학	심상철 (과기원)	스틴벤 계열 올레핀의 광화학 반응 연구 (화합물의 광화학 반응 메카니즘을 기존 방법의 역으로 체계적으로 규명)	장려상
	생명	이호왕 (고려대)	신증후 출혈열 병원체의 발견과 예방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 발견과 혈청학적 진단법을 완성)	장려상
제3회 (1991)	물리	박영우 (서울대)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 연구 (전도성 고분자중 현재까지 가장 전도도가 높은 전도성 고분자 발견)	장려상
	화학	진정일 (고려대)	액정중합체의 미세화학구조와 성질과의 관계 (새로운 차세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의 기반이 되는 액정고분자 합성)	장려상
	생명	정진하 (서울대)	대장균 세포내 APT-의존성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Ti에 관한 연구 (대장균에서 새로운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생리, 생화학적 기작 규명)	장려상
제4회 (1993)	화학	서정현 (서울대)	유기반응에 대한 금속이온의 루이스산 촉매 작용에 관한 연구 (인체에 유해한 독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인공효소 본격 개발의 터전 마련)	대상
	화학	김성각 (KAIST)	1,5-Bu ₂ Sn과 1,5-수소전이에 의한 라디칼 유지 변동을 통한 비닐에폭시화물 라디칼 반응연구 (플라스틱 및 시약개발과 관계되는 라디칼 반응원리 규명)	장려상
	생명	임정빈 (서울대)	GTP Cyclohydrolase에 의한 테리딘 화합물 대사조절에 관한 연구 (인체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마련)	장려상

구분	분야	성명	수상업적명(주요업적)	비고
제5회 (1995)	수학	최재경 (포항공대)	비유클리드 공간 속의 극소곡면 등주부등식 (세계 수학계의 난제인 등주부등식을 증명)	대상, 장려상 구분폐지
	물리	임지순 (서울대)	반도체 초격자의 전자구조에 관한 이론연구 (차세대 반도체 초격자의 변형 전자구조를 제시)	
	화학	김명수 (서울대)	이온분해 반응론과 동력학 (물질의 이온분해 과정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 및 실험법을 개발)	
	생명	김유삼 (연세대)	식물미생물상호작용에 Malonate대사의 중요성 (식물생체내의 새로운 효소발견 및 대사경로 모델을 제시)	
제6회 (1997)	물리	오세정 (서울대)	내각준위 광전자 분광법을 이용한 무거운 3d 전이원소 화합물의 전자구조 연구	
	화학	이 은 (서울대)	닥토멜라인의 전합성	
제7회 (1999)	물리	장기주 (KAIST)	탄화실리콘의 구조 및 전자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화학	최진호 (서울대)	초전도체와 유기물 층상혼성물질 개발 및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생명	조무제 (경상대)	칼모둘리아성체에 의해 매개되는 식물생체방어 신호전달과정 및 병저항성 형질전환식물체 개발	
제8회 (2001)	수학	황준목 (고등과학원)	복소다양체 사이에 정의된 사상의 불변형성에 대한 연구	
	물리	최무영 (서울대)	미세한 전자계 및 초전도계에서 양자 결맞음과 요동현상 연구	
	화학	김기문 (포항공대)	자기조립과 배위화학을 이용한 초분자 구조물의 합성	
	생명	최의주 (고려대)	세포성장억제 인자에 의한 세포 스트레스 신호전달계의 조절기작 규명	
제9회 (2003)	수학	채동호 (서울대)	수리물리에서 파생한 편미분방정식의 이론적 연구	
	물리	노태원 (서울대)	강유전체 피로 현상 이해와 F램 신소재 BLT 박막의 개발	
	화학	김광수 (포항공대)	분자간 작용력 및 분자뭉치기	
	생명	김성훈 (서울대)	단백질합성효소 ARS와 결합 인자들의 세포조절 네트워크 연구	

역대 수상자 현황 _ 한국 과학상 역대 수상자

구분	분야	성명	수상업적명(주요업적)	비고
제 10 회 (2005)	수학	강석진 (서울대)	아핀 양자군의 결정기저와 Young wall의 조합론	
	물리	이성익 (포항공대)	새로운 초전도체 개발 및 초전도의 새로운 개념 확립	
	화학	김동호 (연세대)	인공 생리활성 분자계의 에너지 및 전자 전달 현상 규명	
	생명	남홍길 (포항공대)	식물이 빛의 량과 밤낮의 길이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 하는 기작에 대한 분자 수준의 해명	
제 11 회 (2007)	수학	김종해 (고등과학원)	양의 표수에서 K3곡면의 유한 사교 동형군	
	물리	이수종 (서울대)	비드시터초중력의 거대 초대칭 끈과 무한색소 게이지 이론의 무거운 리프 동등성 발견	
	화학	백명현 (서울대)	금속과 유기분자의 자기 조립으로 형성된 기능성 초분자 체에 관한 연구	
	생명	오병하 (포항공대)	운반소낭 결합인자인 다중복합체 TRAPP I의 분자 구조와 작용기작 규명	
제 12 회 (2009)	수학	강현배 (인하대)	폴라-세고 예측과 예술비 예측의 해결	
	물리	이용희 (KAIST)	전류펌핑 단세포 광결정 레이저	
	화학	윤경병 (서강대)	기능성 물질 창출을 위한 제올라이트 마이크로 결정의 조직화	
	생명	오우택 (서울대)	통증발현연구	
제 13 회 (2011)	수학	박종일 (서울대)	$b_2=1$ 과 $c_2=2$ 인 단순연결된 4차원 사교다양체의 발견	
	물리	최기운 (KAIST)	새로운 형태의 초대칭 깨어짐 발견과 초대칭입자 질량패턴 규명	
	생명	노정혜 (서울대)	세균이 항산화 스트레스 반응	

구분	분야	성명	수상업적명(주요업적)	비고
제 14 회 (2013)	물리	장석복 (KAIST)	탄소-수소결합 활성화과정 메커니즘 규명 및 이를 이용한 새로운 촉매유기반응의 개발	
	화학	김대식 (서울대)	밀리미터 파의 나노미터 집속	
	생명과학	서영준 (서울대)	발암기전 및 화학암예방	
제 15 회 (2015)	물리	염한웅 (POSTECH)	금속원자선의 특이상전이와 카이랄솔리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원자선 전자물성 분야를 개척	
	화학	남원우 (이화여대)	산소화 효소 중간체의 구조 및 화학적 성질 규명	
	수학	이영조 (서울대)	다단계 일반화 선형모형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 HGLM)의 창시	
제 16 회 (2016)	물리	박제근 (서울대)	다중강성 육방망간산화물의 거대 자기-격자 결합	
	생명	임대식 (KAIST)	Hippo 신호전달회로 연구	

역대 수상자 현황 _ 한국 공학상 역대 수상자

구분	분야	성명	수상과제명(주요업적)	비고
제1회 (1994)	제 1 군 (전자공학)	조장희 (KAIST)	4마이크론 해상도의 핵자기공명 현미경에 관한 연구 (생물체 내수관측등 4마이크론 핵자기 공명 현미경 이론 확립)	
	제 2 군 (기계공학)	민계식 (현대중)	장거리 고속 수중의 쌍동 여객선의 설계와 건조 (고속 수중날개 쌍동익 여객선의 최적 설계 이론 수립)	
	제 3 군 (화학공학)	권영수 (KAIST)	지배력 극점을 이용한 PID제어기의 개량된 조정방법 (CFC관련 물질 제조공정의 최적설계 및 운전조건 원리 제시)	
	제 4 군 (건설공학)	최창근 (KAIST)	사변형 민드린 평면요소에서 감차적분과 비적합 변위모드의 혼합사용 (건설구조물의 복잡한 구조해석을 위한 첨단 범용이론 프로그램 개발)	
제2회 (1996)	제 3 군 (화학공학)	장호남 (KAIST)	막 재순환 반응기에서 재조합 대장균의 고농도 배양	
제3회 (1998)	제 2 군 (전기공학)	한송엽 (서울대)	전기기기 최적 형상 설계를 위한 설계 민감도 해석에 관한 연구	
	제 3 군 (화학공학)	이화영 (서울대)	헤테로폴리산을 이용한 고분자 촉매막반응기 및 고분자 혼성필름 촉매의 특성연구	
제4회 (2000)	제 2 군 (재료공학)	이재영 (과학기술원)	순철내 트랩된 수소에 대한 열분석	
	제 3 군 (화학공학)	김성철 (과학기술원)	상호 침투하는 고분자 구조(IPN)에 대한 연구	
제5회 (2002)	제 2 군 (재료공학)	남수우 (KAIST)	새로운 재료강도학 이론을 적용한 최첨단 비열처리형 압출용 알루미늄합금 발명	
	제 3 군 (화학공학)	김상돈 (KAIST)	삼상유동층 반응기에서 열 및 물질전달	
제6회 (2004)	제 1 군 (전자공학)	현동식 (한양대)	전력변환시스템의 고압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제 2 군 (기계공학)	곽병만 (KAIST)	최적설계 연구 및 CAD기반 통합최적 설계 프로그램 개발	
	제 3 군 (화학공학)	우성일 (KAIST)	상용 석유화학 및 반도체 공정 반응 특성 최적화	
	제 4 군 (토목공학)	홍성완 (건기원)	첨단기법을 이용한 터널정보화 설계/시공 기술 개발	

구분	분야	성명	수상과제명(주요업적)	비고
제7회 (2006)	제 1 군 (전자공학)	한민구 (서울대)	평판디스플레이 구동용 다결정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	
	제 2 군 (기계공학)	이종원 (KAIST)	회전체의 복소 모드 해석 및 방향성 스펙트럼 기술	
	제 3 군 (섬유공학)	이화섭 (KAIST)	리오셀 신소재 기초 및 산업화 연구	
제8회 (2008)	제 1 군 (전자공학)	나정웅 (KAIST)	시추공 연속 전자파 레이더의 개발 및 땅굴 토모그램의 역산란 이론 개척	
	제 2 군 (산업공학)	최병규 (KAIST)	컴퓨터원용제조(CAM)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	
제9회 (2010)	제 3 군 (식품공학)	박관화 (서울대)	기능성 천연물 및 식품 소재 합성 탄수화물 효소의 개발	
	제 1 군 (통신공학)	이광복 (서울대)	차세대 초고속 이동통신 기술 연구	
제10회 (2012)	제 2 군 (재료공학)	강석중 (KAIST)	다결정 소재에서 입계구조에 따른 미세조직 발현 관찰과 원리 제시	
	제 4 군 (건축공학)	신성우 (한양대)	건축물 전 생애 CO2 저감 녹색 건축기술	
제11회 (2014)	제 1 군 (컴퓨터 정보)	황준목 (고등과학원)	복소다양체 사이에 정의된 사상의 불변형성에 대한 연구	
	제 2 군 (기계공학)	최무영 (서울대)	미세한 전자계 및 초전도계에서 양자 결맞음과 요동현상 연구	
	제 4 군 (환경공학)	김기문 (포항공대)	자기조립과 배위화학을 이용한 초분자 구조물의 합성	
제12회 (2012)	제 1 군 (통신공학)	방승찬 (ETRI)	2세대 CDMA, 3세대 WCDMA, 4세대 이동통신 표준 및 시스템개발분야 국가 기술력 제고 공로	
	제 2 군 (재료공학)	이정용 (KAIST)	그래핀 액상 셀을 이용한 액체를 포함하는 시료의 전자현미경 관찰 기술 개발	
	제 3 군 (화학공학)	남인식 (포항공대)	선박용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제12회 (2012)	제 1 군 (전기전자)	문건우 (KAIST)	데이터 센터용 전원장치, 무선전력전송, 배터리 관리 시스템, 디스플레이 전원장치의 초고효율 및 초고밀도 기술 개발	

역대 수상자 현황 _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역대 수상자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1997.04	이종민	43	남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신소재공학과	원자력용 레이저 분광학 기술개발	2분과
1997.05	김준주	44	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의학	난치성 혈액중양질환자의 골수이식 기술 확립	5분과
1997.06	정수원	44	남	월텍	조선해양공학	조선산업의 용접공법 및 자동화 제조공법 연구개발	3분과
1997.07	조순행	50	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리공정연구센터	화학	에너지 절약형 압력흡착 가스분리 신공정 개발	4분과
1997.08	이철훈	56	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교실	인간유전학	레지오넬라균 살균 무독성 신물질 개발	5분과
1997.09	양현승	53	남	KAIST	전자전신학과	자능형 이동로봇 개발	2분과
1997.10	이경광	50	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재생의학연구센터	농학부	락토파린을 대량 생산하는 형질전환 젖소 개발	5분과
1997.11	박용수	49	남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초나노성 슈퍼스테인 레스강 개발 실용화	3분과
1997.12	우종수	67	남	한미약품(주) 중앙연구소 제제연구센터	약학	면역억제제 싸이클로스포린제제 국내 최초개발	5분과
1998.01	박종철	43	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물리연구실	초전도체물리	고온 초전도체 소재 개발	1분과
1998.02	윤인섭	49	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MOSA 라는 화학공장의 조업용 동적모사기 개발	4분과
1998.03	도무희	44	남	(주)온바이오	농화학	고순도 폴리덱스트로의 제조 공정 국산화	5분과
1998.04	정일남	43	남	KIST	재료부	규소화합물에 대한 학술적 성과와 국내연구 수준 향상	1분과
1998.05	황규영	51	남	KAIST	전산학과	객체지향성 멀티미디어 '오디세우스'를 개발 상용화	2분과
1998.06	김주한	55	남	(주)터보테크기술연구소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작기계 산화/밀링용 CNC 컨트롤러 장치 개발	3분과
1998.07	유성은	50	남	한국화학연구원 생체기능소재물질개발사업단	화학	고활압제 2종의 신약품을 국내최초로 개발 상업화	4분과
1998.08	이진수	53	남	포항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철강산업의 후면제어 및 검출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	2분과
1998.09	이정선	57	남	현대자동차(주) 제품개발연구소	울산엔진 설계부	1000cc이하 경차용 가솔린엔진을 독자 개발	3분과
1998.10	배규진	55	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목연구부	타일기술의 신기술, 신공법 개발	6분과
1998.11	정재창	57	남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MPEG2 국제표준에 채택된 요소기술 개발	2분과
1998.12	윤종은	48	남	만도공조(주) 위니아 사업본부	기계공학과	세계 최초의 김치 숙성기술 및 보관기술 개발	3분과
1999.01	강성규	48	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부	유체공학	페가스순환형 촉매연소 건조기 개발	4분과
1999.02	강현	55	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Cs+을 사용한 표면분석법 연구	1분과
1999.03	이승호	64	남	버추얼미디어	전산학과	그룹웨어 한도오피스 개발 상용화	2분과
1999.04	김희영	54	남	한국화학연구원 마이크로 화학기술연구팀	화학공학과	반도체용 다결정실리콘 제조 공정 개발	4분과
1999.05	황우석	53	남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체세포핵이식기법에 의한 고능력 젖소 복제 생산	5분과
1999.06	이형우	66	남	(주)마이다스 IT	기계설계학과	토목건축분야 구조해석 및 최적설계용 프로그램 개발	6분과
1999.07	김동호	57	남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초고속 현상의 규명	1분과
1999.08	김형민	55	남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알레르기 반응의 비만세포 변형성인자 역할 규명	5분과
1999.09	송원표	남	남	효성중공업연구소 창원분소 전력팀 차단기 파트	전기공학	765kVA급 초고압 대용량 가스절연 개폐장치 개발	2분과
1999.10	김국현	57	남	한국전자연구원 원격계측 제어시스템 개발사업단	전기공학과	화력 및 원자력발전용 발전기 여자시스템 개발	2분과
1999.11	신성철	52	남	KAIST 자연과학부	물리학과	고밀도 정보저장 나노자성 다층박층 신소재 개발	21분과
1999.12	김대기	56	남	(주)인투젠	약학	제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 설플라 개발	5분과
2000.01	이영욱	61	남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	우리 은하의 형성과 진화과정 규명	1분과
2000.02	오태광	54	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유전체연구실	미생물학	환경오염예방 신규 효소 피타이제 개발	5분과
2000.03	이기원	48	남	삼성전자(주) CTO 전략실	전기공학	System-on-chip ASIC 기반 기술 개발	2분과
2000.04	박용기	51	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기 표준부 초전도그룹	재료공학	초전도 SQUID를 이용한 심지도 측정장치 개발	1분과
2000.05	노태원	57	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F램용 신소재 박막 개발	3분과
2000.06	홍창용	58	남	LG화학기술연구원 생명과학부 신약연구소	유기화학	세계적 신약 차세대항생제 'Factive' 개발	5분과
2000.07	박노상	48	남	한국화학연구원 의학화학센터	화학	비마우성 진통제 연구 개발	5분과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2000.08	김기문	54	남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재료과학부	키랄 다공성 결정물질 개발	1분과
2000.09	오준남	63	남	(주)만도 중앙연구소	전자공학과	전자제어 브레이크 장치 개발	2분과
2000.10	김은규	57	남	KIST 시스템연구부	반도체물리학	반도체 양자소자 및 단일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1분과
2000.11	남홍길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융합생명공학부	광주기적 개화시계 조절 유전자의 분리 및 성질 규명	5분과
2000.12	김중민	56	남	삼성종합기술원 전자방출원연구단	전기공학과	전자방출소자를 이용한 대면적디스플레이 영상소자 개발	2분과
2001.01	백영준	59	남	KIST 미래기술연구본부	재료공학과	직류 플라즈마를 응용한 다이아몬드웨이퍼 합성기술	3분과
2001.02	유한일	50	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제로(0) 열전력 세라믹 신소재 발견	3분과
2001.03	이상엽	64	남	KAIST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광학적으로 순수한 정밀화학물질 군 생산기술 개발	4분과
2001.04	이현철	49	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당뇨병학	당뇨병 유전자 치료법 개발	5분과
2001.05	이종욱	49	남	(주)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약학	새로운 위궤양 치료제 YH1885의 개발	5분과
2001.06	문대원	52	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표면그룹	표면화학	초박막 개면 정밀분석 기술 개발	1분과
2001.07	김낙산	남	남	현대자동차(주) 연구개발본부 승용디젤엔진설계팀	기계설계학과	초저공해 자연비 승용디젤엔진 개발	3분과
2001.08	유홍	55	남	KAIST 자연과학대학	화학	메조다공성 실리카 결정물질의 합성 및 구조결정	1분과
2001.09	류성언	62	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수위차 단백질구조연구단	화학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기능 스위치 기작 규명	5분과
2001.10	강용수	53	남	KIST 축진수송분리막 연구단	화학공학과	환경 친화성 에너지 절약형 분리막 개발	4분과
2001.11	오병하	61	남	KAIST	생명과학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위장 내 생존 기작 규명	5분과
2001.12	구본경	67	남	만도 중앙(연) 제동시스템팀	전자공학과	자동차용 구동력 제어장치 개발	3분과
2002.01	송총희	55	남	KIST 생체과학연구부	화학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청정 광학활성화합물 제조기술	1분과
2002.02	이성익	52	남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이봉소 마그네슘 초전도 박막 개발	1분과
2002.03	박종모	57	남	금호생명 환경과학연구소	생물학과	빛에 의한 식물생장 조절 원리의 규명	5분과
2002.04	강대임	58	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질량 표준부 나노표면그룹	기계공학과	힘표준기 정확도 절대평가 기술 개발	3분과
2002.05	남창희	57	남	KAIST 자연대학	물리학과	펄토초 테라와트 레이저를 이용한 결맞는 X-선 발생	1분과
2002.06	이원호	55	남	LG화학기술연구원 고분자연구부 화학공정그룹	화학공학과	이크릴산 제조 촉매 상업화	4분과
2002.07	김대준	52	남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지르코니아 바이오 세라믹스의 개발	3분과
2002.08	현택환	64	남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크기분리과정 없이 균일하고 결정성이 우수한 자기 나노입자 대량 생산 기술 개발	4분과
2002.09	한옥희	60	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 /고체시료분석팀	화학	고체 핵자기 공명을 사용한 차원소 위차측정법 개발	1분과
2002.10	박천홍	60	남	한국기계연구원 지능형정밀기계연구부	기계공학	초정밀 위치결정용 stage의 운동정밀도 향상기술 개발	3분과
2002.11	배석철	58	남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유전자발현생화학	유전억제 유전자의 발견	5분과
2002.12	제정호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엑스선영상연구단	재료공학과	고해상 및 실시간 X선 투시 Microradiology 기술개발	3분과
2003.01	김재희	58	남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시스템연구실	생산공학과	원자로 자동 탐상 신기술 개발	3분과
2003.02	김규원	52	남	서울대학교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셀 용량 분석 및	2분과
2003.03	김형주	63	남	한국바이오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생물공학과	원천기술인 무매개체형 미생물연료전지를 이용한 BOD 계측기 개발	6분과
2003.04	김중수	65	남	한국전문연구원 응용전문연구부	천문학과	거대분자운의 형성에 관한 이론 연구	1분과
2003.05	하남희	58	남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전공	대자기 저항 재료에서 reentrant spin glass 현상 최초로 발견	1분과
2003.06	김선창	56	남	KAIST	생물학과	생물산업용 인공근주 개발	5분과
2003.07	한장선	60	남	(주)LG화학 기술 연구원/기능수지 연구소	화학공학	새로운 유화 중합 방법을 도입한 고효율 비인더의 제조 및 상업화	4분과
2003.08	안치득	56	남	ETRI	디지털전자공학	멀티미디어 및 디지털 방송 분야 핵심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기술 확보	2분과
2003.09	김성훈	58	남	서울대학교		생물산업용 인공근주 개발	5분과

역대 수상자 현황 _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역대 수상자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2003.10	김영주		남	삼성전자(주) CTO전략실 소프트웨어센터	계산통계학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셀 용량 분석 및 무선망 설계 기술 개발	2분과
2003.11	윤석진	59	남	KIST	재료연구부	나노위치제어용 압전초음파 모터개발	3분과
2003.12	김진근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특성온도 범위에서 나노구조를 가지는 블록공중합체 개발	4분과
2004.01	박영욱	53	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부	집진필터 고효율 및 복합기능 부여기술	6분과
2004.02	오승훈	61	남	SK(주) 정밀화학연구팀	화학공학과	트랜스 알킬화 촉매 상용화	4분과
2004.03	신희섭	50	남	KIST	신경과학센터	의식 차단 유전자외 통증 억제 메카니즘 규명	5분과
2004.04	김충선	53	남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우주 속 존재하는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탐구	1분과
2004.05	성단근	52	남	KAIST	전자전신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초내식성 슈퍼스테인 레스강 개발 실용화	3분과
2004.06	김진수	64	남	(주)툴젠	화학부	유전자 조절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	5분과
2004.07	정광화	48	여	대전시 충남대학교	반도체물리학	72개 항목의 진공특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진공기술 정보 보급	3분과
2004.08	최수경	57	여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물리학과	벨실험에서 새로운 입자-X(3872)발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1분과
2004.09	박준택	49	남	KAIST	화학과	플라센 - 금속용지화합물의 합성 반응성 및 전기화학적 성질 규명	1분과
2004.10	박용조	62	남	삼성종합기술원 Photonics Lab	금속공학과	차세대 광기록 기기용 405nm파장의 45mW Laser Diode 개발	2분과
2004.11	안지환	64	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소재연구부	광물처리공학	석회석을 원료로 한 고성능 침강성 탄산칼슘 제조 기술 개발	6분과
2004.12	이상열	57	남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퍼옥시데옥신 단백질의 두 가지 기능조절에 의한 생체방어 기전연구	2분과
2005.01	박수진	60	남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화학과	LNG 선박용 초저온형 접착실링제 기술개발	4분과
2005.02	이용희	55	남	KAIST	물리학과	전류구동 단색포 광자결정 레이저	1분과
2005.03	이기용		남	삼성에스디아이(주) 중앙연구소 개발팀	재료역학과	세계최초 유기EL 디스플레이용 저온폴리 실리콘 신 결정화 기술개발 및 이를 적용한 유기EL 디스플레이 개발	4분과
2005.04	강성철	67	남	KIST 지능로봇센터	로봇공학	신개념 힘주행 메카니즘을 갖는 위험작업 로봇플래즈 (ROBHAZ) 개발 및 실용화	4분과
2005.05	한탁돈	55	남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	컬러기반 이미지 센서 연구	2분과
2005.06	안규홍	52	남	KIST 환경공정연구부	토목공학과	상수원 보전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개발	6분과
2005.07	남원우	60	남	이화여자대학교	나노과학부/화학전공	산소화 효소의 중간체 생성 규명	1분과
2005.08	백용기	53	남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생명과학과	선충의 장수유도 다우몬의 최초 발견과 합성방법 개발	5분과
2005.09	이훈	51	남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물로 이루어진 얼음입자내의 수소자장 현상 규명	4분과
2005.10	김진석	58	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질표준부	화학과	공기조성 오류 발견으로 공기밀도를 재정의	1분과
2005.11	박재근	59	남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차세대 정보통신 반도체용 고성능 나노 SOI 기술개발	1분과
2005.12	임기홍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단일 및 다중반송파 통신방식 표준기술 개발	2분과
2006.01	우정원	57	남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화학·나노과학전공	3차원 광자결정의 제조와 액정을 이용한 밴드갭의 조절	1분과
2006.02	권식철	51	남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신소재공학과	장축 고압 실린더 내면의 내마모 코팅기술 개발	3분과
2006.03	이명수	60	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Rigid-Flexible Macrocycle 분자들의 자기 조립을 통한 초분자 튜브의 형성	3분과
2006.04	김경규	66	남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DNA의 B형/Z형 연결부위 삼차원 구조 규명	5분과
2006.05	김진근	52	남	KAIST	건설·환경공학과	콘크리트 균열 제어 평가 시스템 개발	6분과
2006.06	서영준	57	남	서울대학교	분자화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장축 고압 실린더 내면의 내마모 코팅기술 개발	3분과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2006.07	최양규	66	남	KAIST	전기전자과	세계 최소형 3nm급 나노전자소자(FinFET) 개발	2분과
2006.08	염한웅	66	남	포항공과대학교 원자선 원자막 연구단	물리학과	금속 원자선의 특이 산란이 세계 최초 발견	1분과
2006.09	김중해	57	남	고등과학원(한국과학기술원부설)	수학부	K3 곡면의 유한 대칭군의 분류	1분과
2006.10	이중호	66	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 컴퓨터공학부	고집적/고성능 3차원 CMOS 소자	2분과
2006.11	하창식	56	남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고도로 규칙성있는 큰 나노기공 구조의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재료 개발	6분과
2006.12	정중경	63	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파킨슨병의 분자메카니즘 규명	5분과
2007.01	박석순	57	남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팔당호 수리 및 수질 특성 규명을 위한 모델 연구	6분과
2007.02	홍성민	62	남	인하대학교	생명해양과학부	빙하연구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 기반 기술 개발	1분과
2007.03	안광석	62	남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면역시스템이 병든 세포만을 색출하여 공격하는 원리 규명	5분과
2007.04	이문호	54	남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재료과학부	초저유전 고분자 나노소재 및 방사광 X-선 나노분석 기술 개발	4분과
2007.05	신성우	51	남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지속가능한 초고층건축을 구현시스템 개발	6분과
2007.06	이일항	47	남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광(光)인쇄회로기판(O-PCB)" 개발	2분과
2007.07	정용환	57	남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노심재료개발팀	재료공학과	고성능 지르코늄 합금(HANAT Alloy) 개발	3분과
2007.08	서만길	52	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풍수명리과	성장 호르몬 신호 조절 과정의 핵심 매커니즘 규명	5분과
2007.09	한정호	64	남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새로운 방법을 통한 외계행성 발견	1분과
2007.10	김환규	58	남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	고효율 광증폭 나노소재의 신합성법 개발 및 원리규명을 위한 분광학 연구	1분과
2007.11	선우명호	53	남	한양대학교 제어공학자동차전자제어	미래자동차공학과	네트워크기반 차세대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설계 기술	3분과
2007.12	지선하	63	남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	비만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	5분과
2008.01	이문호	45	남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세계 최초 Jacket 행렬 발견과 이동통신 최적코드 설계	2분과
2008.02	김선기	60	남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임흑물질 탐색실험	1분과
2008.03	김성준	58	남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철강학과	자동차용 첨단 고강도 철강재료 및 일체화 성형 부품 개발	3분과
2008.04	이지오	65	남	KAIST	나노과학기술학과	TLR 수용체 구조규명	5분과
2008.05	김병현	55	남	포항공과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새로운 핵산 분석을 위한 무소광체 분자 비콘 개발	4분과
2008.06	오병권	68	남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n-정규형식과 n-보편형식에 대한 연구	1분과
2008.07	이원재	67	남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장내세균 공생원리 규명	5분과
2008.08	이응숙	58	남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기계연구본부	기계공학과	대면적 나노임프린트 공정 및 응용기술개발	3분과
2008.09	박남규	60	남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4분과
2008.10	안순일	66	남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노의 변동 메카니즘 규명	1분과
2008.11	박광성	60	남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의학과	이쿠아포린 수분이동통로에 의한 질운활작용 기전	5분과
2008.12	백은규	64	남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에너지공학과	장축 고압 실린더 내면의 내마모 코팅기술 개발	3분과
2009.01	원종필	64	남	건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복합재료의 개발 및 적용	6분과
2009.02	유범재	63	남	KIST 인자로봇연구단	인자로봇연구단	전신운동하는 실시간 원격제어 네트워크 기반 인공형 로봇미루개발	2분과
2009.03	오우택	55	남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장축 고압 실린더 내면의 내마모 코팅기술 개발	3분과
2009.04	정태현	53	남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고분자의 정밀 분리/분석방법 개발	4분과
2009.05	이병택	62	남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세라믹 미세조직 제어 및 다중압출 공정 개발	3분과

역대 수상자 현황 _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역대 수상자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2009.06	김상국	67	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자기소용돌이 동역학 정립 및 스피어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	3분과
2009.07	김영준	62	남	연세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유전자 발현의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전	5분과
2009.08	이필호	61	남	강원대학교	유기화학	인통 금속을 이용한 새로운 유기반응의 개발	4분과
2009.09	이병호	64	남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입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광학 시스템 및 영상처리 기술의 연구	2분과
2009.10	김승우	55	남	KAIST	기계항공시스템학부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공명 기반 극자외선 레이저의 개발	3분과
2009.11	이용남	64	남	서강대학교	수학과	기하중수가 0인 단순연결된 일반형 복소곡면의 건설	1분과
2009.12	조민행	65	남	고려대학교	화학과	광학이성질체 극초단 분광학 연구	4분과
2010.01	양근혁	69	남	경기대학교	플랜트 건축공학과	시멘트 없는 친환경 콘크리트의 개발	6분과
2010.02	김상건	59	남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자형간 및 자형간염 유발 기전과 새로운 치료약물군 연구	5분과
2010.03	함병승	64	남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부	장시간 양자메모리 프로토콜 개발	2분과
2010.04	조길원	56	남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자극응답성 기능성 나노표면 및 유기인쇄전자소자 개발	4분과
2010.05	정하웅	68	남	KAIST	물리학과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의 응용	1분과
2010.06	이택희	69	남	광주과학기술원	물리천문학부	분자 트랜지스터 소자 개발	3분과
2010.07	장정식	55	남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전도성 고분자 나노재료 기반 고감응 센서 제조기술 개발	4분과
2010.08	정준연	65	남	KIST 융복합기술본부	금속공학과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스핀트랜지스터 소자 개발	2분과
2010.09	이현우	69	남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Interdimensional universality of dynamic interfaces	4분과
2010.10	한창수	65	남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기계연구본부	기계공학부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리기술 개발	3분과
2010.11	고재중	50	남	고려대학교	소재화학과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유기염료 개발	3분과
2010.12	유희준	60	남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인간의 뇌 구조를 모사한 물체인식 프로세서 개발	2분과
2011.01	이재우	67	남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구상성단과 우리 은하계 형성과정 규명	1분과
2011.02	강성호	63	남	연세대학교	전기및전자공학부	효과적인 메모리의 테스트 및 자체 수리에 관한 연구	2분과
2011.03	이상성	55	남	경상대학교	화학과	단결정간 구조변환을 통해 광발광이 조절되는 지능형 나노초분자 개발	4분과
2011.04	이창준	66	남	KIST	화학과	뇌의 비신경세포에서의 신호전달 물질 분비기작 규명	5분과
2011.05	차재춘	71	남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고리의 4차원 변형에 대한 불변량 이론	1분과
2011.06	김태환	57	남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소자 개발	2분과
2011.07	한운봉	55	남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금속산화물 나노구조 제조 및 화학/바이오센서 응용기술 개발	4분과
2011.08	고규영	57	남	KAIST	생명과학부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이중혈관신생차단제" 개발	5분과
2011.09	김은성	71	남	KAIST	물리학과	초고체 현상의 발견	1분과
2011.10	이학주	59	남	한국기계연구원	기계공학부	10 nm 급 나노측정 원천기술 개발	3분과
2011.11	윤주영	64	남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생명분자과학부	APT에 선택적인 형광화학센서에 대한 연구	4분과
2011.12	최준호	53	남	KAIST	생명과학부	The novel gene twenty-four defines a critical translation step in the Drosophila clock. Nature [2011] 470, 399-403.	3분과
2012.01	박배호	71	남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Friction Anisotropy-Driven Domain Imaging on Exfoliated Monolayer Graphene	4분과
2012.02	이성환	62	남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컴퓨터 비전 기반 휴먼 동작 자동 분석 및 인식 기술 개발	4분과
2012.03	박찬범	69	남	KAIST	신소재공학과	나노소재 기반 인공광합성 기술개발	3분과
2012.04	노철언	59	남	인하대학교	화학과	새로운 대기입자 측정 분석 기술의 개발	6분과
2012.05	이명균	57	남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방랑하는 구상성단의 거대구조 발견	1분과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2012.06	이상훈	60	남	고려대학교	전기공학부	물질 및 구조의 마이크로 단위 코딩 가능한 극세사 개발과 재생의학의 활용 가능 기술 개발	3분과
2012.07	정희태	64	남	KAIST	화학생명공학과	그라핀 물성향상 원천기술 개발	4분과
2012.08	이준호	62	남	서울대학교	생명공학부	종의 확산 과정에 대한 세포수준 규명 연구	5분과
2012.09	이기암	69	남	서울대학교	수리공학부	완전 비선형 방정식에 대한 연구	1분과
2012.10	서갑양	72	남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풍뎅이 날개의 짐금장치를 모사한 고강도 피부부착센서	3분과
2012.11	신인재	62	남	연세대학교	화학과	단백질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생기능성 유기분자 발굴 및 응용	4분과
2012.12	윤여준	69	남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생명분자과학부	항생제 카니마이신 생합성 과정 세계 최초 규명 및 다제내성 슈퍼세균 치료용 신규 항생제 후보물질 개발	5분과
2013.01	김선국	60	남	경희대학교	건축학부	고아동/유연 2D 나노판상 박막트랜지스터 개발	2분과
2013.02	이정용	51	남	KAIST	신소재공학과	액체 속 결정 성장의 실시간 원자 단위 분석 기술 개발	3분과
2013.03	김종승	63	남	고려대학교	화학과	질병 진단과 치료를 겸비한 새로운 약물전달 복합체의 개발	4분과
2013.04	윤홍덕	64	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줄기세포 전분화성 전사네트워크 조절 기전 규명	5분과
2013.05	강병남	59	남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Explosive percolation transition (폭발적 여과전이)	4분과
2013.06	이중희	60	남	전북대학교	융합공학과	고전도성 나노복합재료의 친환경적인 제조 기술 개발	3분과
2013.07	이태우	62	남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그라핀 전극을 이용한 고효율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개발	4분과
2013.08	황선욱	71	남	고려대학교	의과학과	뇌신경의 찢았 수용체 단백질 최초 발견	5분과
2013.09	김맹기	65	남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인류기원 블랙카본이 히말라야/티벳고원의 빙하와 적설 Melting 가속화에 미치는 영향 규명	1분과
2013.10	김동훈	68	남	한국기계연구원	전자공학과	무인화 가공 최적화 및 자율대응 원천기반 요소기술 개발	3분과
2013.11	김우식	66	남	경희대학교	의학과	테일러 와류를 이용한 신개념 결정화기술	4분과
2013.12	이승훈	71	남	서울대학교병원	의학과	뇌졸중의 새로운 치료제인 세리아 나노입자 개발	5분과
2014.01	이흥노	66	남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부호이론적 다중 압축 센싱 기법을 이용한 고해상도 정보 획득 기술 실현	1분과
2014.02	이중람	58	남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플렉서블 전자소자용 기판 기술 개발	3분과
2014.03	김진영	71	남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화학공학부	표면플라즈몬 공명 효과를 통한 고분자 광전자소자의 효율 향상 연구 논문을 Nature Photonics 지에 게재	4분과
2014.04	인지훈	66	남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기온 변화를 감지하는 식물의 온도계 단백질 규명	5분과
2014.05	김영훈	71	남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리만곡면의 모듈라이 공간과 불변량	1분과
2014.06	김상욱	66	남	KAIST	컴퓨터공학부	화학적으로 도핑된 탄소소재 분자조립 나노기술	3분과
2014.07	박승범	70	남	서울대학교	화학부	독창적 형광광검역인 Seoul-Fluor의 양자효율 조절기술	4분과
2014.08	전창수	60	남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원인 규명	5분과
2014.09	구본철	56	남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생명체의 필수원소인 인(P)의 생성과 기원을 확인	1분과
2014.10	김중만	64	남	한양대학교	나노공과대학	땀구멍 지도를 이용한 새로운 지문분석법 개발	4분과
2014.11	황철상	70	남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공학부	N-말단 메티오닌 단백질 분해 신호와 분해 경로 발견	5분과
2014.12	장윤석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환경분석화학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처리 및 나노물질의 환경생태위해성 규명	5분과
2015.01	조용훈	66	남	KAIST	물리학과	나노 구조를 이용한 신개념 포토닉스 광원 및 광제어 기술	1분과
2015.02	조광현	71	남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IT 융합연구를 통한 신개념의 암세포 사멸 제어기술 개발	1분과
2015.03	신세현	64	남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Separation of platelets from whole blood using standing surface acoustic waves in a microchannel	3분과
2015.04	김진현	71	여	KIST	신경과	뇌 신경망맵핑 신기술(mGRASP) 개발을 통한 3차원 뇌지도 제작	3분과

역대 수상자 현황 _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역대 수상자

수상월	성명	생년	성별	소속기관	전공(학과)	공적내용	분과
2015.05	이기택	65	남	포항공과대학교	화학해양	대기 질소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규명	1분과
2015.06	김성웅	76	남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고밀도 입계 전위의 형성 및 전자·열전달 현상 규명을 통한 고효율 열전소재 개발	5분과
2015.07	이창희	64	남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세계 최고 효율 삼원색 양자점발광다이오드 개발	2분과
2015.08	이상준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미지의 생체유동현상 규명 및 핵심기반 기술 개발	3분과
2015.09	하헌필	62	남	KIST	재료공학부	광역온도에서 작동 가능한 고효율/내구성을 갖는 저온탈질 촉매	4분과
2015.10	김용희	59	남	한양대학교	약학과	비만 및 비만유래 대사증후군 치료용 지방세포 표적 유전자 전달시스템 개발	6분과
2015.11	염영일	56	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자유전학전공	젓산에 의한 세포신호전달체계 규명	5분과
2015.12	이태억	58	남	KAIST	시스템공학과	반도체 제조공정장비 운영 최적화 및 이산시간시스템 스케줄링 이론 및 방법 개발	1분과
2016.01	국중성	76	남	포항공대	기후학	최근 북극 및 중위도 지역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1분과
2016.02	김현재	68	남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평판 디스플레이를 위한 백플레인 핵심 기술 개발	2분과
2016.03	김근수	82	남	포항공대	물리학과	2차원 물질의 밴드갭 제어 및 비등방적 디락상태 발견	1분과
2016.04	함시현	69	여	숙명여대	화학과	질병 관련 단백질의 응집연구 선도	4분과
2016.05	조동우	58	남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인체 내 손상된 조직/장기의 재생을 위한 통합형 3D 조직/장기 프린팅 기술 개발	2분과
2016.06	심태보	68	남	KIST	의약화학과	기술이전(글로벌핵심표적항암제 후보물질 도출)	5분과
2016.07	변재형	66	남	KAIST	수리과학과	집적해의 구성을 위한 변분법의 개발	1분과
2016.08	한욱신	72	남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세계 최고 효율의 빅 그래프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2분과
2016.09	노용영	74	남	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소재 개발	2분과
2016.10	김동표	57	남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마이크로초 합성화학 제어기술 개발	4분과
2016.11	조명호	62	남	서울대학교	기계항공 공학부	광반응 고분자 소재의 멀티스케일해석 원천기술 개발	3분과
2016.12	김정훈	66	남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Dopamine Regulation of Amygdala Inhibitory Circuits for Expression of Learned Fear	3분과
2017.01	박대성	62	남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Pathway-based approach using hierarchical components of collapsed rare variants	3분과
2017.02	정종화	65	남	경상대학교	화학과	자기조립에 의한 지능형 초분자 젤의 개발	4분과
2017.03	박남규	65	남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세계 최초 하향설계식 만능형 메타물질/메타표면 개발	2분과
2017.04	허원도	68	남	KAIST	생명과학과	생체 내 칼슘이온을 제어하는 광유전학 원천기술개발	5분과
2017.05	이중섭	68	남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지반공학적 지구물리학적 지반 특성 평가 기술 개발	6분과
2017.06	강기석	76	남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차세대 금속-공기 이차전지 신소재 개발	3분과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3조(설립)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기금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 2017.7.26.)

제5조(사업)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6조(임원 등)

-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이사회)

- ①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출연금)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위촉하거나 해임·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결산서의 제출)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7조(검사 등)

-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제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3조(과태료)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 ① 「한국연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회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② 제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항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출연금요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② 제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 ① 법 제12조제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②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국·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⑦ 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결산서의 제출)

-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 부칙 (제28211호, 2017.7.26.)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55>부터 <388>까지 생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둔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분사무소, 국외사무소, 지원시설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재단은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2. 학술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3.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 및 정책개발 지원
 - 5. 학술과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6. 국내외 학술과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간의 교류협력 지원
 - 7. 그 밖에 학술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은 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임원 후보자 추천
 - 2. 이사장 후보자와 계약 사항 등 협의
-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이하 “의결”이라 한다)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 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임명된 사람은 재직기간 중 당연히 재단의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2. 교육부 차관
 - 3. 기획재정부 제2차관
-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④ 감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 ⑤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연임은 임명권자가 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이사장은 임기 중 재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1조의 선임비상임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 ④ 선임비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 함은 중대한 사고 등 사회통념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휴가 또는 출장 등 통상적인 경우에는 직제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부처지는 안건을 의결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배치, 또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12조(복무 의무)

- ①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같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재단의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는다.

1. 제13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 또는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끼쳤다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

제15조(임원의 보수기준)

- ① 이사장과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이사장 및 감사와 직원은 재단 업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감사 및 직원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직제) 재단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8조(사무총장)

- ①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업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되, 사무총장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의 경우 이사장은 사무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2 삭제

제19조(직원의 임면 등) 직원의 임면, 인사, 복무 및 보수와 그 밖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에 의한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이 된다.
- ③ 의장은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 ① 이사회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다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등
 8. 정관의 변경
 9.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10. 임원의 보수
 1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는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및 실적
 2.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법령에서 정한 사항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요구한 사항

제23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 ③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항에 따른 재적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 소집이 어렵거나 의장이 그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에게 해당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하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등)

의장은 이사회 운영규정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재산, 예산·회계 및 기금

제27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출연한 재산
2. 국내의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출연한 동산·부동산 및 지식재산권
3.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출연한 동산·부동산 및 지식재산권
4. 「한국연구재단법」부칙 제5조에 따라 재단이 기본재산으로 포괄 승계한 재산
5. 그 밖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28조(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입·임차·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
 - 3.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재산
- ② 이사장은 매수와 기부채납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제29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은 정부출연금·자체수입금·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요구)

이사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확정)

-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 ③ 확정된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예산에 준한 예산)

-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한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 ① 재단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예산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이사장이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7조(결산서의 작성과 승인)

-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시 마다 「감사원규칙」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이를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3.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회계감사 의견서
 - 4. 이사회 회의록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잉여금의 활용)

- ①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의 이월 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 ② 제1항의 보전에도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자체기금)

- ① 재단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에는 자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 주식과 기타 자산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한 재산
4. 기금의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 ③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④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정은 사업비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장 사업관리

제40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의 지원·관리)

- ① 재단은 학술과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과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PM"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PM제도"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재단은 제항에 따른 PM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PM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1. PM의 임무, 역할 및 책임
 2. PM의 자격요건과 채용방법
 3. PM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PM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PM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PM윤리위원회 운영)

- ① 제39조에 따른 PM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재단에는 PM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PM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PM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PM 평가)

- ① 이사장은 「한국연구재단법」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PM의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6.)
- ② 제항에 따른 PM평가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PM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정관의 변경)

- ① 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 등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자문기구의 운영)

재단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과 사업에 대해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공고)

재단의 설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내 소재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게재한다.

제48조(경영공시)

이사장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제49조(해산)

- ① 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의 폐지 또는 재단의 해산을 규정하는 법률로 해산한다.
- ② 해산 당시의 잉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재단의 해산을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연표

연도	내용	비고
1977년	· 한국과학재단 설립 · 한국과학재단 제1대 최형섭 이사장 취임	
1979년	· 학술진흥법 제정 · 일본학술진흥회(JSPS)와 양해각서 체결	
1980년	· 한국과학재단 제2~3대 이정오 이사장 취임	
1981년	·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2대 조성옥 이사장 취임	
1983년	· 학술연구인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작 · 한국과학재단 청사를 한국기계연구원 내로 이동	
1984년	· 청사 개관,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와 통합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3~4대 박일재 이사장 취임	
1985년	· 독일 훔볼트재단과 양해각서 체결	
1986년	· 한국과학재단 제4대 김성진 이사장 취임 · 독일 연구협회(DFG), 독일학술교류처(DAAD) 교류협력 체결	
1987년	· 자유공모과제 지원사업 시작 · 한국과학재단 제5대 최순달 이사장 취임 · 제1회 한국과학상 시상	
1988년	· 한국과학재단 청사 착공 ·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단식	
1989년	· 한국과학재단 제6대 정근모 이사장 취임 · 제1회 학·연·산 연구교류회 개최 · 학·연·산 교류회 시작 ·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신설	

연도	내용	비고
1990년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5대 정연준 이사장 취임 · 한국과학재단 제7대 강홍렬 사무총장 취임 · 한국과학재단 청사 완공 · 우수연구센터 지원(SRC, ERC) 지원 시작 ·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사업 신설	
1991년	· 한국과학재단 제8대 권원기 사무총장 취임 · 영국문화원과 협력각서 체결 · 중국과학원(CAS), 중국자연과학기금연구회(NSFC) 과학기술 협력각서 체결 · 국제협력공동연구지원사업 시작	
1992년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6대 오덕렬 이사장 취임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마련	
1993년	· 한국과학재단 제9~11대 박진호 사무총장 취임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7대 김상구 이사장 취임 ·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급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시행	
1994년	· 연구비중앙관리제도 시행	
1995년	· 제1회 한국공학상 시상식 개최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8대 김종운 이사장 취임 · 연구과제 평가에서 SCI 실적을 평가	
1996년	·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신설 · 호주연구협의회(ARC)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부설기관 첨단학술정보센터 출범 · 학술지지원사업 시작	
1997년	·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청사 개관(현 서울청사)	
1998년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9대 박석무 이사장 취임 · 인문사회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시작, 학술지평가 시작	

연표

연도	내용	비고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재단 제12~13대 김정덕 이사장 취임 · 국가지정연구실(NRL) 지원사업 시작 · 연구관리전문기(PM)제도 시작 · 두뇌한국(BK)21 사업 시작 · 중국사회과학원(CASS) 학술교류 협정 체결 ·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장학회 통합 · 아리랑 1호 발사 성공 · 협동연구과제 시작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0대 김성재 이사장 취임 · 일본학술진흥회(JSPS), 프랑스과학연구센터(CNRS)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1대 주자문 이사장 취임 ·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사업 시작 ·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시작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시작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사업 시작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출범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제대 유영수 사무총장 취임 · 한국과학재단 제14대 권오갑 이사장 취임 ·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2대 허상만 이사장 취임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구축 · 2005 특정목적 기초연구사업(우주, 원자력 등) 인수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시작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재단 제15대 최석식 이사장 취임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제2대 엄천일 이사장 취임 · 인문한국(HK)지원사업 시작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과학기술부 훈령)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시작 · 한국연구자정보(KRI) 서비스 시작 	

연도	내용	비고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출범 · 한국연구재단 제대 박찬모 이사장 취임 · 한국형 연구로(JRTR) 요르단 수출 ·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시작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세계 7번째 기상 위성 보유국)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제2대 오세정 이사장 취임 ·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 개최 · 한국연구자정보(KRI) 데이터 품질 인증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제3대 이승중 이사장 취임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작 · 노사문화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로호 발사 성공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미래소재 디스커버리사업 시작 ·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 시작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제4대 정민근 이사장 취임 · 대학특성화사업 시작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형 원전 SMART 건설전상세체계사업(PPE)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1억불) ·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교육부, 인사혁신처 선정)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제5대 (현) 조무제 이사장 취임 · 달 탐사 개발 사업 착수 · 2016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 · 가족친화 우수기관(여성가족부 선정) ·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시작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시작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시작 ·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플러스)사업 시작 	

한국연구재단
창립 40주년 기념

40년사 발간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김준동

편찬위원

곽민해, 김기형, 박두영, 안화용, 원재호, 이상대,
이영수, 이재방, 이지근, 정진호, 최연수, 최재동,
김한기 / 간사

감수 및 협조

강병욱, 김석호, 김종환, 김해도, 박대현, 박숙미,
박희웅, 배찬우, 이덕우, 이동훈, 이성중, 이정희,
임종규, 장효정, 조순로, 최동명, 허 정, 허정은

도움 주신 분들

(주)홍커뮤니케이션즈 / 기획·제작
김희정 / 원고 집필
전민제 / 기획·진행
송보영 / 편집 디자인
박경희 / 편집 디자인
박유리 / 편집 디자인
studio KENN / 사진 촬영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 - 2017

역사편

발행일 . 2017년 11월 30일

발행인 . 조무제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1544-6118 / Fax. 042-869-6777

서울청사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Tel. 02-3460-5500 / Fax. 02-3460-5519

www.nrf.re.kr

기 획 . 한국연구재단

제 작/디자인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전재,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